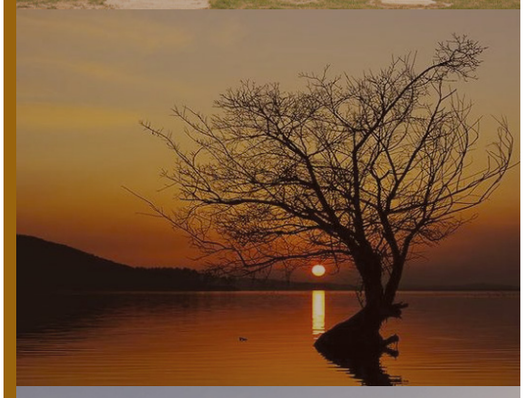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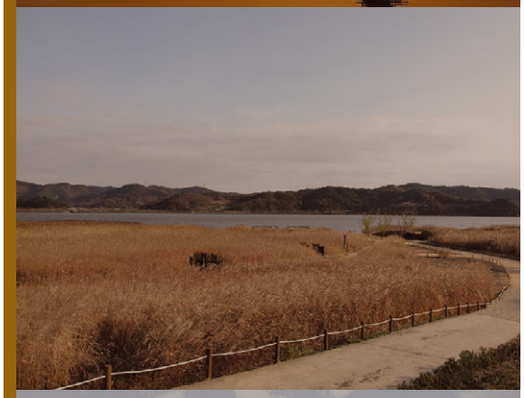
백제 옛길

「조성연구」

최종보고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제 출 문

忠淸南道知事 貴下

이 보고서를 『백제옛길 조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9.

忠南發展硏究院
院長 朴 珍 道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의 수행체계 ·····7

Ⅱ. 백제옛길 찾기와 스토리텔링 발굴 ·····9

1. 관광여건 분석 ·····11

1) 입지여건 ·····11

2) 관광자원 분포 현황 ·····13

3) 관광객 현황 ·····21

4)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백제유적 현황 ·····24

2. 백제역사와 옛길 찾기 ·····26

1) 백제의 역사(왕도) ·····26

2) 백제의 성곽현황 ·····29

3) 백제의 옛길 변천 ·····38

3. 백제옛길 관련 스토리텔링 ·····55

1) 백제 관련 스토리텔링의 소재 설화 ·····55

2) 백제 관련 스토리텔링의 활용 사례 ·····63

Ⅲ. 법규와 관련계획 ·····67

1.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69

1) 관련 법규검토 ·····69
2) 관련계획 검토 ·····75
3) 충남 길 사업 현황 ·····81
2. 국내·외 사례조사 ·····92
1) 국외사례 ·····92
2) 국내 사례 ·····96
3) 사례의 시사점 ·····103
3. 길 여행 동향분석 ·····105
1) 관광트렌드와 길 여행 동향 ·····105
2) 관광객 수요 분석 ·····109
3) 전문가 인터뷰 ·····117
4. 도보이용객 수요예측 ·····120
1) 분석의 전제 ·····120
2) 관광수요 예측 ·····122
3) 충청남도 관광수요 예측 ·····124
4)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예측 ·····127
5.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30

Ⅳ. 백제옛길 조성 기본구상 ·····135
1. 비전과 목표 ·····137
1) 비전 ·····137
2) 목표 및 추진방향 ·····139
3) 기본구상 ·····141
2. 백제옛길의 노선 선정 ·····144
1) 노선선정 방법 ·····144
2) 노선선정의 요인 ·····145
3) 노선선정 요인별 분석 ·····149
4) 적정노선의 도출 ·····155
3. 백제옛길의 루트 구상 ·····156
1) 전체적인 백제 옛길의 순환루트 ·····156

2) 루트 구상 ·····157

Ⅴ. 백제도보여행길 조성방안 ·····171

1. 백제 옛길의 조성 원칙 ·····173

1) 옛길조성의 원칙 ·····173

2) 옛길 정비(개발)의 원칙 ·····175

3) 백제 옛길의 조성 원칙 ·····177

2. 백제 도보여행길 조성 방안 ·····178

1) 기본방향 ·····178

2) 각 도보여행길 거점과 대표관광자원 ·····180

3. 도보여행길 조성계획 ·····181

1) 공주시 도보여행길 ·····181

2) 부여군 도보여행길 ·····193

3) 논산시 도보여행길 ·····206

4) 서천군 도보여행길 ·····211

5) 익산시 도보여행길 ·····219

6) 청양군 도보여행길 ·····230

7) 비단강 자전거 여행길 ·····235

8) 비단강 뱃길 여행 ·····244

4.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백제옛길 관광루트 개발(안) ·····249

1) 기본방향 ·····249

2) 거점과 대표관광자원 ·····250

3) 추진사업 ·····251

Ⅵ. 관리운영 방안 ·····253

1. 관리운영방안 ·····255

1) 관리운영 방향 ·····255

2) 관리운영체계 구성 ·····256

3) 운영조직의 자립화 ·····259

4) 근거법 제정 및 협의체 구성 ·····259

5) 관리 · 운영계획 수립 ·····262
2. 가이드라인 설정 ·····263
1) 백제옛길 사업 추진 단계별 가이드라인 ·····263
2)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265
3.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271
1) 개념 ·····271
2) 관리운영체계 ·····273
3) 관리운영방법 ·····276
4. 백제옛길 네트워크 방안 ·····277
1) 도보길 관련 정책과 연계 및 전략 코스 개발 ·····277
2) 백제옛길 특성화와 이용의 편리성 제고 ·····278
3) 백제옛길 네트워크 강화 ·····280
4) 홍보 · 마케팅 방안 ·····281
5) 백제옛길 이용 프로그램 구성 ·····288

Ⅶ. 집행계획 및 사업 파급효과 ·····291
1. 투자계획 ·····293
1) 기본전제 ·····293
2) 부문별 주요사업 투자비 ·····293
3) 연도별 · 재원별 투자계획 ·····299
4)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백제옛길 사업비용 ·····302
2. 재원조달방안 ·····303
1) 기본방향 ·····303
2) 공공부문 투자재원 조달 ·····304
3) 민간부문 투자재원 조달 ·····305
3. 투자파급효과 ·····307
1) 투자파급효과 측정의 전제 ·····307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모형 ·····307
3) 관광객 소비지출 구조 변화 ·····309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모형 ·····313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317
4. 사회문화와 정책적 파급효과 ·····322
1)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322
2) 정책적 파급효과 ·····322

부 록 ·····323

1. 설문지 ·····325
2. 지역별 역사문화자원 ·····327
1) 공주시 자원 ·····327
2) 논산시 자원 ·····330
3) 부여군 자원 ·····333
4) 서천군 자원 ·····339
5) 청양군 자원 ·····341
6) 세종시 자원 ·····343
7) 익산시 자원 ·····344
3. 루트별 역사문화자원 ·····346
1) 1루트 역사·문화자원 ·····346
2) 2루트 역사·문화자원 ·····349
3) 3루트 역사·문화자원 ·····352
4) 4루트 역사·문화자원 ·····354
5) 5루트 역사·문화자원 ·····357

표 목 차

〈표 Ⅱ-1〉 대상지역 도시세력권 ·····12
〈표 Ⅱ-2〉 지정문화재 현황(2010년 기준) ·····13
〈표 Ⅱ-3〉 자연·생태관광자원 현황 ·····15
〈표 Ⅱ-4〉 박물관 현황(2010년 기준) ·····17
〈표 Ⅱ-5〉 지역별 축제현황 ·····19
〈표 Ⅱ-6〉 시·군별 관광객 현황 ·····21
〈표 Ⅱ-7〉 관광자원별 관광객 수 ·····23
〈표 Ⅱ-8〉 백제시대 5방 ·····36
〈표 Ⅱ-9〉 백제 37군 ·····37
〈표 Ⅱ-10〉 제6로의 주요지선 ·····42

〈표 Ⅲ-1〉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조성을 위한 자원구분내용 ·····75
〈표 Ⅲ-2〉 국가생태문화보행로의 구성 ·····77
〈표 Ⅲ-3〉 충남연가 개요 ·····81
〈표 Ⅲ-4〉 솔바람길 사업 현황(2011년) ·····84
〈표 Ⅲ-5〉 주요공간별 체험 프로그램 ·····90
〈표 Ⅲ-6〉 시코쿠 순례길 ·····92
〈표 Ⅲ-7〉 산티아고 순례길 개요 ·····94
〈표 Ⅲ-8〉 제주 올레길 개요 ·····96
〈표 Ⅲ-9〉 지리산 둘레길 개요 ·····98
〈표 Ⅲ-10〉 설문조사 항목 ·····109
〈표 Ⅲ-11〉 도보여행시 정보획득 수단(연령별) ·····111
〈표 Ⅲ-12〉 연령대별 옛길 여행기간 ·····112
〈표 Ⅲ-13〉 연령대별 기대구간 ·····112
〈표 Ⅲ-14〉 도보여행 동반형태 ·····113
〈표 Ⅲ-15〉 지역내 교통수단 ·····114
〈표 Ⅲ-16〉 조성시 필요시설 ·····115

〈표 Ⅲ-17〉 전국 관광총량 ·····123
〈표 Ⅲ-18〉 내국인 관광수요 ·····124
〈표 Ⅲ-19〉 내국인 관광수요 예측 ·····124
〈표 Ⅲ-20〉 외래 관광수요 예측 ·····125
〈표 Ⅲ-21〉 충청남도 관광총량 ·····125
〈표 Ⅲ-22〉 계획구역 관광객 수 ·····126
〈표 Ⅲ-23〉 계획구역 관광객 점유비율 ·····126
〈표 Ⅲ-24〉 계획구역 관광객 수 예측 ·····127
〈표 Ⅲ-25〉 계획구역 시·군 참여의사율 ·····128
〈표 Ⅲ-26〉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추정 ·····129

〈표 Ⅳ-1〉 노선선정의 요인 ·····148
〈표 Ⅳ-2〉 1루트 거점 및 자원 ·····158
〈표 Ⅳ-3〉 2루트 거점 및 자원 ·····160
〈표 Ⅳ-4〉 3루트 거점 및 자원 ·····162
〈표 Ⅳ-5〉 4루트 거점 및 자원 ·····164
〈표 Ⅳ-6〉 5루트 거점 및 자원 ·····166
〈표 Ⅳ-7〉 지원노선(1) 거점 및 자원 ·····168
〈표 Ⅳ-8〉 지원노선(2) 거점 및 자원 ·····170

〈표 Ⅴ-1〉 국내외 사례에서의 발굴원칙 ·····175
〈표 Ⅴ-2〉 국내외 사례에서의 정비원칙 ·····176
〈표 Ⅴ-3〉 각 코스별 주요거점 및 자원 ·····180
〈표 Ⅴ-4〉 웅진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181
〈표 Ⅴ-5〉 사비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193
〈표 Ⅴ-6〉 논산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206
〈표 Ⅴ-7〉 서천군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211
〈표 Ⅴ-8〉 익산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219
〈표 Ⅴ-9〉 청양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230
〈표 Ⅴ-10〉 각 지역별 주요거점 및 자원 ·····250

〈표 Ⅵ-1〉 법인 형태별 장단점 ·····257
〈표 Ⅵ-2〉 설립주체별 장단점 ·····258
〈표 Ⅵ-3〉 백제옛길 방문 수칙 예시 ·····260
〈표 Ⅵ-4〉 역사문화자원 관리 진화체계 ·····272
〈표 Ⅵ-5〉 관리부문 및 세부내용 ·····274
〈표 Ⅵ-6〉 시설물 관리방안 ·····275
〈표 Ⅵ-7〉 백제옛길 AIDA 모델 ·····282
〈표 Ⅵ-8〉 백제옛길 단계별 홍보/촉진 전략 ·····283
〈표 Ⅵ-9〉 백제옛길 적용 가능 매체별 홍보방안 ·····283
〈표 Ⅵ-10〉 홍보 적용 가능 경로전략(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 전략) ·····284
〈표 Ⅵ-11〉 백제옛길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방안 ·····286

〈표 Ⅶ-1〉 자연공원형 쉼터 조성 사업비 내역 ·····294
〈표 Ⅶ-2〉 휴식형 쉼터 사업비 내역 ·····295
〈표 Ⅶ-3〉 이동형쉼터 사업비 내역 ·····295
〈표 Ⅶ-4〉 시설조성 및 투자비내역 ·····298
〈표 Ⅶ-5〉 연도별 투자계획 ·····299
〈표 Ⅶ-6〉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내역 ·····300
〈표 Ⅶ-7〉 재원별 투자계획 세부내역 ·····301
〈표 Ⅶ-8〉 투자계획 세부내역 ·····302
〈표 Ⅶ-9〉 부문별 투자재원 조달방안 ·····303
〈표 Ⅶ-10〉 관광지 개발관련 개발부담금 부과가능 사업 ·····304
〈표 Ⅶ-11〉 민자유치 기본전략 ·····305
〈표 Ⅶ-12〉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추정 ·····309
〈표 Ⅶ-13〉 1인 평균 여행 지출액 및 여행일수 ·····310
〈표 Ⅶ-14〉 여행객 항목별 여행 지출액 구성비 ·····310
〈표 Ⅶ-15〉 관광객 소비지출액 ·····311
〈표 Ⅶ-16〉 여행항목의 산업구분 및 소비지출 금액 ·····312
〈표 Ⅶ-17〉 백제옛길 조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318
〈표 Ⅶ-18〉 지역별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319
〈표 Ⅶ-19〉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 ·····320
〈표 Ⅶ-20〉 지역별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321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의 공간적 범위 ·····5
[그림 Ⅰ-2] 연구의 방법 ·····6

[그림 Ⅱ-1] 광역 교통망도 ·····12
[그림 Ⅱ-2] 백제유적 분포도 ·····14
[그림 Ⅱ-3] 자연생태관광자원 분포도 ·····16
[그림 Ⅱ-4] 전시자원 분포도 ·····18
[그림 Ⅱ-5] 체험마을 분포도 ·····20
[그림 Ⅱ-6] 연도별 관광객 추이 ·····22
[그림 Ⅱ-7] 공주시 역사유적지구 ·····24
[그림 Ⅱ-8] 부여군 역사유적지구 ·····24
[그림 Ⅱ-9] 익산시 역사유적지구 ·····25
[그림 Ⅱ-10] 공산성 전경 ·····30
[그림 Ⅱ-11] 부소산성 전경 ·····32
[그림 Ⅱ-12] 사비시대 산성 분포 ·····34
[그림 Ⅱ-13] 대상지역 조선시대 금강수계 고지도 ·····45
[그림 Ⅱ-14] 대동여지도와 동여도로 본 계획구역내 도보길 ·····45
[그림 Ⅱ-15] 일제강점기시대 계획구역 내 신작로길 ·····46
[그림 Ⅱ-16] 대상지역 포구 및 나루 ·····49
[그림 Ⅱ-17] 금강의 소금길 ·····51
[그림 Ⅱ-18] 6~7세기 직항로 ·····53
[그림 Ⅱ-19] 백제의 바닷길과 해양실크로드 ·····54
[그림 Ⅱ-20] 스토리텔링 사례 ·····64
[그림 Ⅱ-21] 백제만화콘텐츠 ‘무령’ ·····66
[그림 Ⅱ-22] 동화로 엮은 우리고장 익산 ·····66

[그림 Ⅲ-1] 고도보존지구 ·····70
[그림 Ⅲ-2]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노선 계획(안) ·····76
[그림 Ⅲ-3] 찾고 싶은 명품 녹색길 ·····78
[그림 Ⅲ-4] 산림문화체험숲길 ·····79
[그림 Ⅲ-5] 비단물길 금강이야기 ·····80
[그림 Ⅲ-6] 1400년 전 백제길 ·····82
[그림 Ⅲ-7] 고성가도 ·····83
[그림 Ⅲ-8] 마곡사 솔바람길 ·····85
[그림 Ⅲ-9] 논산 솔바람길 ·····86
[그림 Ⅲ-10] 부여 성흥산성 솔바람길 ·····87
[그림 Ⅲ-11] 서천 문헌서원 천년 솔바람길 ·····87
[그림 Ⅲ-12] 곰나루 명승길 ·····88
[그림 Ⅲ-13] 부여 사비길 ·····89
[그림 Ⅲ-14] 서천 생태보행로 ·····90
[그림 Ⅲ-15] 익산 역사탐방의 숨결, 둘레길 ·····91
[그림 Ⅲ-16] 시코쿠 순례길 노선 ·····93
[그림 Ⅲ-17] 카미노산티아고의 루트 ·····95
[그림 Ⅲ-18] 제주 올레길 ·····97
[그림 Ⅲ-19] 지리산 전체지도 ·····99
[그림 Ⅲ-20] 여주 여강 백리길 ·····100
[그림 Ⅲ-21] 죽령옛길 ·····101
[그림 Ⅲ-22]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102
[그림 Ⅲ-23] 응답자 성별구성 ·····110
[그림 Ⅲ-24] 응답자 연령별 구성 ·····110
[그림 Ⅲ-25] 주요 고려사항 ·····110
[그림 Ⅲ-26] 정보획득 ·····110
[그림 Ⅲ-27] 방문의향 ·····111
[그림 Ⅲ-28] 코스 조성 시 소요시간 ·····111
[그림 Ⅲ-29] 관광객 수요예측 분석의 일반적 방법 ·····120
[그림 Ⅲ-30] 도보여행 수요예측 분석의 일반적 방법 ·····121

[그림 Ⅳ-1] 백제 옛길의 이동 유형 ·····138
[그림 Ⅳ-2] 백제 옛길의 비전 ·····139
[그림 Ⅳ-3] 적합노선 도출 과정 ·····144
[그림 Ⅳ-4] 사비시대 산성 분석도 ·····149
[그림 Ⅳ-5] 지역별 역사문화 관광자원 분포도 ·····150
[그림 Ⅳ-6] 백제역사유적지구 ·····151
[그림 Ⅳ-7] 지역별 길 사업 ·····152
[그림 Ⅳ-8] 백제 내륙 수로와 소금길 ·····153
[그림 Ⅳ-9]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의 계획구역 내 옛길 ·····153
[그림 Ⅳ-10] 신작로의 계획구역 내 옛길 ·····154
[그림 Ⅳ-11] 조선시대지도와 신작로 중첩 지도 ·····154
[그림 Ⅳ-12] 조선시대지도와 주변 자원 분포도 ·····155
[그림 Ⅳ-13] 자원분포 및 루트(안) 제시 ·····155
[그림 Ⅳ-14] 백제 옛길 5개 전체 순환루트 지도 ·····156
[그림 Ⅳ-15] 1루트 자원분포도 ·····157
[그림 Ⅳ-16] 2루트 자원분포도 ·····159
[그림 Ⅳ-17] 3루트 자원분포도 ·····161
[그림 Ⅳ-18] 4루트 자원분포도 ·····163
[그림 Ⅳ-19] 5루트 자원분포도 ·····165
[그림 Ⅳ-20] 지원노선(1) 자원분포도 ·····167
[그림 Ⅳ-21] 지원노선(2) 자원분포도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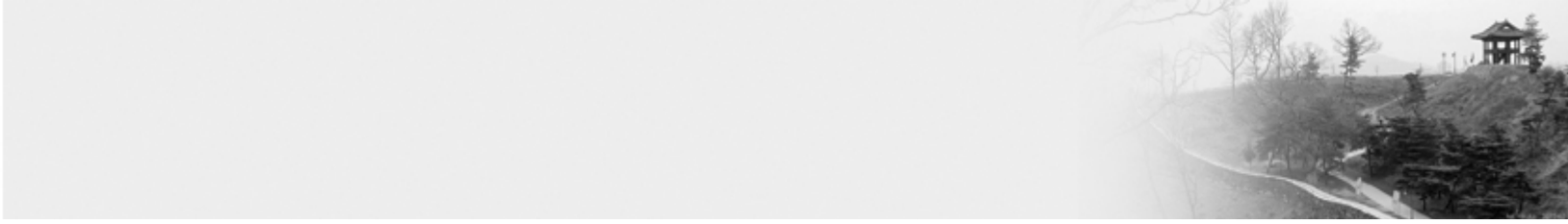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그림 Ⅴ-1] 루트별 연계 코스 ·····179
[그림 Ⅴ-2] 내륙첨단산업권 백제옛길 루트 개발(안) ·····249

[그림 Ⅵ-1] 보행로 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270
[그림 Ⅵ-2] 백제 옛길 관리체계 수립 및 과정 ·····276
[그림 Ⅵ-3] 오타루길 안내인 사례 ·····278
[그림 Ⅵ-4] 휴대용 관광게임-JTB 닌텐도 ·····285
[그림 Ⅵ-5] 토로 캐릭터 상품 사례 ·····287

[그림 Ⅶ-1] 파급효과분석의 진행과정 ·····308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수행체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걷기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의한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대응

○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광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걷기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기존 소비·관람형 대중관광에서 역사문화·자연생태 체험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상정복형 산행문화의 개선과 도보여행을 통한 느림과 성찰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음

○ 도보여행은 길을 따라 종교·문화·역사자원이나 자연·생태자원 등 매력물을 체험하고 감상하는 것으로 최근의 공정여행을 통한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여행으로 추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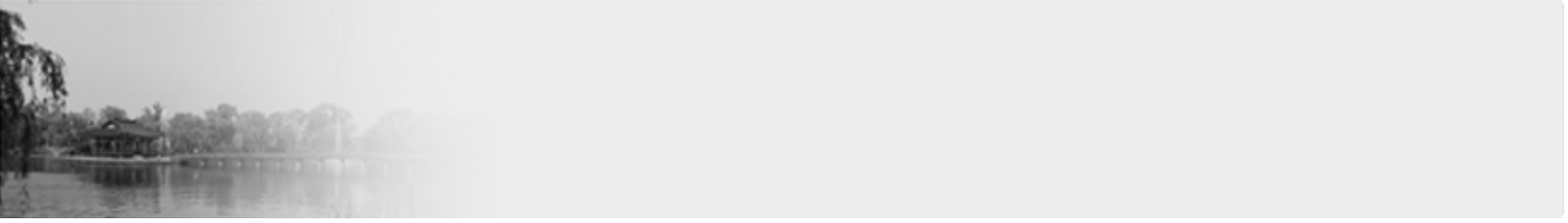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길 여행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

○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건강과 삶에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험형 문화관광 및 생태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제주 올레길의 성공적인 개발 이후 지역의 생태 및 관광 자원을 연계한 도보관광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길은 단순히 문물교류의 통로와 일상생활의 공간이 아닌 걷기를 통해 생활문화와 정신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길 사업은 생태문화보행로 조성사업 (환경부, 2007), 국가등산로 조성사업 (산림청, 2007), 경관도로 조성사업 (국토해양부, 2008),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09), 낭만가도 조성계획 (강원도, 2009) 등이 있음

○ 도보여행은 길과 결합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관광자원으로 제공되며,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음



▌백제역사문화유적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비한 백제 옛길의 관광자원화 필요

○ 백제문화권은 세계사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으로 최근 백제역사문화유적의 유네스코 등록과 연계하여 공주-논산-부여-서천·익산을 연결하는 백제옛길의 조성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백제옛길 조성을 통하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매력적인 관광거점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스토리가 있는 옛길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로 백제문화유적과 관광지 중심의 관광객 방문형태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을 찾아가는 옛길 도보여행상품의 개발 필요

2) 연구의 목적

○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백제역사문화유적지구와 연계하여 공주-논산-부여-서천·익산(청양, 세종시)을 연결하는 백제옛길을 구축

○ 백제옛길 조성은 백제문화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국내외 도보여행객을 유인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갖는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찬란한 백제역사문화를 홍보하고 탐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중심의 여행길 개발
- 둘째, 새로운 길 개발이 아닌 기존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체험 및 볼거리 제공
- 셋째, 지역문화자원의 역사문화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 유인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유도
- 넷째, 백제문화권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 및 문화재를 통한 역사 재인식 제고와 교육여행프로그램 발굴·제공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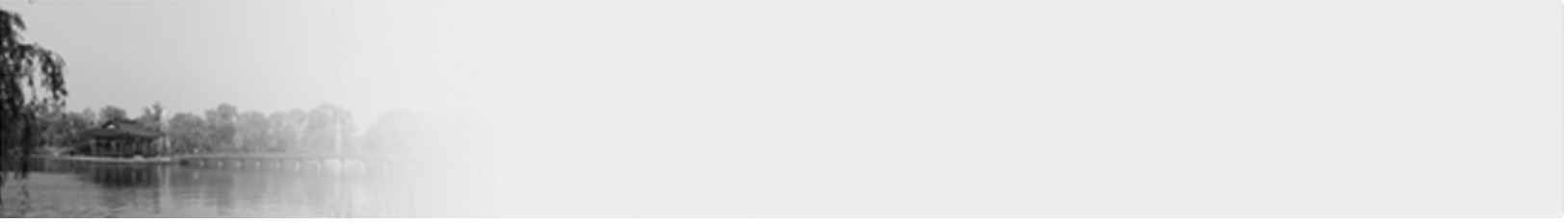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기준년도 : 2010년(자료 활용 기준년도)

○ 계획기간 : 2012년 ~ 2016년(5년간) *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기간임

▌공간적 범위

○ 5개 시군 :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세종시), 전라북도 익산시

[그림 Ⅰ-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백제문화 문헌연구 및 자원현황 조사 분석

○ 관련연구 및 사례검토

○ 백제옛길 구축 기본구상

○ 백제옛길 관리구상 및 운영방안

○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사업추진계획 집행계획 및 사업파급효과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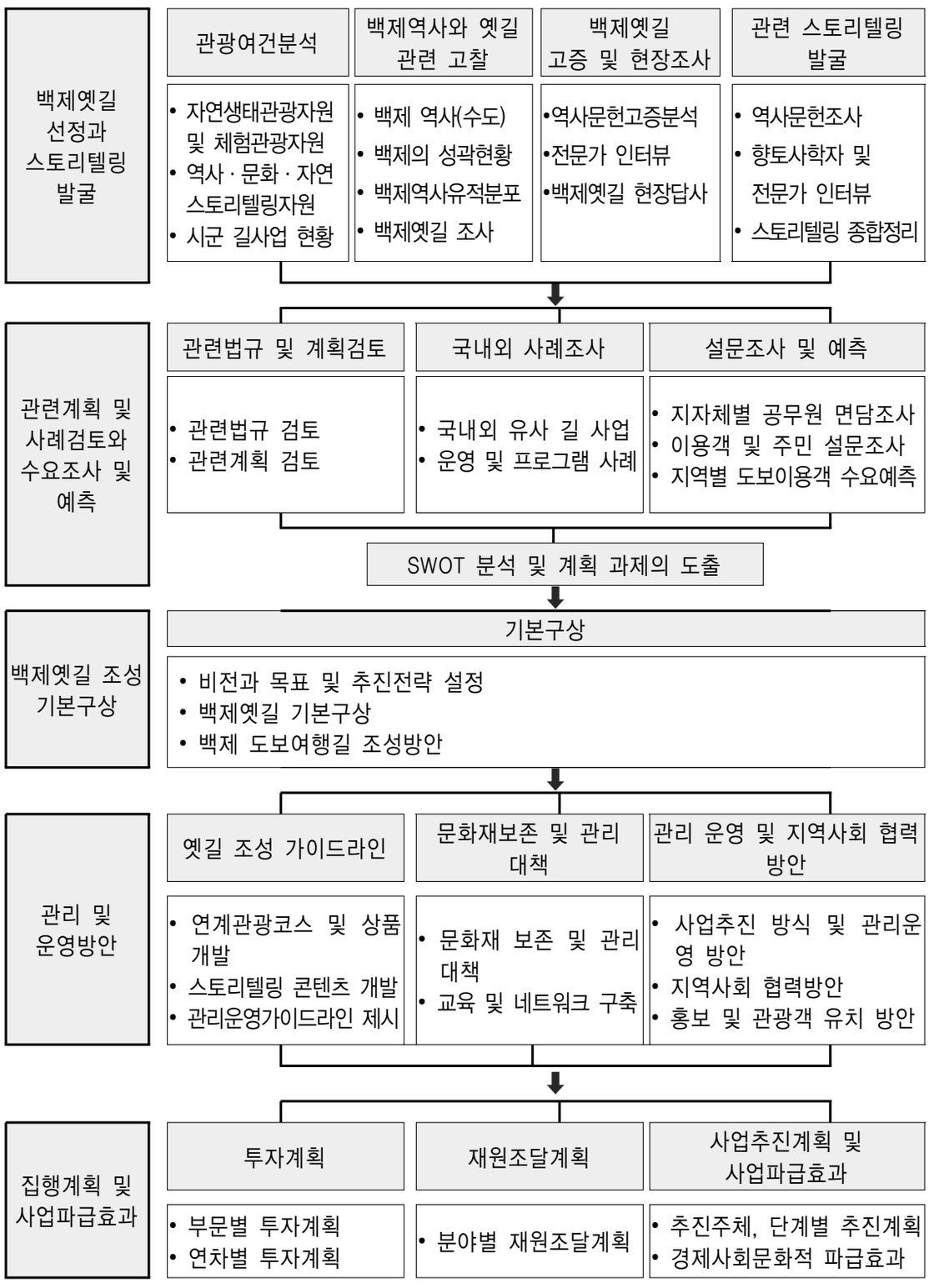
▌'백제 옛길' 관련 학자 · 전문가 등 협력 연구 수행

○ 전문가 집단의 과제참여를 통하여 연구내용의 역사적 고증과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선진적인 사업을 발굴 · 도입할 수 있게 함

○ 길 관련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인터뷰, 관광객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창의적 · 실용적 연구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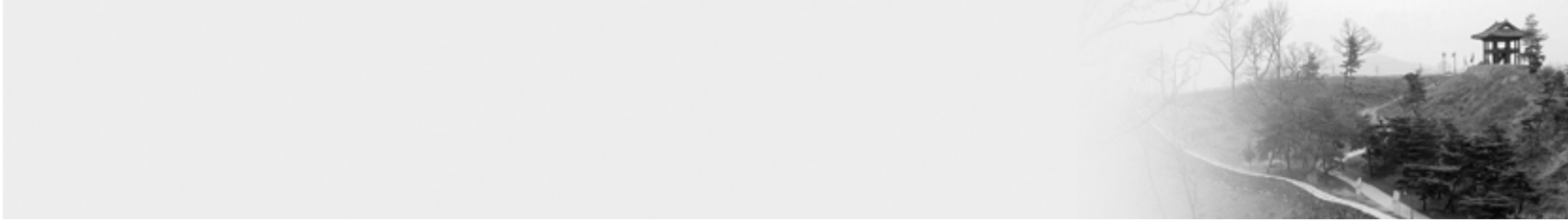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그림 Ⅰ-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수행체계


백제옛길 선정과 스토리텔링 발굴
관광여건분석
백제역사와 옛길 관련 고찰
백제옛길 고증 및 현장조사
관련 스토리텔링 발굴
• 자연생태관광자원 및 체험관광자원
• 역사 · 문화 · 자연 스토리텔링자원
• 시군 길사업 현황
• 백제 역사(수도)
• 백제의 성곽현황
• 백제역사유적분포
• 백제옛길 조사
•역사문헌고증분석
•전문가 인터뷰
•백제옛길 현장답사
• 역사문헌조사
• 향토사학자 및 전문가 인터뷰
• 스토리텔링 종합정리
관련계획 및 사례검토와 수요조사 및 예측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예측
• 관련법규 검토
• 관련계획 검토
• 국내외 유사 길 사업
• 운영 및 프로그램 사례
• 지자체별 공무원 면담조사
• 이용객 및 주민 설문조사
• 지역별 도보이용객 수요예측
SWOT 분석 및 계획 과제의 도출
백제옛길 조성 기본구상
기본구상
•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 백제옛길 기본구상
• 백제 도보여행길 조성방안
관리 및 운영방안
옛길 조성 가이드라인
문화재보존 및 관리 대책
관리 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
• 연계관광코스 및 상품 개발
•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 관리운영가이드라인 제시
•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대책
•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 사업추진 방식 및 관리운영 방안
• 지역사회 협력방안
•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집행계획 및 사업파급효과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파급효과
• 부문별 투자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 분야별 재원조달계획
• 추진주체, 단계별 추진계획
•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

Ⅱ. 백제옛길 찾기와 스토리텔링 발굴

1. 관광여건 분석
2. 백제역사와 옛길 찾기
3. 백제옛길 관련 스토리텔링



1. 관광여건 분석

1) 입지여건

▌금강중심의 백제문화권 문화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내포

○ 백제 옛길 연구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은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금강을 축으로 북쪽으로는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이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익산시를 포함하고 있음

- 201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연기군이 세종시로 전환됨에 따라 충남 이외의 지역으로 포함되었음

○ 백제문화권은 금강의 중하류지역부터 하구에 이르는 구간에 모두 인접하고 있으며 공주시, 부여군, 세종시는 금강이 도심을 통과하며 논산시, 서천군, 전라북도 익산시는 강이 행정구역의 경계에 인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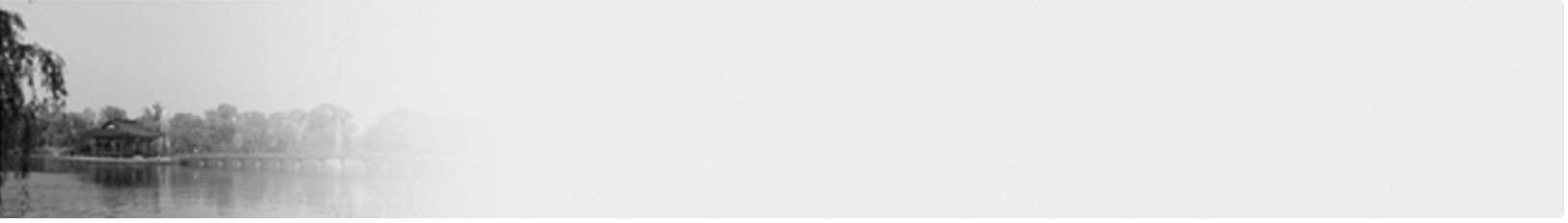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백제문화권은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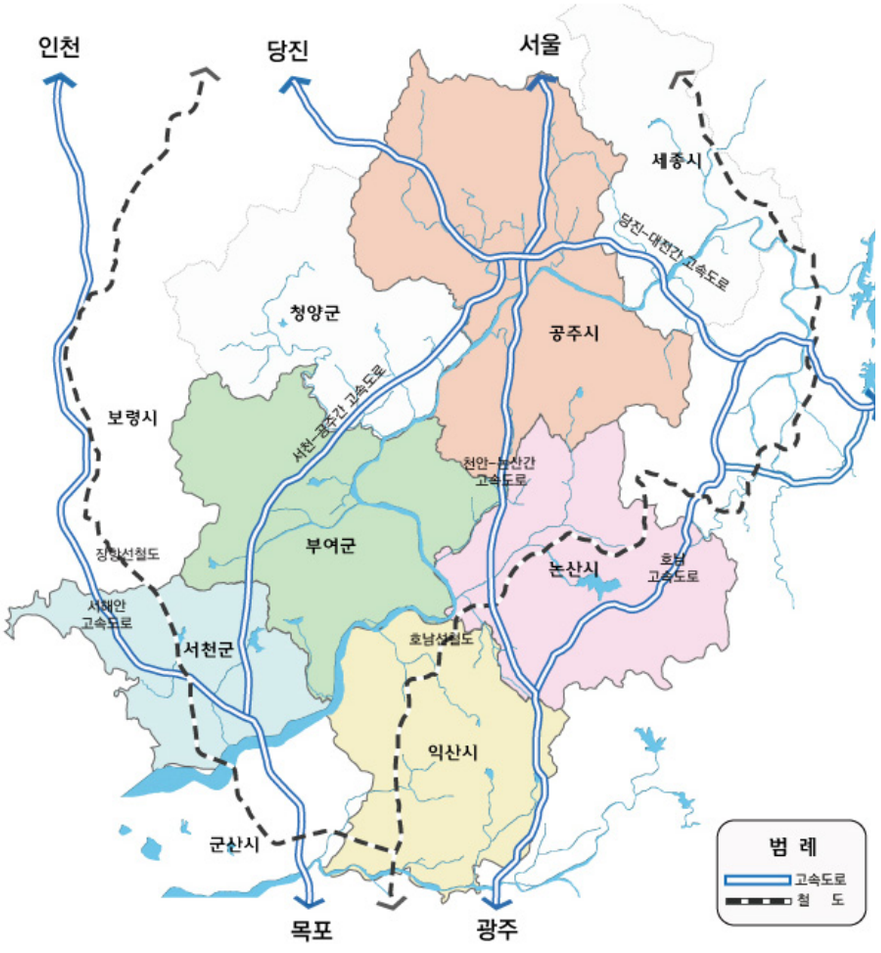
▌국토의 중심, 전국 주요 도시간 지리적 접근이 유리

○ 금강권 시·군 지역은 국토의 서쪽 중심부에 위치하여 남북측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음

○ 또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논산-전주간 고속도로 등 금강권 지역 및 인접 배후세력권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7월에 출범한 세종시가 대상지역의 동북측에 위치하고 2013년에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내포시대의 개막에 따라 충청남도의 남부 거점지역으로서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그림 Ⅱ-1] 광역 교통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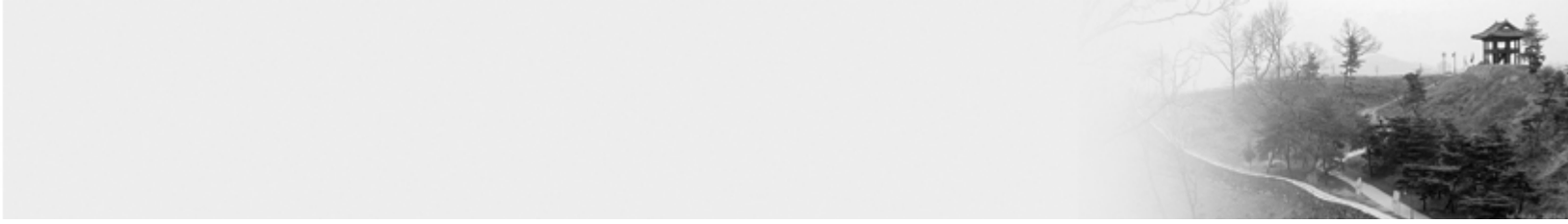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대상지역의 도시세력권은 경제권, 사회·문화권, 환경권, 관광권 등 4개 세력권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충남지역의 직접영향권은 대전이며 전북지역의 주 영향권은 전주와 군산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영향권은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중소도시로 나타남

○ 관광권은 백제문화의 특성상 전국과 일본이 직접 영향권으로 나타남

〈표 Ⅱ-1〉 대상지역 도시세력권

세력권	경제권	사회·문화권	환경권	관광권
직접영향권	대전, 전주	대전, 전주, 군산	대전, 천안, 군산	전국, 일본
간접영향권	천안, 아산, 예산, 보령, 군산 등 주변지역			



2) 관광자원 분포 현황

(1) 역사문화자원

○ 대상지역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국보, 보물 등 다양한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를 발전·계승시켜 왔음

○ 역사문화자원은 대상지역의 문화적 특징, 역사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며 이를 백제 옛길의 기본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유

○ 역사문화자원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으로 지역사람들의 문화유산 인식 수준을 반영하며, 지역문화재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을 증대시켜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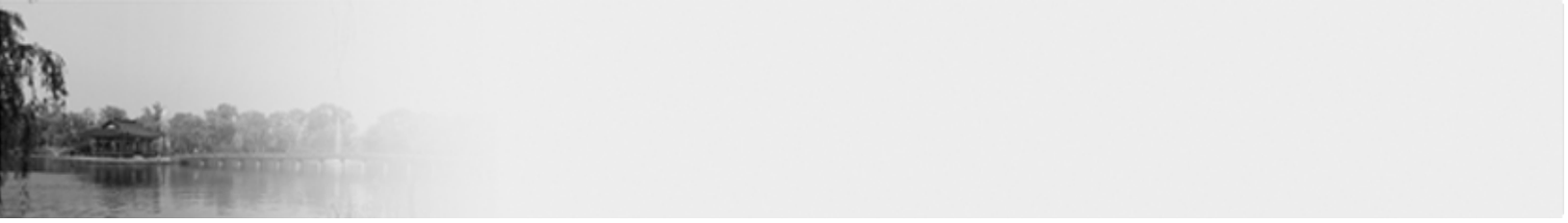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대상 지역에 포함된 5개 시군은 다양성과 고유성을 겸비한 뛰어난 건축양식과 당시의 문화상을 대변해주는 역사문화자원이 산재되어 있음

○ 각 지역별로 많은 지정문화재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여군으로 국가지정문화재 50점, 지방지정문화재 56점이 전역에 분포함

〈표 Ⅱ-2〉 지정문화재 현황(2010년 기준)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중요무형문화재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공주	43	16	18	9	–	–	–	61	36	19	2	4	34	3
논산	13	–	8	2	1	2		44	24	15	4	1	34	8
부여	50	4	17	22	1	5	1	56	25	26		5	41	3
서천	8	–	2	2	1	1	2	15	1	8	0	6	16	0
(청양)	1	–	1	–	–	–	–	17	6	4	4	3	9	–
(세종)	3	–	2	–	1	–	–	21	5	8	–	1	7	–
익산	18	3	5	7	1	0	2	37	17	15	1	4	14	8

자료 : 각 시·군별통계연보(2011년 각시·군)



○ 국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공주시로 총 16점의 국보가 있고 대부분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문화재이며, 대다수는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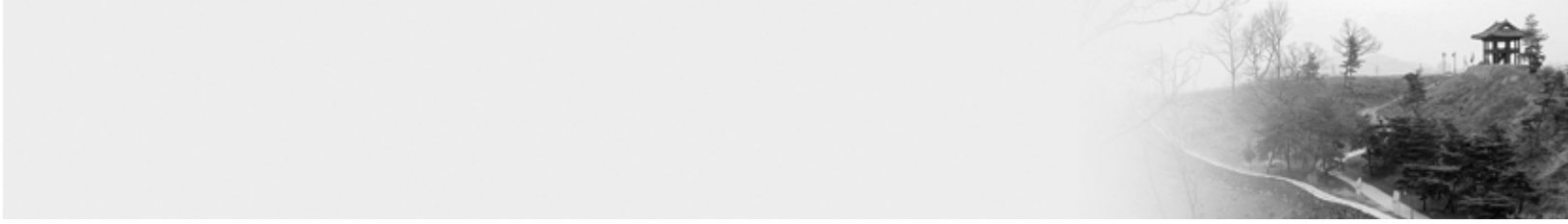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국보가 있는 지역은 백제문화권의 거점인 공주, 부여, 익산지역으로 대부분 백제시대 도읍지였거나 천도가 계획되었던 지역임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유적의 집중분포

○ 백제는 금강을 활용한 활발한 대외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토착문화에 접목시켜 고유문화를 창조하였으며, 웅진과 사비시대 중요한 길목 역할을 하였던 금강은 백제문화 번성의 중심지였음

○ 따라서 금강일대는 백제시대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백제시대의 중요한 관련 유적과 문화재는 금강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그림 Ⅱ-2] 백제유적 분포도



(2) 자연 · 생태관광자원

▌계룡산, 금강과 접한 다양한 생태관광자원 분포

○ 백제문화권은 서북쪽에 연결된 차령산맥과 공주시, 논산시에 접해있는 계룡산과 시·군에 접해있는 금강 등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음

○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세종시의 금강수목원, 금강자연휴양림 등 금강 주변에 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음

- 계룡산은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시 ·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는 높이 845m의 산으로 공주 · 논산 · 계룡을 잇는 문화 관광지로서, 유성온천과도 연결되는 대전광역시 외곽의 자연공원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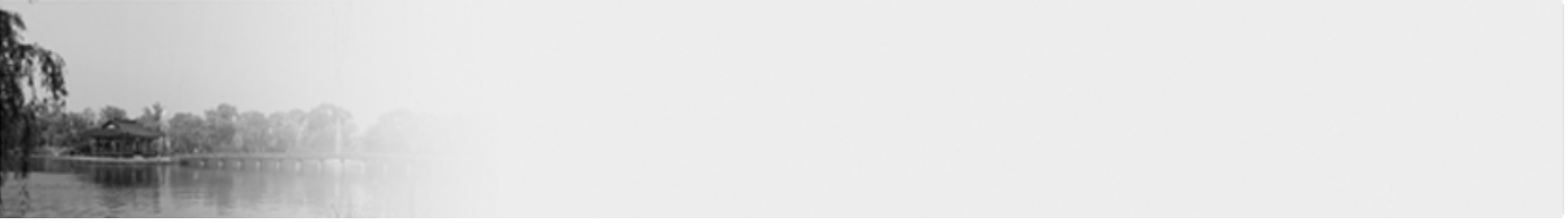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표 Ⅱ-3〉 자연·생태관광자원 현황

구분	시·군	내용
국립공원	공주시, 논산시	계룡산
도립공원	논산시	대둔산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서천군	희리산 자연휴양림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세종시)	금강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서천군	장항송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식물원	공주시	공주금강수목원, 이안숲속
온천	공주시	계룡산온천, 마곡온천, 금강온천
해수욕장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자료: 충청남도, 제4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2007); 전라북도,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07)

○ 시·군별로는 공주시에 계룡산, 온천 등 다양한 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세종시로 편입된 금강수목원, 금강자연휴양림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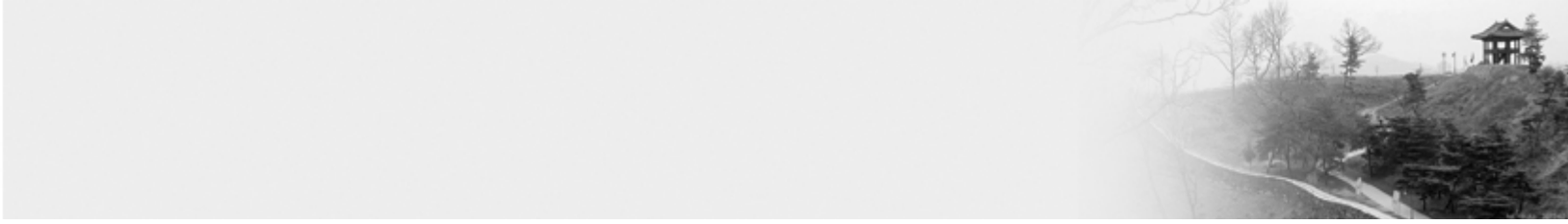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청양군은 인공호수인 천장호의 조성을 통하여 칠갑산 자연휴양림-도립공원을 잇는 청정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 서천군은 바다와 인접하여 있어 해수욕장, 해변송림 등이 발달해 있으며, 살아있는 생물종의 보전·증식을 통해 생태자원이 확대되고 있음

○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자연·생태관광자원은 급증하는 휴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제옛길 도보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그림 Ⅱ-3] 자연생태관광자원 분포도



(3) 전시문화자원

▌백제를 주제로 한 다수의 박물관 분포

○ 대상지역에서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박물관의 건립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음

- 박물관은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 맞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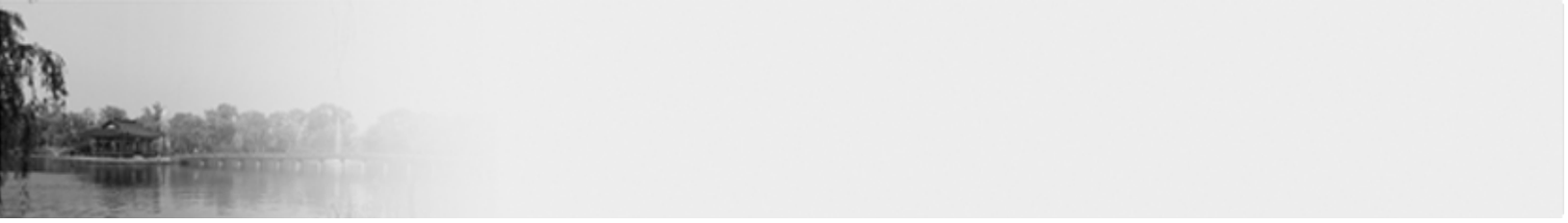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대상지역 시·군에 분포하는 박물관은 총 23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백제와 관련된 박물관은 국립공주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을 비롯하여 11개의 박물관이 분포하고 있음

○ 특히, 부여군에는 총 4개의 박물관이 분포하는데 이 모두가 백제시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표 Ⅱ-4〉 박물관 현황(2010년 기준)

구분			시설현황(㎡)	소장자료(점)	연 관람 인원(명)
공주시	국립공주박물관	국립	12,103	토도, 옥석, 속 등(16,879)	551,922
	석장리박물관	국립	2,050	석기, 토기, 화석 등(10,204)	121,115
	송선리고분군모형관	국립	2,220	복제품(2,906)	401,808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공립	2,103	민속생활자료 등(55,464)	59,836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사립	12,202	동식물류, 광물류 등(278,234)	146,745
	공주민속극박물관	사립	990	–	3,274
	웅진초등교육박물관	사립	806	교과서, 참고서 등(12,000)	–
	공주교육대학교박물관	대학	611	자기 및 토기 등(4,587)	5,000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공립	2,806	무기, 민속자료(606)	88,426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국립	9,735	금석, 옥석 등(33,372)	428,399
	능산리고분군모형전시관	국립	977	기타(6)	136,805
	백제역사문화관	국립	8,795	실물모형 및 복제품(158)	256,675
	정림사지 박물관	공립	3,148	금속, 옥석, 토도 등(583)	197,564
(세종시)	충청남도산림박물관	국립	3,173	모형, 표본박제 등(4,134)	258,383
	교과서 박물관	사립	3,476	교과서, 교육자료 등(192,000)	15,890
	연기향토박물관	사립	800	도자기, 문서 등(3,960)	11,000
익산시	마한관	국립	997	토도 등(102)	57,388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	2,043	금속, 옥석 토도 등(19,363)	423,401
	왕궁리유적전시관	국립	1,264	토기 자기류 등(1,389)	62,619
	익산보석박물관	국립	3,609	원석, 나석 등 (118,439)	308,157
	입점리고분전시관	국립	630	자기류, 금속류 (89)	15,927
	원불교역사박물관	공립	2,570	원불교관련서적 등(5,191)	36,000
	원광대학교박물관	사립	6,079	토도, 회화 등(17,650)	55,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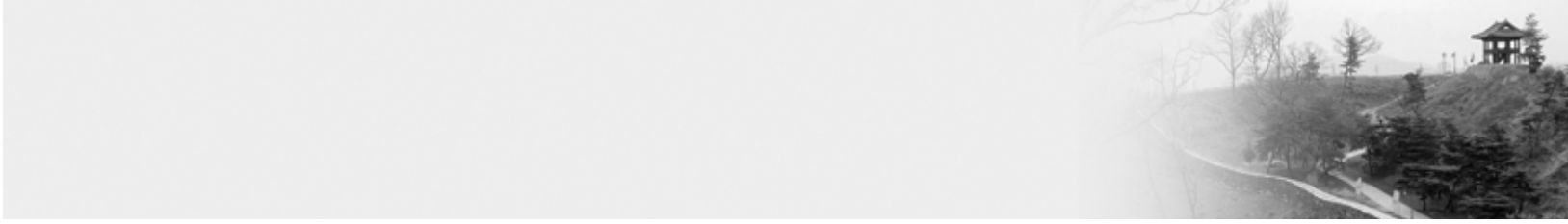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1)



○ 2010년 기준 연 관람인원은 국립공주박물관이 551,922명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부여박물관(428,399명), 미륵사지유물전시관(423,40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문화권내에는 서천의 서천해양자연사박물관과 모시를 주제로 한 서천한산모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원으로서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Ⅱ-4] 전시자원 분포도



(4) 체험관광자원

▌지역보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 백제문화권은 백제문화제를 중심으로 백제시대를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부여서동연꽃축제, 갓개포구우여축제, 익산서동축제 등은 백제시대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최됨

○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과 특산물을 중심으로도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주로 봄과 가을 시기에 집중되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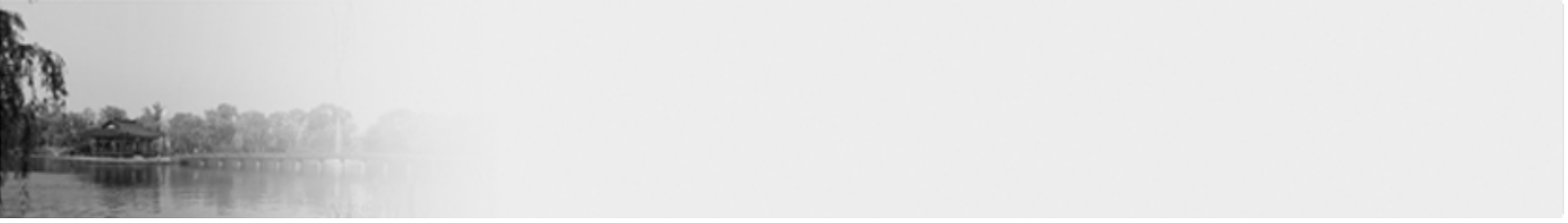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강경발효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공주알밤축제, 논산딸기축제, 굿뜨레 수박축제, 동백꽃쭈꾸미축제 등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가 많은 편임

〈표 Ⅱ-5〉 지역별 축제현황

지역	축제 명
공주시	탄천장승제(1월), 계룡산벚꽃축제(4월), 마곡사 신록축제(5월), 계룡산 산신제(5월), 우리밀축제(6월),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7월), 곰나루축제(7월), 허수아비축제(8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9월), 백제문화제(10월), 공주국제미술제(10월), 공주알밤축제(10월), 신상옥청년영화제(10월)
논산시	논산딸기축제(4월), 연무병영체험축제(5월), 상월명품 고구마축제(9월), 강경발효젓갈축제(10월), 연산대추축제(10월), 양촌곶감축제(12월)
부여군	성흥산해맞이축제(1월), 갓개포구 우여축제(4월), 송국리선사놀이축제(5월), 굿뜨래 수박축제(5월), 부여서동연꽃축제(7월), 백제문화제(10월)
서천군	마량포해돋이축제(1월), 동백꽃쭈꾸미축제(4월), 자연산광어도미축제(5월), 한산모시문화제(6월), 홍원항전어축제(10월)
(청양군)	칠갑문화축제(4월), 청양고추구기자축제(9월)
(세종시)	금강변벚꽃축제(4월), 도원문화제(4월), 조치원복숭아축제(8월)
익산시	익산서동축제(9월),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10월), 전국돌문화축제(10월), 익산보석마라톤대회10월), 쥬얼리엑스포(매년변동)

주 : 백제문화제는 공주시·부여군 통합개최임

자료 : 각 시 · 군 홈페이지



▌체험마을 조성으로 균형 있는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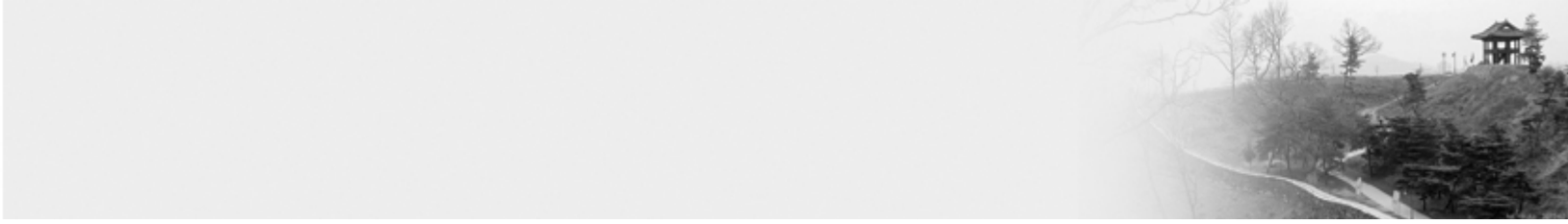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마을을 운영 중에 있음

○ 특히,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촌활력증진을 위하여 휴양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사체험, 산나물체험, 과수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짐

○ 서천군은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어촌체험마을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체험마을과 연계되어 백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공주시의 백제복식체험, 백제8문양탁본 등이 있으며, 서동요오픈세트장 등을 통해 백제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음

[그림 Ⅱ-5] 체험마을 분포도



3) 관광객 현황

(1) 대상지역 관광객 현황

○ 대상지역의 관광객은 2006년 18,298천명에서 2011년 23,593천명으로 연평균 5.2%씩 증가하였으며, 2010년 26,242천명이 방문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음

○ 지역별로는 서천군이 6,878천명(전체 대비 32.1%)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부여군(25.4%), 공주시(20.6%), 익산시(14.4%), 논산시(7.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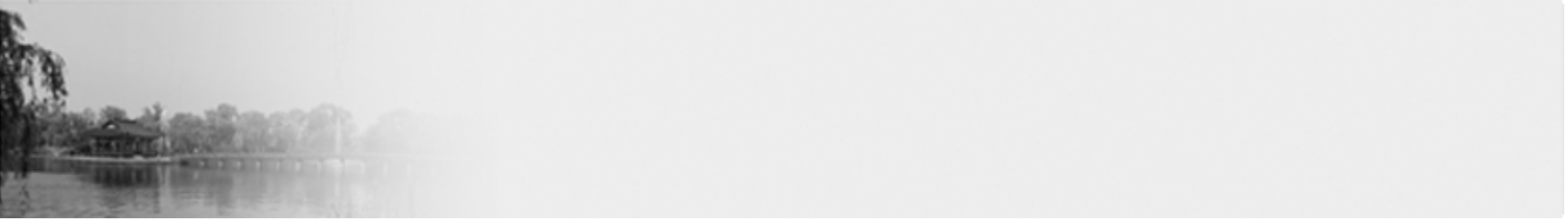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이는 서천군이 바다에 접하고 있어 여름철 해수욕 관광객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공주시와 부여군은 꾸준한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9.5%, 5.3%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0년 대백제전의 개최로 관광객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Ⅱ-6〉 시·군별 관광객 현황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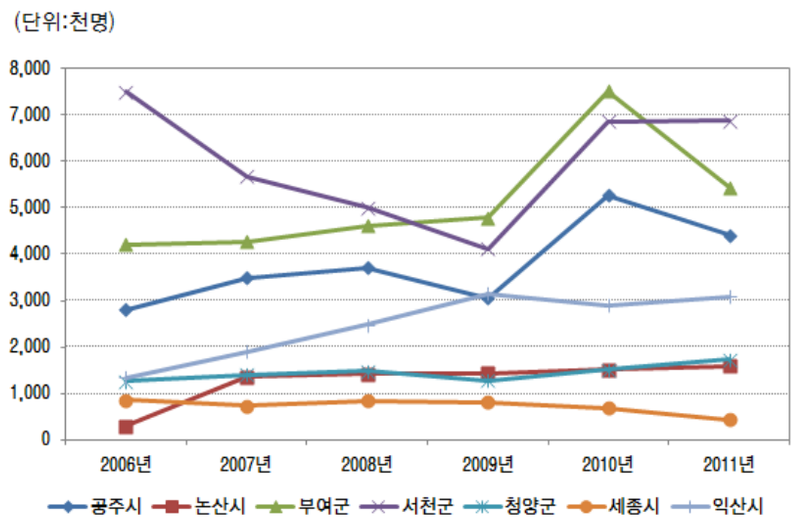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공주시	2,806 (15.3%)	3,497 (18.6%)	3,713 (19.0%)	3,063 (16.4%)	5,273 (20.1%)	4,418 (18.7%)	9.5%
논산시	301 (1.6%)	1,356 (7.2%)	1,418 (7.3%)	1,433 (7.7%)	1,508 (5.7%)	1,592 (6.7%)	39.5%
부여군	4,214 (23.0%)	4,275 (22.7%)	4,612 (23.6%)	4,782 (25.7%)	7,507 (28.6%)	5,448 (23.1%)	5.3%
서천군	7,499 (41.0%)	5,669 (30.1%)	5,003 (25.6%)	4,120 (22.1%)	6,851 (26.1%)	6,878 (29.2%)	-1.7%
(세종시)	862.9 (4.7%)	739.1 (3.9%)	842.6 (4.3%)	814.6 (4.4%)	686.6 (2.6%)	444 (1.9%)	-12.4%
(청양군)	1,267 (6.9%)	1,414 (7.5%)	1,478 (7.6%)	1,285 (6.9%)	1,517 (5.8%)	1,732 (7.3%)	6.5%
익산시	1,348 (7.4%)	1,900 (10.1%)	2,484 (12.7%)	3,145 (16.9%)	2,900 (11.1%)	3,081 (13.1%)	18.0%
합계	18,298 (100.0%)	18,850 (100.0%)	19,551 (100.0%)	18,642 (100.0%)	26,242 (100.0%)	23,593 (100.0%)	5.2%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main.asp)



○ 6년간(2006년~2011년)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논산시가 39.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세종시가 연평균 -12.4%씩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천군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7년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부터 관광객 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Ⅱ-6] 연도별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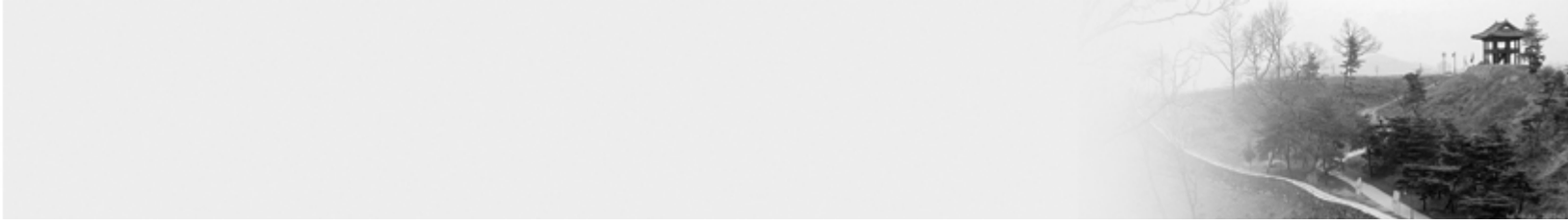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2) 관광자원별 관광객 현황

○ 2011년 기준 대상 지역의 관광자원별 관광객 현황을 보면, 100만명 이상이 방문한 관광지는 총 3곳으로 나타났음

○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지는 춘장대 해수욕장으로 2011년 기준 448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드래국민관광지 239만명, 금강하구둑 관광지 135만명, 궁남지 115만명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료관광자원별 방문비율이 높았던 곳으로는 계룡산의 동학사로 내국인이 54만명이 방문하였으며 부소산성이 내외국인 포함 51만명, 국립부여박물관 46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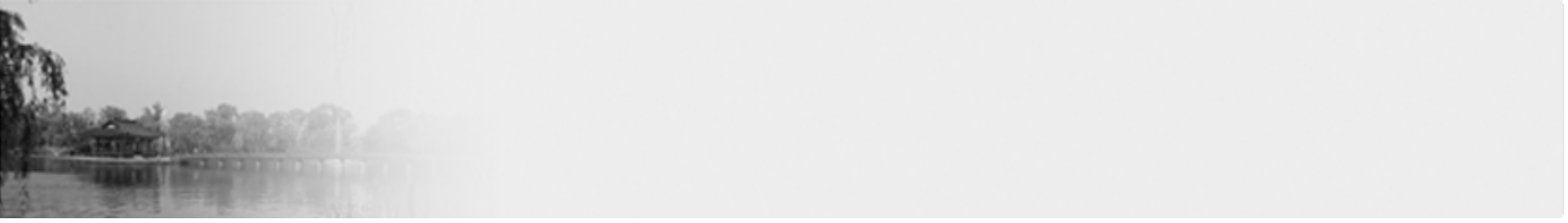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특히, 대상지내 백제유적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홍보 및 안내체계의 구축, 주변자원과의 연계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표 Ⅱ-7〉 관광자원별 관광객 수

구분		합계	무료	유료	
				내국인	외국인
공주시	갑사	266,122	–	266,122	
	공산성	192,580	–	189,181	3,399
	국립공주박물관	**440,562**	**–**	**433,183**	7,379
	동학사	**544,224**	**–**	**544,224**	–
	마곡사	284,226	–	284,226	–
	무령왕릉	**385,627**	**–**	**375,871**	9,756
	산림박물관	178,556	–	178,378	178
	석장리박물관	113,776	–	112,842	934
	신원사	112,782	–	112,782	–
	자연사박물관	125,294	–	125,294	–
	파충류곤충체험관	124,867	–	124,758	109
	5도2촌시범마을	117,609	117,609	–	–
	곰나루관광단지	235,514	235,514	–	–
	영평사	107,553	107,553	–	–
	정안천생태공원	620,072	620,072	–	–
	천주교순교성지황새바위	201,145	201,145	–	–
논산시	관촉사	100,569	–	99,838	731
	논산그린투어리즘	140,685	–	140,230	455
	백제군사박물관	122,731	–	121,210	1,521
	개태사	92,220	92,220	–	–
	논산명재고택	104,637	104,637	–	–
	대둔산	275,023	275,023	–	–
	탑정저수지	622,679	622,679	–	–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455,758**	**–**	**447,596**	8,162
	백제문화단지	**442,531**	**–**	**435,988**	6,543
	백제역사문화관	105,655	–	104,337	1,318
	부소산성	**507,270**	**–**	**499,908**	7,362
	정림사지	179,805	–	174,449	5,356
	구드래국민관광지	**2,389,859**	**2,389,859**	–	–
	궁남지	**1,153,120**	**1,153,120**	–	–
서천군	마량리동백나무숲	142,394	–	142,394	–
	희리산자연휴양림	136,714	–	136,714	–
	금강하구둑관광지	1,348,674	1,348,674	–	–
	신성리갈대밭	736,809	736,809	–	–
	춘장대해수욕장	**4,481,393**	**4,481,393**	**–**	**–**
(세종시)	IMG인터내셔날	105,105	–	104,985	120
	운주산성	272,139	272,139	–	–
(청양군)	고운식물원	101,587		101,447	140
	장곡사	189,800	189,800	–	–
	천장호출렁다리	327,156	327,156	–	–
	칠갑산	484,478	484,478	–	–
	칠갑산도립공원	489,097	489,097	–	–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417,617**		**414,392**	3,225
	금마관광지(서동공원)	576,917	576,917	–	–
	미륵사지	615,377	615,377	–	–
	왕궁리오층석탑	413,488	413,488	–	–
	원불교총부	258,924	258,924	–	–
	익산쌍능	376,104	376,104	–	–
	익산웅포지구관광지	422,573	422,573	–	–

주 : 2011년 기준 관광객수 10만 명 이상인 관광지를 대상으로 집계함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방문객 보고통계



4)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백제유적 현황

○ 백제문화유적지구는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대상으로 선정된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최종 통과되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이 되기 위한 예비목록으로서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목록화해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하여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소 1년 전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으로 부여됨

○ 백제문화유적지구란 공주와 부여 그리고 익산에 소재하는 백제시대 문화유산을 하나로 묶은 개념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방침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1) 공주 · 부여역사유적지구

○ 공주 · 부여 역사유적지구는 1994년 9월 1일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공주 「무령왕릉」 만으로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공주 · 부여 역사유적 9개 지구 19개 유산」으로 확대되어 등재된 것임

○ 역사유적 9개지구 중 공주가 4개지구로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수촌리, 곰나루지구이며, 부여는 5개지구로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구드래, 청마산성지구임

○ 19개 유산은 공주가 6개로 공산성, 옥녀봉산성, 송산리고분군, 정지산유적, 수촌리고분군, 곰나루 일원이며, 부여는 13개로 부소산성,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쌍북리요지, 능산리사지, 능산리고분군, 부여나성, 청산성, 구드래일원, 왕흥사지, 청마산성, 능안골고분군, 용정리사지임

○ 「공주 · 부여 역사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체계적인 준비를 수행 중임

[그림 Ⅱ-7] 공주시 역사유적지구

[그림 Ⅱ-8] 부여군 역사유적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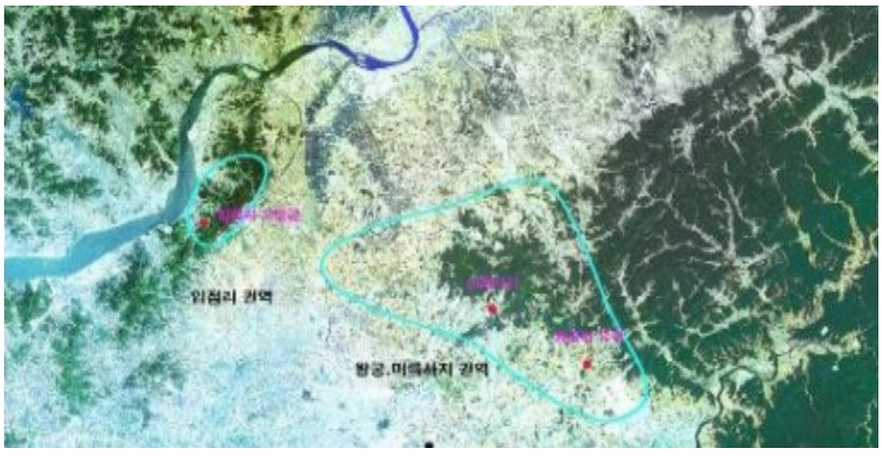
(2) 익산 역사유적지구

○ 익산 백제문화유산은 2004년 익산이 공주·부여·경주와 함께 고도로 지정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1월 미륵사지석탑에서 금제사리봉안기 등 500여 점의 사리장엄이 출토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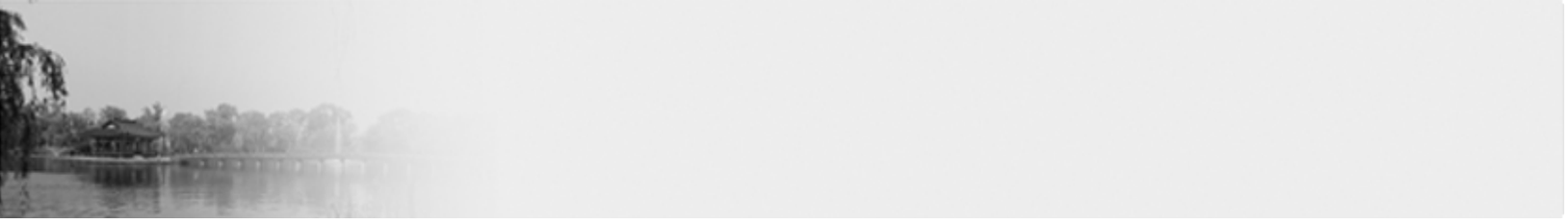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익산지역(금마웅포 일대)에 소재한 동양최대 사찰 미륵사지, 백제왕궁으로 확인된 왕궁리유적, 국가사찰 제석사지, 무왕릉(쌍릉), 입점리 고분 등 고대왕도로 갖추어야 할 모든 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백제 문화의 보고(寶庫)로 세계 유산적 가치를 지님

○ 유적지구에 포함된 문화재는 총 39건으로 미륵사지 권역에 32건(국보 3, 보물 3, 사적 5, 유형 7 등), 입점리 권역에 7건(보물 1, 사적 1, 유형 1, 기념물 1 등)이 분포하고 있음

○ 세계유산등재를 위하여 익산시에서는 문화재청에 건의를 통해 잠재목록 등재를 신청하고, 각종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그림 Ⅱ-9] 익산시 역사유적지구



2. 백제역사와 옛길 찾기

○ 길은 평소에는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이자 각종 정보와 물자가 이동하는 운송로이고, 유사시에는 군사와 무기가 이동하는 군사이동로이기도 함

○ 이러한 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등장하여 영역이 확대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길 또한 확대되고 발달하였음

○ 그러나 백제의 옛길을 찾는데 있어 당시의 사료나 역사적 문헌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역사적인 고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과거 옛길을 단편적으로 그 시대의 행정체제나 수도, 성곽 등의 분포가 남아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와 기록을 통해 지역 간 연결 길을 추측하고 유추하는 작업이 필요함

1) 백제의 역사(왕도)

○ 백제는 우리나라의 고대국가로 고구려, 신라와 함께 삼국 중 한 국가로 온조왕을 시조로 하여 기원전 18년 현재 한강 하류의 하남 위례성에 옛 도읍을 정해 건국되었으며 4세기부터 충청도, 전라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음

○ 백제의 역사는 크게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로 구분되며, 각 시기는 천도된 시기를 중심으로 나누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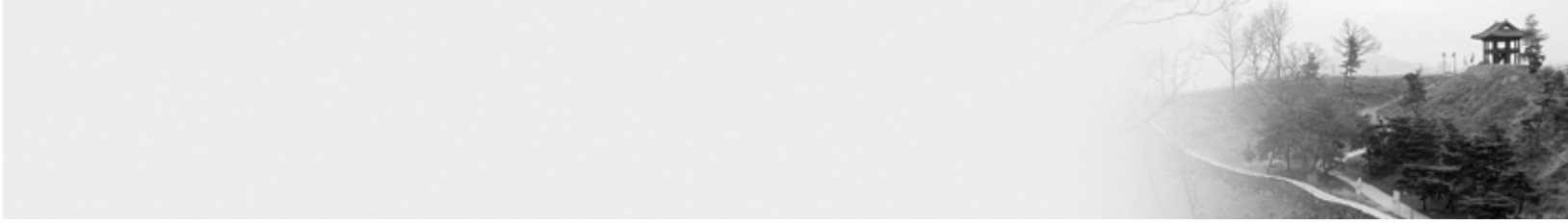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그러나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를 중심으로 백제의 역사를 분석함

(1) 웅진시대

▌웅진으로의 천도

○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적극적인 남하정책에 밀려 결국 개로왕이 전사하게 되었으며, 결국 한강유역의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금강변의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됨

○ 웅진은 백제 문주왕 원년(475년)부터 성왕 16년(538년)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5대 64년에 걸쳐 수도의 역할을 하였음



▌웅진시대의 중흥

○ 5세기 후반 동성왕·무령왕대를 거치면서 국가체제를 재정비하여 회복된 국력을 바탕으로 중국 남조의 남제와 송·양에 사신을 파견하고 책봉을 받는 등 활발한 교류를 재개하여, 천도 이후 어려웠던 국가 위기를 중국과의 국제 외교를 통하여 타개하려고 하였음

○ 이러한 노력으로 무령왕대에는 고구려에 빼앗겼던 서해의 제해권을 되찾아 대중교류가 재개되었으며 이와 같은 교류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공주지역의 전축분과 무령왕릉의 중국 문물들, 그리고 부여·익산·부안 등 금강수계의 거점 지역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기들로 사서에 전하는 중국과의 교섭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음

○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위기에 봉착한 백제와 신라는 신라와 고구려 간의 냉각기를 틈타 이전까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신라와 나제동맹(433년)을 맺어 고구려의 압력에 대처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 웅진시대는 대외교류의 증진이 이루어졌던 시기로 백제가 천도를 통해 위축되었던 내정의 내실화 및 국외교류의 재 물꼬를 튼 중요한 시기였음

(2) 사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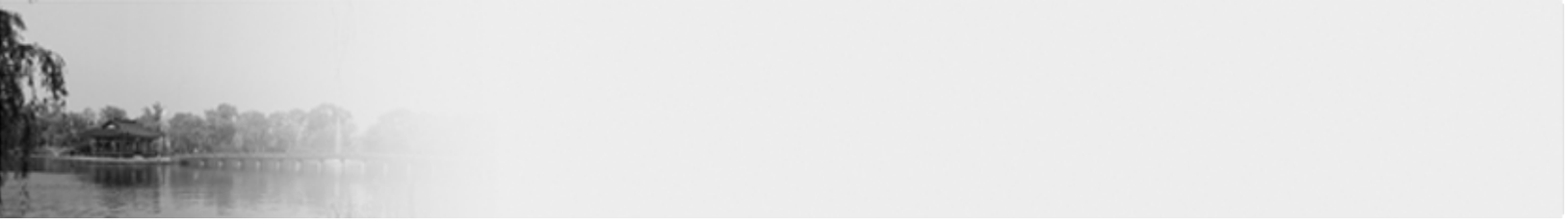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천도의 목적

○ 사회적 안정기에 즉위한 성왕은 538년 대외진출이 쉬운 부여지역의 사비성으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명하면서 백제의 중흥을 꾀하였음

- 웅진에서 사비로의 천도는 타율적인 외부의 힘에 밀려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백제를 둘러싼 대외관계의 변화, 그리고 왕실의 사비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웅진이 지리적으로 좁아 수도로 알맞지 않은 점과 귀족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웅진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면서도 넓은 벌판을 가진 사비로 천도를 단행함

○ 사비천도는 백제왕실의 자주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과단성 있는 성왕의 의지와 사비지역의 토착세력으로서 새로이 두각을 나타낸 신진세력인 사씨(沙氏)의 강력한 지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



▌사비의 융성

○ 사비시대에는 모든 제도가 정비되고 불교 및 문화가 크게 발전·융성하였으며, 백제는 중국의 동진(東晉)과의 관계 이후 북조보다는 남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 수준을 높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552년(성왕 30년, 일설에는 538년) 일본에 불교를 전한 이후에는 승려와 예술가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불교문화 융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또한 한성의 옛 땅을 수복하고, 가야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신라·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고구려가 수나라·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동안 백제에서도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여 의자왕 2년에는 대야성을 비롯한 신라의 성 40여개를 점령하기도 했음

○ 의자왕은 당나라와의 외교적 목적이 신라에 의해서 달성되지 않자, 대당 외교가 아니라 신라와 직접 군사 대결을 시도하여 659년 4월 신라를 공격하였으며, 이는 돌궐-고구려-백제-왜와, 당-신라의 십자 외교가 시작된 것으로 이는 백제에 대한 당나라의 군사 개입을 불러왔음[1)]

○ 김춘추의 외교 담판으로 당나라는 660년 6월 구원병을 보내 백제를 공격하였으며 결국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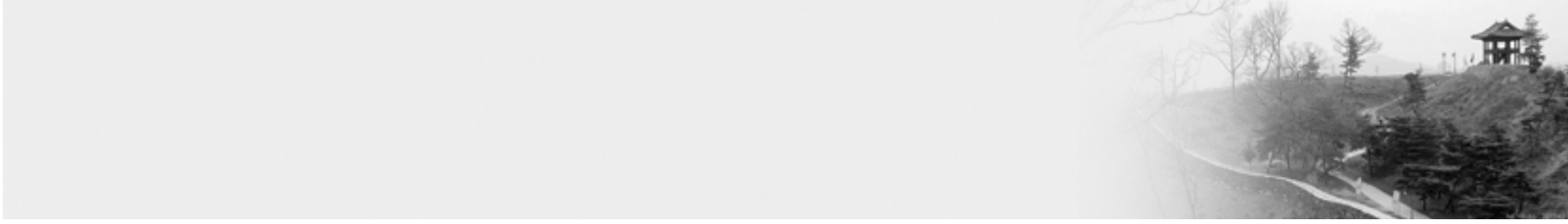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백제가 멸망한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이 들고 일어나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음

○ 이들은 200개의 성들을 되찾고 사비성과 웅진성에 주둔한 당나라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결국 신라-당나라 연합군에 의하여 진압되었음

○ 그 후 900년부터 936년 동안 신라의 장군이었던 견훤이 백제라는 이름의 국가를 다시 세웠으나 견훤이 세운 백제는 역사가 짧고 본래의 백제와 연관성이 비교적 적어 학계에선 이를 편의상 후백제로 부름

---

1) 삼국사기 24권 백제본기2 고이왕 13년 8월, 책계왕 13년 9월, 분서왕 7년



2) 백제의 성곽현황

○ 성곽(城郭)이란 '내성(內城)'과 '외곽(外郭)'을 가리키는 말로 시가지 전체를 에워싼 나성을 '곽'이라 한다면, 그러한 곽의 안쪽에 또 다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독립된 공간을 '성'이라고 함

○ 우리가 흔히 쓰는 성곽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성'과 '곽'을 함께 가리키는 말로 국가출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성곽들은 국가의 방어의 중심지로서 모든 길과 연결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성곽의 분포가 백제 옛길을 찾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

(1) 백제의 도성

▌도성의 개념적 정의

○ 도성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도읍 및 그 주위를 에워싼 성곽을 의미하며,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역할 중심을 담당하는 곳임

○ 고대 도성은 하늘과 땅의 지리적 조화에 맞게 만들어졌으며 형이상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대 도성은 지리적 조화에 기초하여 도읍과 택지를 선정하여 자리를 잡았음

○ 도성 안에는 왕과 귀족, 일반서민들의 거주공간이 있고, 도시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과 관공서, 공공건물, 사찰 등이 함께 자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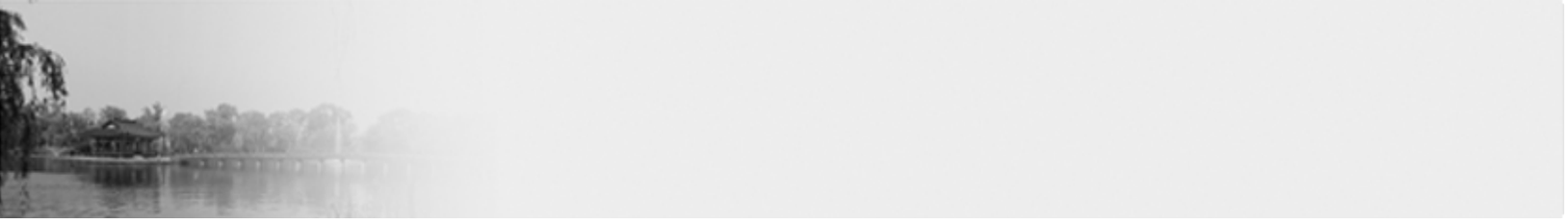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또한 도성 안에 왕궁을 에워싼 또 다른 내성(內城)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내성을 왕성(王城)이라고 하며, 결국 도성이란 외곽성, 즉 나성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왕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임[2)]

▌웅진도성

○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략하였으며, 개로왕은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함락 당하자 이후 즉위한 백제 문주왕이 왕도를 한성(현 서울)에서 웅진(현 공주)으로 천도하였음

- 웅진천도는 한성의 함락과 그로 인한 한성의 황폐화, 잠재된 고구려의 남침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재건을 추진하고자 천도함

2) 서정석(2009), 웅진·사비기의 백제도성



○ 웅진도성은 북으로 차령과 금강이 자연방어선을 이루고 있고 동으로는 계룡산이 막고 있는 천혜의 방어 요새로 금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교통이 편리하여 당시로서 수도로 가장 적합하였음

○ 웅진지역에는 시가지 전체를 에워싼 나성이 없었다는 점과 기록에도 웅진도성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웅진은 왕도라고 불리워지고 있음

○ 왕도 웅진은 공주 공산성[3]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왕도내에 자리하고 있던 대표적인 사찰인 대통사와 송산리 고분군 등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웅진시대 때 백제의 왕궁에 대해서는 공산성 밖에 있었다와 안에 있었다는 두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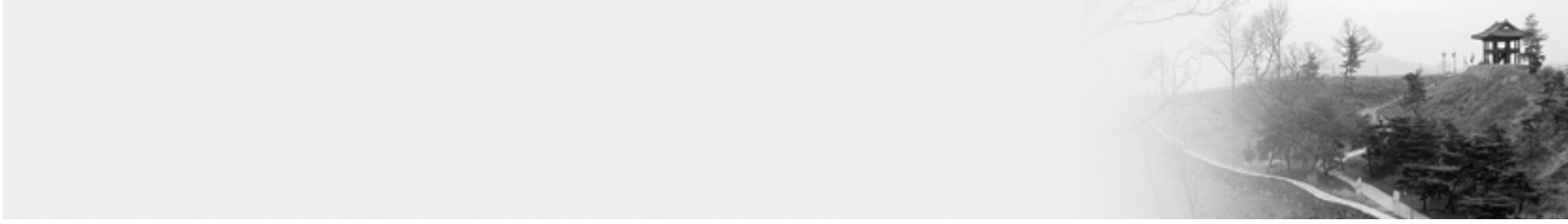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22년(500)조 기사에 의하면 동성왕이 왕궁의 동쪽에 높이가 5장(丈)이나 되는 임류각(臨流閣)을 세운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일종의 연회장이었던 임류각지가 공산성 안에 발견된 것을 보면 당시 왕궁이 공산성내에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공산성의 크기가 사비시대 때 왕성의 크기와 동일한 것도 웅진시대에 공주 공산성이 왕성이었음을 입증해주는 유력한 근거 중의 하나가 됨

○ 웅진도성이 금강에 자리함에 따라 물자의 수송이나 방어를 위하여 해운이 크게 발달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 : 공주시 홈페이지

[그림 Ⅱ-10] 공산성 전경

3) 공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조된 포곡식 형태의 성곽으로 전체성벽의 둘레는 약 2,450m이며 이중으로 돌려진 동벽과 북벽의 일부구간까지 포함하면 2,660m임, 성벽의 대부분은 돌로 축조되어 있으며 동벽 일부만이 토성으로 되어 있으나 석성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임, 중국측 기록인 「한원(翰苑)」에 의하면 공산성의 둘레는 '방 일리반(方一里半)'으로 나온다. 이러한 크기는 현재의 공산성과 정확하게 일치함. 그런데, 사비시대 백제 왕성(王城) 또한 '방 일리반(方一里半)'의 크기였다고 함



▌사비도성

○ 사비도성은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남쪽으로 도성 시가지를 구획하고 방어를 위한 나성이 축조되어 우리나라 고대 도성으로는 처음으로 내성과 외곽이 정비된 성곽구조를 가진 도성임

○ 사비도성 중 가장 먼저 축조가 시작된 것은 부소산성과 나성으로 부소산성은 왕궁리로 추정되는 관북리 북편에 위치하며 부여 시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함[4)]

○ 그리고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동쪽으로는 청마산성, 동남쪽에서는 석성산성, 남쪽 성흥산성, 서북쪽에 울성산성, 북쪽에 증산성 등의 거점산성을 축조하고, 부소산성 주위로 동북쪽의 청산성, 서쪽의 부산성, 서남쪽의 외리산성 등 작은 산성들을 배치하여 도성의 방비체제를 구축하였음

○ 사비도성은 5부(部), 5항(巷)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전해지나 관련기록이 너무나 짧고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실제 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궁남지(宮南池)에서 '서부후항(西部後巷)' 이라고 쓰여진 목간(木簡)이 출토된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비도성이 5부 25항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며 당대인들이 직접 남긴 목간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짐

○ 사비도성의 모습을 그려놓고 보면, 도성의 북쪽에는 왕궁을 비롯한 여러 관공서를 배치하고, 그 남쪽에 귀족들의 전용공간인 5부와 일반 서민들이 살던 5항을 따로 배치한 것이 되며, 각각의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신분에 따른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었음

○ 그런 점에서 사비도성은 당시 백제 왕실이 예치(禮治)에 입각한 주례(周禮) 주의적 통치를 실시하고자 하였던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음

▌부소산성

○ 부소산성은 백마강 남쪽 부소산을 감싸고 쌓은 산성으로「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사비성, 소부리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으로 불림

○ 이 산성은 웅진(지금의 공주)에서 사비(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기던 시기인 백제 성왕 16년(538)에 왕궁을 수호하기 위하여 쌓은 것으로도 전해지

4) 이병호(2009), 성왕의 꿈이 담긴 계획도시, 사비도성, 국립중앙박물관

며, 동성왕 22년(500)경에 이미 산 정상을 둘러쌓은 테뫼식 산성이 있던 것을 무왕 6년(605)경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한 것으로 백제의 성곽 발달사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

[그림 Ⅱ-11] 부소산성 전경

▌사비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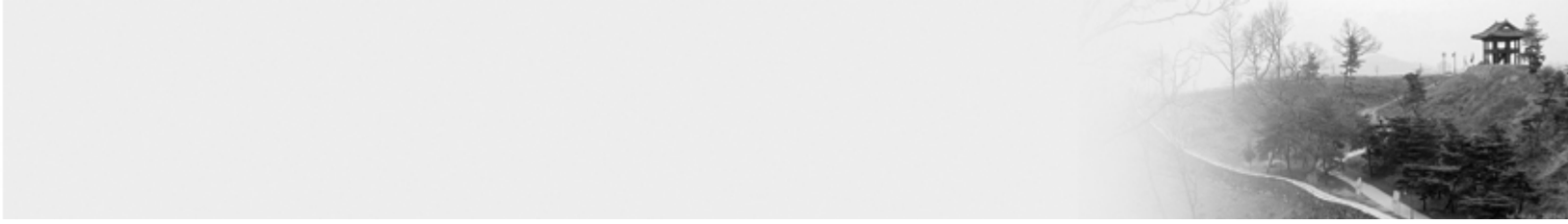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부소산성과 더불어 나성(羅城)은 사비도성의 가장 중요한 방어시설로 외적의 침입을 막는 방어시설이라는 기능 이외에도 도성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자 도성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였음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반월성(半月城)은 석축으로 길이는 13,006척(6,086m)인데 곧 옛 백제의 도성이다. 부소산을 안고 축조되어 그 양끝은 백마강에 이른다. 형상이 반월과 같으므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였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은 토축의 유지(遺址)가 남아 있다."고 하여 토축성으로 기록하고 있음[5)]

○ 나성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그 초축이 천도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라성의 경우 사비시기 왕릉인 능산리고분군과 왕실의 원찰인 능산리 사지에 인접해 있어 성왕릉이 만들어진 554년 이전이나 능산리사지의 창왕(昌王)명 사리감 연대인 위덕왕 13년(567) 이전에 축조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사비나성은 부소산성을 기점으로 그 동족에 위치한 청산성을 경유하여 석목리에 이르는 북라성과, 능산리의 서쪽산을 타고 내려와 필서봉을 경유하여

5) 사비도성 이야기1 : 나성(http://jyszzz.egloos.com/4120750)



백마강에 이르는 동라성이 확인되었음

- 부소산 서록에서 뻗어내려 백마강의 자연제방을 잇는 서라성과 궁남지에서 중정리에 이르는 남라성은 그 존재가 거론되고 있으나 2000년 부여군의 사비나성 정밀지표조사 결과 서나성과 남나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사비나성의 평면구조 및 규모는 부소산성-청산성 구간의 북나성 0.9km, 청산성-석목리-염창리에 이르는 구간의 동나성 5.4km 등 총 6.3km로 밝혀졌는데, 앞의『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도 거의 일치함

○ 나성에는 모두 5개의 문지가 확인되는데, 청산성의 문지와 일치되는 북문지, 석목리의 동나성 1문지, 능산리 뒷산의 동나성 2문지, 부여-논산간 국도 4호선이 통과하는 3문지, 염창리의 4문지, 그리고 동나성 끝 부분의 제 5문지 등이 있음

○ 나성의 주 출입문은 동라성으로 방어상의 중요성도 제일 높았으며 부여-논산간 구도로에서 부여 염창리·현북리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서 발견됨에 따라 백제시대 때 사비도성 연결되는 도로도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2) 백제의 산성

○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5%가 산지로 형성되어 일찍부터 산성이 발달하였으며 방어에 유리한 효용성을 바탕으로 도성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충남에 분포하고 있는 산성은 2010년 기준 총 261개소이며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로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산성의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임

○ 이 중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은 139개소이며 백제문화권에 포함된 산성은 공주시 관내에는 토축산성 11개소, 석축산성 9개소, 토석혼축 3개소 등 23개소의 산성유적이 확인되었음.

○ 논산시 관내에는 토축산성 11개소, 석축산성 8개소, 미상 2개소 등 18개소, 부여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21개소, 석축산성 5개소 등 26개소, 서천군 관내에는 토축산성 13개소, 석축산성 6개소, 토석혼축 2개소 등 21개소 등이 분포하고 있음

○ 이러한 백제의 산성에 대한 이해는 도성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웅진시대의 산성과 사비시대의 산성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웅진시대의 산성

○ 웅진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사료되는 산성은 대게 공주시를 중심으로 약 20개소의 산성이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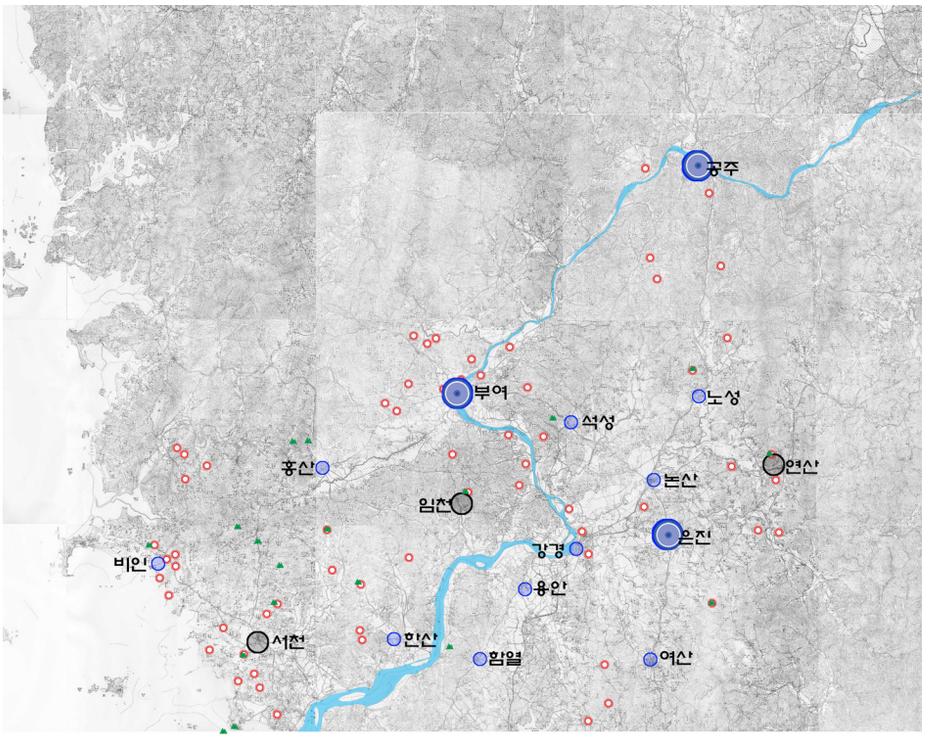
○ 아직 발굴조사는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주지역에 남아 있는 산성들이 공주 공산성을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배치되어 있어 공주 공산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것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임

○ 공주지역 산성의 대부분은 해발 150m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 성벽의 둘레도 500m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 석성으로 축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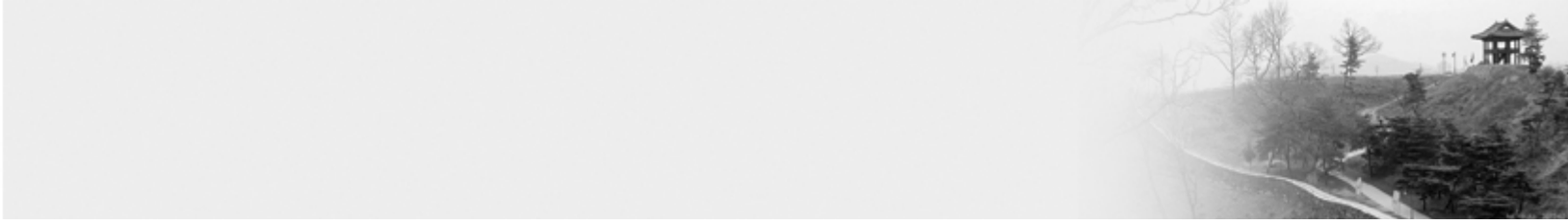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사비시대의 산성

○ 웅진시대와 달리 사비시대 때의 산성은 크게 변모하여 나타났는데 사비시대의 대표적인 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방성(方城)들은 한결같이 험준한 산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방성의 크기가 700~1,650m의 범위에 있어 공주지역의 산성보다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사비시대가 되면서 성돌의 면석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사용하였는데 그 시초는 백제 가림성(加林城)인 성흥산성이 전체가 다듬어진 성돌로 축조되어 있음



[그림 Ⅱ-12] 사비시대 산성 분포



○ 백제의 성곽의 유형별로는 테뫼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261개소의 산성 중 테뫼식 산성은 『삼국사기』에 축성연도가 확실한 성흥산성을 비롯하여 234개소, 포곡식 산성이 청마산성을 포함하여 15개소, 복합식 산성이 부여 석성산성을 포함하여 3개소로 테뫼식 산성이 주를 이룸

○ 충남지역의 성곽은 대형이 적고, 소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둘레 500m이하가 139개소로 나타나며 대부분 백제시대 축성으로 분류되는 것은 백제시대 산성이 공격용 거점성 보다는 방어를 목적으로 한 소형 산성을 많이 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규모 500~1,000m에 해당하는 산성은 67개소 파악되는데, 조사결과 및 문헌과 대비해 볼 때 대체로 군·현급 산성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총 둘레 1,000m가 넘는 대형 성곽은 각 군 단위별로 1~3개에 불과함. 백제산성으로서는 포곡식 산성인 청마산성의 규모가 9,277m로 밝혀져 단연 최대급을 나타내며, 도성을 수비하기 위한 대규모의 군사시설이 부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3) 백제의 방-군-성 체제

○ 백제의 경우 부제(部制)의 보완책으로써 실시된 담로제에 의한 중앙권력의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단위로 한 편제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제 지방통치체제는 이원적인 양상을 표출하고 있음

○ 따라서 전국을 단위로 한 일원적인 지방통제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러한 중앙 국가권력의 지향점은 방-군-성체제의 정비로 귀결되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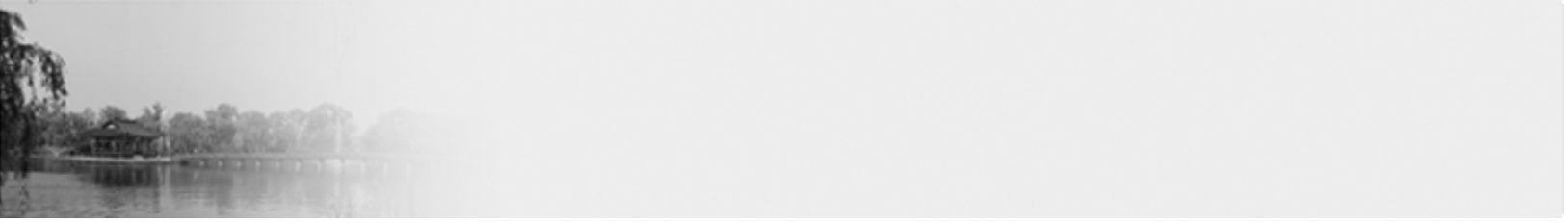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이러한 방-군-성 체제를 통하여 지방으로 연결되는 행정체제가 확립되었으며, 백제시대 지역간 길이 연결되는 주요 거점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5방(方)

○ 방-군-성 체제에서 가장 상위 단위인 5방은 어떻게 편제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비시대 백제의 지방통치체제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음

○ 부여에 도읍하던 사비백제시대 충남, 전북, 전남에 이르는 전국에 5개의 방으로 나누어 각 방에 성곽을 배치한 방성(方城)으로 다스렸음

○ 5방성은 군사의 거점이자 지방통치의 핵심으로 지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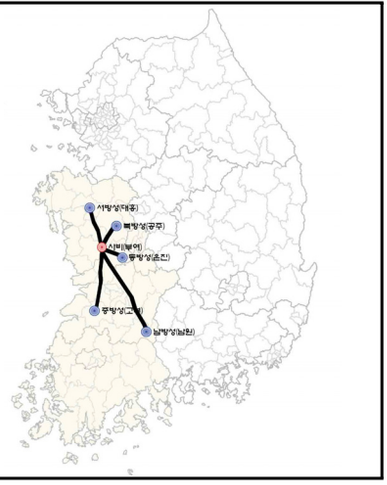
전략적 거점지였으며, 중앙의 명령을 받아 하위의 조직에 전달하고 또 관할하는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5방성은 수도와의 밀접한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백제에 가장 큰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수도에서 필요한 군사를 지방으로 보내고 지방에서 수취(收取)한 세금이나 각종 산물(産物)을 수도로 보내기 위해서는 방성과 수도 사이에는 간선도로가 존재 했을 것으로 추측됨

〈표 Ⅱ-8〉 백제시대 5방

구분	성의 명칭(城名)	지역(현재 지명)
동방성	고사성(古沙城)	충남 논산 은진
서방성	득안성(得安城)	충남 예산 대흥
중방성	구지하성(久知下城)	전북 정읍 고부
남방성	도선성(刀先城)	전남 남원
북방성	웅진성(熊津城)	충남 공주



▌37군(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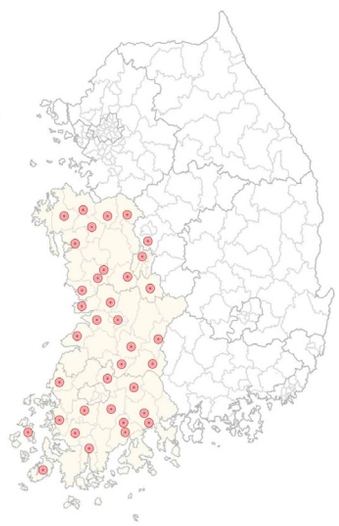
○ 백제 멸망기에 보이는 37개의 군은 방(方)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확장과 더불어 전국에 편제되어 방과 여러 작은 성들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행정단위로서 기능하고 있었음

- 각 군에는 대략 5~6개의 작은 성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군에 파견된 지방관은 군장(郡將) 혹은 군령(郡令)으로 보통 덕솔의 관등을 가진 중앙귀족이 임명되었는데, 하나의 군에 3명씩의 군장이 임명되었음

○ 백제의 37개의 군은 도읍인 사비(부여)를 중심으로 전국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음

〈표 Ⅱ-9〉 백제 37군

성의 명칭(城名)	현 지명	성의 명칭(城名)	현지명
대목악군(大木岳郡)	충남 목천	금마저군(金馬猪郡)	전북 익산
가림군(加林郡)	충남 임천	완산군(完山郡)	전북 전주
설림군(舌林郡)	충남 서천	백해군(伯海郡)	전북 장계
마시산군(馬尸山郡)	충남 덕산	임실군(任實郡)	전남 임실
혜군(槥郡)	충남 면천	분차군(分嵯郡)	전남 낙안
소부리군(所夫里郡)	충남 부여	복홀군(伏忽郡)	전남 보성
황등야산군(黃等也山郡)	충남 연산	추자혜군(秋子兮郡)	전남 담양
우술군(雨述郡)	충남 회덕	월내군(月奈郡)	전남 영암
결이군(結已郡)	충남 결성	무시이군(武尸伊郡)	전남 영광
일모산군(一牟山郡)	충북 문의	삽평군(歃平郡)	전남 순천
기군(基郡)	충남 서산	곡내군(谷乃郡)	전남 곡성
탕정군(湯井郡)	충남 온양	이릉부이군(尒陵夫里郡)	전남 능주
풍달군(風達郡)	-	파부리군(波夫里郡)	전남 복성
고룡군(古龍郡)	전북 남원	발라군(發羅郡)	전남 나주
대시산군(大尸山郡)	전북 태인	도무군(道武郡)	전남 강진
진내군(進乃郡)	전북 금산	물아혜군(勿阿兮郡)	전남 무안
시산군(屎山郡)	전북 임피	인진도군(因珍島郡)	전남 진도
벽골군(碧骨郡)	전북 김제	아차산군(阿次山郡)	전남 압해
도실군(道實郡)	전북 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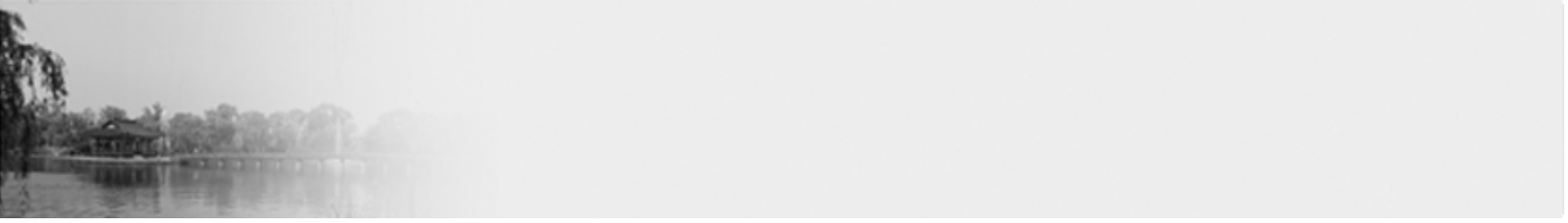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성(城)

○ 방과 군의 통치를 받는 하위 지방행정구역이 성(城)과 현(縣)으로 표기되기도 했으며, 종래 담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였던 촌(村) 중에서 지역규모나 인구 또는 물산 등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될 만한 것을 분리하여 만들었음

○ 성에 파견된 지방관의 명칭은 군 아래의 현에는 도사를 두었는데 또한 성주라고도 이름하였다는 등의 기록이 남아있음

○ 사비시기의 백제에 설치되어 있던 성(현)은 모두 합하여 대략 200 내지 250곳 정도였다고 하며,[6] 이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6) 멸망 당시 백제에 설치되어 있던 성(현)의 수효를, 『구당서』 220 동이열전 백제조에서는 200곳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의 '대당평백제국비명'(『조선금석총람』 상)에는 250 곳이라 새겨져 있다.



3) 백제의 옛길 변천

○ 백제는 육로와 금강 및 섬진강을 활용한 수로, 그리고 주변 서해와 남해를 활용한 해로를 활발히 이용하여 물류의 효과적인 수단을 개척하였음

○ 이러한 길은 현대에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문헌의 기록으로 백제가 길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음

○ 백제시대의 도로나 옛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에 따라 단편적으로 남겨져 있는 기록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의 길을 추측하고자 함

(1) 육로의 변천사

▌지방에서 수도에 이르는 길

○ 부여에 도읍하던 사비시대, 백제는 충남, 전북, 전남에 이르는 전국을 5개의 방(方)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며 수도와 연결되는 길이 존재 했을 것으로 사료됨

○ 동방성(충남 논산 은진)에 이르는 길 : 부여-논산-은진(가야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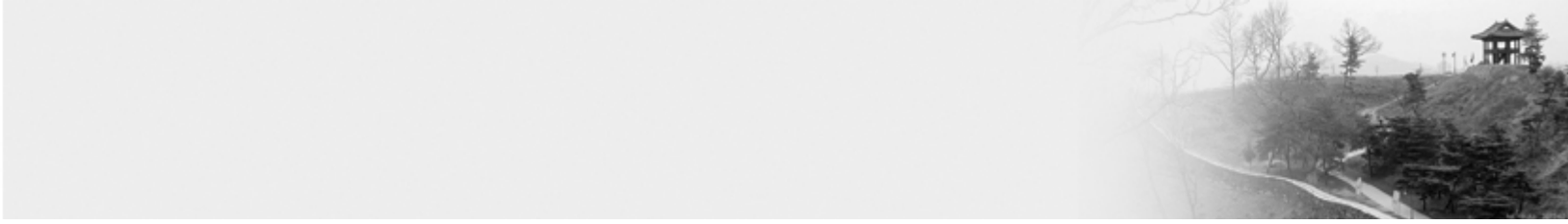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백제 동방성은 논산시 가야곡면과 연무읍의 경계를 이루는 증토산 정상부에 있는 매화산성이었으며, 부여에서 매화산성에 이르는 길이 주요한 간선도로였을 것임
- 이 길은 유명한 황산벌전투의 현장과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여 - 논산에 이르는 구간은 같았을 것이고, 거기서 남쪽으로 가면 동방성에 이르고, 그대로 동쪽으로 직진하면 황산벌에 이르렀을 것으로 사료됨

○ 서방성(충남 예산 대흥)에 이르는 길 : 부여-청양-대흥

- 서방성은 차령산맥 북쪽의 충남지역에 해당되며. 예산 대흥에는 임존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방성은 예산, 아산, 천안, 홍성, 서산, 태안, 보령지역이 포함됨
- 부여에서 이곳에 서방성이 있었던 예산 대흥의 임존성에 이르는 길은 청양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며, 부여-청양에서 이동하며 청양에서부터는 무한천(無限川)을 따라 대흥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

○ 중방성(전북 정읍 고부)에 이르는 길 : 부여-익산-김제-고부

- 중방성은 전북 고부로 보는데 별 이견이 없으며 익소은 지금의 정읍시 고부면에 해당되며, 부여에서 고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 논산을 거쳐 익산으로 간 다음, 익산에서 김제로 가고, 김제에서 다시 고부쪽으로 이동했을 것임



- 백제가 부흥운동을 한창 전개하던 662년 12월에 백제 부흥군은 고부 일대에 있었던 중방성을 김제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음
- 이 때 '김제는 적이 있는 곳, 즉 부여에서 하룻밤에 갈 수 있다' 는 사실을 들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강행하는 장면이 나오며, 이로써 볼 때 부여에서 김제에 이르는 길이 있었고, 부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였던 것도 미루어 알 수 있음

○ 남방성(전북 남원)에 이르는 길 : 부여-논산-전주-임실-남원

- 남방성은 전북 남원이라는게 다설이며 실제로 남원에서는 소백산맥을 넘어가면 거창-고령-대구-경주 등이 손쉽게 연결됨
- 대가야의 중심지 고령이나 신라의 중심지 경주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요충지가 바로 남원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통일신라 때에도 남원소경(南原小京)이 설치된 것으로 사료됨
- 그런 점에서 남원에 이르는 부여-논산-전주-임실-남원이 그 당시에도 백제의 중요한 간선도로였던 것임

○ 북방성(충남 공주)에 이르는 길 : 부여-공주

- 5방성 중 북방성은 가장 확실한 곳으로 부여에서 공주에 이르는 길은 외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길을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됨
- 이 길은 동학농민운동 때에도 이용하던 길로, 공주에서 우금치를 넘어 이인에 가고, 이인에서 탄천가고, 탄천서 부여로 가는 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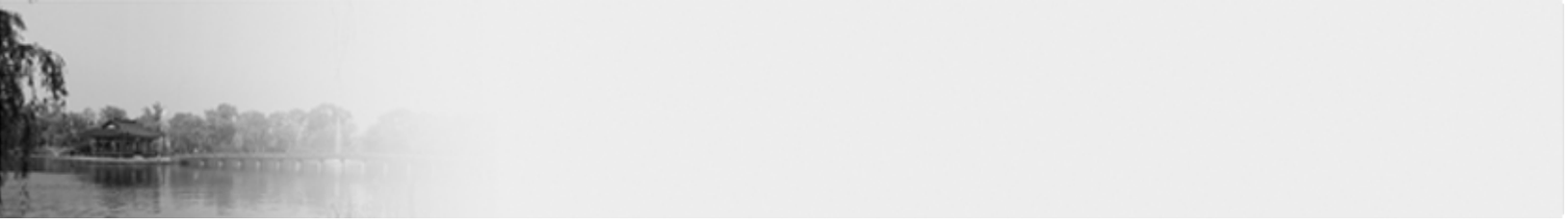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수도방비를 위한 길

○ 삼국시대의 수도는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의 중심지이자 왕과 귀족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지방에서 수취한 모든 산물이 수도로 전해지기 편리하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유사시에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도로가 수도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었으며 수도 방비를 위한 도로가 부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펼쳐져 있었을 것임

○ 사비시대 백제의 패망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 침공 할 수 있던 길은 크게 보아 3가지 곳이 있었음

- 신라에서 부여에 이르는 길, 고구려에서 부여로 이르는 길, 또 하나는 금강을 거슬러 오르는 길임
- 고구려에서 백제를 공격해 오늘 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비시대에는 신라가 경기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할 일은 거의 없었음



- 따라서 북쪽과 동쪽에서는 신라가 공격해 올 수밖에 없었으며 황산벌전투시 탄현-황산벌-논산-부여에 이르는 길이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였을 것이며, 백제를 공격해 오는 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임

○ 따라서 사비시대 백제의 수도방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길은 탄현-황산벌-논산-부여에 이르는 길이고, 금강을 방비하는 길은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이용한 길도 이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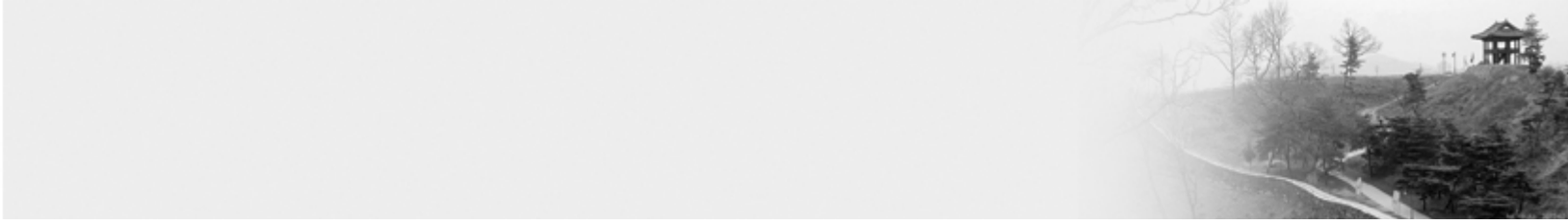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동쪽방면의 길 : 탄현-황산벌-논산-강경-부여

-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였을 때 성충과 흥수는 탄현에서 신라군을 방어 할 것을 권했으며 전쟁의 기록상 가장 중요한 요지였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탄현의 위치에 대하여 부흥운동 당시의 자연지형, 고고학적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옥천에서 대전으로 넘어오는 마도령(馬道嶺)고개가 탄현일 가능성이 가장 큼
- 황산벌 또한 현재의 논산 연산면 일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흥리로 보는 견해와 신량리 일대나 혹은 개태사 앞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이 또한 백제 진현현(眞峴縣)의 성곽이 지금의 대전시 서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동산성임을 감안해 볼 때 개태산 앞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신라군사는 옥천에서 탄현을 넘은 다음 대전 남쪽의 흑석동을 거쳐 신도안에 이르고, 여기서 연산으로 통하는 개태사 앞의 좁은 구조곡을 통해 연산면 일대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음
- 황산벌전투에서 승리한 신라군은 대체로 지금의 강경부근에서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던 당군(唐軍)과 합류하여 부여로 진격한 것을 알 수 있음

○ 금강 방면의 길 : 부여-임천(성흥산성)-장항(기벌포) = 금강북로

군산-강경(신라군과 합류)-부여 = 금강남로

- 나당연합군중 당군에서 백제를 함락하러 온 금강방면의 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 번째 길은 부여에서 백마강을 건너 임천에 이른 다음 다시 장항에까지 나아가는 금강북로(錦江北路)이고, 두 번째는 군산에서 강경을 거쳐 부여에 이르는 금강남로(錦江南路)임
- 백제의 중요한 간선도로는 금강북로로 660년 7월 군(唐軍)은 강력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던 금강북로를 피해 금강남로로 침입하였음
- 금강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통하는 사신이나 물자, 문화가 통행하는 백제문화의 중요한 젖줄로 유사시에는 효율적으로 외적을 제압할 수 있는 천연의 방파제이기도 함



- 당군은 강을 따라 진군하여 강경부근에서 황산벌을 돌파한 신라군과 합류하여 나당연합군이 강경에서 부여로 들어왔음
- 이에 따라 군산에서 강경에 이르는 길, 그리고 다시 강경에서 부여로 이르는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2) 백제시대 이후 옛길의 변화

○ 길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시대별로 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삼국통일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7)]

▌고려시대

○ 삼국 및 통일신라의 역참제(驛站制)는 고려시대에 계승되었으며 성종 2년 에 12목을 설치하고 14년에 10도를 신설하게 되면서 고려의 역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음

○ 전국을 10개의 도로 나눈 이른바 10도제 시행과 5동 양계의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고려의 역전체제도 점차 정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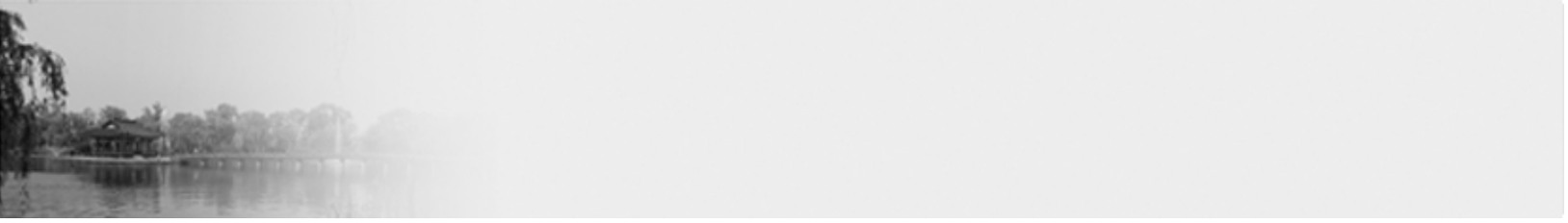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이러한 도로의 정비와 아울러 고려의 기록에 나타난 충남지역에 해당하는 역도와 속역이 여러 곳이 있음

- 충청주도(忠淸州道) : 수원에서 각각 충남 부여와 충북 청주에 이르는 길로동화, 장족, 청호, 가천, 율봉, 쌍수, 저산, 장지 장양, 추량, 연산, 금사, 포곡, 성환, 신은, 김제, 장세, 창덕, 이흥, 일흥, 광정, 일신, 단평, 은산, 유구, 유양, 급천, 홍주, 광세, 금정, 득웅, 몽웅, 영유, 비웅역으로 34개 역이 속해 있음
- 전공주도(全公州道) :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정읍등지와 충남 공주에 닿는 길로 삼례, 양재, 앵곡, 옥포, 재곡, 채평, 태림, 내재, 고원, 신보, 거산, 천원, 소안, 진현, 진화, 제원, 경천, 평천, 득연, 이도, 정민 등 21개역이 편성되었음

▌조선시대

○ 조선시대의 도로는 삼국이후 고려시대에 발달한 도로를 기반으로 한양중심

7) 자료 : 충청남도지, 충청남도(2008)



으로 재정비되었으나 전국의 도로망은 주로 지형과 지세에 따라서 생성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용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자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고려시대와 대비하여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

○ 조선 후기 길은 정치행정로(문서수발로 · 암행로 · 유배로 · 조운로 등), 군사외교로(파발로 · 봉수로 · 사신로 등), 물자유통로(보부상길, 장길 등), 사적이동로(산수유람로 · 과거길, 사적이동로 · 요양로 등), 문화전파로의 기능을 했음

○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도로 및 역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도로망의 근간을 이루었고, 그 용도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제화 함

○ 조선시대의 간선도로망은 한성을 정점으로 방사상으로 뻗어있었기 때문에 각 육로는 서로 만나지 않았음

- 지역내 소로(小路)를 통해서 연결되었지만 오늘날처럼 간선도로끼리 교차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군현간 도로는 간선도로망을 통해 점차 강화되었음

○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에는 간선도로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교통로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으며, 점차 한성으로의 연결을 위한 도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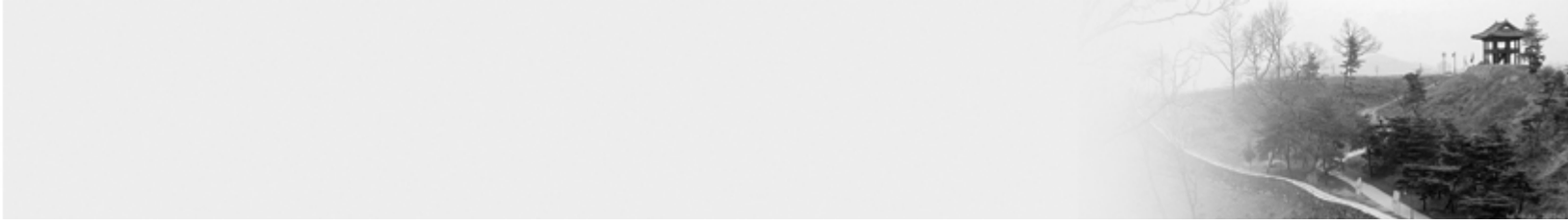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한양에서 충남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망은 도호부와 군현, 그리고 병영과 수영을 연결하여 구축되었는데 제6로와 제8로가 주로 충남지역에 해당되며 제8로의 경우 충청수영으로 연결되어 대상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생략하기로 함

○ 제6로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통영에 곧장 이르는 길로 직산, 성환역에서 천안-공주-노성-은진을 거쳐 전라도인 여산으로 이어지는 길임

〈표 Ⅱ-10〉 제6로의 주요지선

순번	주요 통과지역
1	노성- 황산교-미라교-용안-함열
2	경천-연산-진산-금산-무주
3	공주-이인역-창강-부여
4	이인역-석성
5	모로원-동천-미륵당-은산역-홍산-한산
6	홍산-저현-서천
7	은산역-임천
8	동천-정산
9	덕평-전의-연기-내성령-진잠
10	전의-미관강-두저포-회덕
11	천안-목천-신원창-작천-청주

자료: 충청남도지, 충청남도(2008)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김정호가 1861년(철종 12)에 조선을 남북 22폭(또는 층)으로 나누어 만든 목판본 대축척 조선 지도책으로, 1864년(고종 1)에는 일부분을 수정하여 재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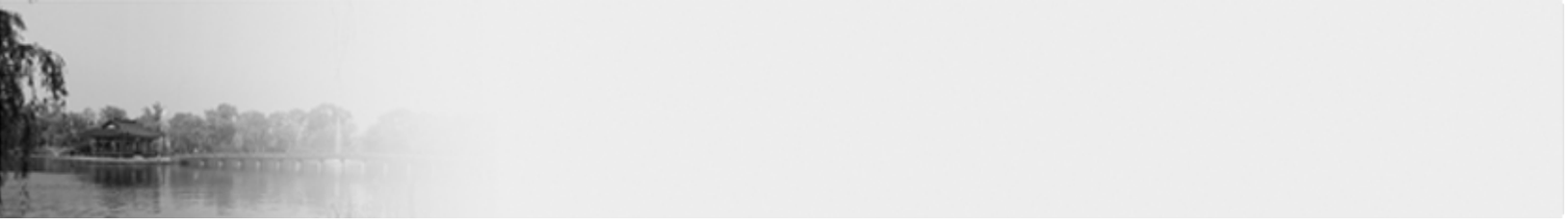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대동여지도에서 백제 옛길과 관련된 계획 범위 내 도면은 대동여지도 15첩 4면, 5면, 16첩 4면, 5면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동여지도의 15첩 4면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음

- 지도 중간의 위쪽에서 내려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산줄기는 현재 차령산맥이라 부르는 금북정맥임
- 공주에서 천안으로 연결된 도로와 산줄기가 만나는 지점에 차령산맥의 명칭이 유래된 車嶺이 표시되어 있음. 산줄기의 동북쪽은 모두 현재의 삽교천으로 흘러가며, 동쪽과 남쪽은 금강유역임
- 지도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아래로 흐르는 하천이 현재의 금강 본류임. 錦江이란 명칭은 공주목의 읍치 위쪽에 적혀 있는데, 전통시대에는 보통 이 구간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기 때문임
- 오른쪽 위에서 흘러와 금강에 합류하는 하천은 현재 미호천이라 불리고 있음 공주목 읍치의 금강변에는 성곽이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공산성이라 부르고 있음
- 공주목의 경계 안에는 신풍, 덕진, 유성 등의 고현이 표시되어 있어 고려시대까지 주현이었던 공주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16첩 4면에는 현재의 충청북도 옥천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주시 완산구, 익산시에 걸쳐 있음

- 중간 약간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뻗은 산줄기는 금남정맥이라고 하였음 이 산줄기의 동쪽은 금강 유역의 상류에 속하며, 왼쪽은 하류에 속함
- 아래쪽의 익산과 고산 지역은 만경강 유역에 속함. 금남정맥 맨 위쪽의 계룡산(845.1m) 남쪽은 조선의 태종 이성계가 수도의 기반 시설 공사를 명령했던 지역임
- 지도에도 잘 그려져 있듯이 북쪽에 높은 봉우리가 있고, 산줄기와 물줄기가 太極 모양을 하고 있음
- 왼쪽 아래의 금강 변에 위치한 강경대는 이 지역에서 상업이 가장 발달한 포구였음 주변 지역은 모두 저평하며 강경대 부근의 금강 변에 낮은 산지가 있어 포구의 발달에 유리했음
-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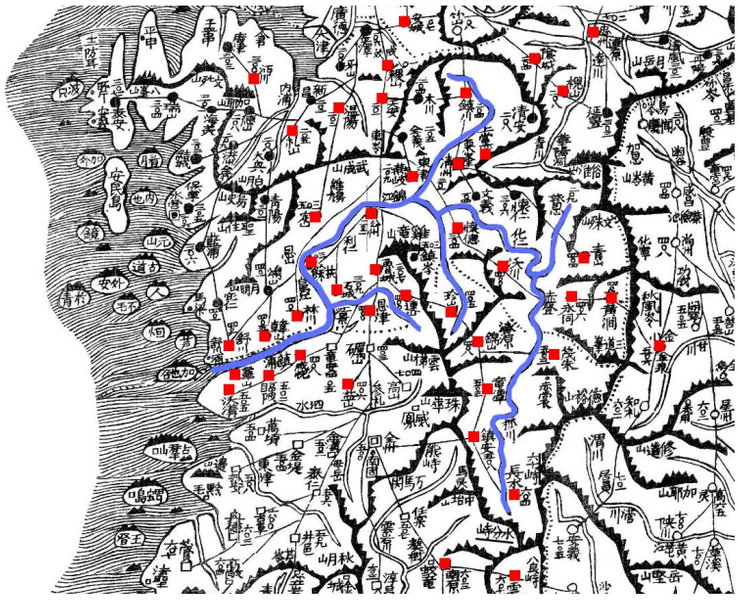


임. 조선시대의 장거리 운송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배를 통한 수운이었음

- 또한 강배와 바다 배는 구조가 달라 운행구간이 서로 달랐음 따라서 강배와 바다 배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역에 포구가 발달하는 경향이 있었음 강경포구도 바로 이와 같은 지리적 배경 속에서 발달한 포구로서 조선시대에는 조선 3대 시장의 하나로 유명했음
- 그러나 철도의 발달과 배의 대형화 속에서 일제시대 이후 철도역과 군산 등의 항구에 밀려 지방의 소도시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음 지도의 한가운데에는 훨씬 남쪽에 있었던 전주의 월경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의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일대에 있었음

○ 16첩 5면에는 현재의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에 걸쳐 있음

- 오른쪽 위에서 흘러와 서해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현재의 금강이임. 금강변에는 수많은 포와 진의 명칭이 적혀 있는데 해당 구간의 하천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음
- 오른쪽의 금강 변에는 성당의 조운이 표시되어 있음 조선 전기에는 거의 모든 고을의 조세를 조창에 모아 한양으로 운반하였음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의 시행 이후 바다나 수운이 가능한 하천이 없는 내륙 고을의 것만 운송하게 되었음
- 성당의 조창도 단지 남원, 운봉, 진산, 금산, 용담, 고산, 익산 등 7개 고을의 전세와 대동미를 모아 서울로 운반하던 창고임. 성당의 조창이 설치되었던 함열현의 전세와 대동미의 경우 조창이 아니라 읍치 북쪽의 해창에서 모아 운반하였음
- 해안이나 금강 변에 있는 해창 또는 강창은 모두 이와 같은 역할을 하였음 금강 하구의 군산진이 있는 곳은 일제시대 이후 군산항으로 번성한 곳임. 맞은편의 서천포진이 있는 곳은 군산 맞은편의 장항항이 자리잡고 있음
- 조선시대까지 이런 지역은 단지 군사적 요충지로서만 중요했지만 개항 이후 배가 커지면서 중요한 항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음 군산진 왼쪽의 조창은 옥구와 내륙 고을인 전주, 태인, 금구, 임실, 진안, 장수 등 7개 고을의 전세와 대동미를 모아 운반하던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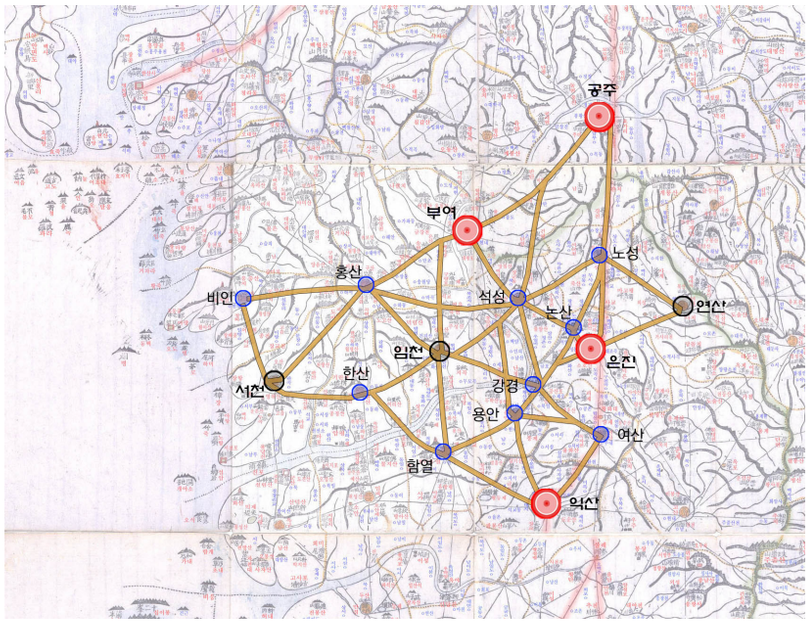


[그림 Ⅱ-13] 대상지역 조선시대 금강수계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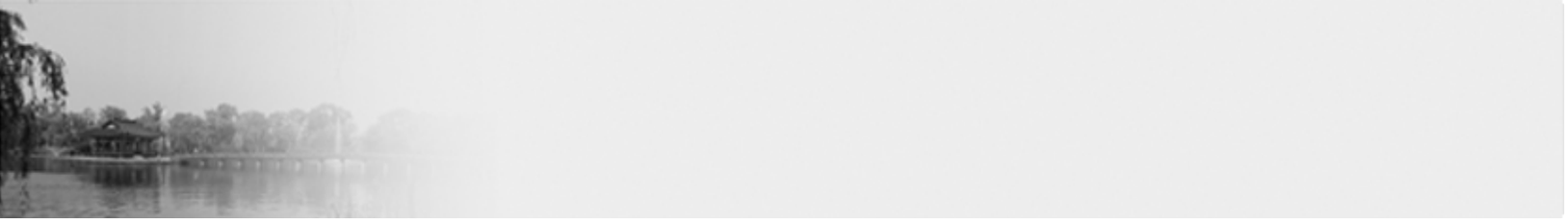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한편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10대로로 구분하여 충남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표시하였는데 해남로와 충청수영로가 이에 해당됨

○ 이처럼 조선시대의 모든 도로는 반드시 경기도를 거쳐 충남지방을 지나 호남·영남에 바둑판처럼 연결되었음

○ 아래 그림은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에 나타난 백제문화권 지역과 연결된 길을 표시하였으며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연결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Ⅱ-14] 대동여지도와 동여도로 본 계획구역내 도보길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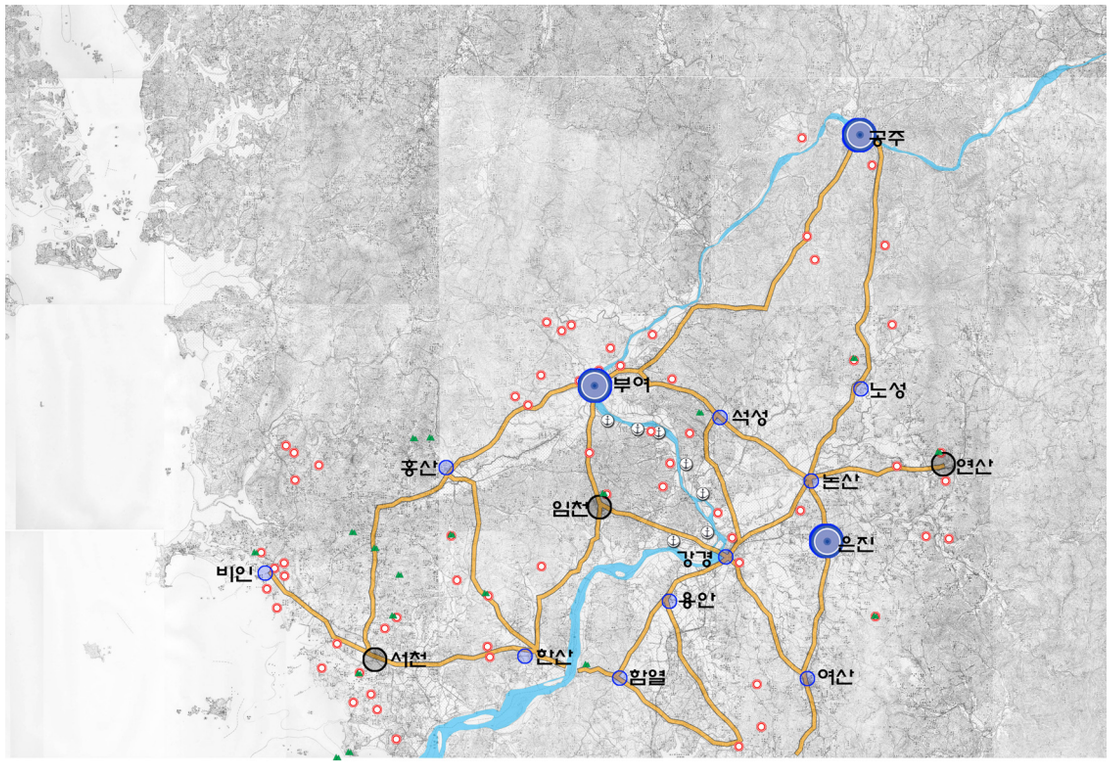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에는 신작로라는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조선시대 도로와는 별개로 비교적 폭이 넓은 도로가 만들어짐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도로가 목포에서 서울을 거쳐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1번 도로이며,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서부 평야지대를 통과하는데 이는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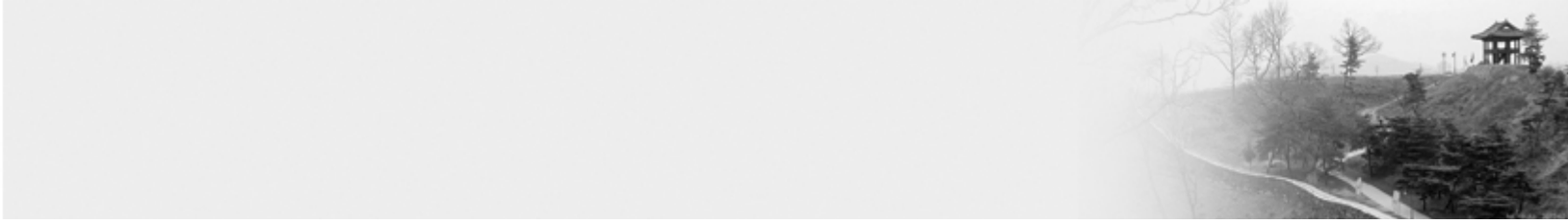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신작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폭이 좁은 소로(小路)형태의 고갯길을 이용하였을 것이며, 교통로로 사용하는 고개나 길도 시대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되었을 것으로 됨

○ 대체로 도보에 의존했던 조선시대까지는 해발고도가 낮은 고갯길을 이용했을 것이며, 토목기술이 발달한 일제시대부터는 자동차의 특성상 교통이 지금의 길을 선택하여 주요한 고갯길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됨

○ 일제시대의 도로는 조선시대의 길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신작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건설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Ⅱ-15] 일제강점기시대 계획구역 내 신작로길



(2) 백제시대 수로와 금강의 소금길

○ 금강은 충청 역사문화의 원류(遠流)이자 보고(寶庫)로 선사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음

○ 또한 금강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백제의 왕도인 웅진(공주)과 사비(부여)는 계룡산, 부소산 등 금강유역의 산과 넓은 뜰을 기반으로 풍요와 번성의 시대를 구가했음

○ 백제의 관문이자 대외교류의 거점인 금강하구를 통해 진취성과 개방성으로 대표되는 백제정신을 드높였으며 세력을 형성하고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서해 연안 각지에 교역을 매개로 한 식민도시를 건설하였음

○ 이에 백제의 수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백제시대의 수운 활용과 포구와 나루터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연결된 길을 찾아보고자 함

▌백제와 바다, 물과의 인연

○ 백제의 국호는 고구려나 신라의 국호와 달리 ‘氵’ 변이 붙어있어 이것이 상징하는 물(水)과의 인연을 내포하고 있음

○ 중국의 역사책인 『수서(隋書)』 백제 조에서는 백제 국호의 유래를 ‘백가제해(百家濟海)’에서 찾고 있는데 1백집(百家)이 바다를 건너와서 나라를 세웠기에 한 글자씩 취해서 국호를 정했다는 것으로 백제와 바다와의 인연을 암시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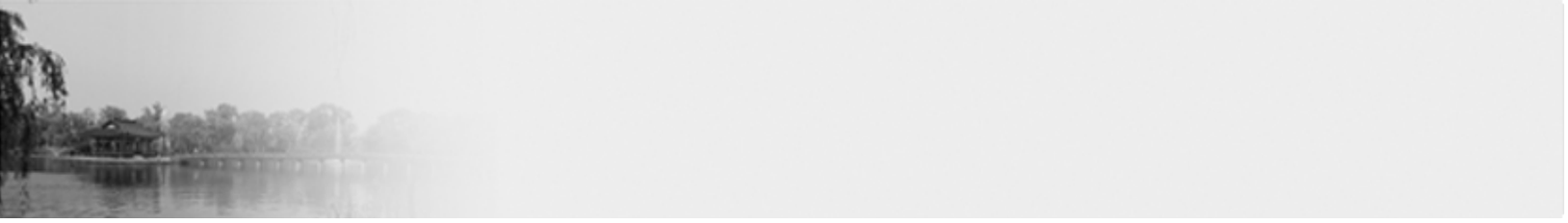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건국설화에서도 백제의 건국 시조인 온조의 형 비류가 인천인 미추홀에 국가의 터전을 잡았으나 실패하였으며 온조가 건설한 백제에서 서해안이라는 천연의 항만을 긴요하게 이용하여 인천의 미추홀 港을 거점으로 하여 교역을 하였음

▌내륙수운의 활용

○ 백제의 수도는 한성백제시대 풍납동토성은 한강변, 왕궁의 배후산성인 공산성과 부소산성은 금강변에 소재하였음

○ 왕성이 강변에 소재한 것은 수로의 이용을 왕실이 가장 민감한 관심 투사를 뜻하며 백제가 국도선정에서 강변을 일차적 입조조선으로 삼았음을 가리킴

○ 이러한 강을 활용하여 대외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리아스식 해안을 끼고 있는 백제는 지형적인 특성상 조운로의 비중이 높았음



○ 특히,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성은 해수와 강수의 합류지점으로 교역의 중심지로서 구드래 나루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교역의 중심지 백제의 포구와 나루

○ 금강은 충청지역의 수운을 담당했던 중요한 수로로 문물교류를 위한 주요 포구들이 발달하였음

○ 백제시대에는 금강을 대외교류를 위한 항로로 이용하였으며 곰나루에서 출항한 선박은 한 달 쯤 후엔 오사카 항에 도착할 만큼 항로가 발달해 있었고 교역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임

○ 백제시대 이후부터 군산항이 개항하기 전까지의 금강수운은 조세미곡을 운반한 것 외에는 상업적으로 이용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남

▌곰나루

○ 공주 곰나루는 공주지역 금강 및 연미산을 포함한 무령왕릉 서쪽으로 전개되는 낮은 구릉지대와 금강변 나루 일대를 칭함

○ 금강의 수신(水神)에게 제사를 올리던 웅진단(熊津壇) 터가 남아있는 등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국가의 제사 공간이었으며, 일반 서민들의 주요 생활터이자 수상교통로로서 민중의 정서와 애환이 짙게 서려있는 역사적 가치가 큰 곳임

▌왕진나루

○ 왕진나루는 백제시대에 왕이 다녀간 나루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으며 인근 마을의 이름도 같은 뜻인 원 왕진으로 불림

○ 왕진은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와 공주의 삼각지점에 있어 사비성의 외곽나루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많은 이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35년전 기와와 벽돌을 굽던 가마터가 발견되었는데 백제 때 부여 천도 무렵 기와를 구워 배로 수송했을 가능성이 있음

○ 금강은 청양군의 동쪽을 지나는데 이 부근 10여개의 나루 중 가장 큰 나루였던 왕진나루는 1980년대까지 청양군 청남면과 부여군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으며 1989년까지만 해도 부여와 교통을 잇는 수단으로 나룻배가 강 건너편의 부여까지 교통하였으며 정초에 마을사람들이 선제를 지내던 곳임

▌구드래나루

○ 부여의 구드래나루는 국제 무역항으로서 백제시대 도성인 사비성을 출입하는 관문역할을 한 곳으로 선진문물교류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아스카 문화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구드래는 구다라, 굿들개, 구들성 등 여러 가지설이 있으나 일본서기에 나오는 구다라는 대국, 섬기는 나라, 백제를 뜻함에 따라 백제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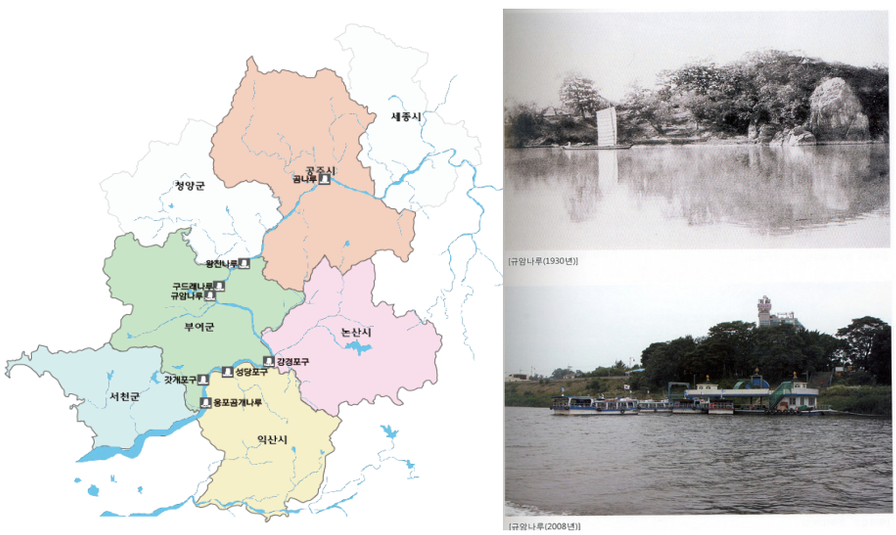
○ 당대 일본 등 외국 사신들과 장사꾼들은 배를 타고 군산포를 거쳐 금강을 따라 구드래나루에 입항한 유서 깊은 포구임

▌갓개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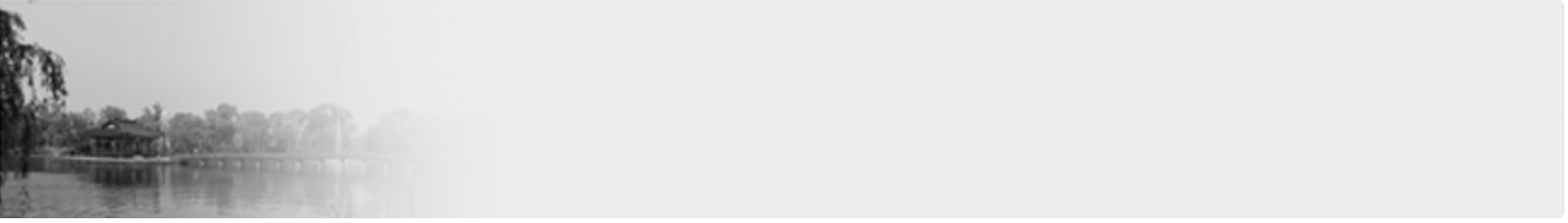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부여군 양화면 입포(笠浦)를 우리말로 갓개라 하며 백제시대부터 포구로 이용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갱갱이포구(강경)와 세력을 다룰 정도로 물상과 유통이 활발한 포구로서 당시에는 김제안포구라 하여 안흥, 장항, 웅포와 함께 충청남도 4대 포구로 꼽힘

○ 입포의 백제시대 유적으로는 나당연합군에게 패한 백제의 의자왕과 신하들이 당으로 끌려갈 때 백제의 유민들이 입포의 포구 옆에 위치한 유왕산에 올라 금강을 따라 당나라에 잡혀가던 백제의 군신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며 불렀다는 산유화가의 노랫말이 남아있음

○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의 시장을 겨냥하여 물품이 생산되고 상업활동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은진현에 있는 시진(市津)은 물화의 집결지로 유명하였음



[그림 Ⅱ-16] 대상지역 포구 및 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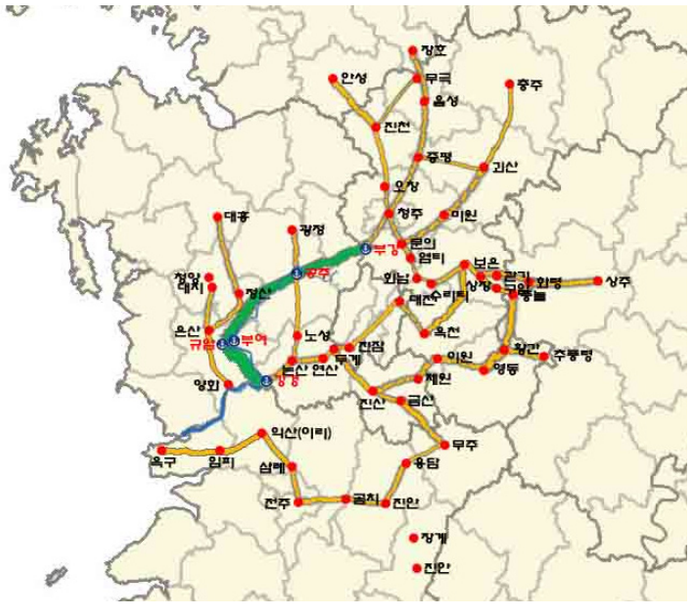


▌금강의 소금길

- ○ 소금길은 바다로부터 소금을 나르기 위한 길로 인류의 역사와 문명, 인간의 생명유지에 밑바탕이 되어온 생명길이기도 함
- ○ 사람살이에 소금은 필수이며 사람 사는 곳 어디든 소금장수 발길 닿지 않는 곳 없었으며, 그 중 금강의 소금길은 금강의 육로와 뱃길을 이용하여 1900년대 초반까지 서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이 금강을 따라 내륙으로 운반된 길을 칭함
- ○ 금강 소금길은 금강하류에서 강경으로 황포돛단배에 실려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각 지역의 포구에 내려진 소금은 수레 혹은 등짐장수를 통해 각 고을로 전해져 거미줄 같은 소금길을 형성함[8)]
- ○ 금강의 소금길은 단순히 소금만 운반하는 길이 아닌 각종 해산물과 토산품, 각 지역의 풍습이 전파되던 문명길로 한반도 서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삶과 문화가 만나고 전파되었음
- ○ 그러나 경부철도의 개통의 시작으로 각종 철로와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들었으며 산업화에 따라 옛길의 모습을 잃어버렸음
- ○ 이러한 측면에서 백제옛길을 찾기 위해서는 소금길의 모습과 역사를 찾아 현대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함
- ○ 소금길은 서해소금이 각종 수산물과 강경에 집산된 다음 물길을 통하여 충남뿐만이 아니라 충북, 전북, 경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조성되어 이동되었음
- ○ 금강 소금배의 종착지는 중류에 위치한 부강포구(충북 청원)이었으며 이곳에서 대전, 청주, 옥천, 보은은 물론 경북 상주까지 팔려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음
- ○ 부여쪽의 규암포구에서는 강경으로부터 뱃길로 이송된 소금과 양화로부터 육로로 이송된 소금이 금강 북서쪽의 은산-대치-청양을 잇는 공급노선과 은산-장평-정산-신양-대흥을 잇는 공급노선을 따라 충남내륙지역으로 전해졌음
- ○ 공주지역 역시 두 개의 경로를 통해 소금이 들어왔는데 강경에서 논산-노성-계룡(옛 두마)을 고쳐 공주로 들어오는 육로노선과 강경에서 직접 황포돛배로 이송하는 뱃길 공급노선이 있었음
- ○ 공주로 유입된 소금은 광정(정안)을 거쳐 월산 등 각 고을로 팔려나가거나

8) 충청타임즈 기획연재, 금강의 소금길을 찾아서(2010),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59

일부는 전의, 광정까지 거래되었음



[그림 Ⅱ-17] 금강의 소금길

(3) 백제시대의 해로

○ 백제는 해상왕국이라 불리며 내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서해가 입지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음

○ 또한 내륙수로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한 대외 교류가 이루어졌음에 따라 그 기반인 해로의 활용해 대한 접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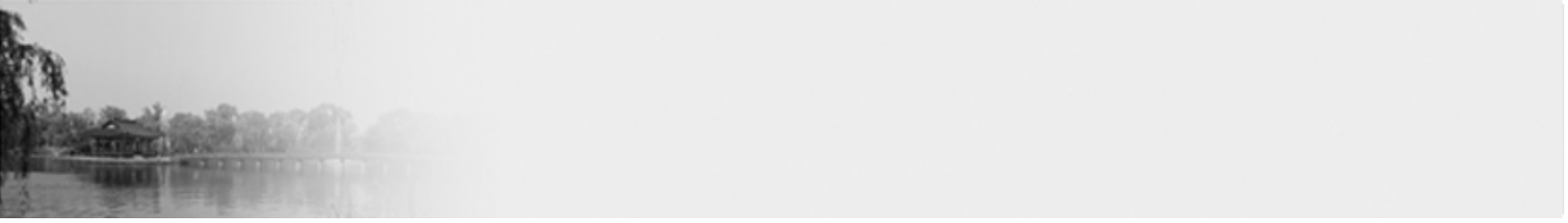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의 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제의 문화적 파급력이나 교역의 중심지의 역할에 대해 고증할 필요가 있음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교류

○ 백제가 위치하였던 한반도 중·서·남부는 한강, 금강, 영산강을 비롯하여 많은 하천을 끼고 있으며, 인접한 바다인 서해와 남해는 서북으로는 중국내륙, 동남으로는 일본열도와 닿는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의 중심에 위치하였음

○ 이러한 자연환경은 하천을 통한 내륙수운과 해상을 통한 연안해운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켰으며,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해상왕국으로 발전함

○ 중국대륙과 한반도, 일본열도를 잇는 국제해운을 경영하여 동아시아의 해상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일부기록에는 백제인들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먼 바닷길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음

○ 백제의 활발한 해상활동은 우수한 조선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백제는 '방(舫)'이라는 선박을 운용하였으며, 왜국에서 '백제선'은 우수한 선박으로 통했음

○ 당시 중국 측의 선박과 백제선의 형태 및 제작기법의 차이로 보아 백제만의 독자적인 조선기술을 보유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백제의 우수한 선박은 동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하였고, 나아가 백제를 해상을 통한 문화교류 및 교역·물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음

○ 백제의 해상활동은 교역과 같은 단순히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정치·경제·군사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음

○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신라·가야, 중국 남조와 일본열도의 왜국과 연계하여 반고구려 전선을 주도하였고, 경제적으로 국제교역의 중심지이자 문화적으로 선진기술과 문물의 전달자로 동아시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

○ 때로는 중국대륙의 혼란과 백제 내부의 발전에 힘입어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도 하였음

○ 백제는 고대 동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하고 경영하여 찬란한 문화를 보유한 해상왕국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음

▌중국으로 이르는 항로

○ 백제에서 중국 대륙에 이르는 항로는 서해 연안을 끼고 항진하는 연안항로와 산둥반도의 등주까지 도달하는 최단거리인 사단항로, 흑산도 방면을 만나 남중국의 영파로 가는 항로 등이 있음

○ 또한 대표적인 항구로서 인천, 화성, 부안, 영암 등을 꼽을 수 있음

○ 백제의 요서지역 진출은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여 오는 고구려 세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무역기지의 학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음

○ 중국과의 교역의 산물로서 무령왕릉과 전라북도 익산시 입점리 고분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중국제 청자가 출토되었으며 이는 백제와 중국대륙과의 왕성한 교역을 상징함

○ 백제는 중국의 최남부 지역인 광서장족자치구에도 그 흔적을 남겼는데 현재까

지 그곳에 백제향이 웅변해주고 있으며, 『신당서(新唐書)』에서 백제의 서쪽 경계를 월주(절강성 소흥시)라고 한 것도 중국 대륙과 백제와의 관계를 적극 암시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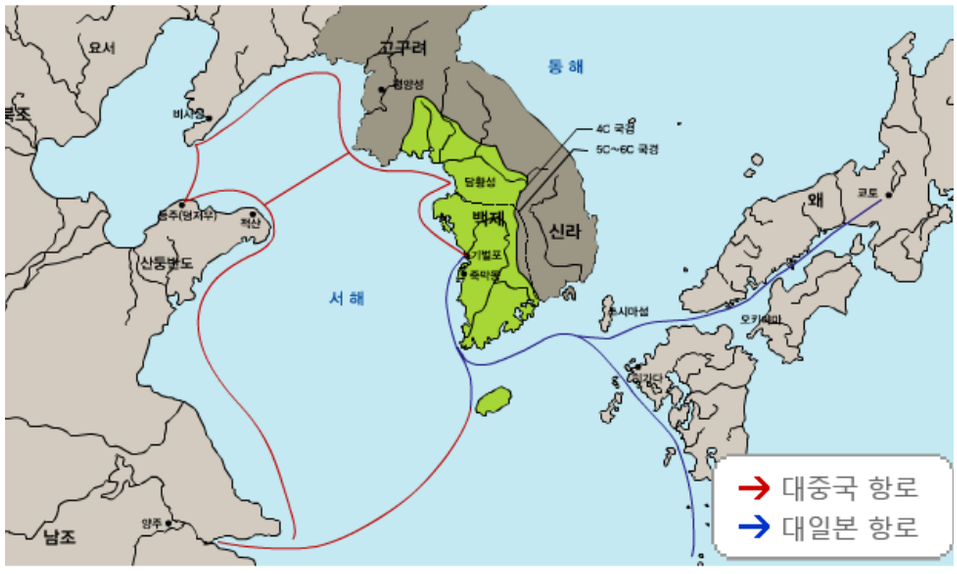
▌일본과의 교역

○ 백제는 왜와 국교를 수립하고 많은 선진문화를 전했으며 근초고왕에 이르러 적극적인 교류를 하였으며[9] 백제가 왜에 보낸 칠지도는 양국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 중의 하나임

○ 백제는 초기에 한성에서 천안을 거쳐 금강상류로 와서 남원에서 섬진강을 타고 하동으로 가는 교역로를 확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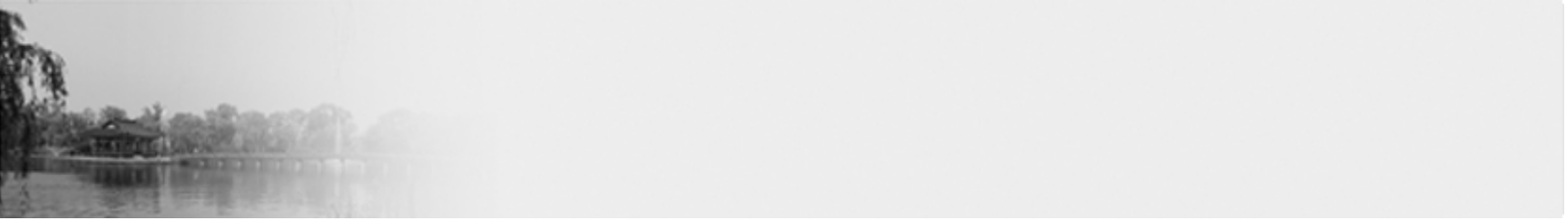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하동에서 쓰시마 섬을 축으로 해서 이키 섬, 그리고 규슈의 마쓰우라 반도(松浦半島)에 이르는 길과 쓰시마 섬에서 오키노시마(沖ノ島), 후쿠오카 현 북쪽 해안에 이르는 길이 생겨났음

○ 일본열도에 설치한 백제의 거점은 북규슈에서 혼슈의 오사카 일대인 하비키노 시 방면으로 깊숙이 이동하고 있으며 지금도 남아 있는 무령왕의 아버지인 곤지를 제사지내는 사당인 비조호신사가 그것을 상징함



[그림 Ⅱ-18] 6~7세기 직항로

9) 《한권으로 읽는 백제왕조실록(증보판)》. 박영규 (2004). 웅진닷컴, 140~141쪽. "근초고왕은 왜와 국교를 수립하고 많은 선진 문화를 전했다. 백제가 언제부터 왜와 통교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근초고왕에 이르러 양국 관계가 활기를 띤 것만은 분명하다. 이 일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엔 전무하고,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전한다. 백제와 왜의 국교 수립은 신공황후 46년(서기 366년)에 이뤄졌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교역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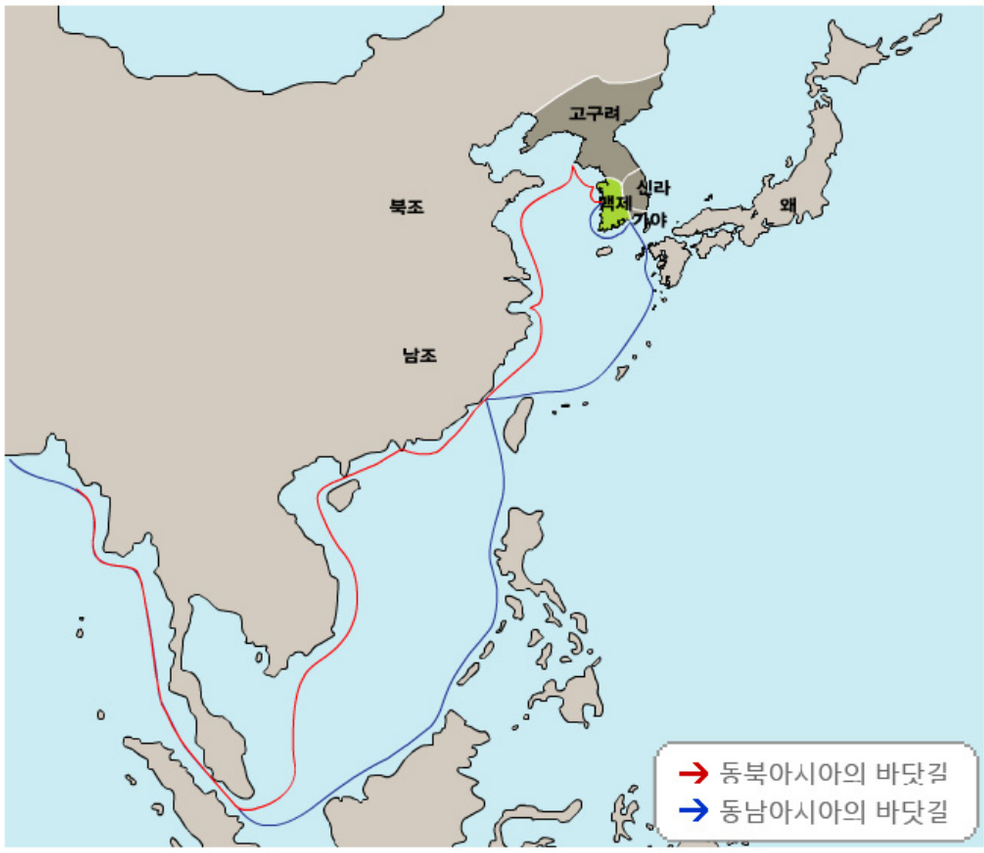
○ 백제는 제주도와 북규슈 그리고 지금의 오키나와를 중간 기항지로 삼고 대만해협을 지나 필리핀 군도까지 항로를 연장시켰음

○ 백제는 다시금 항로를 확장시켜 인도차이나 반도에까지 이르렀으며 지금의 캄보디아를 가리키는 부남국과 교역하였을 뿐 아니라, 북인도 지방의 직물을 수입하여 왜에 선물하기까지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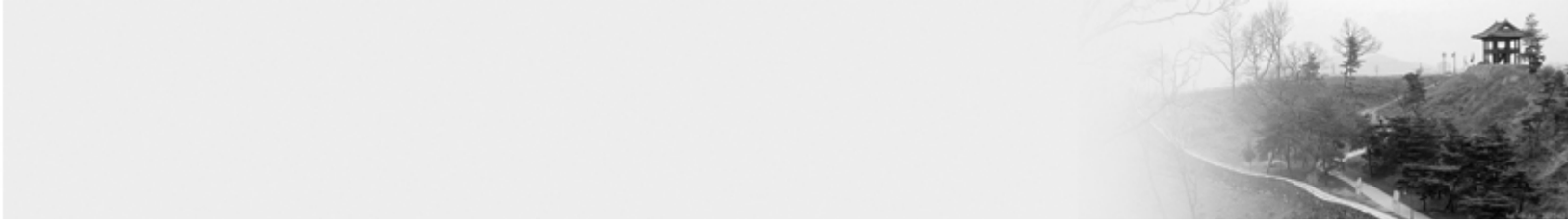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모두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 경임

○ 이러한 항해 루트 덕분에 성왕대의 승려인 겸익이 중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올 수 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있듯이, 동아시아의 모든 물산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백제로 집중되었음

– 『수서』에서 “(백제에는) 신라·고구려·왜인과 더불어 중국인까지 거주한다” 고 하였으며 다종족 국가인 백제는 고구려의 69만호보다 많은 76만호를 거느린 대국(大國)의 위용을 자랑했음



[그림 Ⅱ-19] 백제의 바닷길과 해양실크로드



3. 백제옛길 관련 스토리텔링

1) 백제 관련 스토리텔링의 소재 설화

○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함

○ 과거에 구전으로만 전달되던 이야기를 현재의 텍스트만이 아닌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 스토리텔링은 새로운 트렌드 속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야기 거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백제옛길과 관련하여서는 역사유적별, 장소별, 시대별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나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옛길노선의 선정과 걷기 여행코스를 선정해야함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백제 관련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기 위해 백제시대와 관련된 소재의 설화에 대하여 신화, 전설, 민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10)]

(1) 신화 : 건국과 이도(移都)

▌건국

○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신화로는 온조와 비류가 있음 비류와 온조를 형제로 설정한 백제 건국신화자료는 삼국사기와 감국유사를 중심 자료로 하여 조선조까지 계속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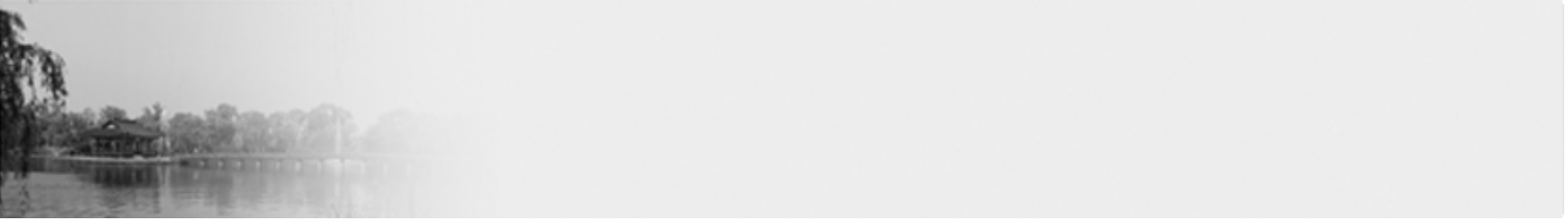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백제 건국신화로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다른 내용의 자료가 나타나고 있음

○ 비류와 온조를 형제로 설정하되 온조를 백제 건국주로 삼은 것이 하나이고, 비류를 건국주로 삼고 그를 우태의 아들로 설정한 것이 다른 하나임

○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신화로는 온조와 비류가 있음 비류와 온조를 형제로 설정한 백제 건국신화자료는 삼국사기와 감국유사를 중심 자료로 하여 조선조까지 계속 이어짐

- 온조 관련 신화 : 도영지에 얽힌 온조의 건국이야기, 위례성의 우물 등
- 비류 관련 신화 : 우태의 맏아들로 태어난 건국이야기

10) 국립민속박물관·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2010), 「백제관련설화자료집」



▌이도(移都)

○ 백제의 천도는 문주왕이 고구려의 침공에 밀려 웅진으로 천도가 아닌 충주로 천도하고자 했으나 역대 백제 임금의 혼신들이 임금 앞에 집단적으로 현몽하여 간곡하게 권유하는 바람에 충주가 아닌 웅천으로 천도했다는 "이도신화" 임

(2) 인물 전설

▌인물

○ 제왕과 관련된 전설로는 무령왕과 무왕, 견훤 등이 있음

- 무령왕 : 무령왕 탄생
- 무왕 : 남지와 서동의 꾀, 서동과 선화공주, 마동과 선화공주, 마동이 성공한 이야기, 오금산에 얽힌 마동이야기 등
- 견훤 : 견훤이 탄생한 의상대, 야래자 전설, 견훤야사 등

○ 명신(名臣)과 관련된 전설로는 성충, 계백, 여덟(다섯)충신, 흥수, 복신, 도침, 흑치상지, 지수신, 유금필 등이 있음

- 성충 : 의자왕시대 옥중단식과 유언상소
- 계백 : 백제말기의 명장 충신 계백, 천등사와 백충대, 표뜸과 계백장군 등
- 여덟(다섯)충신 : 범황사와 혜오화상, 팔충리의 유래, 천등산 다섯장수 등
- 흥수 : 흥수의 귀양살이와 백강방어의 충언기록
- 복신과 도침 : 백제 멸망 후 부여풍과 복신 및 도침의 이야기
- 흑치상지와 지수신 : 백제 멸망 후 임존성에서 당나라 항쟁
- 복지겸 : 도영지에 얽힌 온조의 건국이야기, 위례성의 우물
- 유금필 : 유금필과 성황제, 유금필 - 문둥다리 전설, 유금필 장군 일화 등

○ 성시시조와 관련된 전설로는 직산 조씨가 있음

- 온조대왕의 신하 직산 조씨 시조

○ 명장(名匠)과 관련된 전설로는 아비지가 있음

- 아비지 : 황룡사 구층탑, 아비지와 구층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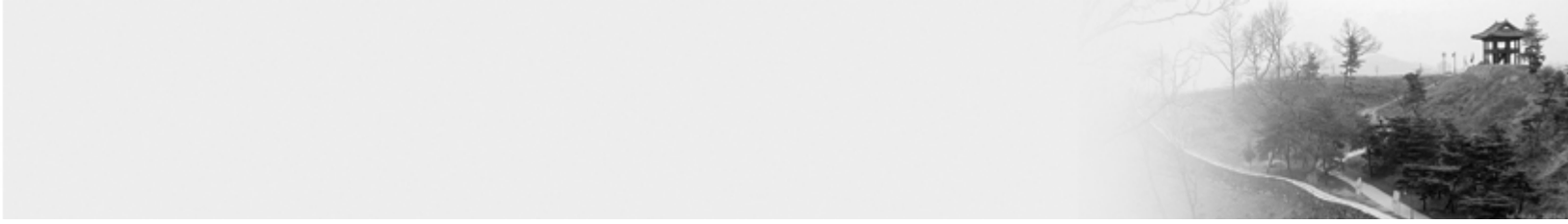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열녀와 관련된 전설로는 도미처, 지리산녀가 있음

- 도미처 : 도미, 정절의 여인 도미의 아내, 도미의 처

○ 효자와 관련된 전설로는 백제의 효동 효자가 있음

○ 첩자와 관련된 전설로는 도림이 있으며, 도림의 간모 사화의 이야기임

○ 성명미상의 인물로는 호경과 용댕이, 양거미와 여승, 부인경, 동내의 며느리 전설, 은행나무와 사장암 등이 있음



(3) 유적 전설 : 궁터, 능묘, 고성 등

▌궁터

○ 궁터와 관련된 전설로는 궁평과 왕궁평 등이 있음

▌능(총)묘

○ 능묘와 관련된 전설로는 쌍릉, 가림 왕릉, 계백장군 묘, 견훤총, 아기장군 무덤, 망진산의 말무덤 등이 있음

- 쌍릉 : 말통대왕릉
- 가림 왕릉 : 왕림의 전설
- 계백장군 묘 : 계백장군과 말무덤
- 견훤총 : 후백제 왕 견훤 묘, 견훤의 무덤
- 아기장군 무덤
- 망진산의 말무덤

▌우물 ·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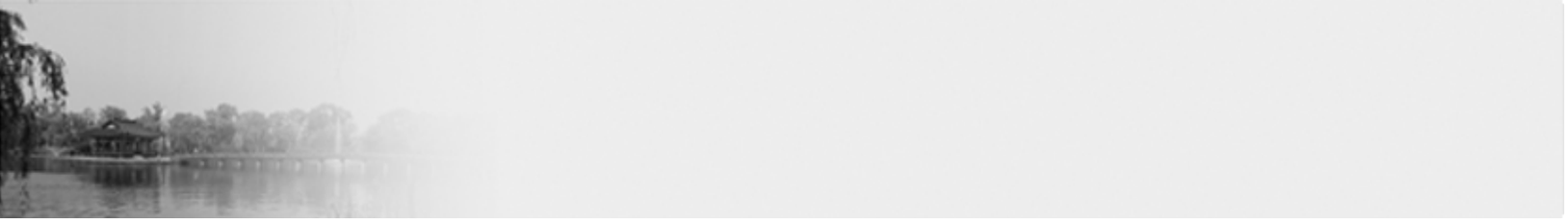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우물 · 샘과 관련된 전설로는 왕궁정, 대정, 구름샘, 고란약수와 노파, 영천지 등이 있음

- 왕궁정 : 왕궁탑 옆 우물
- 대정 : 백제의 어정(御井)
- 구름샘 : 부여 동남리 우물의 전설
- 고란약수와 노파 : 고란사 약수 전설
- 영천지 : 백제 웅진의 효자 관련 약수터

▌고성(古城)

○ 고성과 관련된 전설로는 기준성, 임존성, 군창지와 반월성, 등화산성, 위례산성, 성흥산성, 송우산성, 황산성, 견훤이 승리한 장암리 성터, 두릉윤성 등이 있음

- 기준성 : 익산 미륵산 꼭대기
- 임존성 : 백제의 복신, 지수신, 흑치상지 등 당나라에 항거한 성
- 군창지와 반월성 : 부소산성 백제시대 군창지(부여읍)
- 등화산성 : 불빛이 밝혀진 등화산성(논산 등화리)
- 위례산성 : 백제의 첫수도 부소산 위례성(성거산-백마강), 부여와 통한 위



례성 우물, 용샘으로 왕래한 의자왕, 밤에는 위례성, 낮에는 부여에 가 있는 백제왕(천안, 부여 부여읍)
- 성흥산성 : 우렁봉과 우두산성(부여 임천)
- 송우산성 : 백가 장군이야기(부여 임천)
- 황산성 : 계백장군가 향교골 성(논산 연산)

▌다리

○ 다리와 관련된 전설로는 발다리, 문동교, 하마비, 조석다리, 등이 있음
- 발다리 : 족교리(부여 양화)
- 문동교 : 소정방과 금송아지 이야기(부여 임천)
- 하마비 : 문둥다리 전설(부여 세도)
- 조석다리 : 백제시대 효자이야기(부여 남면)

▌사당

○ 사당과 관련된 전설로는 유금필 사당의 구가와 가림성, 유장군 목상(부여 임천) 등이 있음

▌누각

○ 누각과 관련된 전설로는 영일루의 용을 바라보던 영일루(부여 부소산)가 있음

▌해태

○ 해태와 관련된 전설로는 해타의 신력(부여 장암)이 있음

▌석련지와 백제탑

○ 석련지와 백제탑(부여)과 관련된 전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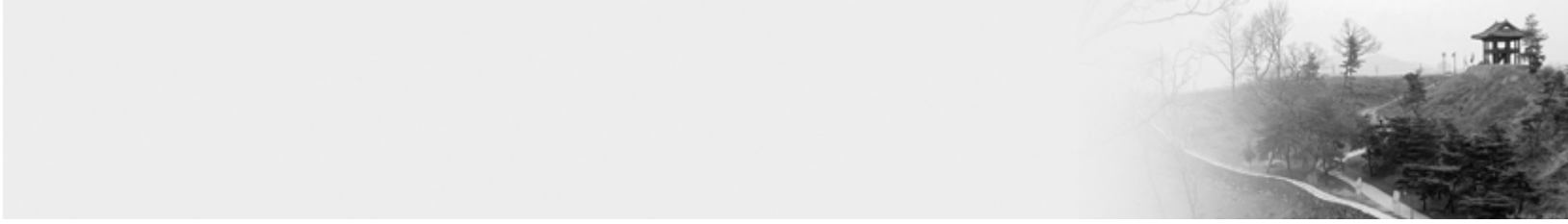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4) 불교 전설 : 미륵선화, 미륵상, 석불상 등

▌미륵선화(彌勒仙花)

○ 미륵선화 관련전설로는 진지대왕 흥륜사와 공주 수원사 미륵선화 전설이 있음

▌미륵상

○ 미륵상과 관련된 전설로는 대조사 미륵(부여 임천 성흥산)이 있음



▌석불상

○ 석불상과 관련된 전설로는 부처당이, 부처당이마을 유래(공주 탄천) 등이 있음

▌사찰

○ 사찰과 관련된 전설로는 천방사, 미륵사, 천흥사, 금산사, 오금사, 왕흥사, 개태사, 희사, 대조사 창건 연기 설화, 영랑사, 향천사, 대통사, 고란사, 마명암, 수열암, 부석사, 오암사, 조왕사, 범황사, 영천암 등이 있음

- 천방사 : 천방산의 설림사, 천방사와 소정방(서천 문산)
- 미륵사 : 꿈에 얽힌 미륵사 창건 이야기(익산 왕궁)
- 왕흥사(부여 규암)
- 개태사 : 개태사 연기설화(논산 연산)
- 대조사 창건 연기 설화 : 대조사의 유래(부여 임천)
- 대통사 : 대통사의 연기, 공주 대통사(공주 중학동)
- 고란사 : 고란사와 고란초, 고란사 효종(부여 부여읍)
- 마명암 : 마명암 애화(공주 계룡산)
- 조왕사와 범황사 : 백제시대 절터(부여 부여읍과 충화)

▌탑

○ 탑과 관련된 전설로는 왕궁탑, 미륵탑, 남매탑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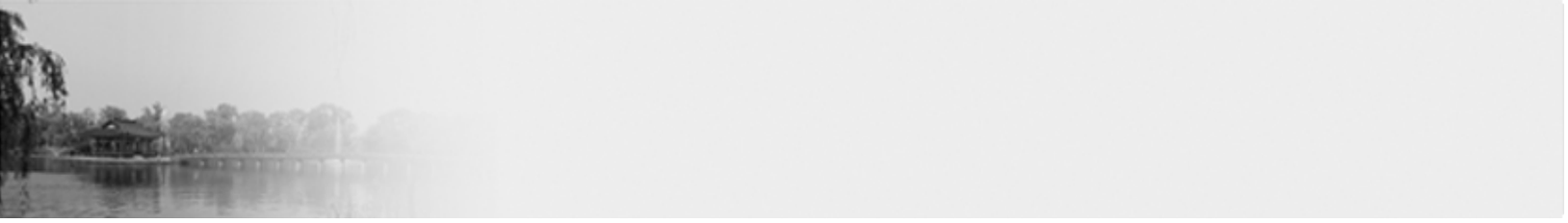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왕궁탑 : 후백제와 왕궁탑 창건 이야기(익산)
- 미륵탑 : 미륵탑 창건에 얽힌 사연(익산)
- 남매탑 ; 오뉘탑(공주 계룡산)

(5) 지명, 생활관련 전설 : 지명, 산, 강 등

▌ 지명

○ 지명과 관련된 전설로는 팔충면, 반조원, 장군동, 궁골, 군량들, 마구평, 한삼천, 제전리, 윙전리, 효가리, 사근다리, 구드래, 천당리 인근 지명유래, 우기리, 황새말, 연화지의 두 도령, 무성산, 닭다릿들, 꽃쟁쥐, 만가대와 진일포, 팥죽고개 등이 있음

- 팔충면 : 백제 여덟 충신 출생지(부여 임천)
- 반조원 : 소정방이 황제의 명령을 전한 곳(부여 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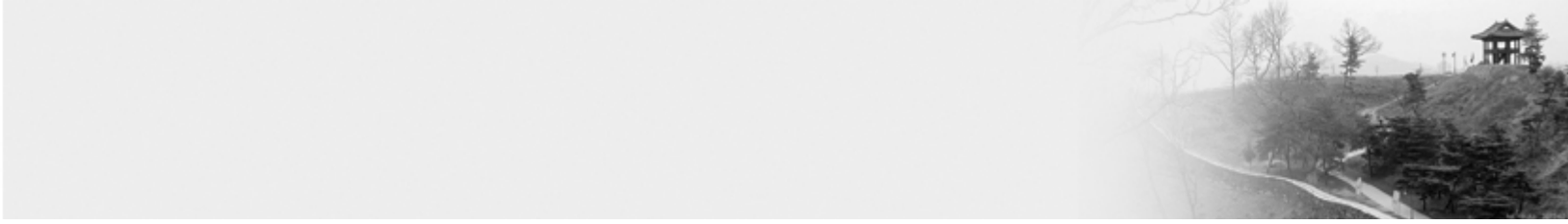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장군동 : 군장동 전설, 장군동 당나라군 은둔지(부여 석성)
- 궁골 : 의자왕이 궁궐을 지었던 궁골(논산 성동)
- 마구평 : 말 아홉 마리가 나타난 마구평(논산 부적)
- 한삼천 : 백제의 한이 서린 황산벌과 한삼천(논산 벌곡)
- 제전리 : 부인처면 제전리(논산 부적)
- 왕전리 : 임금이 토지로 보상(논산)
- 효가리 : 효자에 대한 전설지(공주)
- 사근다리 : 삭은다리 이야기(부여)
- 구두레 : 백제는 크다, 크다의 뜻(부여)
- 천당리 인근의 지명유래 : 계백장군 출생지 추정(부여)
- 우기리 : 임금터 우기리(논산 채운)
- 황새말 : 백제시대 황새마을 이야기(부여 내산)
- 연화지의 두 도령(부여 초촌)
- 무성산 : 성이 없는 산(부여 임천)
- 당골 : 당나라군 주둔지 당암리 1구(공주)
- 닭다릿들 : 견훤에 대한 전설(논산 연무)
- 꽃쟁쥐 : 꽃쟁이집 이야기(부여)
- 만가대와 진일포 이야기(부여)
- 팥죽고개 : 효녀의 애화(공주 이인)

▌산

○ 산과 관련된 전설로는 황산, 황화산, 금마산, 오금산, 파진산, 천방산, 망심산, 부산, 유왕산, 사당산, 마가산, 옥녀봉, 옥녀산, 시루봉 등이 있음

- 황산 : 일명 천호산(논산 연산)
- 황화산 : 황화대(논산 은진)
- 금마산 : 견훤의 말(익산)
- 오금산 : 서동이 마를 캐던산(익산)
- 파진산 : 파진산 지명 전설(노적봉 전설), 파진산 유래(부여 석성)
- 천방산 : 소정방이 제지낸 천방산, 설림산(서천 문산)
- 망심산 : 백제 충신 귀양지(부여 구룡)
- 부산: 부산 전설(떠내려온 산), 부산의 유래(부여 규암)
- 유왕산 : 유왕산에 얽힌 이야기(부여 양화)
- 사당산 : 사당산이야기(부여 양화)



- 마가산 : 마가산 선녀(부여 옥산)
- 옥녀봉 : 오영일가 이야기(공주 신풍)
- 옥녀산 : 백제시대 임금 사냥터(부여 장암)
- 시루봉 : 백제시대 신하들 좌객 산(부여 장암)

▌강(천)

○ 강(천)과 관련된 전설로는 백마강, 구리내 등이 있음

- 백마강 : 소정방 백마와 용의 전설(부여 부여)
- 구리내 : 구리내의 연유(공주 우성)

▌포(浦)

○ 포와 관련된 전설로는 대왕포, 진일포 등이 있음

- 대왕포 : 백제 무왕 연회장소(부여)
- 진일포 : 진일포 전설(부여 규암)

▌진(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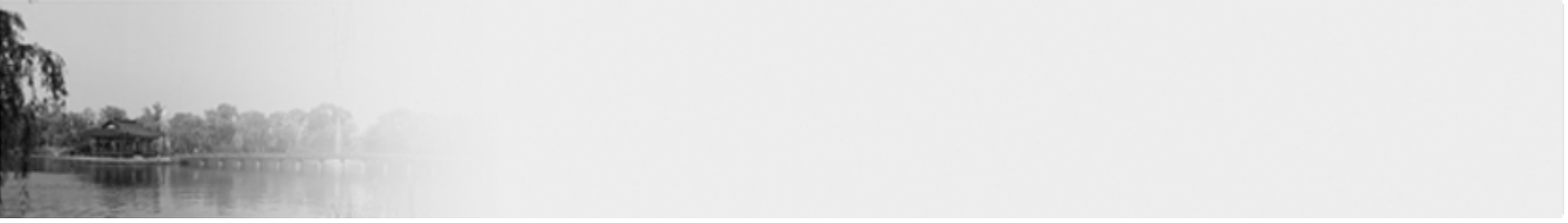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진과 관련된 전설로는 고성진, 웅천(웅천) 등이 있음

- 고성진 : 사자하(부여)
- 웅천 : 웅진의 유래, 곰나루 전설, 곰나루, 곰하나루(공주)

▌대(臺)

○ 대와 관련된 전설로는 용암(조룡대), 자온대, 천정대(정사암), 희녀대, 치마대 등이 있음

- 용암(조룡대) : 백마강 조룡대 전설, 조룡대-구린내 동네, 조룡대의 유래(부여 규암)
- 자온대 : 자온대와 이무기(부여 규암)
- 천정대(정사암) : 홍암사 정사암, 천정대, 하늘에서 정사를 정해준 천정대, 천정대는 백제왕이 피신했던 곳, 대신들의 천의를 받아 정사한 곳, 천정대는 비밀 정치 밀담장, 천정대는 기상을 관측한 곳(부여 규암)
- 희녀대 : 백제 의자왕 연회궁(부여 석성)
- 치마대 : 백제왕 치마대 전설(부여 장암)



▌암(석)

○ 암(석)과 관련된 전설로는 낙화암, 마낭바위, 쌀바위, 엿바위, 장군바위, 남매바위, 병풍바위, 엄대암, 장독바위 등이 있음

- 낙화암 : 타사암, 낙화암 지명 전설, 백마강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 낙화암 두견(부여 부여읍)
- 마낭바위 : 백제 장수 충절(논산 등화리)
- 쌀바위 : 미암사(부여 내산)
- 엿바위 : 자온대 바위(부여)
- 장군바위 : 바위틈에서 나온 장군이야기(공주 중학동)
- 남매바위 : 성재산의 남매바위(부여 규암)
- 병풍방위 : 병풍바위 전설(공주 중학동)
- 엄대암 : 백제 멸망 장군이야기(공주 신풍)

▌고개

○ 고개와 관련된 전설로는 능고개, 고마니 고개 등이 있음

- 능현(능고개) : 백제왕능터 이름(공주)
- 고마니 고개 : 백제 멸망 출정 장정들을 기다린 고개(공주 장기)

▌연못(池)

○ 연못과 관련된 전설로는 마룡지, 만광지, 궁남지, 용못, 원숭이 못 등이 있음

- 마룡지 : 서동왕 어머니가 축실(익산)
- 만광지 : 맹괭이방죽, 소정방과 맹갱이(부여 부여읍)
- 궁남지 : 궁남지 유래(부여 부여읍)
- 용못 : 백제시대 구두쇠이야기(공주 계룡)
- 원숭이 못 : 원숭이 못 전설(부여 초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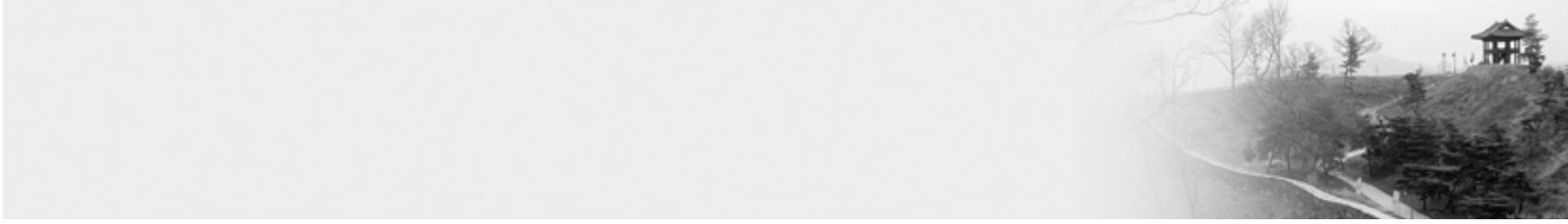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굴

○ 굴과 관련된 전설로는 도적굴, 수쾡이굴 등이 있음

- 도적굴 : 백제 용사들의 의지가 담겨진 도적굴(논산 성동)
- 수쾡이굴 : 숙향이 굴 이야기(논산 은진)

▌민속

○ 민속과 관련된 전설로는 유왕산놀이가 있음



- 유왕산놀이 : 유왕산유래, 유왕산과 그 인근의 지명 유래(부여 양화)

▌제의

○ 제의와 관련된 전설로는 별신제, 갑사 목신제, 혈순당 당제, 유태사 성황제 등이 있음

- 별신제 : 은산 별신당(부여 은산)
- 갑사 목신제 : 갑사 당산제, 당산제 전설(공주 계룡)
- 혈순당 당제 : 혈순당의 벽화(부여 부여읍)
- 유태사 성황제 : 태성산의 성황제(유금필)(부여 장암)

▌생물

○ 생물과 관련된 전설로는 수목, 위어 등이 있음

- 수목 : 녹간 은행나무(부여 내산)
- 위어 : 백마강의 위어(부여 부여읍)

2) 백제 관련 스토리텔링의 활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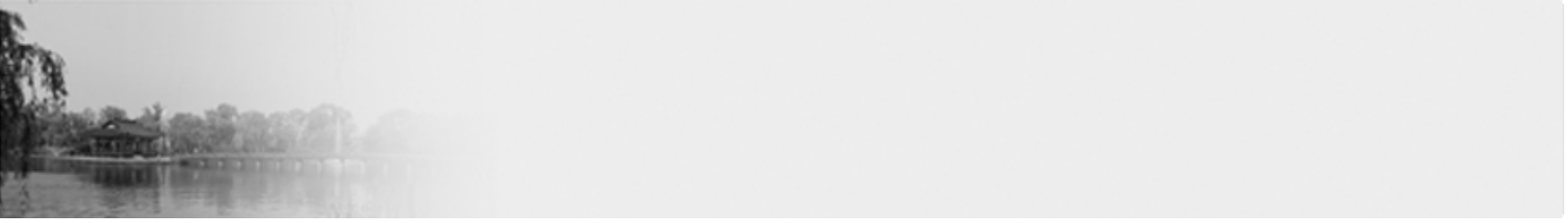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1) 충청남도 활용 사례

▌사비의 꽃

○ 사비의 꽃은 2009년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3D(차원)입체 애니메이션영화(18분 단편)로 제작함

○ '사비의 꽃'은 백제 사비성 전투를 배경으로 꽃을 사랑하는 소녀 연화와 바람 같은 소년 풍이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한국형 판타지 영화로, 사랑과 희생, 평화의 메시지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09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에서 애니메이션부문 특별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세계대백제전 기간 동안 부여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상영되어 전회매진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대백제전의 흥행을 주도하였음



▌백제야 놀자

○ 백제야 놀자는 백제의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인물들의 영웅담과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어린이들이 쉽게 700년 역사를 이해하도록 기획된 학습만화임

○ 백제의 대표인물 30인 캐릭터와 정보, 그리고 충남의 유물·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8개의 테마코스로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개발하였음

○ 백제야 놀자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백제 유적을 활용한 만화 속 주인공등과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로 구성된 3,4권 제작하여 사업화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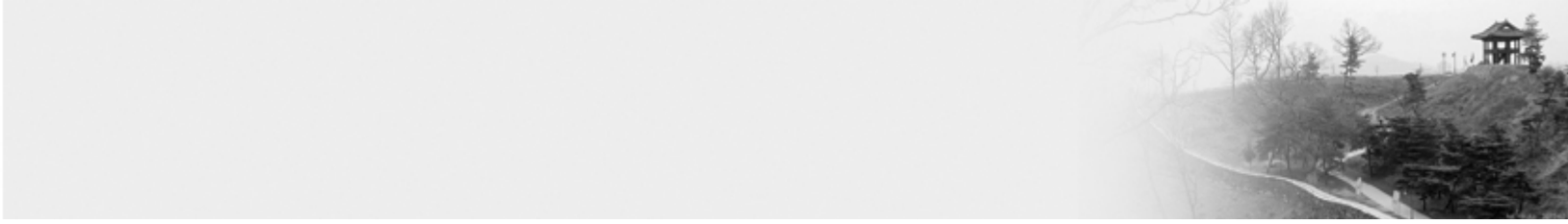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서기행전

○ 충청남도는 2009년 백제금동대향로를 스토리텔링화한 보드게임 서기행전을 완성하여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였음

○ 서기행전(서동의 기이한 여행이야기)은 백제를 소재로 한 문화자원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일환으로 백제금동대향로에 담겨진 오악사와 갖가지 기이한 동물들을 활용, 스토리텔링화하여 제작한 보드게임임

○ 학습적 효과 및 게임이라는 흥미유발이 어우러진 서기행전은 PC게임으로 재탄생하여 귀여운 캐릭터를 선택하고 백제역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Ⅱ-20] 스토리텔링 사례



(2) 시 · 군별 활용 사례

▌곰나루 전설과 밤 이야기

○ 곰나루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곰나루 설화이야기를 특산품인 밤과 연관성 있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콘텐츠임

- 곰나루 전설은 연미산 끝자락에 살던 암곰이 사람을 사랑하여 자식까지 낳고 살았지만 암곰과의 생활을 견디지 못한 남자가 떠나 버리자 애타게 부르다 자식과 함께 강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임

▌“무령”, “성왕”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09년 기획만화 창작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고 공주시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백제만화콘텐츠로, 백제설화와 전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캐릭터, 일러스트, 소품 등의 이미지를 개발하여 진행함

- 만화 무령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백제의 중흥을 꿈꾸던 동성왕과 무령왕의 일대기를 그리는 작품으로 옛 백제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두 형제의 노력을 담았음
- 또 일들을 돕는 백제인들, 그리고 여러 무장들의 활약과 전투장면, 백제의 영광을 되찾은 후 타락해 가는 형 동성왕과 이를 안타까워하는 동생 무령왕의 모습을 그린 역사 액션 판타지물임

○ 백제 웹툰 성왕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백제성왕의 업적과 일대기를 웹만화로 제작한 콘텐츠임

▌이야기로 풀어보는 사마왕 판타지

○ 사마왕은 무령왕을 뜻하는 말로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사마왕의 탄생비밀 · 웅진천도과정 · 백제생활문화상 · 대외적 교류 등을 통해 무령왕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고 영동대장군 사마 왕 궁궐에서는 신비의 무령왕릉 내부를 만들어 보는 행사로 사마 왕 궁궐 짓기 체험과 사마 왕 되어보기 체험 등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됨

○ 무령왕 유물체험 등을 통해서 이야기에서 파생된 무령왕 나무 관 제작 체험, 무령왕 부장품 제작 체험, 무령왕 구슬꿰기 · 귀걸이 제작 체험은 물론 유물조각 맞추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백제 왕궁에서 왕실관련, 금 · 은 · 세공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함

▌서천 황새마을

○ 서천 황새마을에서 발굴한 대표 구전자원으로 도둑 잡은 황새이야기로 나무꾼 부부가 노인에게서 산 황새로 도둑을 잡고 도둑이 개과천선했다는 이야기이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재미있는 만화로 제작되었음

▌동화로 엮은 우리고장 익산

○ 전북 익산시는 지역 역사문화를 재발견하고 대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2010 익산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스토리텔링 발굴에 힘쓰고 있음

○ 스토리 발굴을 통하여 익산의 문화 및 문화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남게 하고자 전국 최초로 익산 대표 설화와 인물을 소재로 스토리텔링화한 동화책, 동화로 엮은 우리 고장 익산을 발간하였음

○ 이 동화책은 총 10권으로 제작되었으며 사람으로 꿈을 이룬 서동과 선화공주, 함라마을 세부자 이야기 등의 내용으로 전국유명 동화작가와 지역작가들이 참여하여 제작하였음

○ 동화책을 통하여 익산에 대한 역사를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접근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익산의 마한, 백제, 근대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됨

○ 길에서 제시될 스토리텔링자원은 백제옛길이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닌 역사와 유적을 다시 돌아보고 그 시절을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주변의 백제시대를 느끼고 흥미롭게 걸을 수 있도록 스토리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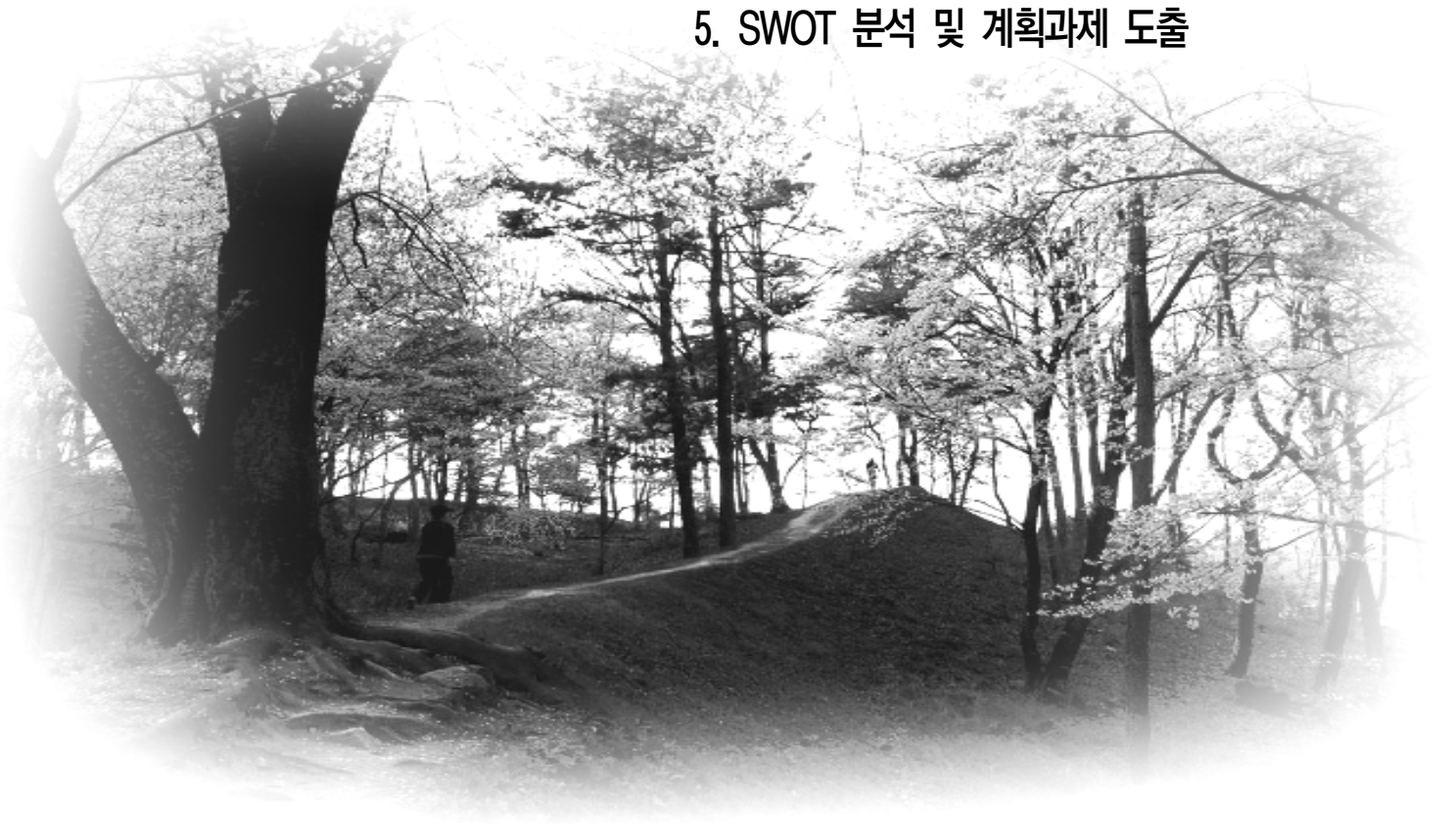
○ 스토리자원은 백제를 표현함에 있어 흥망성쇠가 나타나고 백제의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곳곳에 묻어나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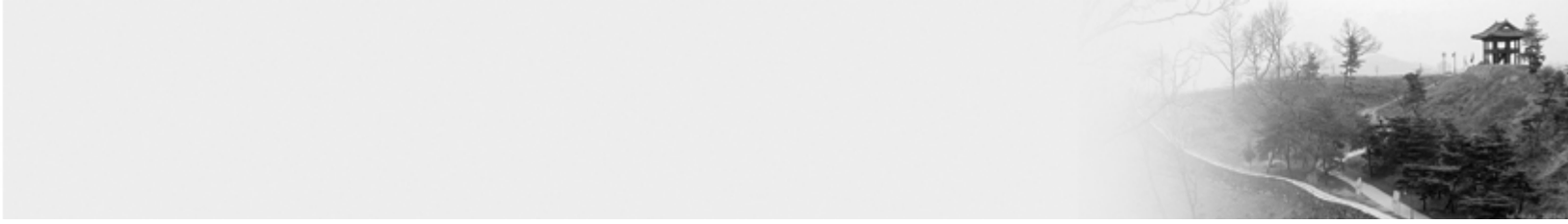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그림 Ⅱ-21] 백제만화콘텐츠 '무령'

[그림 Ⅱ-22] 동화로 엮은 우리고장 익산

Ⅲ. 법규와 관련계획

1.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2. 국내 · 외 사례조사
3. 길 여행 동향분석
4. 도보이용객 수요예측
5. SWOT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1) 관련 법규검토

○ 백제옛길 조성과 관련하여 관광자원의 발굴, 개발과 관련한 법,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규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세부 검토 법규로는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과 관련하여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경관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자 함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제정 배경

○ 역사문화환경에서 광역적 보존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을 필요로 함

○ 또한 국가 정체성 확립을 경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며 고도가 가진 역사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골격을 회복시키고 주민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을 재생시켜 고도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함[1)]

○ 이에 따라 과거 우리민족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 :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제정·시행(`04.3.5 / `05.3.6)함

▌주요 내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일부개정 2011.7.21 법률 제10881호 시행일 2012.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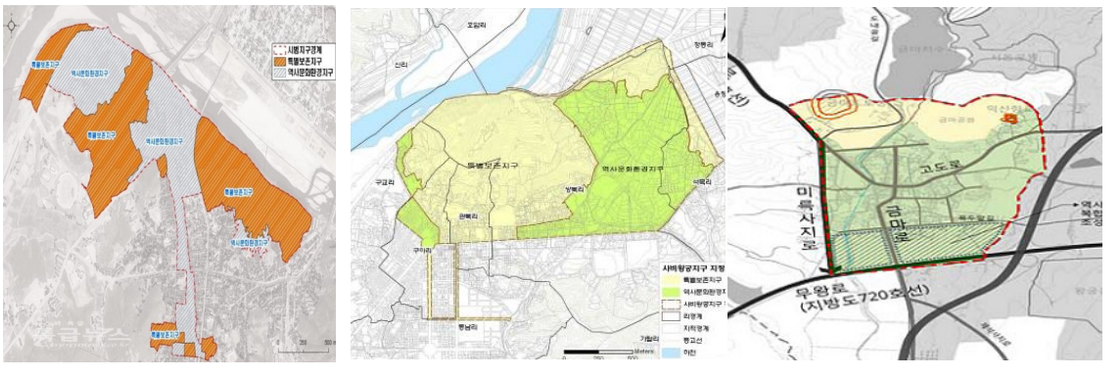
-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1) 문화재청(2012), 고도 지구지정 및 고도보존계획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계획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키고 지역중심의 면적보존을 위한 관리수단으로서 광역적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통해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原形)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
- 역사문화환경지구 : 특별보존지구의 주변 지역 중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공주 부여 익산

[그림 Ⅲ-1] 고도보존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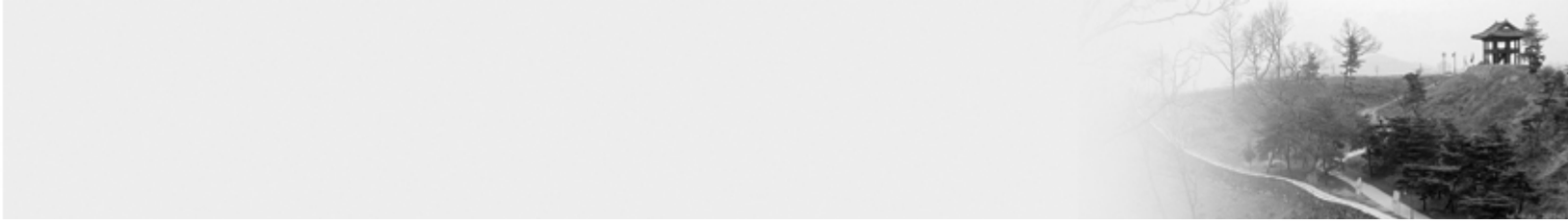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하나,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고도지정, 고도보존계획이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2) 문화재보호법

▌제정 배경

○ 21세기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유산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하는 대표적 공공재로서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 외에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문화재 범주를 확대하고 보호수단과 방식에 있어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음(정석, 2009)

○ 문화재 유산정책은 현안에 대한 대응위주의 문화재 보존에서 탈피하여 예방적· 과학적 보존,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었음

○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로 분법되어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음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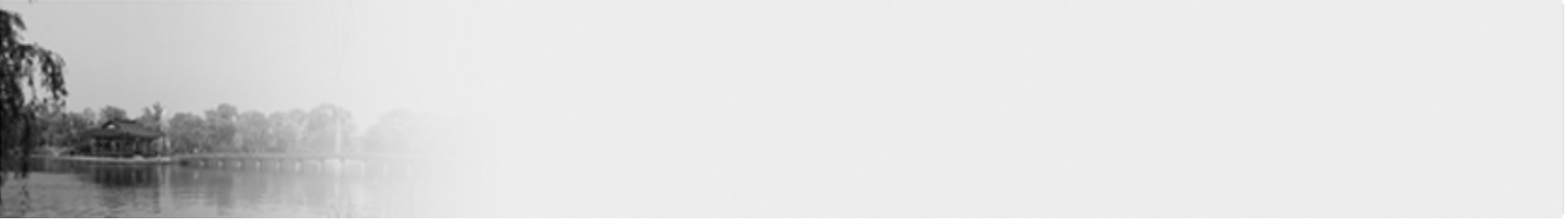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 문화재보호법은 법에 근거한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제도를 마련함

-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됨

○ 이 밖에도 2010년 2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역사문화환경이라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을 지정하고 있음

○ 그 범위는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의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됨



(3)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배경

○ 1991년 12월에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목적을 갖고 있음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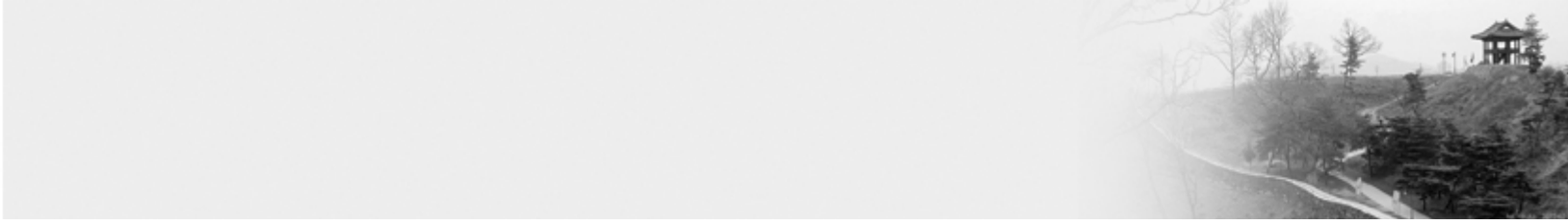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이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공익에 적법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하며,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고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함

○ 또한 자연의 환경친화적인 이용개발과 자연환경의 복원과 복구,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의 공평한 분담과 지역주민 우선혜택, 그리고 자연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명시하고 있음

○ 관광분야에서는 완충지역내 생태탐방, 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전이지역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숙박·판매 등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임
- 도보여행의 보행로 개설과 관련하여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신축 건축물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법규 내 생태관광의 육성에 관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 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4) 경관법

▌제정 배경

○ 과거에 비해 도시정주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이 중 경관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종합적 경관관리체계의 마련이 요구되었음

▌주요 내용

○ 경관법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된 법임

○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지자체에서 경관시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근거법이자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5) 관광진흥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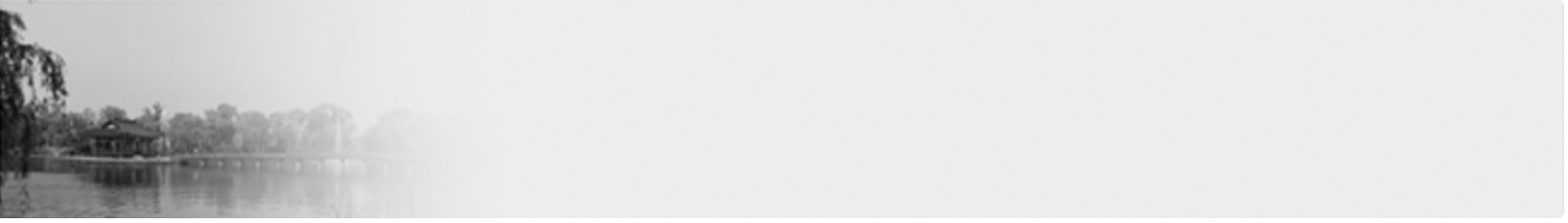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제정 배경

○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등으로 한국관광이 크게 도약함에 따라 관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새로이 발생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법규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였음

○ 이에 따라 종래의 관광사업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관광진흥법으로 제정하게 되었음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은 관광지나 관광단지등의 개발·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관광자원의 보호 · 개발이용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권역별 개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관광자원의 보호 · 개발이용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권역별 개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정보제공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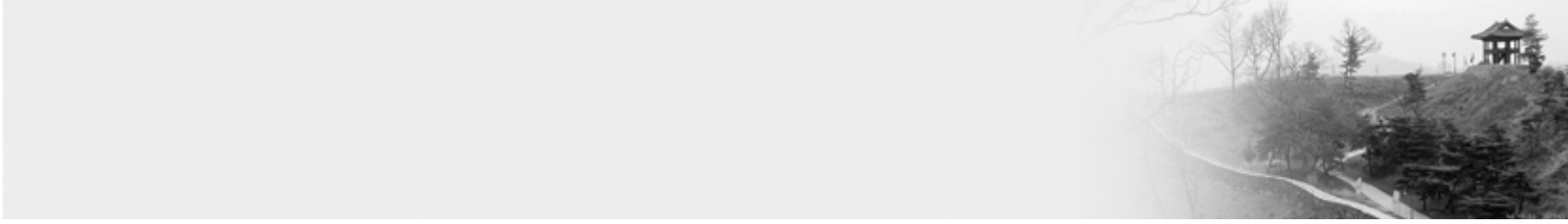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도보여행자가 관광지로의 지정을 위한 지정 · 고시에 관련된 사항과 관련시설계획의 작성법, 승인신청, 관리계획, 용지매수와 보상업무 등의 내용이 포함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 ·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전 국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부문으로써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

○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경관의 개선 및 복원,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2) 관련계획 검토

(1)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프로젝트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09)

○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나는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 및 친환경 관광 상품의 확충을 위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자원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방문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스토리가 흐르는 길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길 자체를 주요 자원으로 하여 지역의 자원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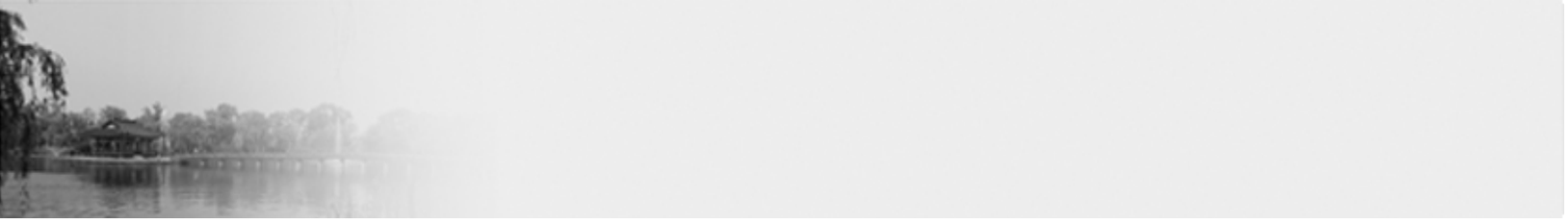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문화생태보행로 조성의 기본원칙은 지역의 상징성, 고유성을 갖고 있는 길을 찾고 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자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노선을 발굴하며 이용방법, 이용형태에 따른 다양한 노선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임

○ 또한 역사, 문화, 생태 및 관광자원 등 자원별 인벤토리(inventory)를 작성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문화가 흐르고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친환경적인 녹색문화생태길로 조성하고자 함

〈표 Ⅲ-1〉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조성을 위한 자원구분내용

구분		내용
생태자원	자연생태자원	• 강, 해안, 동·식물, 산악과 평지 자원, 수변 및 해양자원 등 생태적·자연적인 가치를 지니는 생물 또는 비생물적인 요소
	자연경관자원	•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도래지, 습지 등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지니는 지역·지형 또는 이에 부속된 요소
역사문화자원		• 신화·전설·민담, 인물, 민속·풍습, 유적지·명승지 등 전통적·역사적 유래와 특징을 지니는 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 문학·미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소재 또는 배경으로 활용되는 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 특정한 문화적 콘텐츠나 아우라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 또는 생활 속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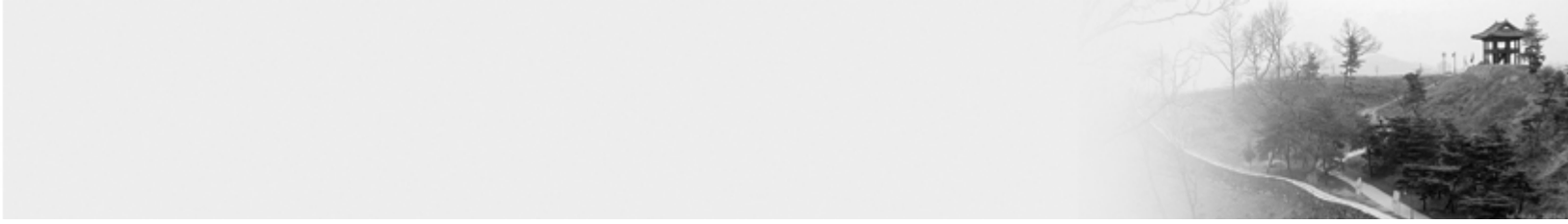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프로젝트 기본계획(2009)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사업을 통하여 소통의 길, 치유의 길, 인생을 키우는 길, 재미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여행문화학교 운영, 보행로 보물찾기, 팸투어 등 다양한 걷기 이벤트를 마련하고, 선정된 보행로 별로 스토리텔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미있는 길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특히, 보행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행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09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7개의 보행로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 새롭게 발표된 문화생태 보행로 10곳에는 백제문화권에 포함되는 사비길이 포함되어 조성 중임

[그림 Ⅲ-2]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노선 계획(안)



(2) 국가생태문화보행로 조성계획(환경부, 2009)

○ 국가생태문화보행로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자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으로 정의됨

○ 자연환경의 직접적 체험에 기반 하여 여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토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하여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고자 함

○ 또한 환경부는 국가생태·문화보행로 조성을 통하여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이나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 역사자원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함

○ 2017년까지 매년 60개 구간의 보행로가 조성될 계획으로 강길, 해안길, 숲 생태길의 3대 기본유형을 가지고 마을길(생태적 배경을 가진 시골길, 도시길, 자전거길), 옛길 등의 다양한 테마를 부여하여 조성하고자 함

〈표 Ⅲ-2〉 국가생태문화보행로의 구성

구분		개념·정의
생태문화탐방권역		• 국가생태·문화보행로 조성을 권장하는 권역 • 3대 탐방권역 ① 강길권역, ② 해안길 권역, ③ 숲생태길 권역
생태문화보행로 조성가능구역		• 국가급 생태·문화보행로를 조성할 수 있는 권장구역 - 탐방잠재가치분석결과에 의해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한 구역 - 보전필요지역 제척, 완충지역 일부 및 전이지역에 보행로 조성 권장
생태보행로	탐방지원로(연결로)	• 국가급 생태·문화탐방자원과 보행로로 접근할 수 있는주변도로 • 생태·문화탐방지원로가 입지하는 자연환경 유형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 ①강길, ②해안길, ③숲생태길 • 탐방지원로로부터 생태·문화보행로를 통해 탐방자원(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의 접근과 관찰이 이루어짐
	탐방진입로	• 탐방지원로는 보행로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차량이용가능도로 • 보행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로로써 도보, 자전거, 대안교통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이 있음
	보행로	• 보행로는 지원로로부터 탐방자원으로의 진입 및 접근도로, 자전거 도로, 대안교통로, 관찰로 보도 등의 도로를 포괄하는 개념임

자료 : 환경부, 국가생태·문화보행로 사업설명회 자료(2008. 6. 17)

(3) 찾아가고 싶은 명품 녹색 길(행정안전부)

○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우수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도록 도보중심의 길을 복원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명품녹색길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중 찾아가고 싶은 명품녹색길은 그동안 지자체가 조성한 보행로 중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고, 문화가 살아있으며,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명품녹색길 우수사례 33곳을 엄선한 것임

○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 서로 소통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충남에서는 태안의 태안바라길이 기름유출을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난 태안의 바다를 중심으로 생태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는 길로서 선정되었음

[그림 Ⅲ-3] 찾고 싶은 명품 녹색길

(4) 산림문화체험 숲길(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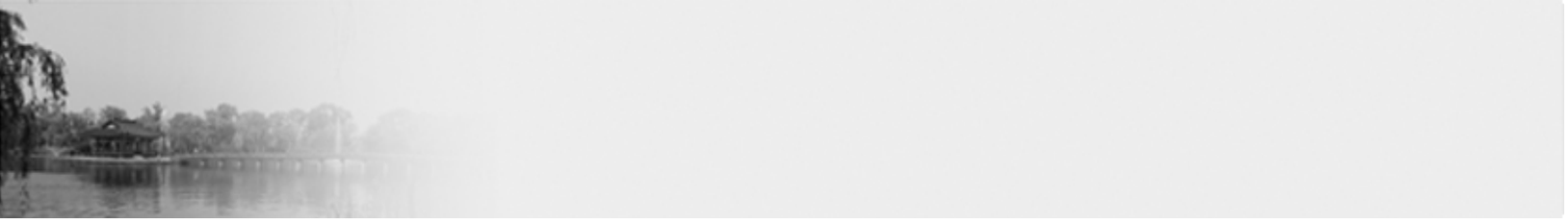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역고유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산림문화숲길을 2016년까지 전국 12개소, 1500㎞(1단계 : 12년까지 1,000㎞)를 조성할 계획임

○ 지금까지의 등산로가 등정을 목적으로 산을 오르는 행위에 비중을 둔 수직적인 활동공간인데 비해 산림문화체험숲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고유의 산림생태·문화·역사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조성하는 장거리 걷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음

○ 권역 숲길 조성 대상 지역은 7개 권역 12개소로 충청권에는 호반길 내포문화길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노선에는 등산안내인·숲 해설가 등을 배치하여 다양한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며, 마을 고유의 역사·풍습, 지역축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 산림문화체험숲길이 조성되면 다양한 계층과 여러 유형의 등산수요에 부응하고 국립공원 등 유명산에 집중되는 이용압력을 분산시켜 산림생태계 훼손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림 Ⅲ-4] 산림문화체험숲길



(5) 비단물길 금강이야기(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비단물길 금강이야기는 대청호부터 서천 금강하구둑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종주길로 금강변을 따라 총 연장 146㎞로 조성되었음

○ 이 구간에는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는 물론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신성리 갈대밭, 강경포구, 구드래나루, 곰나루, 대청댐 등이 위치하여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음

○ 특히, 공주 시내를 우회하는 구간 주변으로 공산성, 무령왕릉 등 백제유적이 자리하고 있어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금강하구로 들어서면 황산대교와 웅포대교를 지나 신성리 갈대밭, 또한 철새들의 휴식처인 금강하구에서 다양한 철새 등을 만나볼 수 있음

[그림 Ⅲ-5] 비단물길 금강이야기

3) 충남 길 사업 현황

(1) 충남연가

▌문화와 여유가 느릿하게 녹아있는 충남연가

○ 충남 옛길의 발굴과 다양한 문화원형 및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길사업임

○ 충남연가는 새로운 길 조성이 아닌 지역과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기존의 있는 길을 발굴해 최소한의 정비를 통한 조성을 하였음

○ 또한 옛길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옛길 안내서, 동화책제작, 관광지·문화재가 관련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등이 이루어진 점에서 옛길과 현대가 조화롭게 접목된 옛길 사업임

○ 충남연가는 백제길, 태안바라길, 고성가도 등 총 3개의 루트로 조성되어져 있으며 태안 바닷길을 걷는 '태안바라길', 운주산성, 임존성 등 충남의 옛 성을 따라 걷는 '고성가도', 700년 백제의 도읍 공주와 부여의 핵심 여행지를 잇는 '백제길' 임

〈표 Ⅲ-3〉 충남연가 개요

구 분	백제길	태안바라길	고성가도
입지	도심형+평지형	해안형+산악형	산악형
총길이	46.6㎞	44㎞	494㎞
핵심테마	백제역사	생태, 치유, 휴식	성곽
스토리텔링	백제전설, 백제왕국	바다생태, 자원봉사	성곽역사, 성곽전설
이동수단	도보	도보	차량, 도보
마케팅 포인트	백제문화 대표상징 대백제전 연계	자원봉사성지 녹색관광체험	국내최초 성곽루트 고건축 체험

▌문화왕국의 여정, 1400년 전 백제길

○ 백제길은 1400여년전 백제의 자취를 따라 공주에서 부여까지 연결된 총 46.6㎞의 옛길임

- 제1코스는 약 21.5㎞로 공산성~무령왕릉~공산성~원효사~우금치전적지 등 공주의 역사적 포인트를 지나는 6~7시간이 소요되는 옛길임
- 백제의 숨결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2코스는 신기령휴게소~능산리 고분군~궁남지~정림사지~부소산성~백제문화단지에 이르기까지 총연장 27.2㎞의 옛길임

○ 백제길은 백제의 문화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패망의 아픔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화려하지만 아픔이 있는 코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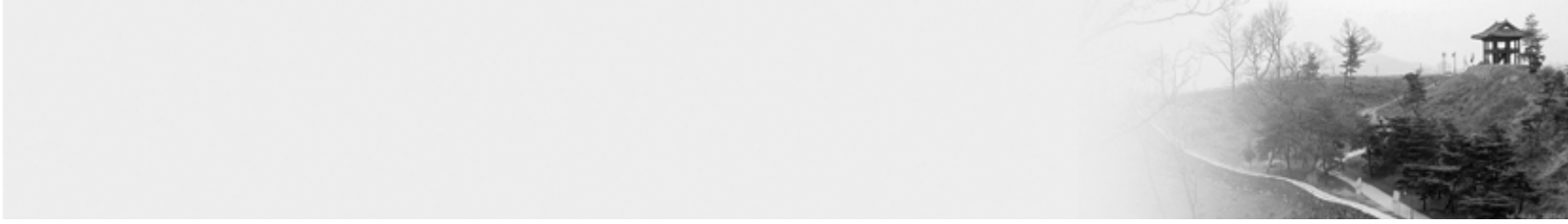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그림 Ⅲ-6] 1400년 전 백제길

▌여유롭게 걷는 태안바라길

○ 태안바라길은 바다의 고어인 아라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도시인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충남연가의 체험길 중 하나임

○ 이 지역은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유류피해지역으로 전 국민의 자원봉사를 통해 다시 생태계가 살아났던 곳으로 당시의 생생했던 기억들과 자연의 소중함을 살리고 태안지역의 아름다운 바다와 생태체험이 가능하도록 코스로 조성하였음

○ 학암포-구래포-먼동-신두리로 이어지는 14㎞의 아름다운 해변과 숲길을 걸을 수 있으며, 코스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안 사구인 신두리사구(천연기



념물 제431호)와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두웅습지가 위치해 있어 볼거리가 풍부함

○ 태안바라길의 풍광은 여타의 해안풍광보다 아름다우나 그 내면에는 기름유출 사건으로 파괴된 생태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트레킹을 즐기며 그 당시의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풍광으로 인해 빨리 걷기보다는 느리게 걸으며 해안의 다양한 풍광을 즐길 수 있고 쉬어 갈수 있어 매력적임

○ 특히 신두사구가 대관령의 목장이나 제주 올레의 목초지와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가족단위 트레커들이 동화책을 보며 동화 속을 거니는 듯한 묘미를 즐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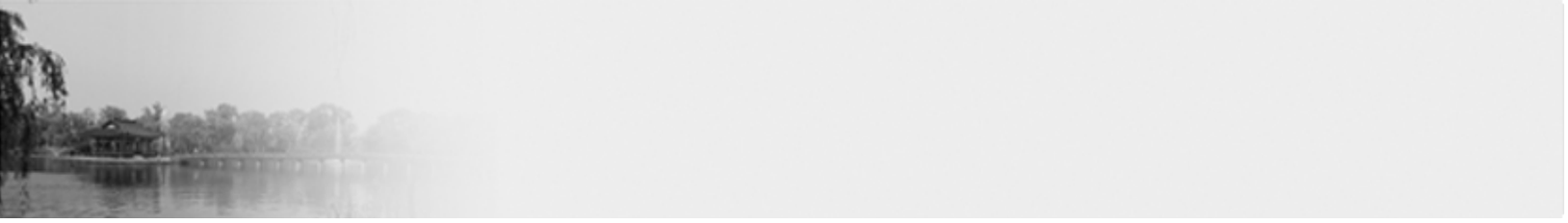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옛날을 느끼며 걷는 고성가도

○ 충남의 옛 고성을 연결하여 옛 성을 따라 역사와 삶을 체험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천안, 연기 등 13개 시·군 494㎞로 천안의 위례산성과 연기의 운주산성 등 18곳의 성이 옛길의 구간이며, 이 구간은 충남 전역에 걸쳐있어서 충남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코스임

○ 고성가도는 위례산성(천안)~운주산성(연기)~공산성(공주)~노성산성(논산)~부소산성, 성흥산성(부여)~건지산성(서천)~남포읍성, 오천성(보령)~안흥성, 백화산성(태안)~해미읍성(서산)~홍주성(홍성)~우산성(청양)~임존성(예산)~영인산성, 꾀꼴산성(아산) 등이 주요 구간임

[그림 Ⅲ-7] 고성가도



(2) 솔바람길

▌자연을 느끼며 걷는 솔바람길

○ 충청남도에서는 생활주변의 자연환경에 이야깃거리를 더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로하스(LOHAS)개념의 솔바람 길을 조성 중에 있음

○ 솔바람길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역사적 사실과 전설을 간직하는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선정됨

- 사업범위에는 충남의 모든 시군이 포함되며 전문가들의 실사를 거쳐 시군별로 1개씩의 솔바람길이 선정됨

○ 2010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와 태화산 기슭에 시범개설한 마곡사 산책로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음에 따라 확대 운영되고 있음

○ 솔바람길에는 개소당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벤치, 간이화장실, 정자 등 편의시설과 안내판, 안내시설 등이 설치되고 걷기 편하도록 산책로 등이 정비됨

○ 이후 해당코스의 역사성을 살린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여 공정여행과 걷기 대회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임

○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솔바람길' 명칭과 업무표장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출원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충남의 대표길로 조성·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Ⅲ-4〉 솔바람길 사업 현황(2011년)

시군별	사 업 명	위치 / 구간	거 리
합 계	총 6개소	-	*
천안시	태조산 솔바람 길	동남구 유량동~안서동 일원	5.2km
서산시	아라메 솔바람 길	운산면 용현리 일원	11.3km
논산시	계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솔바람 길	부적면 충곡리, 신풍리	6.0km
부여군	성흥산성 솔바람 길	임천면, 세도면 일원	5.8km
홍성군	거북이마을 솔바람 길	구항면 내현리 일원	5.8km
예산군	온천과 함께하는 솔바람 길	덕산면 사동리, 신평리 일원	5.5km

※ 마곡사 솔바람길은 기 조성되어 현황에서 제외되었음

▌공주 마곡사 솔바람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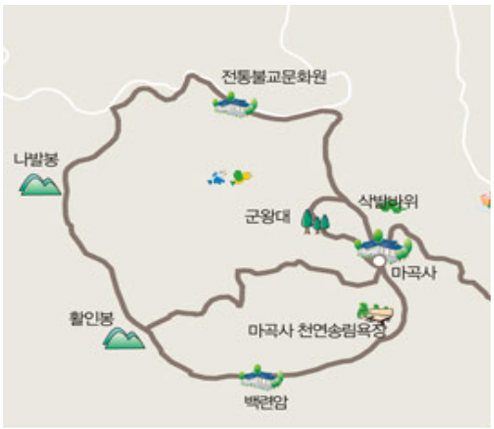
○ 공주 마곡사와 태화산 천연 송림숲 속을 걷는 마곡사 솔바람길은 마곡사에 얽힌 전설과 역사, 문화를 들으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명상의 길로 조성되었음

- 마곡사는 640년 백제 무왕때 신라의 고승 지자율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1898년 백범 김구선생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원종(圓宗)이라는 법명으로 승려생활을 한 곳임

○ 마곡사 솔바람길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으며 짧은 등산로까지 조성되어 가벼운 산행에 적합하며 백범명상길, 명상산책길, 황토숲길 등 총 3개 코스로 나뉘어져 테마에 맞게 산행이 가능함

- 백범영상길(1코스) : 거리 3㎞,소요시간 50분, 마곡사(백범선생기념관)~김구선생삭발터~토굴암~군왕대~마곡사로 돌아오는 코스
- 백범길(2코스) : 거리 5㎞, 소요시간 1시간 30분, 거리 5㎞, 소요시간 1시간 30분
- 송림숲길(3코스) : 거리 5㎞, 소요시간 1시간 30분, 마곡사~천연송림욕장~은적암~백련암~생골마을~아들바위~나발봉~전통불교문화원~다비식장~장군샘~토굴암~군왕대~마곡사

○ 가장 흥미 있는 코스로 꼽히는 1코스 백범길 백범김구선생의 발자취를 쫓는 사색 여행길로 천천히 걸어도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백범선생이 심었다는 백범당의 향나무 앞에서 시작하여 삭발바위, 군왕대를 지나 마곡사로 돌아오는 코스임



[그림 Ⅲ-8] 마곡사 솔바람길

▌논산 계백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솔바람길

○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탑정호 주변 전통문화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보고 즐기며 걷는 자연친화적인 녹색길임

○ 논산 솔바람길은 돈암서원에서 충곡서원을 거쳐, 백제군사박물관, 휴정서원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6㎞의 도보길로 부적면 축고·신풍리 일원에 조성되었음

- 돈암서원은 사적 제383호로 김장생 선생의 김장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자 지방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 건립하였으며, 논산 유교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음

○ 논산시는 탑정호주변에 솔바람길을 조성하여 주변 문화·관광자원의 자연친화적인 시설 조성을 통한 논산시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논산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향후 친환경 생태보행로 확대를 위한 기초구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그림 Ⅲ-9] 논산 솔바람길

▌부여 성흥산성 솔바람길

○ 성흥산성 솔바람길은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스토리로 엮어 방문객들이 느끼고 배우며, 가족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보 중심의 길로 조성되고 있음

○ 성흥산성은 임천면과 세도면 일원에 동성왕 23년인 501년에 축조되어 백제시대 금강하류 방어의 요충지이며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지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성임

○ 성흥산성 솔바람길은 덕고개에서 성흥봉, 성흥산성, 대조사로 이어지는 5.8㎞로 조성되었으며,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그림 Ⅲ-10] 부여 성흥산성 솔바람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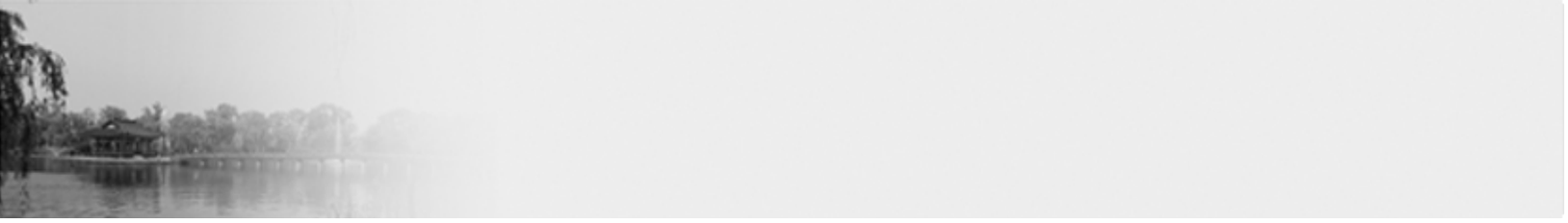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서천 문헌서원 천년 솔바람길

○ 서천군은 기존 문헌서원 숨 불어넣기 사업과 연계하여 솔바람길을 서천의 명품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기존 오솔길을 보수하고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 천년 솔바람길은 서천군 기산면, 한산면 일원에 이르는 문화유적지를 조사·분석하여 생태문화보행로에 적합하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노선정비, 안내시설,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을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해 관광객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그림 Ⅲ-11] 서천 문헌서원 천년 솔바람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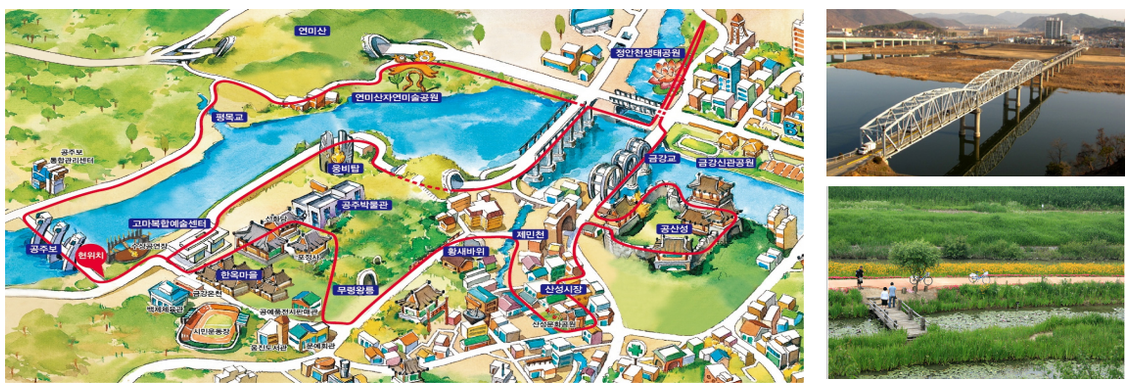
(3) 시·군별 자체 길사업

▌곰나루 명승길

○ 공주곰나루는 공주지역 금강 및 연미산을 포함한 무령왕릉 서쪽으로 전개되는 낮은 구릉지대와 금강변 나루일대로, 공주의 태동지이자 곰과 인간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는 유서 깊은 명승지임

○ 곰나루 명승길은 백제의 옛 도읍지인 공주에서 역사의 향취를 느끼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총 연장 14㎞의 도보여행길로 지역특성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 거점인 금강 8경과 인근마을을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녹색길임

○ 명승길은 왕궁지로 추정되는 공산성에서 출발하여 재래시장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을 둘러보고 공주보를 건너 15만본의 연꽃이 피는 정안생태공원으로 이어져 공산성으로 돌아오는 길로 대략 4시간 30정도가 소요됨



[그림 Ⅲ-12] 곰나루 명승길

▌사비길

○ 사비길은 백제 사비 도성이었던 부여시가지를 관통하는 길로 백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백제 도보 역사문화길임

○ 이는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우수한 부여군 부여읍 일원에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자연환경을 보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 사비길은 문화생태자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보행로 지도 작성 시 보행로의 개략적인 소요시간 예측, 탐방을 위한 진행방향 설정, 코스의 이름, 걷는 거리, 코스의 경유지, 걷는 시간, 걷기 난이도 등을 표기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

[그림 Ⅲ-13] 부여 사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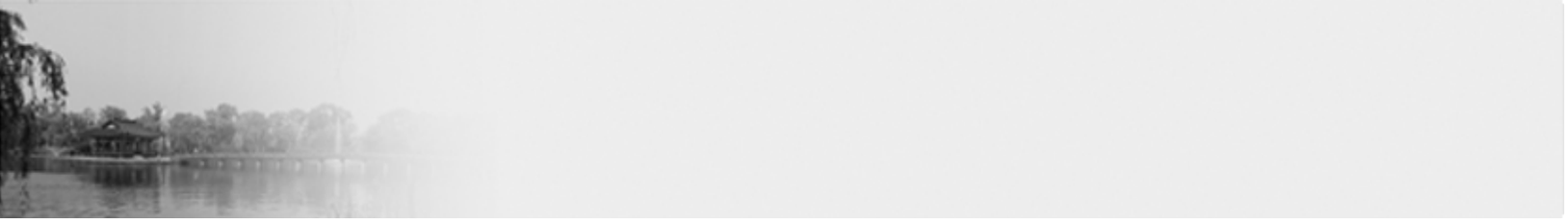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서천군 바닷가 생태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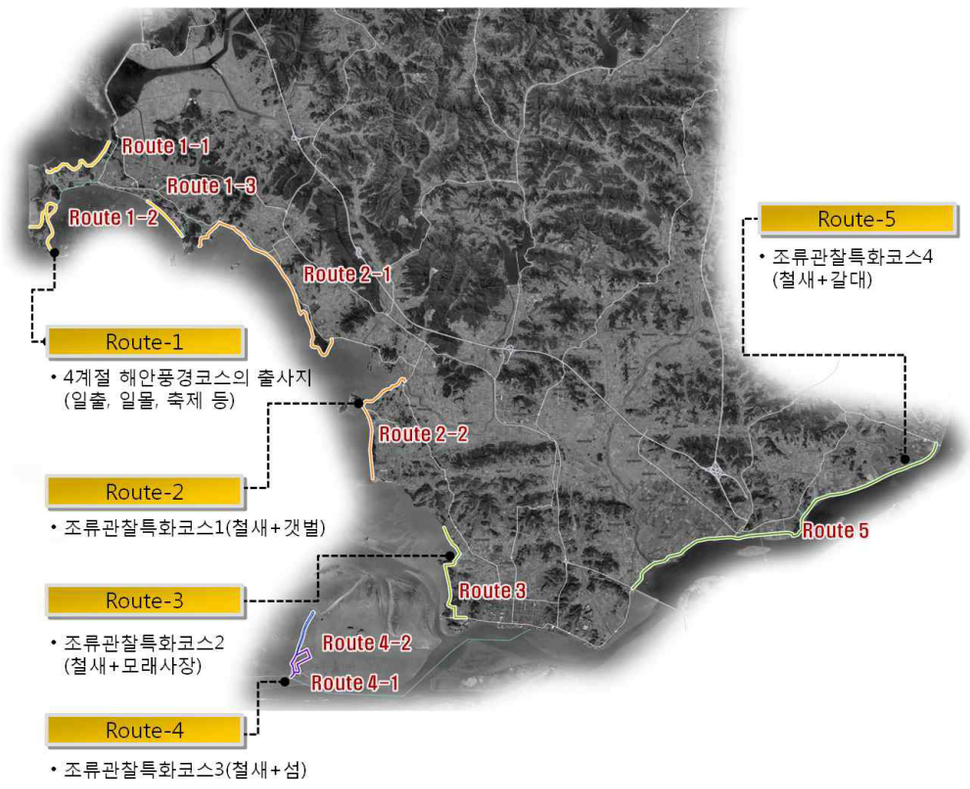
○ 서천군 바닷가 생태보행로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구축모델을 제시하여 지정된 시범사업지로,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마서면, 장항읍 일원에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해변데크, 전망데크, 탐방루트 종합안내판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임

○ 서천군 바닷가 생태보행로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바닷가의 특성을 살려 변화 있는 경관감상을 중심으로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음

○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루트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바다를 걸을 수 있게 조성하였으며 보행로는 총 51㎞의 연장으로 Route 1-5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각 Route별 연계성에 따라 세부 Route로 분류됨

○ 생태보행로는 주요 탐방루트로 해변보행로, 숲속보행로, 마을 보행로로 구분되며 기존의 마을길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자원의 세부관찰을 위하여 일부의 길은 정비하여 이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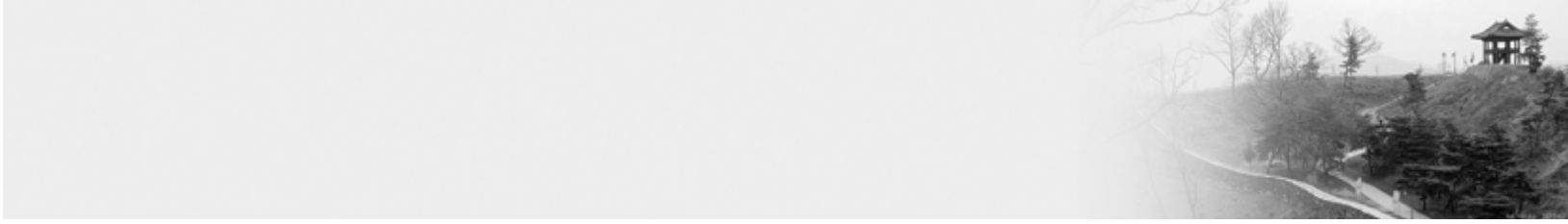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그림 Ⅲ-14] 서천 생태보행로

〈표 Ⅲ-5〉 주요공간별 체험 프로그램

Route	연장	위치	프로그램	주요내용
Route 1	11㎞	춘장대해수욕장-홍원항 동백정-마량포구 해안도로-띠목섬해수욕장	4계절 해안풍경코스의 출사지	노을지는 서해어촌항의 풍경화 이국적인 등대마을 동백나무숲, 해뜨는 서해바다 부서지는 햇살의 반짝이는 바다 경관
Route 2	14㎞	월하성갯벌체험장-다사항 장구만-죽산해변	조류관찰특화코스1 (철새+갯벌)	갯벌 및 독살체험 갯벌 및 철새보호, 관찰
Route 3	5㎞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항송림	조류관찰특화코스2 (철새+모래사장)	삼림욕과 모래찜질체험
Route 4	7㎞	유부도선착장-철새탐조대 철새탐조대-돌섬	조류관찰특화코스3 (철새+섬)	유부도 생태마을 관광 희귀새 관찰 전문가 코스
Route 5	14㎞	하구둑관광지-신성리갈대밭	조류관찰특화코스4 (철새+갈대)	금강백제문화의 길

자료 : 국토해양부, 바닷가 생태보행로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2010)



▌익산 역사탐방의 숨결, 둘레길

○ 익산 둘레길은 익산시 함라면 함라산 일원에 산과 강으로 이어지는 도보여행길로 선조들의 삶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자연생태를 연결하여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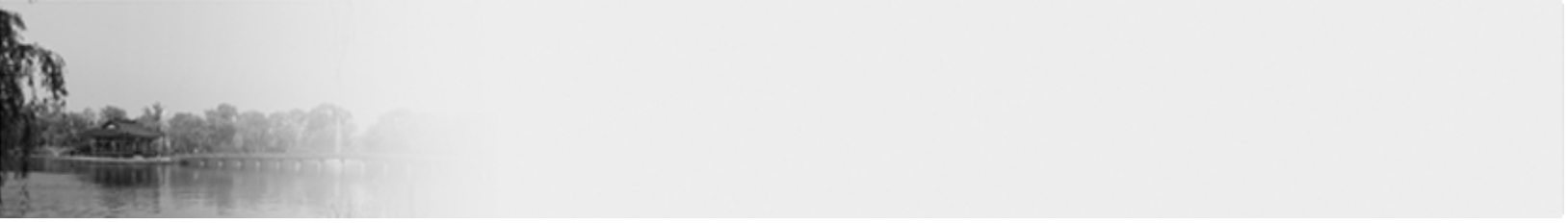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2009년부터 역사문화탐방, 체험 휴양이 어우러지는 백제의 숨결 익산 둘레길 조성을 시작하여 함라산길, 강변포구길, 성당포구길, 무왕길, 미륵산길, 용화산길 등 6개 코스로 총연장 99㎞을 조성하였음

- 둘레길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걷고 싶은 명상길을 조성하여 잊혀져가는 조상들의 혼과 얼이 숨 쉬는 길로 복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길 조성의 기본은 자연스러움에서 출발하며 끊겨 잃어버린 길을 찾아 급경사에 나무목을 대어 안내하며 그 길에 얽힌 이야기까지 찾아내고 있음

○ 익산 둘레길은 서쪽에는 금강, 동쪽의 평야, 주변의 산을 중심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각 테마에 맞는 길을 걸으며 느리게 걷기에 미학을 느낄 수 있음

○ 또한 익산의 역사, 자연, 선조의 삶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짚어보며 걷게 하는 길이어서 숨겨진 매력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음

[그림 Ⅲ-15] 익산 역사탐방의 숨결, 둘레길



2. 국내 · 외 사례조사

1) 국외사례

(1) 시코쿠 순례길

▌도보길 개요

○ 시코쿠 순례길은 시코쿠 지역에 있는 88개의 사찰을 순례하는 것을 뜻하며 19세기 초 시코쿠 순례길은 수행승이 수행하는 길이었음

○ 코보대사 입적 후 수행승들은 대사가 수행의 장소로 이용하였던 88개의 사찰을 따라 순례여행을 떠났으며, 이것이 시코쿠 순례길의 원형이 된 것으로 알려짐

○ 순례길은 총 1,440㎞로 참배코스로 종교와 관계없이 걷는 사람들도 대다수이며, 88곳을 모두 거치면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음

- 도쿠시마 현의 1번 순례지 '료젠지'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가와 현에 있는 88번 순례지 '오쿠보지'를 도는 루트가 유명함

○ 번호가 매겨진 88개의 절을 1번 절부터 시계방향으로 순례, 다시 1번 절로 돌아오는 1,200킬로미터의 길로 순례자들은 하쿠이라 불리는 흰옷을 입고, 스게가사라 불리는 삿갓모자를 쓰고, 홍법대사를 상징하는 즈에라는 이름의 지팡이를 들고 걸음

〈표 Ⅲ-6〉 시코쿠 순례길

구 분	내 용
위치	• 일본 시코쿠섬 일대
규모	• 약 1,440㎞(40~60일 여정)
특징	• 전통 불교문화와 순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문화상품 • 연간 20만명 방문(약 2만명 도보) - 개인에 따라 도보로 40~60일, 차량으로 8일가량 소요 - 방문객의 90% 이상이 차량이용, 순수도보이용자는 10% 미만 • 최근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지정 추진 중
순례방법	• 88개의 사찰을 순례하는 프로그램 운영(1-88번까지의 사찰번호 지정) - 88개의 사찰을 거치면 소원성취 전설 - 홍법대사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그의 공덕을 얻으려는 믿음 • 사찰 순례별 의미 부여 - 1~23번(도쿠시마현) : 발심(發心)도량 - 24~39번(고치현) : 수행도량 - 40~65번(에히메현) : 보리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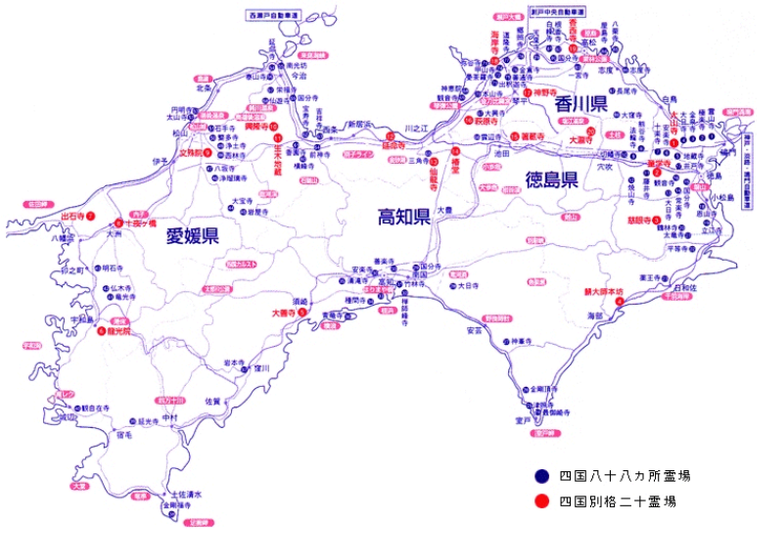
○ 근대에 시코쿠순례길이 관광지로 변모하게 되자, 1942년에는 88개 사찰이 모두 참가하는 '시코쿠 88개소 영장회(四国八十八ケ所霊場会)'를 구성하여 순례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현재 순례길의 유지 및 재생을 담당하는 민간기구는 '헨로미치 보존협력회(へんろみち保存協力会)'임

– 주변·순례길의 문화적·광역적인 경관의 보전을 위해 4개 현과관련 시정촌이 연계하여 '경관계획'과 '역사적인 풍치의 유지·향상계획5)' 등을 수립하여 순례길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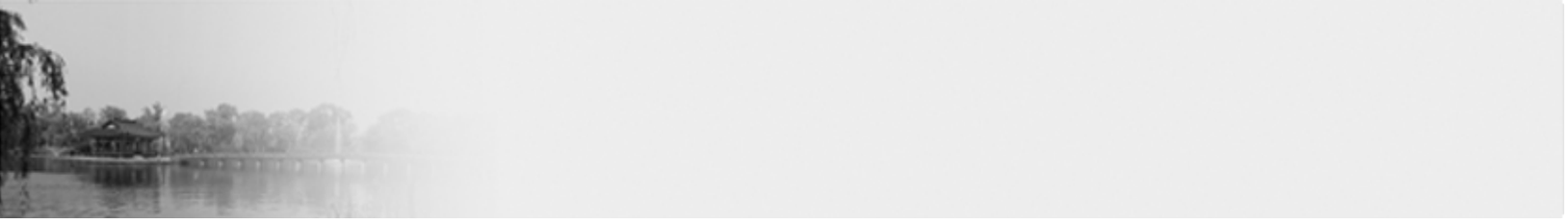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순례코스를 주변으로 다양한 숙박시설(민박 및 호텔 등) 및 온천시설, 상업시설(식당, 기념품 판매점 등)이 운영되고 있어 이용의 편의를 지원함

○ 빨간 화살표로 전 구간이 안내되므로 길을 잃을 염려는 없고 전 구간을 완주하면 순례자 교류 센터에서 완주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성에서 설치한 표지석에 표시된 로고가 시코쿠의 머리말과 길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함. 순례길 중간에 전통 순례복장을 하고 이동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의실과 전용용품점이 있음

○ 시코쿠길은 역사·문화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류 공통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순례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순례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메뉴 및 모델코스를 개발하고 있음



[그림 Ⅲ-16] 시코쿠 순례길 노선



(2)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camino de Santiago)

▌도보길 개요

○ 카미노란 말은 스페인어로 '길' 을 뜻하며,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야곱의 길 또는 산티아고의 길이라는 뜻으로서 모든 유럽의 순례자의 길을 의미함

○ 총 800km 길이의 순례길은 하루에 30km씩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긴 여정임

○ 9세기에 기독교사회는 산티아고로의 성지순례를 시작했으며, 1993년에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포한 이후 최근 전반적인 방문객 수와 관광객 형태의 방문객 수가 점차 늘고 있음

○ 최근 개발된 투어상품은 보통 4주 이상이 걸리는 여행을 9박 10일 일정의 스케줄로 구성하여 관광 상품화한 것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한 지역까지 보통 10마일 정도의 도보거리를 정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

○ 순례길을 걷는 동안 만나게 되는 마을별 다양한 전설과 종교적 역사에 바탕을 둔 건축물은 매력적인 볼거리이며, 축제를 좋아하는 스페인의 문화적 특성으로 때때로 방문지역의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음

〈표 Ⅲ-7〉 산티아고 순례길 개요

구 분		내 용
개요	위치	• 프랑스 생 장 피드포르 –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길이	• 800㎞
	관련단체	• 산티아고 순례자 협회
특징		• 북쪽길 : 해안선을 따라 걷는 길 • 은의길 : 남부 세비야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상의 은무역루트를 따라가는 길 • 영국길 : 영국으로부터 바다건너 오늘 길 • 포르투갈길 : 이베리아 반도의 서부를 걷는 길 • 마드리드길, 바로셀로나길, 아라곤길 : 프랑스 솜보트로부터 출발하여 프랑스 길과 합쳐지는 길 •프리미티보길 : 프랑스 길보다 2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순례길
순례방법		• 1993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순례길을 따라 역사적 · 종교적 의미를 지닌 1,800여개 유적 보유 • 계획적 조성이 아닌 옛 성지순례길이 지속 이용되면서 발전된 길 • 순례자용 여권 발급 및 순례자 전용숙소 알베르게 운영 • 순례자의 물병으로 사용되던 호리병, 조개껍질, 챙 넓은 모자, 지팡이 등이 상징화되어 다양한 안내판과 기념품 등으로 활용

▌운영현황

○ 기부금 형식의 숙박시설인 알베르게(alburgues) 운영 : 수익 목적이 아닌 순례자를 배려하는 시설로서, 2단 침대와 간단한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알베르게는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지방정부 운영, 종교단체 운영, 개인 운영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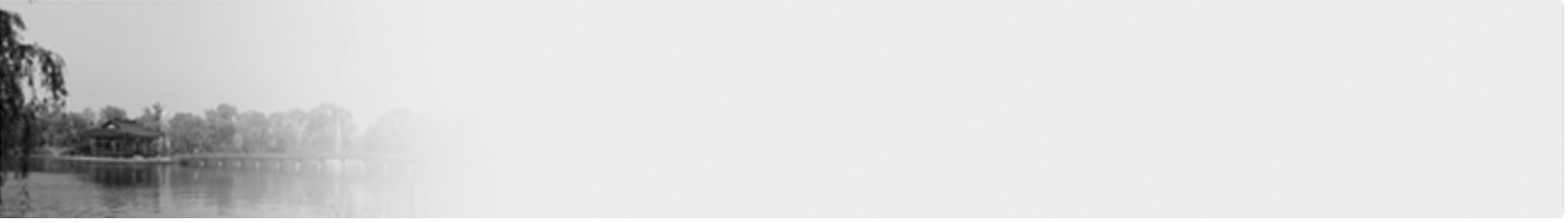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순례자 증명서인 크레덴시알(Credencial) : 순례길을 걷는 동안 숙박할 때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일정한 스탬프 수를 확보하게 되면 순례자의 길을 완주했다는 일종의 인증서를 발급해 줌

○ 산티아고 순례길의 인기요인은 유서 깊은 역사의 발자취가 녹아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배경이 되기 때문임

○ 또한 친절한 현지 주민들과 세계에서 모여드는 순례여행객들이 서로 돕는 순수한 우정과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으며 도보여행을 통하여 순례여행객들은 자신의 삶에서 겪는 경쟁, 갈등, 아픔 등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임

자료 : 국내외 트레일 개발사례와 시사점(2009), 강원발전연구원

[그림 Ⅲ-17] 카미노산티아고의 루트



2) 국내 사례

(1) 제주 올레

▌도보길 개요

○ 올레는 순수한 제주어로 집으로 통하는 골목길을 뜻하며 집마당에서 마을길로 들고나는 어귓길을 뜻함

○ 제주올레는 민간에서 시작된 비영리법인 길로 2007년 9월 8일 제1코스(시흥초등학교에서 광치기 해변, 총 15㎞)가 개발된 이래 2010년 8월까지 총 21개의 코스가 개발되었음

- 제주올레길은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구성하며 제주 주변의 작은 섬을 걷는 코스 등도 있음

○ 대부분 해안을 따라 나있는 제주 올레길에는 제주의 자연과 역사, 신화, 문화, 여성 등의 다양한 문화코드가 들어있음

〈표 Ⅲ-8〉 제주 올레길 개요

구분		주요내용
개요	길이	• 총연장 : 약 350㎞, 현재 19코스까지 구축된 상태임(2010년 기준)
	개발 배경	• (사)제주올레 서명숙이사장이 2006년 9월 스페인 산티아고길(800㎞)을 도보 순례한 것을 계기로 2007년 제주에서 가수 양희은, 시인 허영선 등 여성 10인과 함께 서귀포 걷는 길을 시범적으로 걸으면서 본격적으로 도보위주의 옛길, 시골길 등을 중심으로 개척함
특징		• 구간별로 지역민이 직영하는 맛집 선정, 지역주민들의 소득강화 • 경관확보를 위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사전협의 및 수익금의 일부 지원 • 인공 구조물 도로는 우회하여 방문객 안전보장 • 길에 대한 역사성 확보(과거 해녀들, 마을 주민이 활용했던 옛길을 복원) • 인공적 구조물 설치 최소화

▌운영현황

○ (사)제주 올레는 사라진 옛길을 찾아내어 본디 모습으로 되살리고, 끊어진 길을 잇고, 올레와 올레 사이를 연결하는 코스를 만들어내고 있음

- 인공의 손길은 전적으로 배제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존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코스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섬세한 노력이 투입되었음

○ 걷기 코스가 개발될 때마다 그 코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은 브로셔 〈간세다리의 바당올레 하늘올레〉를 발간하고 있음

- 간세다리는 숱한 국내외 홍보 팜플렛과 차별화를 꾀하고, 젊은 도보여행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만화 형태로 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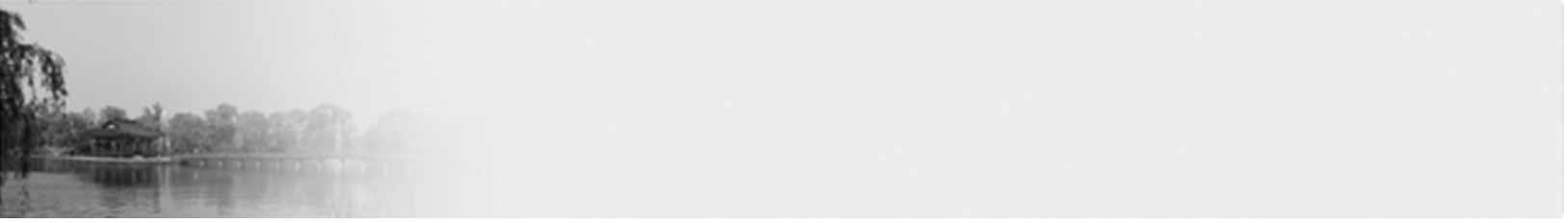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공식 홈페이지와 올레꾼 커뮤니티

- 여러 형태의 숙소 정보와 대형 횟집, 재래시장 먹거리 골목 등 다양한 먹거리 정보가 꼼꼼하게 업데이트 중
- 올레길을 걸었던 모든 이가 '올레꾼' 이 되어 길을 걸은 소감을 쓰거나 길의 멋진 풍경 사진을 올리고 맛집을 추천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새 코스가 개장될 때마다 '미리걷기' 를 진행
-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 부부와 함께 하는 허니문 올레와 코스를 거꾸로 걷는 거꾸로 올레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 올레 아카데미 : 오전에는 올레길과 식생,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직접 올레길을 걸어보는 현장학습 진행

[그림 Ⅲ-18] 제주 올레길



(2) 지리산둘레길

▌도보길 개요

○ 지리산 둘레길은 산을 수직으로 오르지 않고 수평으로 오르는 국내 첫 장거리 도보길로 사단법인 숲길과 산림청, 경남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전남 구례군, 남원시가 길 조성에 참여하였음

○ 지리산 둘레길은 산림청의 "환지리산 생태역사문화 관찰로 조사 및 기본계획" 에 의거 2007년부터 5년간 117개 마을의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마을길 등 274㎞를 환모양으로 연결하여 조성함

○ 지리산길 구성은 다양한 유형의 길을 연계시켰으며, 이와 같은 형태는 선진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행로(trail)와 유사함

○ 코스에 대한 주요 정비 원칙은 보전중심, 안전중심, 경관중심 등으로 구성

○ 지리산길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도시와 농촌, 자연과 사람을 잇고, 수직의 산행 문화를 수평의 문화로 바꾸고, 빠름의 문화를 느림의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것임

〈표 Ⅲ-9〉 지리산 둘레길 개요

구분		주요내용
개요	위치	• 지리산권 5개 시·군 국립공원 인근지역
	길이	• 총 연장 274㎞
	개발 배경	• 2005년 산림청이 주관하여 녹색연합과 지리산생명연대에서 수행한 환지리산 생태역사문화 관찰로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를 시작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사단법인 숲길 • 사업기간 : 2007~2011년 • 사업지원 : 복권위원회/녹색자금관리단 • 사업예산 : 약100억원
의의		• 공공이 주체가 되어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트레일 조성 • 계획원칙, 세부분야별 조성계획, 조성지침 수립으로 트레일의 방향성 정립 • 다양한 주민협력을 통해 주민과 이용자간의 소통과 협력장려

▌운영현황

○ 둘레길 정비의 원칙

- 가능한 한 마을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둘러가게 코스를 만들고, 일부 끊어지거나 버려지거나 사유지에 속한 길들을 잇기 위해 일일이 지역민과 소유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있음
- 여러 번의 사업설명회와 마을주민 미리걷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둘레길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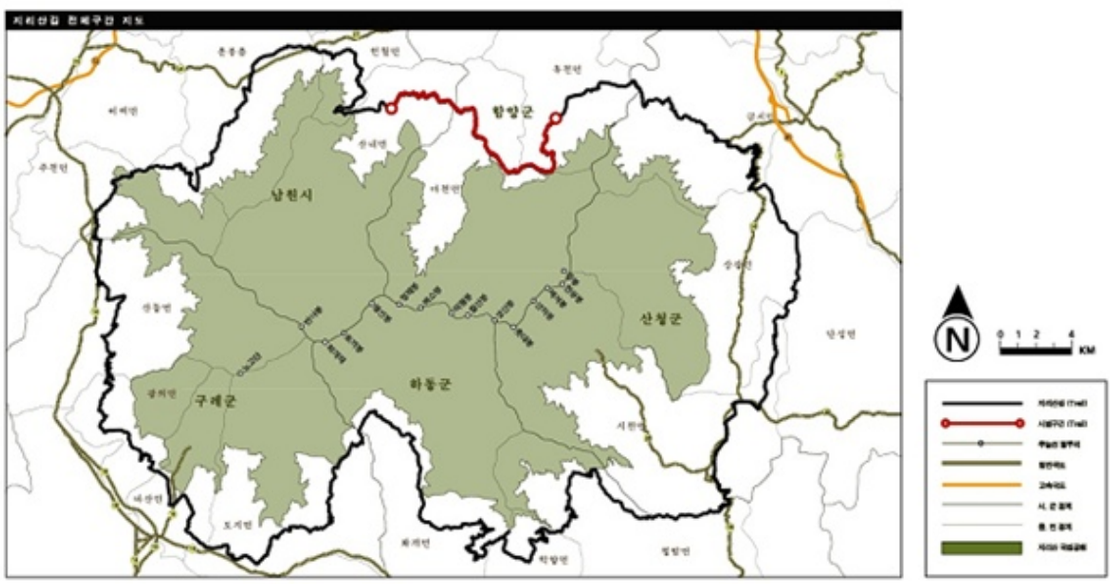
○ 마을 숙박시설의 재활용

- 지리산 둘레길 위에 놓여있는 마을들은 시골 풍경으로 자리함과 동시에 이용객들이 걷다 지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등의 재활용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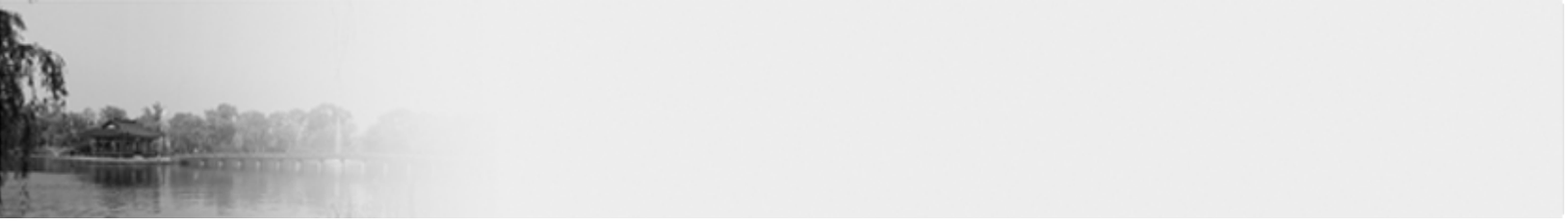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활발한 마을 협력사업

- 마을 조사 : 주로 마을의 풍습, 전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수집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연재
- 숲길 주변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

○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둘레를 잇는 길에서 만나는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 보듬는 길로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지리산과 지리산을 아우르며 흐르는 강, 들녘, 마을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길임



[그림 Ⅲ-19] 지리산 전체지도



(3) 여주 여강백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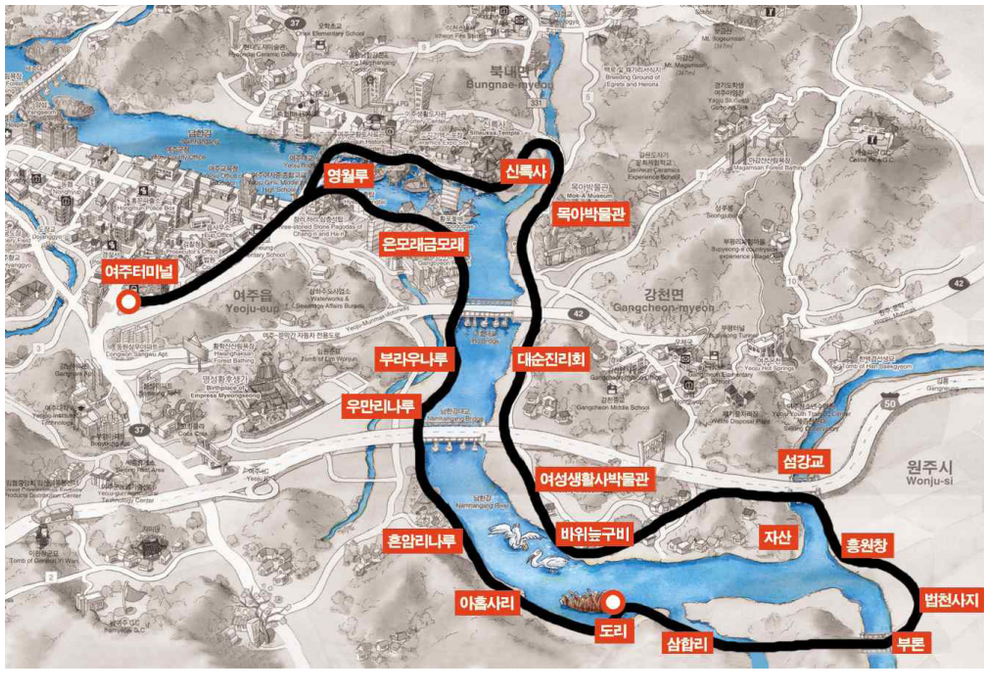
▌도보길 개요

○ 한강의 2대 지류인 남한강은 강원도 오대산을 떠나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거쳐 서울의 중심부로 연결되며 이 중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부터 이포대교 부근 금사면 전북리까지 지나는 남한강 물길을 '여강(驪江)'이라 칭함

○ 여강길은 총 38.9km, 약 100리길이며 강을 따라 도처에 나루와 정자, 크고 작은 사찰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음

○ 여강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전국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보행로 7곳 중 한곳으로 선정되었으며, 답사코스는 현재 3코스, 총 55km로 이루어짐

- 1구간인 옛나루터길은 115.4km로 여주버스터미널에서 시작해 영월루, 은모래금모래, 우만리나루터, 흔암리나루터, 흔암리선사유적지, 아홉사리과거길, 도리마을회관 등을 거치는 코스임
- 2구간은 세물머리 구간으로. 총 17.4km로 3구간 중 가장 짧은 코스이며 청미천과 중군이봉, 삼합리, 개치나루터, 법천사지, 흥원창 등임
- 3구간인 바위늪구비길은 흥원창에서 시작해 해돋이산길, 여성생활사박물관, 남한강 대교 밑, 오감도토리마을, 목아불교박물관, 조포나루, 영월루 등을 거치는 코스임



[그림 Ⅲ-20] 여주 여강 백리길

(4) 죽령 옛길

▌도보길 개요

○ 죽령옛길은 소백산 제2 연화봉과 도솔봉이 이어지는 잘록한 지점에 자리한 해발 689m의 고개로 영남 3대관문중 하나인 과거길로 약 2천년에 걸쳐 우리나라 동남지역의 교통 대동맥으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국경으로 신라와 대치한 격전장이었음

○ 1910년까지 경상도 동북지방 여러 고을이 서울왕래에 이용하던 과거길이며 출장길, 유통물산의 길로 근래에 들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 유실된 곳이 많았으나 영주시와 풍기읍에서 옛 자취를 살려 보존하기 위하여 복원하였음

○ 죽령옛길의 코스는 풍기온천-창락역유적-무쇠다리옛터-희방사역-죽령주막-저망대까지 총 연장 4.7㎞의 길로 비교적 널찍한 길이라 두 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고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옛 정취에 묻혀 걷기에는 무난한 길임

▌주요 생태문화 탐방자원

○ 생태자원 : 소백산 야생화체험단지, 희방폭포

○ 역사문화자원 : 희방사, 죽령주막

○ 기타자원 : 소백산 풍기온천, 소백산천문대(연화봉, 1,383m)

○ 스토리 : 죽지랑과 모죽지랑가, 죽령재와 상원사 동종, 희방사와 두운대사

[그림 Ⅲ-21] 죽령옛길

(5)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도보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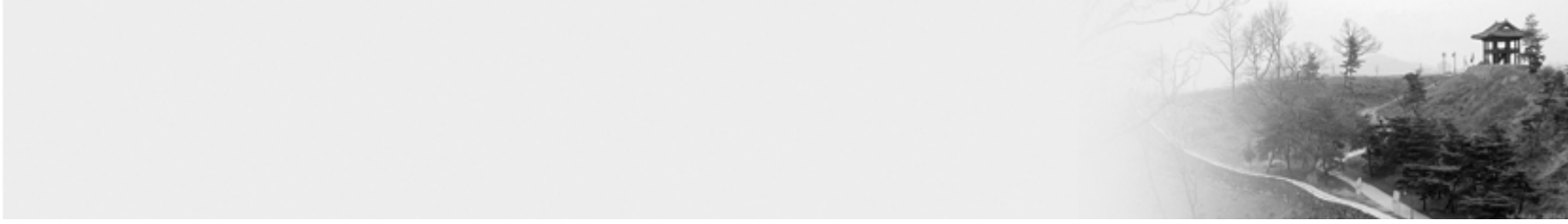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고구려 유적지인 아차산 보루성과 고구려와 대치하던 한성백제의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연계한 역사문화형 보행로임

○ 광나루역에서 출발하여 고구려 유적이 위치한 아차산 일대를 둘러보고, 고구려군이 백제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진격한 길을 따라 걷는 코스임

○ 몽촌토성부터 남한산성에 이르는 토성산성 어울길과 연결되는 노선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간의 항쟁, 신라와 당간의 나당전쟁, 조선과 청의 병자호란에 이르는 역사의 무대를 모두 연결하는 길로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음

○ 아울러 서울 동부권에서 가장 좋은 생태 자원을 갖추고 있는 아차산의 풍부한 생태환경과 광나루와 맞은편의 천호동 일대의 한강 둔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생태보행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그림 Ⅲ-22]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3) 사례의 시사점

▌자연친화적 루트 개발

○ 길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노면정비와 사인표식, 휴게소등 물리적인 요인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 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만을 수행함

○ 자연 그대로의 지형물을 이용하거나 자연친화적 분위기의 안내판, 표지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 도보여행객들에게 인위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제공하였음

○ 또한 기존 조성되어 있는 길을 활용하여 도보중심의 길로 조성하였으며, 도로나 지형지세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결이 필요한 경우 개발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주변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과의 연계

○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유적 등을 연계하여 단순히 걷는 도보길 조성이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간직한 환경으로 조성하였음

○ 특히, 사례의 아차산고구려길이나 죽령옛길은 그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적지를 연결하는 도보길을 통하여 역사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길뿐만이 아닌 지역성과 차별성을 갖는 도보길을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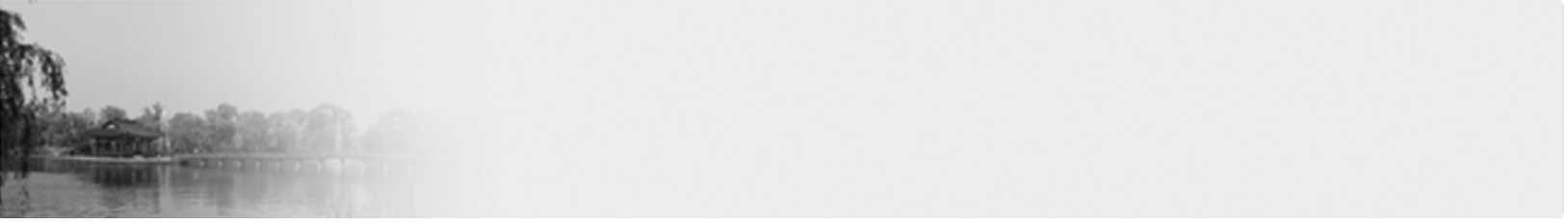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성공의 관건

○ 도보길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지역 곳곳을 지역주민과 함께 걸어가며 자원을 조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였음

○ 주민이 직접 숙박을 유치하고 길안내 등에 참여함으로써 도보여행이 보다 편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음

○ 또한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기념품가게 등을 이용하도록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보여행객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걷는 길을 만들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형성 등 민간 파트너십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다양한 편의시설이 필요

○ 도보길과 연계된 숙박시설 및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길을 상징하는 로고나 캐릭터를 안내판에 삽입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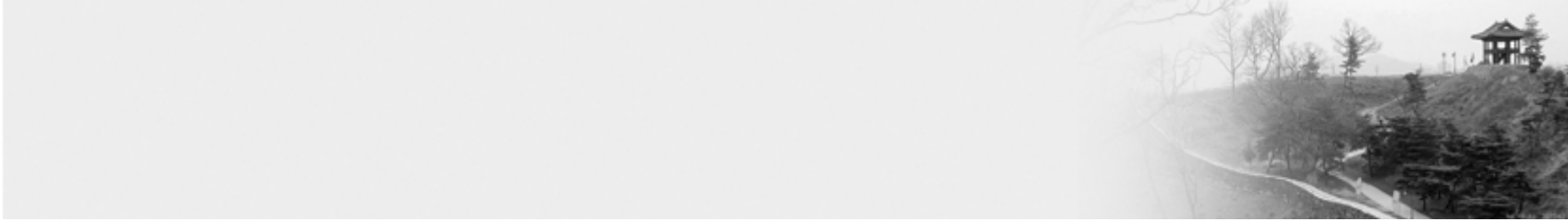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따라서 백제 옛길의 조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광편익시설과 생활 기반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반드시 편의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친환경적인 시설을 조성해야함

▌광역적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발전 도모

○ 스페인의 산티아고,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 국가간 혹은 행정구역을 연결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길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높임

○ 이는 입지적 특성 및 역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테마로 연결하여 광역적 차원에서의 지역발전을 도모함

○ 백제 옛길도 충남도내의 백제 문화권만이 아닌 전북 익산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지역간의 원활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길 여행 동향분석

1) 관광트렌드와 길 여행 동향

(1) 관광트렌드 변화

○ 관광은 사회현상이며, 산업분야로서 대두됨에 따라 트렌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변화에 대응하여야 함

○ 관광트렌드는 복합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환경변화를 인지하여야 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향후 전개될 10대 핵심관광트렌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백제 옛길과 관련하여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백제옛길 조성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뉴시니어(New senior), 핵심관광소비계층으로 부상

○ 나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의학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로 나이의 개념과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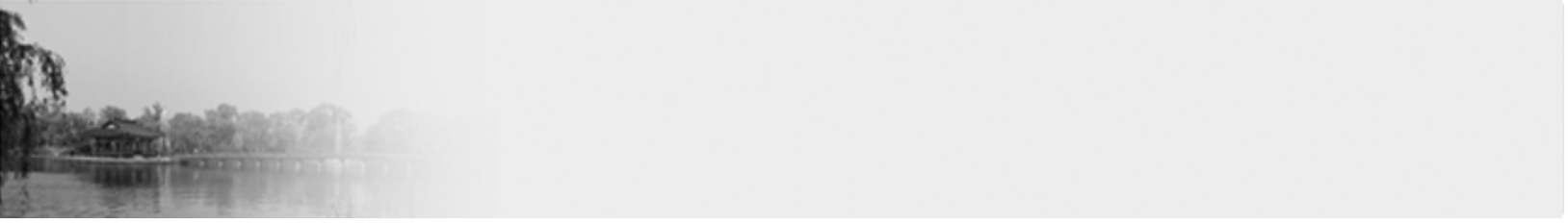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뉴시니어세대의 소비계층은 웰빙,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세대로 헬스관광, 의료관광 등에 대한 폭넓은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구체적으로는 노년계층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광정책과 새로운 표적시장의 증가로 인한 관광비즈니스에 대한 대책마련, 노년계층을 중심으로 한 실버관광에 대한 대책, 노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광수요의 증가에 대비, 그리고 은퇴한 노령인력을 관광에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함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투어리즘(Health tourism)의 확산

○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여행과 관광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제 단순히 보고 즐기기 위한 관광에서 벗어나 관광 또는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 투어리즘(Health tourism)의 확산 트렌드는 여행과 건강을 한꺼번에 즐기는 웰빙관광의 확산, 웰빙관광과 휴양문화의 조화 등



의 트렌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는 여행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웰빙 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헬스투어리즘 관련 소재의 발굴과 연계한 상품개발 및 테마별 종합관광정보의 제공, 한국형 치유관광상품의 개발, 한국적 자연을 소재로 한 에코힐링 관광콘텐츠의 발굴, 그리고 뷰티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할 것임

▌소비자가 주도하는 창조관광(creative tourism)의 시대

○ 관광산업은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창조산업임

○ 소비자가 주도하는 창조관광(creative tourism)의 시대의 도래는 크리투어슈머의 확산, 당신의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관광, 현명한 관광소비의 시대, 온라인 관광, 지적관광, 감각적 관광, 합리적 관광의 부상' 이라는 트렌드 가치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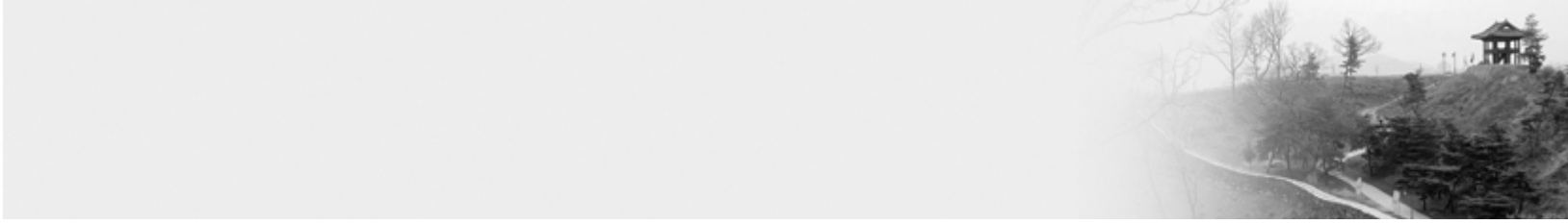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소비자가 주도하는 창조관광시대의 진입에 따른 관광정책의 방향은 크게 관광소비자 주권강화에 대응한 관광소비자 보호정책의 강화, 관광상품 및 서비스 품질 관리정책 강화, 창조적 관광비즈니스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소비자의 세분화된 니즈에 대응한 창조형 특화관광상품 개발 강화, 그리고 크리투어슈머에 대한 지원정책 등이 필요함

▌체험하는 관광소비자, 트라이투어슈머(trytoursumer)의 부상

○ 체험하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며, 체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구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 시도(try)하는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트라이슈머라 부름

○ 체험(경험)은 사람, 장소, 참여활동 등을 통해서 얻어지며, 체험관광은 타문화와 잠재성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체험추구 관광소비자인 트라이투어슈머(Tritoursumer)의 부상은 체험기반 가치소비 관광의 확산, 감성기반 체험관광의 확산, 스토리텔링 관광의 확대, 다자인과 스타일(문화, 이미지, 상징의 조합) 관광의 주도라는 트렌드가치를 지님



▌소셜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관광의 시대 도래

○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주도하는 관광시대에서는 관광소비자들이 모바일에서 웹과 어떻게 다른 형태를 보일 것인가를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소셜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관광의 시대는 미디어융합에 따른 모바일 기반 관광비즈니스 개발 경쟁 가속화, 온라인 네트워킹을 통한 생산적 여가관광활동의 증가라는 트렌드 가치를 지님

○ 소셜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관광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통합되는 제3세대미디어 환경에 맞는 다양한 관광정보 콘텐츠의 개발, 관광정보 콘텐츠에 대한 R&D 강화,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및 관광행태변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

▌관광산업, 그리너(greener)비즈니스로의 도약

○ 환경비용이 국제적 강제사항이 되면서 각국정부는 환경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존 제품의 친환경적인 개선정도가 아닌 근본적으로 환경을 푸르게 유지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리너비즈니스가 부상하게 될 것임

○ 관광산업이 그리너비즈니스(Greener business)로 도약하는 트렌드는 그린관광 비즈니스의 부상, 녹색관광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상승, 그리니엄관광소비, 에코럭셔리 관광소비 확산이라는 트렌드 가치를 내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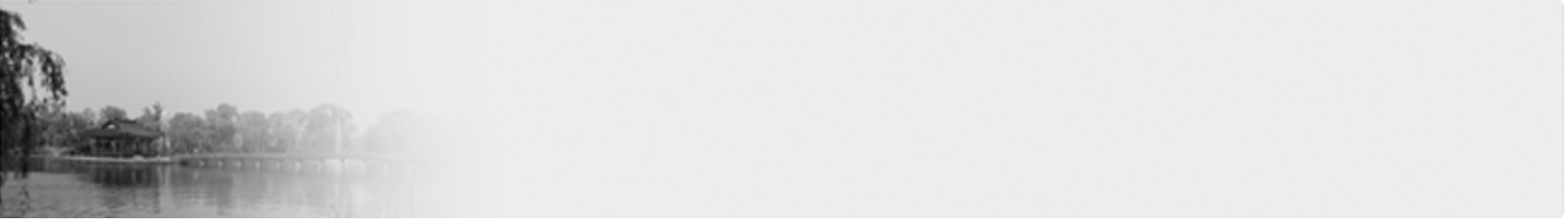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관광산업이 녹색비지니스의 주요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발굴, 활용가능한 녹색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술이전 강화, 녹색관광자원의 개발역할 강화 등이 필요함

▌레저재핑(Leisure Zapping)의 시대

○ 일과 여가, 놀이의 경계는 그것이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건 무의적인 측면에서건 지속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음

○ 비약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IT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등장할 것임

○ 특히, 레저재핑(Leisure zapping)의 시대라는 트렌드는 블레저 계층의 확산, 일과 여가, 여가와 관광의 영역 모호화 현상의 가속화, 창조적 계층이 주도하는 여가시장 확대라는 트렌드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



▌착한관광소비자, 착한 관광기업의 시대

○ 착한소비로 대별되는 소비시장의 변화에 따라 관광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으며 착한 소비는 기업들로 하여금 착한 관광상품을 만들도록 강요받고 있음

○ 사회적 책임의 증가에 따라 관광분야에서도 관광기업 뿐만 아니라 관광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착한 관광을 강조하고 있음

○ 착한 관광소비자, 착한 관광기업의 시대 트렌드는 사회적 책임관광의 확산, 관광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의 증대, 공정관광의 확산, 아름다운 여행소비의 시대라는 트렌드 가치를 내포함

(2) 걷기여행 트렌드 변화

▌걷기 여행수요의 증가

○ 주5일 근무제 정착,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족 또는 동호인 단위의 체험형 문화관광 및 생태관광 수요의 증가

- 삼성경제 연구소 : 2009년 10대 히트상품으로 '도보체험관광' 선정
- 인터넷 포털 '걷기', '도보여행' 모임이 500개 이상으로 매년 증가추세임

○ 소비·관람형 대중관광에서 역사문화·자연생태의 체험, 교육, 건강증진 등 가치 지향적 여행문화로의 인식 전환

▌새로운 여행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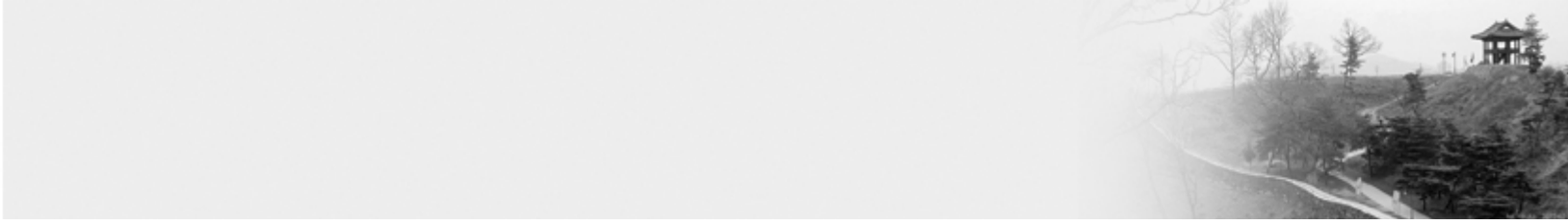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단체관광, 행락관광, 소비관람형 대중관광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안관광, 공정관광 즉 착한여행으로 새로운 여행문화 정착

○ 관광공간의 개발방식의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과 친환경 개발로 변화하면서 점형의 관광단지 등에서 선형 관광으로 관광자원 간 네트워크로 연계

▌향후 가족여행은 트래킹이나 걷기여행 희망

○ 가족여행시 희망하는 방문지 활동으로 트레킹/걷기여행을 가장 선호하며 이어 농촌체험, 산사체험, 자녀를 위한 학습관광 순임

○ 트레킹/걷기여행 희망자는 자녀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년부부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은 체험이나 학습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에 관심이 높았음



2) 관광객 수요 분석

(1) 조사개요

▌조사 목적

○ 백제옛길 조성을 위하여 백제옛길 구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향후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잠재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설문조사는 기존 관주도의 하향식(Top to Bottom)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잠재이용객의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Bottom to Top)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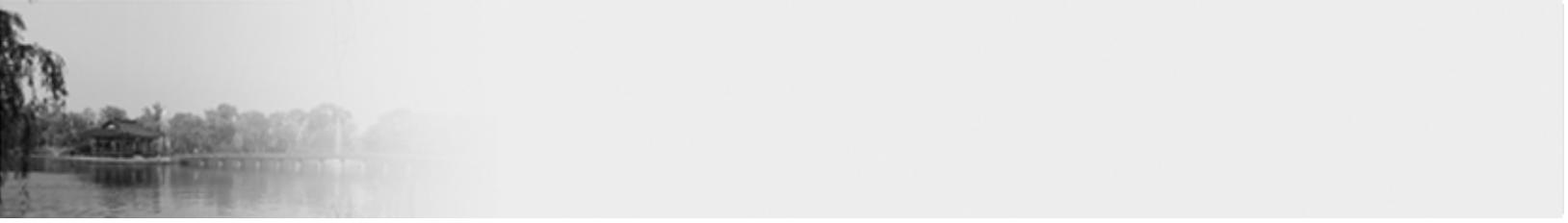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설계·작성된 설문지를 무작위로 추출된 잠재 이용객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의 하나인 임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기입방식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방식을 채택함

○ 대상지역의 관광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40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음

- 회수결과 전체 배부 450부 중 413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하거나 불성실한 내용, 응답의 모호한 응답자료 13부를 폐기하여, 유효표본 400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함
- 모집단 : 20세 이상의 백제문화권 방문 관광객
- 조사기간 : 2012년 5월 11일~ 5월 20일

〈표 Ⅲ-10〉 설문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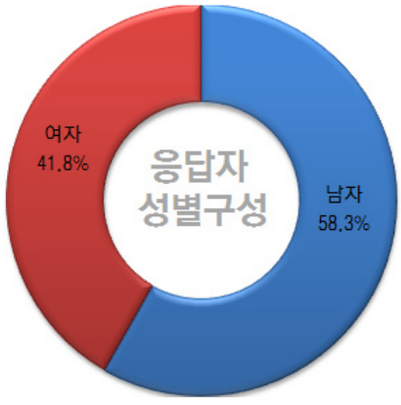
조사항목	주 요 내 용
도보길(일반)	여행 목적, 참여도, 정보획득, 여행지선택시 고려사항, 동반자 등
백제옛길 조성	참여여부, 기대구간, 소요시간, 여행기간 등
일반사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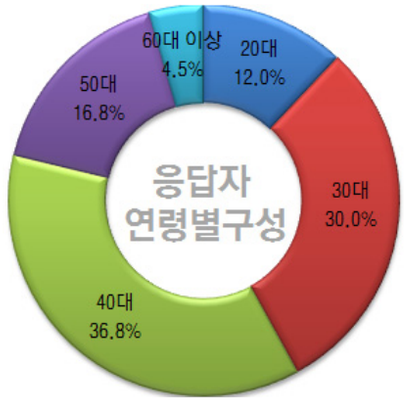
▌인구특성 분석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58.3%, 여자가 41.8%로 남자의 응답률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30%, 50대 16.8%, 20대 12.0%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음

○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전체 응답자의 18.3%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 17.85%, 자영업 16.5%, 생산직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23] 응답자 성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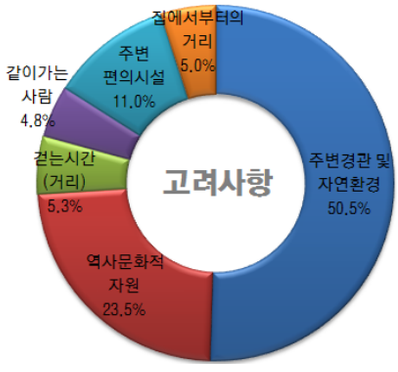
[그림 Ⅲ-24] 응답자 연령별 구성

(2) 수요조사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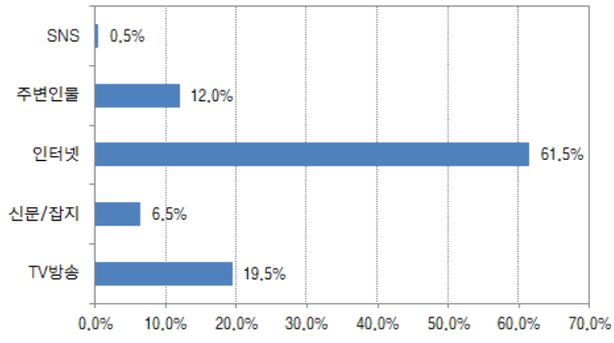
▌백제 옛길 조성

○ 도보여행지 고려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이 50.5%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역사문화적 환경 23.5%, 주변 편의시설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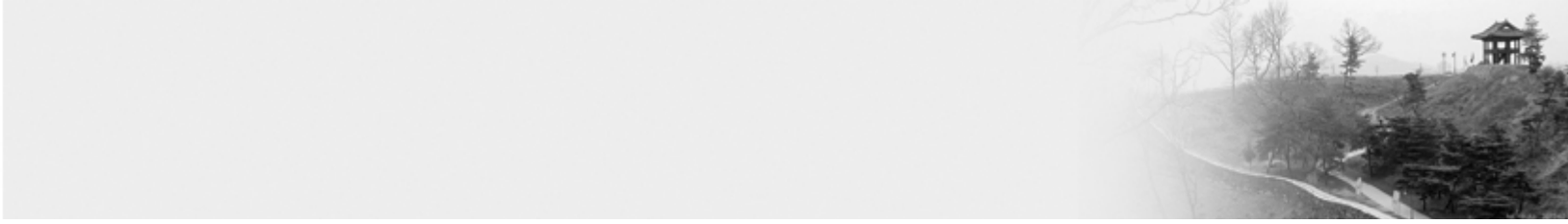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도보여행지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는 인터넷이 61.5%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방송 19.5%, 주변인물이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25] 주요 고려사항



[그림 Ⅲ-26] 정보획득



○ 도보여행 노선 선정 시 우선적으로 경관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위주의 노선 선정이 필요함

○ 연령별 정보획득의 수단으로는 30대가 인터넷을 활용한 구득률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50대도 62.7%로 높게 나타났으며 TV방송을 통한 정보획득은 20대가 31.3%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22.2% 로 응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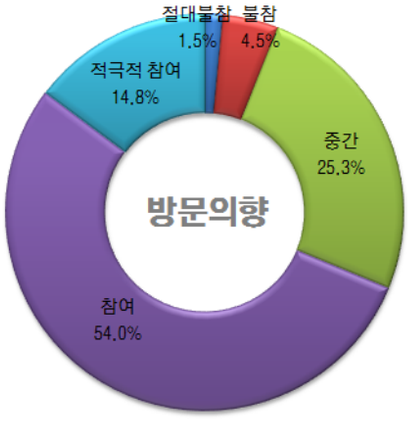
○ 이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표 Ⅲ-11〉 도보여행시 정보획득 수단(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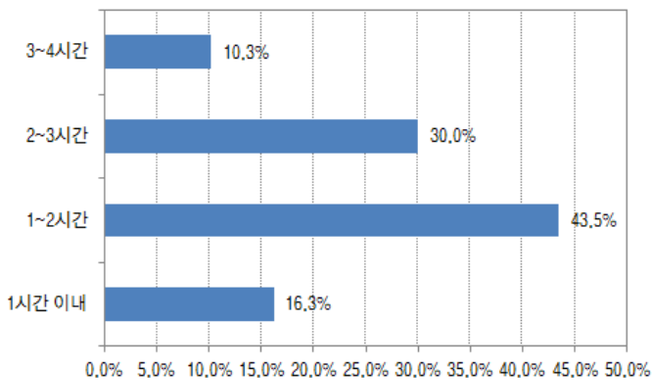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TV방송	31.3	15.8	19.7	16.4	22.2	19.5
신문/잡지	2.1	5.0	5.4	9.0	27.8	6.5
인터넷	58.3	69.2	59.2	62.7	33.3	61.5
주변인물	8.3	9.2	15.0	11.9	16.7	12.0
SNS	-	0.8	0.7	-	-	0.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백제 옛길의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이용에 대한 응답으로는 조성시 방문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의 54.0%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적극적으로 방문하겠다는 14.8%로 나타나 방문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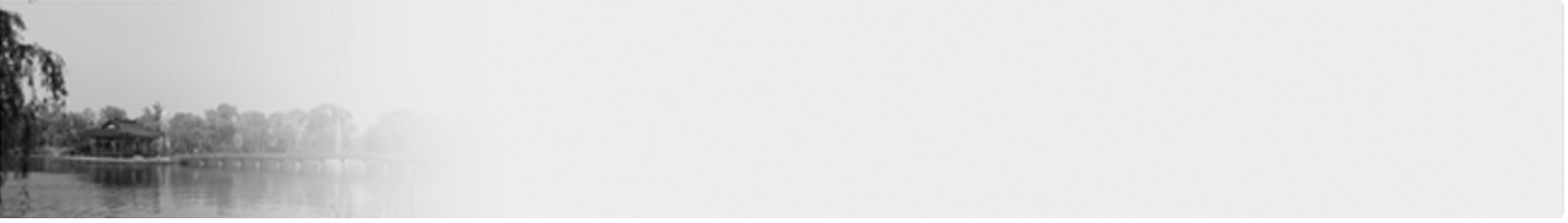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 옛길 코스 조성시 가장 적당한 소요시간으로는 43.5%가 1~2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3시간이 30.0%, 1시간 이내가 16.3% 등의 순으로 응답됨



[그림 Ⅲ-27] 방문의향



[그림 Ⅲ-28] 코스 조성 시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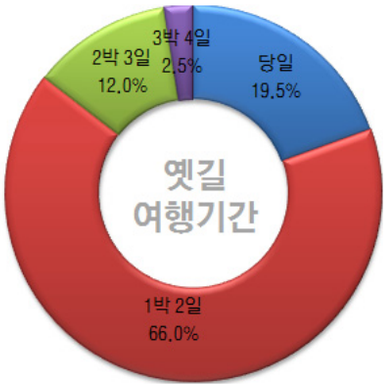


○ 백제 옛길을 여행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66.0%가 1박 2일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당일이 19.5%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83.3%가 1박 2일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3박 4일 등 장기간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백제옛길 조성시 장기간이 투자되는 코스보다는 단기간내에 걸을 수 있는 코스 조성이 필요함

〈표 Ⅲ-12〉 연령대별 옛길 여행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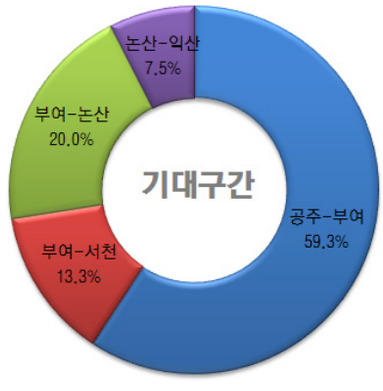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당일	22.9	16.7	23.1	16.4	11.1	19.5
1박2일	60.4	69.2	60.5	71.6	83.3	66.0
2박3일	6.3	12.5	14.3	11.9	5.6	12.0
3박4일	10.4	1.7	2.0	-	-	2.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백제 옛길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기대되는 구간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9.3%가 공주-부여 구간으로 꼽았으며, 부여-논산 20.0%, 부여-서천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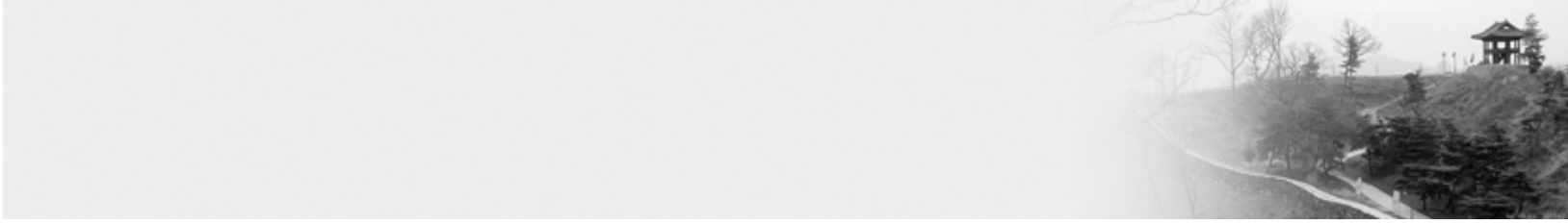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공주-부여 구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여-논산구간은 20대의 27.1%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주-부여 구간은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수도의 천도, 패망의 길을 함께 한 도읍의 중심지였다는 측면에서 잠재 이용객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표 Ⅲ-13〉 연령대별 기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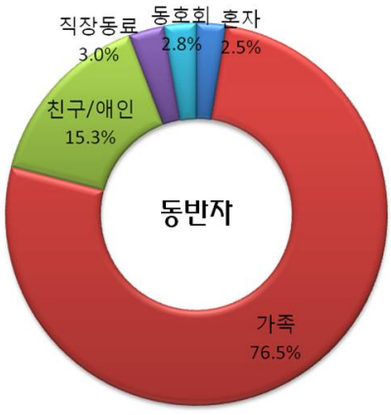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공주-부여	45.8	53.3	65.3	64.2	66.7	59.3
부여-서천	8.3	19.2	10.9	13.4	5.6	13.3
부여-논산	27.1	25.0	17.0	13.4	16.7	20.0
논산-익산	18.8	2.5	6.8	9.0	11.1	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도보여행의 동반형태는 가족단위가 7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애인이 15.3%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부분이 가족단위가 많았으며, 20대의 경우 친구/애인의 비율이 50%로 나타났으며, 30대, 60대도 친구/애인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백제옛길 조성 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



〈표 Ⅲ-14〉 도보여행 동반형태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혼자	-	2.5	2.7	4.5	-	2.5
가족	50.0	75.0	83.7	82.1	77.8	76.5
친구/애인	50.0	18.3	6.8	3.0	16.7	15.3
직장동료	-	4.2	3.4	3.0	-	3.0
동호회	-	-	3.4	7.5	5.6	2.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도보여행 시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지역내 교통수단과 지역간 이동 시 교통수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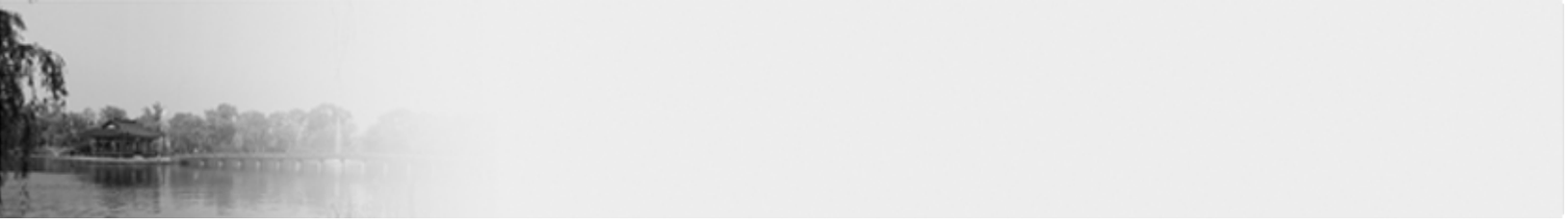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먼저 지역 내 이동 시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보 27.8%, 자전거 23.8% 순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지역 간 이동 시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65.0%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이 22.5%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도보와 자전거에 대한 이용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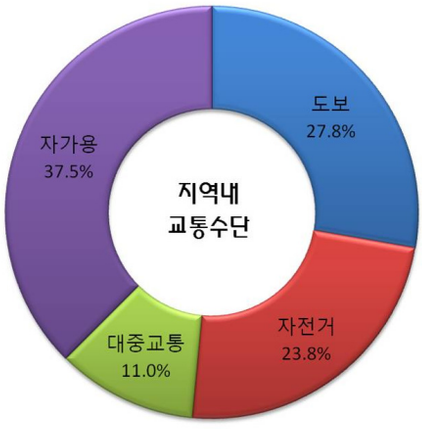
○ 따라서 도보여행 권역 계획 시 지역 내 노선 선정과 지역 간 이동 노선 선정 시 교통수단을 고려한 노선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연령대별 교통수단에서 지역 내 교통수단으로 20대의 경우 도보와 자전거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는 자가용과 도보, 40대는 도보와 자가용, 50대는 자가용과 자전거, 60대는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지역간 이용수단에서도 20대와 60대는 대중교통이 가장 높은 반면, 30·40·50대는 자가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백제옛길 조성 시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대중교통 연결 노선의 구축과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표 Ⅲ-15〉 지역내 교통수단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도보	33.3	25.8	31.3	22.4	16.7	27.8
자전거	22.9	18.4	29.3	25.4	11.1	23.8
대중교통	22.9	5.0	8.2	13.4	33.3	11.0
자가용	20.8	50.8	31.3	38.8	38.9	3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성 시 필요사항

○ 조성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들을 부문별로 정리하여 보면 우선 안전시설로는 48.8%의 응답자가 노면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장치(37.3%), 가로등(12.3%), 대피공간(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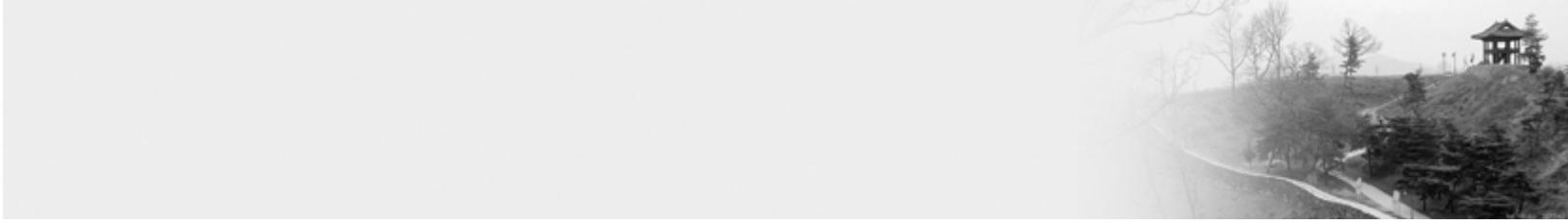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안내시설로는 구간 소개 및 안내표지가 가장 필요하며 안내원필요에 대한 응답은 6.8%로 가장 낮게 응답되었음

○ 도보여행시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로는 화장실(41.5%)이며, 휴게공간(36.0%), 주차장(1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체험시설로는 역사체험공간(3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되었으며, 생태체험공간(24.3%), 전망공간(21.5%), 놀이공간(1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백제옛길이라는 특성상 주변에서 역사체험공간과 연계한 길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음

○ 지원시설로는 방문자센터(41.0%)가 가장 필요하며, 부대시설로는 휴양림 등 숙박시설(54.3%)이, 연계시설로는 역사문화적체험시설(31.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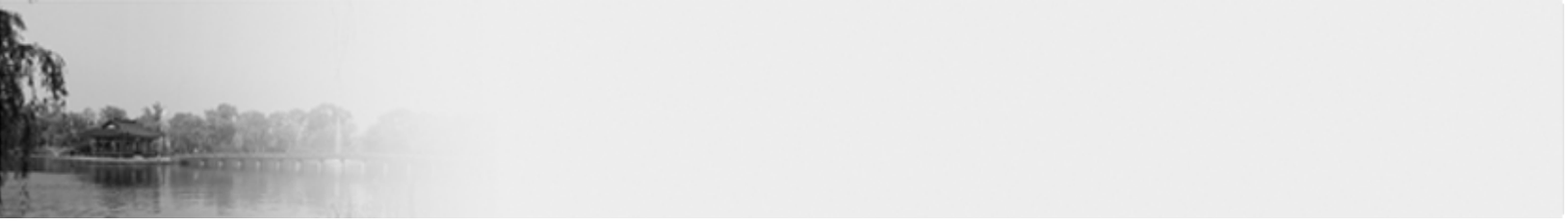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표 Ⅲ-16〉 조성시 필요시설

구분	필요성(上)	◀		필요성(下)
안전시설	노면상태 (48.8)	안전장치 (37.3)	가로등 (12.3)	대피공간 (1.8)
안내시설	구간소개 및 안내표지 (41.0)	보행로자료 (30.0)	이정표 (22.3)	안내원 (6.8)
편의시설	화장실 (41.5)	휴게공간 (36.0)	주차장 (11.5)	식음시설 (11.0)
체험시설	역사체험공간 (38.0)	생태체험공간 (24.3)	전망공간 (21.5)	놀이공간 (15.3)
지원시설	방문자센터 (41.0)	의료공간 (32.3)	물품보관소 (22.5)	배달시설 (4.3)
부대시설	휴양림 등 숙박시설 (54.3)	농산어촌체험관 (21.0)	야영장 (20.0)	지역특산물판매소 (4.8)
연계시설	역사문화유적체험 (31.8)	주변마을탐방 (25.5)	대중교통연계시설 (21.8)	숙박 및 음식시설 (21.0)

▌기타응답

- ○ 백제 테마를 이용한 스토리로 걷는 녹색 명품길, 명상길 조성(소나무 숲길 , 꽃길 만들기), 백제 역사를 체험하면서 자연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
- ○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조성(앉아서 쉴수있는정자,벤치,휴지통,주차시설,의료센터 등)
- ○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황토 맨발체험길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도로시설 확충, 역사체험관 조성
- ○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는 주민 주도적 운영 프로그램
- ○ 지역특성과 조건에 맞는 캐릭터 개발
- ○ 지역특산물 향토음식점 및 가족숙박시설 확보, 각지역간 대중교통 연계



(3) 설문조사 시사점

▌주변 경관 및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

○ 백제옛길은 주변경관이 우수하고 역사체험이 가능한 공간의 마련이나 역사유적과 연계하여 조성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백제 옛길은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 더불어 백제인들이 걸었던 길이나 주변의 역사유적들이 함께 조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함

○ 역사유적이나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도보관광객이 역사뿐만 아니라 체험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하여야 함

○ 백제옛길은 단순히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역사를 재조명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어야 함

▌구간별 흥미 있는 스토리텔링 발굴

○ 백제옛길은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익산을 연계하는 광역적 사업이며 구간도 길어 걷기만 하는 도보 여행의 경우 도보여행객의 흥미가 떨어져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움

○ 이에 너무 긴 장거리의 코스보다는 짧게 이어진 코스조성과 도보여행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이 가미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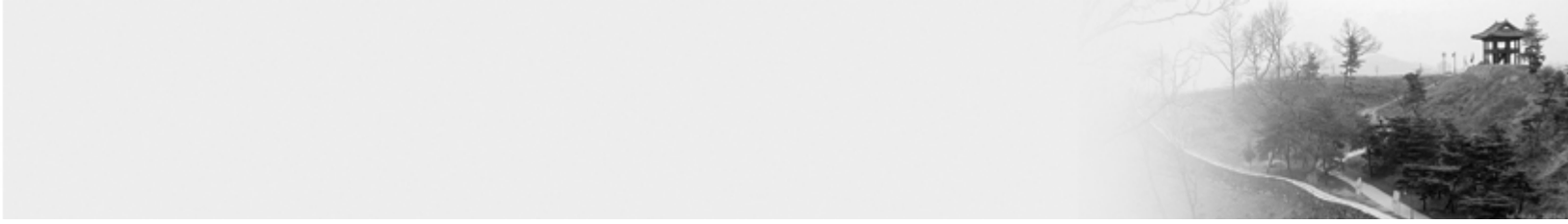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특히, 각각의 구간별로 천도의 길, 5천결사대 출정길 등 다양한 주제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건과 연계한 스토리를 부여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숙박시설 · 교통시설 등 편의시설 구비

○ 백제옛길은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 장거리 코스로 도보여행객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이 필요함

○ 특히, 설문조사 응답 결과에서도 1박 2일 이상의 상품개발을 선호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간마다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완비되어야 함

○ 숙박시설의 경우 인위적이고 규모가 큰 하드웨어보다는 민박형태로 길 주변에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하며, 교통시설의 경우 지역 내 이동수단과 지역 간 이동수단을 별도로 고려하여 노선선정과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과 노인층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3) 전문가 인터뷰

(1) 조사개요

○ 백제의 옛길에 대한 고증 및 노선선정을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증분석 및 인터뷰를 실시함

○ 이를 통하여 노선선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옛길 운영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설계

○ 조사대상 : 백제 및 역사전문가

○ 조사방법 및 장소 : 전문가 개별인터뷰 및 현지답사

○ 조사내용 : 백제옛길의 존재 유무, 백제의 중요 거점지, 백제의 스토리텔링

○ 조사기간 : 2012. 5. 2~ 5. 4

(3) 백제 옛길에 대한 의견

○ 백제시대의 길은 왕로와 일반 백성들이 이동하는 길은 달랐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백제 옛길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길이 퇴적됨에 따라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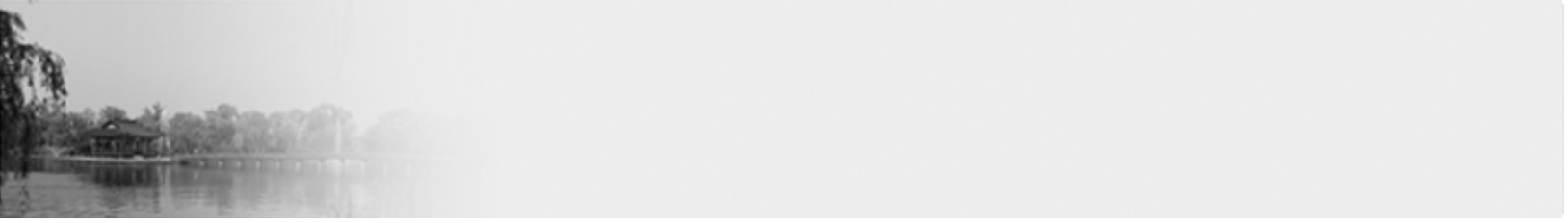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고 익산을 제2의 수도로 정비 한 만큼 이와 연결되는 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어느 길로 다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전해지는 문헌을 바탕으로 추측하여야 함

▌웅진-사비천도길

○ 성왕이 천도를 단행했을 당시 왕궁이었던 공산성에서 부소산성에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길은 금강을 활용한 물길이었음

○ 이에 따라 공주의 곰나루에서 구드래나루까지 물길을 이용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구드래 나루는 왕궁과 가장 가까운 항구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았을 것임



○ 육로는 공산성에서 우금치로 연결되는 길을 걸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음

▌부여 왕궁로

○ 부여에는 부소산성 부근의 관북리 유적에서 백제시대의 도로가 발견됨에 따라 왕궁에서부터 도성에 연결되는 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 길은 부여나성으로 향하는 현 부여여고 앞의 도로와 연결되었으며, 또한 정림사지 서편과 연결된 것으로 도로 폭은 6~9m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부여나성길

○ 현 능산리고분군 부근의 부여 나성에는 왕릉을 참배하거나 논산(익산)으로 오고 가는 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 왕릉내 사찰이 존재했음에 따라 사찰을 참배하고 왕릉을 참배하는 순의 길과 일반 백성이 다녔던 길 2개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일반백성들이 왕릉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계급의 차가 존재했기 때문임

○ 나성주변에는 목교와 석교가 있었는데 목교는 사찰도 들어가는 길이었으며, 석교는 길을 건너서 가는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 궁남지에서 6m규모의 남북방향의 도로가 발견되었으며, 이와 연결되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내륙수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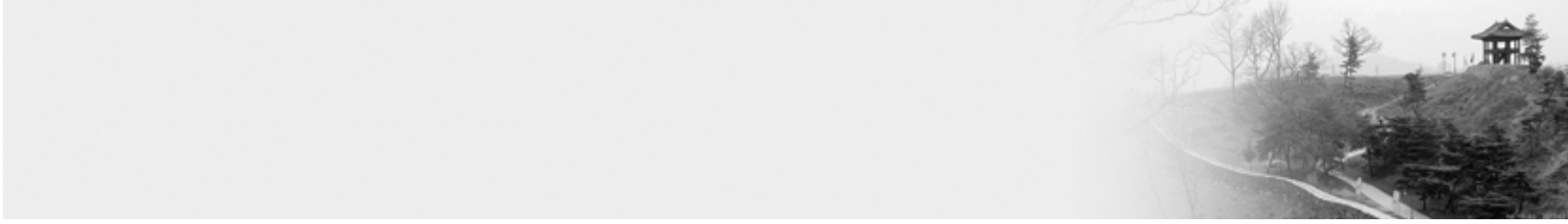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백제는 해양활동 및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위하여 강을 이용하였으며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여로 천도했을 정도로 강을 중요시하였음

○ 백제가 왜와 교류를 할 때 금강을 시작으로 남원 → 곡성 → 섬진강으로 연결되어 왜와 교류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가 부여여서 구드래 나루터에서 상류를 거슬러 육로로 남원으로 가서 섬진강 상류 쪽에서 배를 타고 왜로 이동하였음

– 이는 서해가 리아스식 해안으로 선박이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배가 물에 젖고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자 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내륙수로를 통과하여 이동함

○ 이에 따라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륙수로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산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 방위길

○ 산성과 산성사이에는 행정, 국방, 물류를 위한 길이 존재 했을 것이며 전쟁시에 주요 교통로에 산성이 자리 잡고 있어 보급로 차단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산성 함락 후 이동한 주요 거점지임

○ 이러한 산성간 연결에 대한 문헌적 기록에는 정확한 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나당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당의 진격로가 산성으로 연결됨에 따라 길이 존재 했을 것으로 추측됨

(4) 향후 조성방향에 대한 의견

▌산길과 강길의 차별화

○ 백제는 내륙수로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길을 수로를 기반으로 하여 육로를 발굴하는 형태로 전개하여야 함

○ 산길의 경우 산성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형태를 취하며, 수로의 경우 금강을 중심으로 나당연합군의 진격로, 문화전파로, 중국 및 일본 사신의 동선 등 다양한 루트의 개발이 필요함

▌재미있는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필요

○ 백제와 금강에 얽힌 역사, 생태자원,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단순히 걷는 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진 도보길로 조성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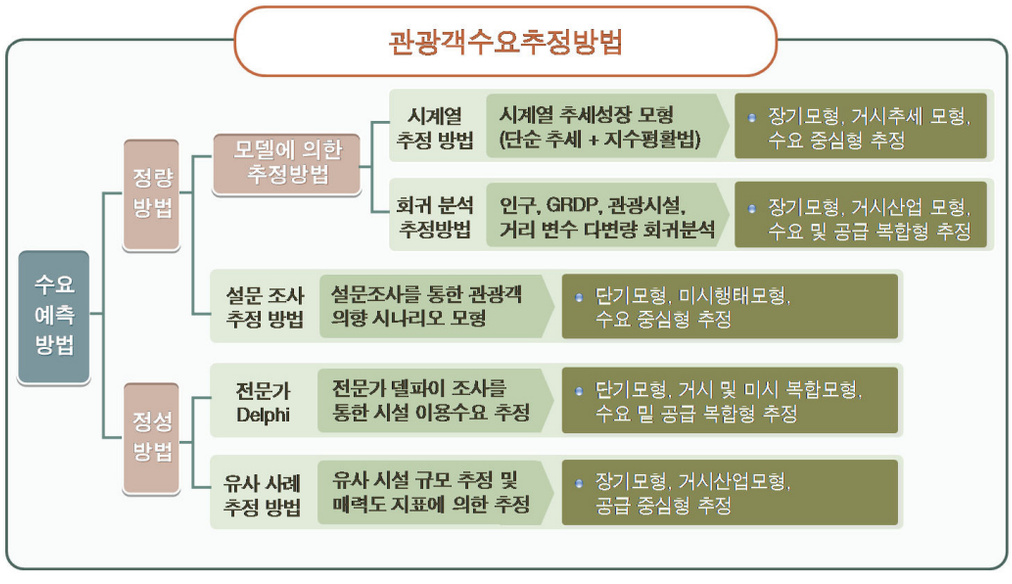
○ 이를 통해 도보관광객이 본인을 역사에 투영시켜 체험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4. 도보이용객 수요예측

1) 분석의 전제

(1) 수요예측 분석 프로세스

- ○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 ○ 세부적으로는 수요예측 방법을 다시 정량적 방법은 모델에 의한 추정방법과 설문조사에 의한 추정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델에 의한 추정방법은 시계열 추정방법과 회귀분석으로 인한 인과관계분석 추정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 정성적 방법은 수량적인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유사시설의 규모 추정 또는 매력도 지표에 의하여 본 대상에 적용하는 유사사례를 이용한 추정방법 등이 있음
- ○ 수요예측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옳고 그르냐를 따질 수는 없으며, 다만 수요예측을 하기 위한 대상의 활용 가능한 자료의 질, 수요예측의 기간, 각종 수요예측을 위한 검증방법이 보다 훌륭한 것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 ○ 특히, 다양한 기존 데이터 확보 여부에 따라 수요추정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Ⅲ-29] 관광객 수요예측 분석의 일반적 방법

(2) 도보여행 수요예측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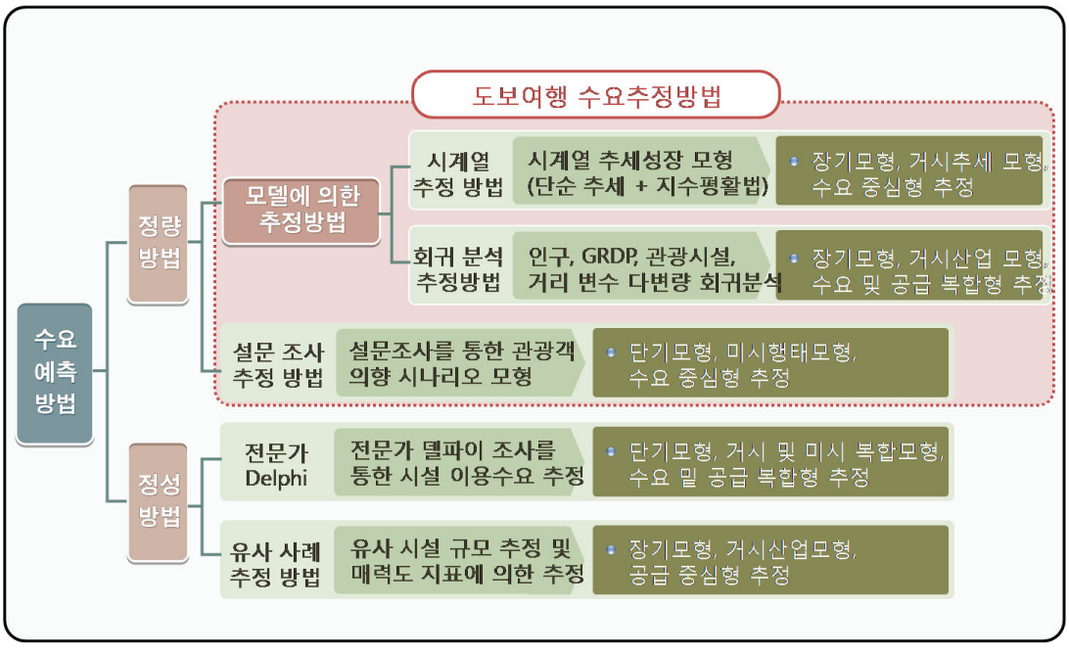
○ 수요예측의 정성적 방법은 실제 데이터의 근거제시가 불명확하여 도보여행과 같은 신규 여행패턴을 예측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각 방법의 장점을 최대한 검토하여, 시계열 추정방법, 회귀분석 추정방법, 설문조사 추정방법을 모두 병행하여 수요를 예측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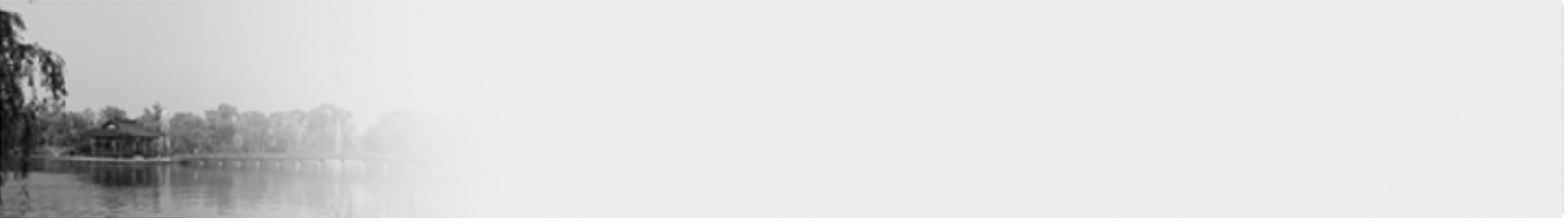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특히, 도보여행이라는 신규 여행패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민 관광이동총량 예측 및 관광객 예측은 시계열방법 및 회귀분석 방법, 도보여행 관광수요예측은 설문조사 추정방법을 도입하여 예측을 실시함

○ 다만, 향후 연구에서는 정성적 방법을 통한 수요예측 보완을 통하여 수요예측을 보다 정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요예측을 통한 차후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예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기간상의 제약이 따르는바, 향후 외국인 도보여행의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외래객 국내여행 실태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외국인의 도보여행 참여여부 및 선호도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Ⅲ-30] 도보여행 수요예측 분석의 일반적 방법



(3) 도보여행 수요예측을 위한 과정

▌전 국민 관광수요, 전국 도보여행 수요예측, 도보여행 수요예측을 제시

○ 수요예측의 정성적 방법은 실제 데이터의 근거제시가 불명확하여 도보여행과 같은 신규여행패턴을 예측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하여, 우선 시계열 추정방법을 통하여 전국민 관광이동총량을 예측한 후,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실시한 조사의 도보여행 참여비율, 대상지역 관광비율을 토대로 백제옛길 도보이용 수요예측을 실시

▌2016년(5개년)까지 수요예측 실시

○ 도보여행 수요예측은 신규 여행패턴이라는 점, 기존 데이터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수요예측을 제시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변수로 존재

○ 따라서 2011년 데이터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측을 하며, 부분적으로 2012년은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통하여 보완을 실시함

○ 2012년 현재 시점에서는 2012년까지 관광객 실적치가 반영되어야 합당하나, 2012년 데이터가 완성 및 발표되는 시점은 2013년 상반기 이후에 제시되기 때문에 예측에 반영 가능한 데이터만을 우선적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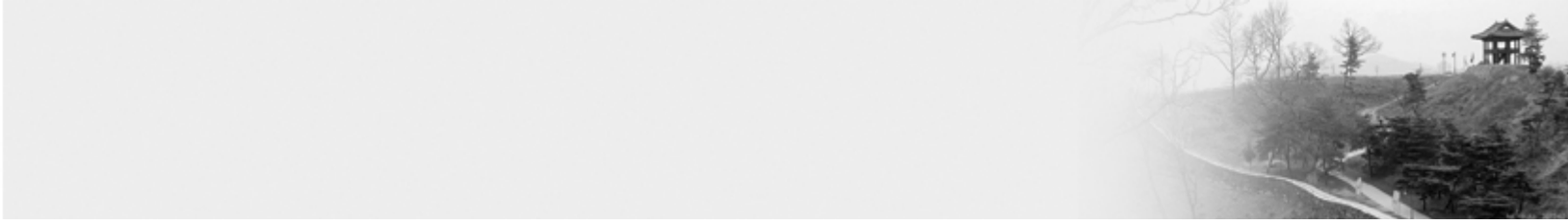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2) 관광수요 예측

(1) 관광수요 예측 절차

○ 관광수급분석은 상위계획인『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충청남도의 관광객 수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예측함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전국 관광수요 중 충남권 관광수요의 점유율은 과거 시계열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되 향후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보정을 한 후 산정하였음

○ 충남권 수급분석의 경우 관광객의 방문 집중시점인 최대 시 관광수요를 추정하여 산정함



(2) 전국 관광수요 예측

○ 전국 관광수요 예측하는 기법은 정량적(Quantative Forecasting Method)과 정성적(Qualitative Forecasting Method)을 결합한 형태인 결합기법(Combined Forecasting Method)을 활용하여 국민 국내관광총량과 외래관광총량을 예측하였음

- 수요예측에서는 정량적 기법 중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절대평균백분비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 MAPE)를 기준으로 추세분석법(Traditional Trend Methods), 평활법(Smoothing Methods), ARIMA 등의 시계열 예측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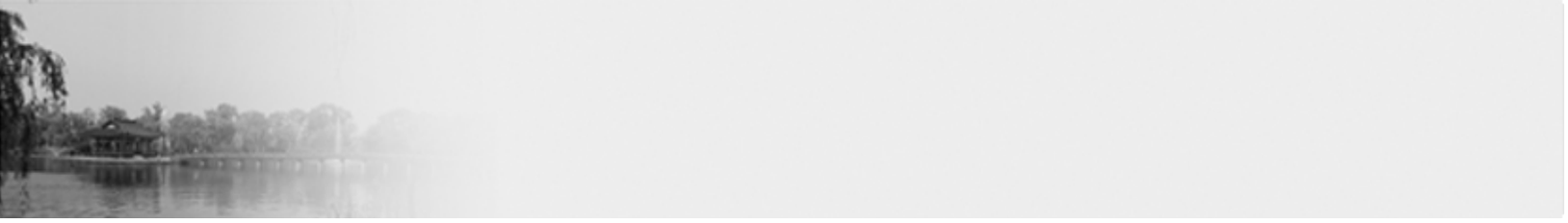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시계열 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본 시계열 데이터는 기존까지 사용되었던 '방문객 이동통계' 대신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국민여행실태조사'(국민 국내관광총량 예측)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출입국관광통계' 및 '관광숙박업이용실적현황'(외래관광총량예측) 등이 있음

○ 예측결과 2016년 국민 국내관광총량은 약 576백만명, 외래 관광총량은 약 31백만명 등 총 607백만명으로 예측되었음

〈표 Ⅲ-17〉 전국 관광총량

구분	국민 국내관광(명)			외래관광(명)	전체 관광총량(명)
	당일	숙박	관광총량	관광총량	
2012년	164,828,910	327,787,944	492,616,854	23,125,382	515,742,236
2013년	169,345,388	342,875,117	512,220,505	24,838,381	537,058,886
2014년	173,992,056	358,690,657	532,682,713	26,714,185	559,396,898
2015년	178,772,822	375,271,248	554,044,070	28,771,648	582,815,718
2016년	183,691,715	392,655,494	576,347,209	31,039,210	607,386,41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2011)



3) 충청남도 관광수요 예측

(1) 내국인 관광수요 예측

○ 충청남도 내국인 관광수요 예측을 위해서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시계열 예측방법 중 절대평균오차비율(MAPE)이 낮은 기법을 채택하여 추정하였음

〈표 Ⅲ-18〉 내국인 관광수요

구분	당일관광 (명)	숙박관광 (명)	관광총량 (명)
2005년	11,891,991	23,538,318	35,430,308
2006년	14,179,172	22,260,219	36,439,391
2007년	10,785,347	25,079,018	35,864,365
2008년	10,797,315	22,079,213	32,876,528
2009년	6,899,317	22,276,368	29,175,685
2010년	8,952,554	23,385,731	32,338,285

주 :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를 보정한 시계열 자료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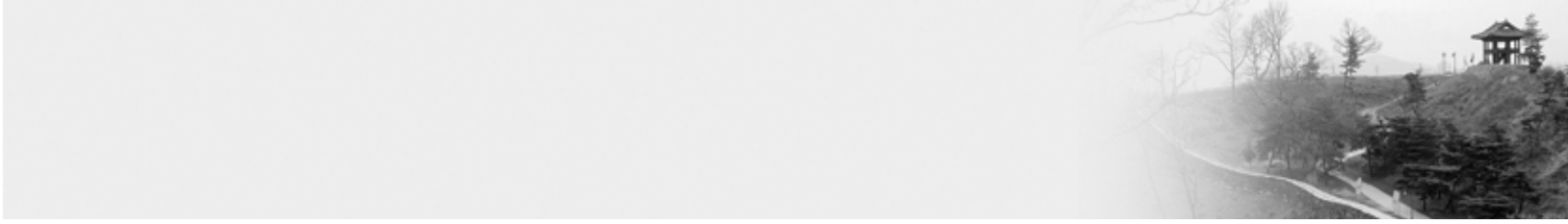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이에 충청남도 내국인 관광수요 예측을 위해서 숙박관광은 추세 감소 선형 지수 평활법(Damped Trend Exponential Smoothing)을 사용하였고, 당일관광은 선형추세법(Linear Trend)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음

〈표 Ⅲ-19〉 내국인 관광수요 예측

(단위 : 명)

구분	국내여행이동총량		숙박여행		당일여행		비고
	이동총량	증감률(%)	이동총량	증감률(%)	이동총량	증감률(%)	
2012년	34,927,137	2.89	24,826,657	2.80	10,100,480	3.10	
2013년	35,935,398	2.89	25,521,803	2.80	10,413,595	3.10	
2014년	36,972,830	2.89	26,236,414	2.80	10,736,416	3.10	
2015년	38,040,278	2.89	26,971,033	2.80	11,069,245	3.10	
2016년	39,138,614	2.89	27,726,222	2.80	11,412,392	3.1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2) 외래 관광수요 예측

○ 외래관광객 수요예측을 위해 '81년부터 '10년까지의 방한 입국객을 아시아주(일본, 중국, 기타), 중동, 미주(미국, 기타),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기타로 구분하여 각 대륙별 예측을 실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국내의 전체 외래관광객 수 수요예측을 하였음

○ 이후 충청남도 외래관광 수요예측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관광숙박업 이용 실적현황(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토대로 충청남도 점유율(0.95%)을 산출하고, 총 외래관광객 총량 수요예측 결과에 이를 적용하여 지역별 외래관광객 수를 비율 배분하였음

〈표 Ⅲ-20〉 외래 관광수요 예측

구분	외래관광 총량(명)	증감률(%)
2012년	285,175	7.74
2013년	306,299	7.41
2014년	329,431	7.55
2015년	354,803	7.70
2016년	382,766	7.8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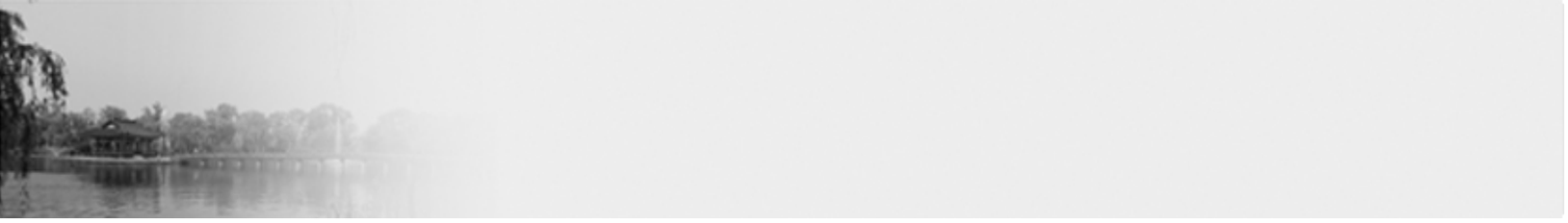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3) 충청남도 관광수요 예측

○ 충청남도 관광수요는 2016년 내국인 관광객 39,138천명과 외래관광객 383천명으로 총 39,521천명으로 예측되었음

〈표 Ⅲ-21〉 충청남도 관광총량

구분	내국인 관광(명)			외래관광(명)	전체 관광총량(명)
	당일	숙박	관광총량	관광총량	
2012년	10,100,480	24,826,657	34,927,137	285,175	35,212,312
2013년	10,413,595	25,521,803	35,935,398	306,299	36,241,697
2014년	10,736,416	26,236,414	36,972,830	329,431	37,302,261
2015년	11,069,245	26,971,033	38,040,278	354,803	38,395,081
2016년	11,412,392	27,726,222	39,138,614	382,766	39,521,38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



(4) 계획구역 관광수요 예측

○ 계획구역인 공주, 논산, 부여, 서천의 관광수요 예측은 충남 관광수요 예측에 계획구역 각 지역이 차지하는 관광객 비율을 통해 산정

○ 지역별 관광객 비율 산정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충남관광기본자료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연도의 비율을 구한 후 평균으로 도출함

○ 먼저 각 지역의 연도별 관광객 수는 기존 통계자료가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표 Ⅲ-22〉 계획구역 관광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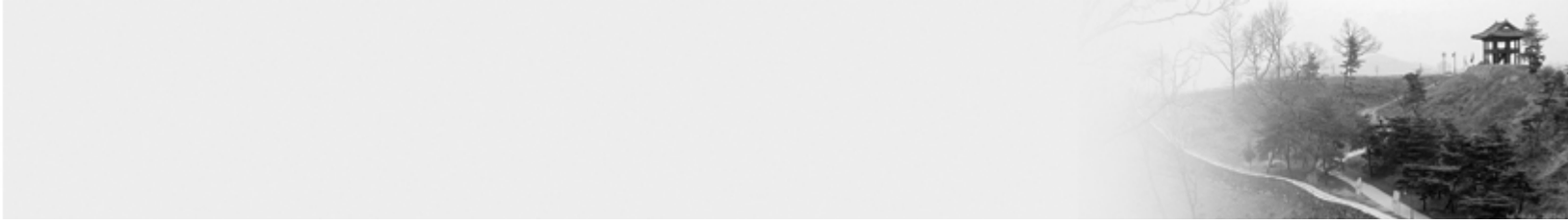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주시	3,572,502	2,805,879	3,497,367	3,712,896	3,062,746	5,272,706	4,417,984
논산시	265,361	300,733	1,356,490	1,418,352	1,432,691	1,508,556	1,592,281
부여군	2,904,538	4,214,242	4,274,929	4,612,202	4,782,229	7,507,500	5,447,973
서천군	10,133,478	7,498,768	5,668,896	5,002,946	4,120,113	6,850,788	6,878,309
충남전체	85,318,509	85,700,667	86,579,170	75,353,088	89,632,694	104,848,890	99,510,425

자료 : 충청남도(2012), 충남관광기본자료

○ 점유율 분석결과 계획구역 시군의 관광객 점유비율은 공주시가 평균 4.2%, 논산시 1.2%, 부여군 5.3%, 서천군 7.4%로 전체 18.2%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23〉 계획구역 관광객 점유비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평균
공주시(%)	4.2	3.3	4.0	4.9	3.4	5.0	4.4	29.3	4.2
논산시(%)	0.3	0.4	1.6	1.9	1.6	1.4	1.6	8.7	1.2
부여군(%)	3.4	4.9	4.9	6.1	5.3	7.2	5.5	37.4	5.3
서천군(%)	11.9	8.7	6.5	6.6	4.6	6.5	6.9	51.9	7.4



○ 이를 통해 계획구역의 관광수요를 예측하면 2012년도 6,408,641명에서 2016년 7,192,891명으로 증대할 것으로 나타남

〈표 Ⅲ-24〉 계획구역 관광객 수 예측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충남관광객수(명)	35,212,312	36,241,697	37,302,261	38,395,081	39,521,380
점유비율(%)	18.2%	18.2%	18.2%	18.2%	18.2%
계획구역 관광객수(명)	6,408,641	6,595,989	6,789,012	6,987,905	7,192,891

4)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예측

(1) 설문조사 결과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민 설문조사 적용

○ 국민여행실태조사 등에서는 도보여행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도보여행의 조사규모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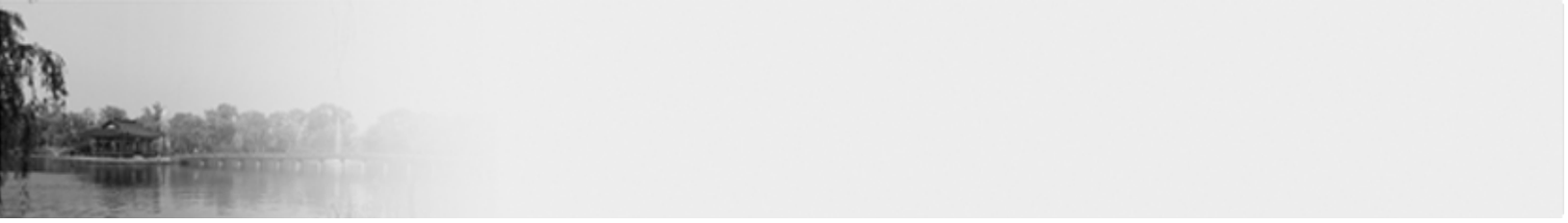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따라서 도보여행에 대한 참여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에 온라인 서베이를 통한 전국민 조사를 실시하여, 도보여행의 참여비율 및 참여의사를 물어본 조사결과를 이용

▌사용의향 및 실제구매와의 차이에 따른 가중치 적용

○ Optimic/Conservative Coefficients(Urban & Hauser, 1980)의 분석결과, 일반인들의 제품사용의향과 실제구매와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낙관적 수요예측의 경우 0.9, 보수적 수요예측의 경우 0.7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관광의 경우, 제품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띄고 있어 의향과 구매 사이의 차이가 보다 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보수적 수요예측 가중치인 0.7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본 연구에서도 도보여행 참여비율 및 참여의사의 경우 모두 가중치인 0.7을 적용하여 수요예측에 있어서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함



(2) 도보여행 비율 추정

▌현재 : 도보여행 참여비율 × 가중치 적용

○ 2010년 설문조사 결과, 현재 여행패턴 중 도보여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이에 대한 가중치 0.7을 적용하면 전체 차지비율은 4.55% 정도로 추산됨

▌예측 : 도보여행 참여의사 × 가중치 적용

○ 설문조사 결과, 향후 5년 동안 도보여행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평균 5.21회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를 연간 환산하면 약 1.042회 수준임

○ 국내여행실태조사에서 분석한, 평균 1인 여행횟수가 6.07회로 1.042회의 도보여행횟수는 전체 여행횟수의 17.2%에 해당함

○ 단, 이에 대한 가중치 0.7을 적용하면 도보여행 참여의사율은 12.05%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5년 이후의 수치이므로,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12.05%까지 증가한다고 전제함(연간 1.25%p 증가 수치)

〈표 Ⅲ-25〉 계획구역 시·군 참여의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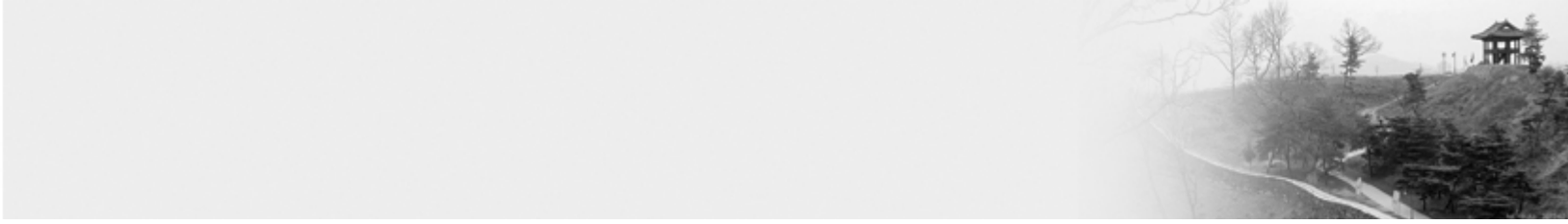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의사율(%)	4.55	5.80	7.05	8.30	9.55	10.80	12.05

(3)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추정

○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추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정한 충남관광객수에서 계획구역 관광객 수 추정 후 도보여행비율을 적용하여 도보여행 수요를 추정하고 본 계획의 설문조사에서 계획권역 도보여행 참여의사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를 추정하였음

○ 도보여행 비율을 적용한 수요 추정 결과 도보여행 수요는 2012년 451,809명에서 2016년 866,74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계획구역의 도보여행 수요 예측을 위해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계획구역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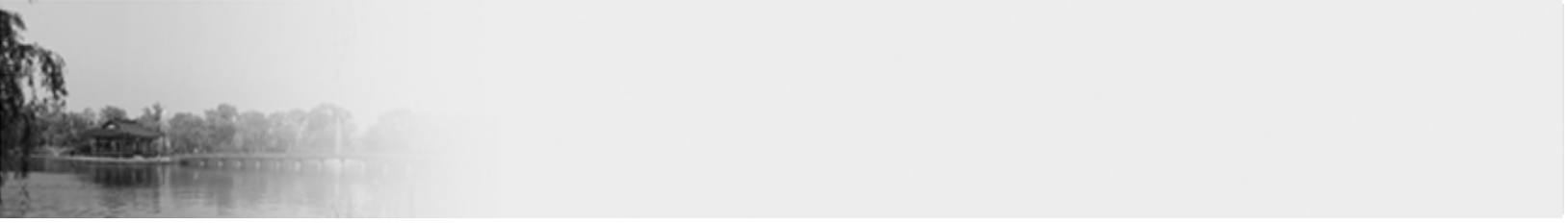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보여행 참여의사 68.8%를 적용하였음

○ 이에 따른 결과는 2012년 310,845명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376,657명, 2014년 446,065명, 2015년 519,229명, 2016년에 596,319명으로 추정되었음

〈표 Ⅲ-26〉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추정

구 분	충남관광객수 추정(명)	계획구역 관광객수 추정	도보여행 비율 (%)	도보여행 수요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명)
2010년		점유율(%)	4.55%		참여의사(%)
2011년		18.2%	5.80%		68.8%
2012년	35,212,312	6,408,641	7.05%	451,809	310,845
2013년	36,241,697	6,595,989	8.30%	547,467	376,657
2014년	37,302,261	6,789,012	9.55%	648,351	446,065
2015년	38,395,081	6,987,905	10.80%	754,694	519,229
2016년	39,521,380	7,192,891	12.05%	866,743	596,319



5.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1) 강점(Strength)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 백제문화는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을 정착하여 왔음

○ 다양한 문화의 부흥, 우수한 자연생태, 백제의 화려한 문화와 교류, 기호학파의 산실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백제문화교류의 중심지로 풍부한 관광자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상품화하고 있음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백제문화는 패망의 역사를 지닌 고대국가로 신라에 비해 개발이나 관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그러나 백제의 문화, 예술, 정치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됨에 이를 향유하고 체험하려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또한 백제문물교류지인 중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역사문화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수도권의 관광배후시장 및 세종시 등 잠재시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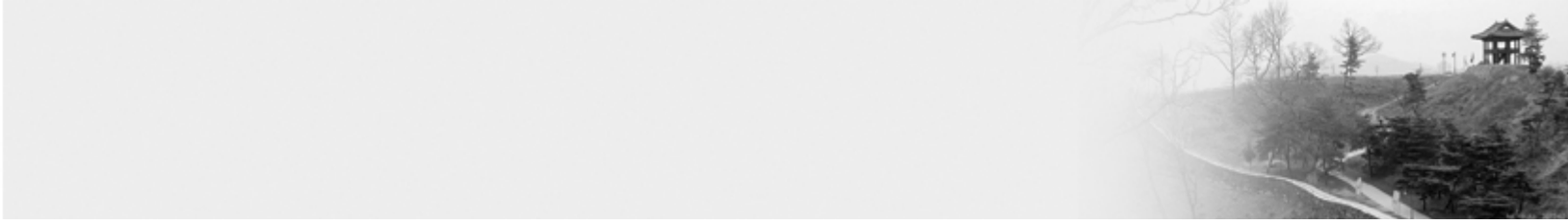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백제 문화권은 국토의 중심부인 입지 및 접근성을 바탕으로 수도권 배후인구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임

○ 또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교육적 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의 개발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있음

▌지역간 협력적 연계

○ 계획권역은 백제문화권의 금강권역 5개 자치단체(공주, 부여, 논산, 서천, 익산)로 금강권관광협의회를 결성하여 지역의 관광체계 수립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금강비단물결투어를 기획하고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즐기며



누릴거리, 스토리텔링 등을 심도 있게 구상하여 지자체간 연계발전을 꾀하고 있음

2) 약점(Weakness)

▌구간별 연계의 어려움

○ 백제문화의 중심지인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논산, 서천, 익산 등 5개 시군은 금강으로 연결되고 국도 및 지방도의 개통에 따른 접근성은 용이함

○ 그러나 도보로 연결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사업부문에서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구간별 자원분포가 적다는 점에서 연계가 어려움

○ 설문조사 결과 1박 2일 코스를 잠재이용객이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5개 시·군의 구간이 도보로서 연계될 수 있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

▌관람형 관광형태 위주의 상품

○ 백제문화는 매장형 문화재가 많이 분포함에 따라 기존의 체험형, 체류형 관광행태보다는 관람형 관광형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관광행태에서 레저, 문화, 자연생태가 결합된 체험형 생태관광으로 변화되며 특수한 목적을 지니는 관광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형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기회(Opport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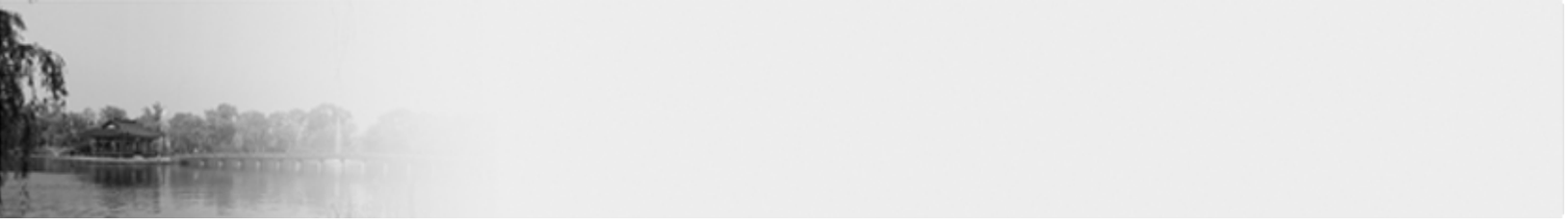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여가 및 문화관광 활동욕구 증대

○ 주 5일근무제에 따라 여가시간 증대에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여가·관광활동이 급속히 증가하였음

○ 최근에는 교육적 가치 및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생태 및 문화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를 즐기고자 하는 문화관광객의 욕구 또한 변화하고 있음

▌역사문화생태탐방프로그램의 수요 증가

○ 여행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건립 등 인프라 구축보다는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환적인 관광상품의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걷기를 통한 건강, 역사문화 및 생태체험 등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생태탐방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역사생태탐방프로그램은 스토리를 중심으로 길을 따라 관광자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경우 특색 있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차별화가 가능함

▌광역 연계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은 둘 이상의 지자체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음

○ 백제옛길 조성은 충남도내 백제문화권과 전북 익산시가 포함되는 광역사업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될 것임

4) 위협(Threat)

▌경기침체에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

○ 관광산업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관광투자유치 부진은 당연한 결과임

○ 또한 지자체간 민간투자유치에 대한 경쟁 과열로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책이 답보상태에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가중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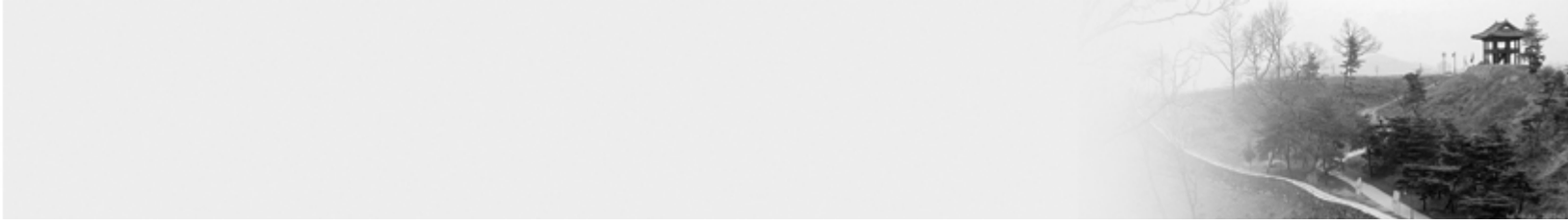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도보여행의 지자체간 경쟁 심화

○ 제주올레길의 성공 이후 지자체별 차별적인 도보여행상품이 우후죽순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어려워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 난립하고 있는 형태임

○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도보여행상품을 개발함에 따라 차별화가 어려움

▌자원의 개발과 보존문제 상충

○ 백제문화유적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자원의 개발과 생태적인 환경의 보존 사이에서 상충되는 문제점들이 있음



- 문화재 및 생태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발과 보존, 지역주민의 재산권 주장과 맞물려 문화재 보존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문화유산은 새로운 창조의 무한한 경제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근시안적이고 편의만을 위한 개발은 자제되어야 함

내부환경	Strength	•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 백제문화 대한 관심 증대 • 수도권의 관광배후시장 및 세종시 등 잠재시장 보유 • 지역간 협력적 연계 가능	• 구간별 연계의 어려움 • 구간별 관광형태 위주의 상품 • 도시화에 따른 경관자원 부재 • 관련 인력 및 프로그램 미흡	Weakness
외부환경	Opportunity	• 여가 및 문화관광 활동욕구 증대 • 역사문화생태탐방프로그램의 수요 증가 • 광역연계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 경기침체에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 • 도보여행의 지자체간 경쟁심화 • 자원의 개발과 보존문제 상충	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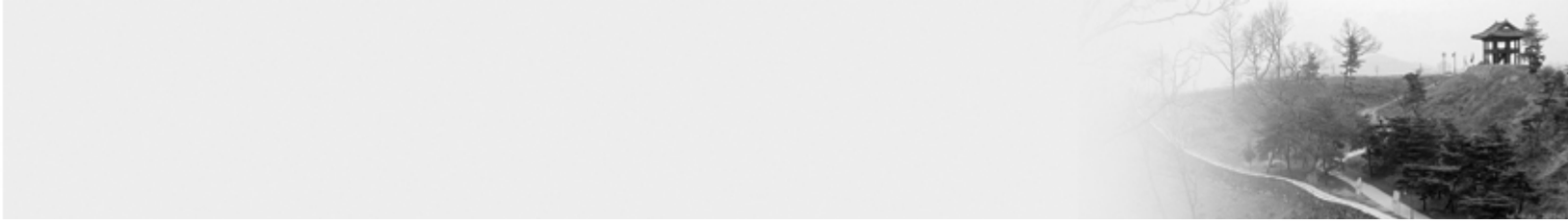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S W
O T

과 제 도 출

■ 유 · 무형 자원 계승과 문화관광자원화 공감대 형성
■ 지역고유의 유 · 무형 자원을 활용한 길 여행상품화
■ 차별화된 길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텔링의 활용
■ 백제권 지역문화자원의 광역적 네트워크 연계체계 구축
■ 지역주민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력 유도
■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길 여행 리더그룹과 마니아 참여 촉진

Ⅳ. 백제옛길 조성 기본구상

1. 비전과 목표
2. 백제옛길의 노선 선정
3. 백제옛길의 루트 구상



1. 비전과 목표

1) 비전

(1) 개념 정의

▌옛길의 개념적 정의

○ ‘길’ 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위한 물리적 통로이자, 사람과 자연의 교류 통로이고, 사람과 사회와의 연결 · 접촉 통로로서 사람의 사회적 활동을 담아내기 위한 통로임

○ 최근 길은 문물교류의 통로에서 일상생활의 시공간에서 벗어난 ‘걷기’ 를 통해 생활문화와 정신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음

▌길의 유형

○ 길의 유형에는 기본적인 유형으로 하늘 길, 땅길, 물길이 있고, 쓰임새에 따라 차길, 자전거길, 사람길, 동물길, 순례길, 자연관찰로 등이 있음

○ 모양새에 따라서는 너머 길, 둘레 길, 언저리 길, 능선 길 등이 있고, 위치에 따라 숲길, 농촌길, 산촌길, 도시길, 강길, 마을길, 산길 등이 있음

○ 길의 명명에 따라 지리산길, 한라살 길, 왕피천 길, 덕수궁 길 등이 있으며, 노면상태에 따라서 포장길과 비포장 길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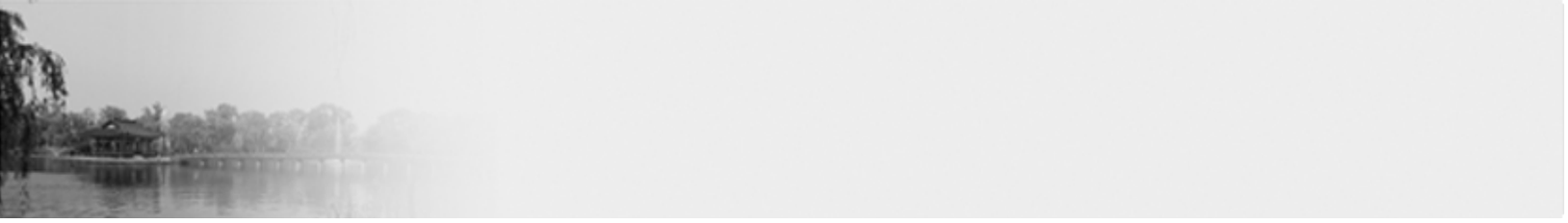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백제 옛길의 개념적 정의

○ 백제 옛길은 백제문화권에 있는 지역(도시와 농촌마을과 숲 등)을 포함한 공간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물리적 환경에서 ‘길’ 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임

○ 백제 옛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길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력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땅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으로 국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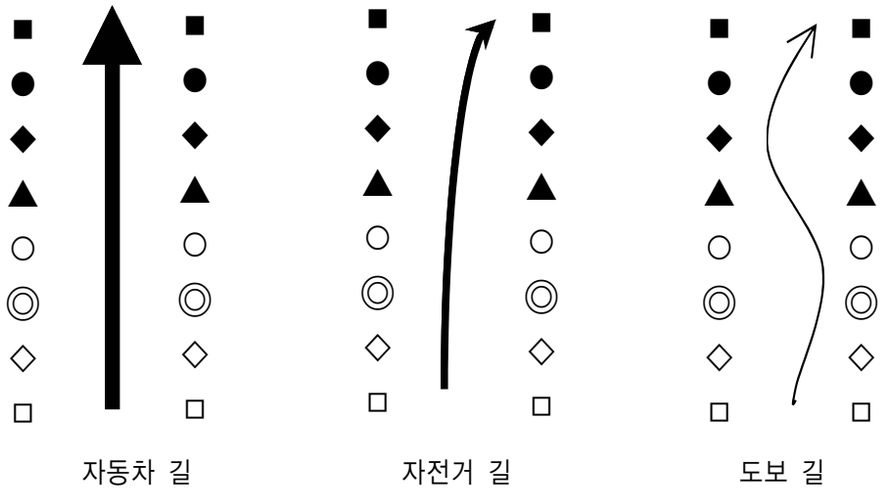
○ 백제 옛길은 백제문화권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마을의 다양한 역사 · 생태 ·



문화자원을 네트워크화하며, 길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백제유적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하며 백제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도록 만드는 자동차여행 관광루트와 도보여행코스의 복합적인 개념임

▌백제 옛길의 유형

○ 백제 옛길에서 접할 수 있는 길은 이동수단에 따라서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의 구분이 가능함



[그림 Ⅳ-1] 백제 옛길의 이동 유형

(2) 백제옛길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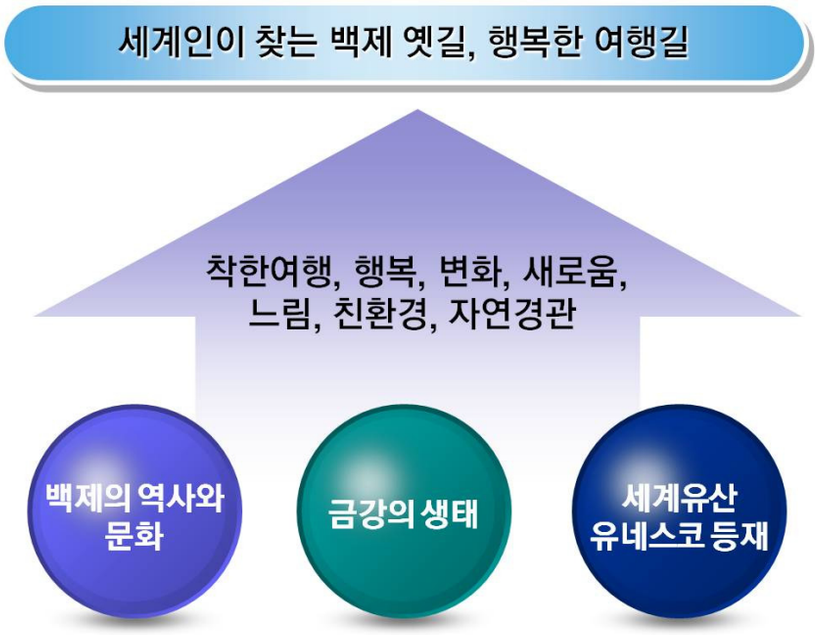
▌비전도출의 키워드

○ 백제 옛길의 비전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다음과 같음

- 백제역사와 문화, 금강의 생태,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 등
- 착한여행, 행복, 변화, 새로움, 느림, 친환경, 자연경관 등

▌비전 : 세계인이 찾는 백제 옛길, 행복한 여행길

○ 백제유적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와 더불어 백제역사와 문화, 금강의 생태를 만나는 행복한 여행길을 제공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 속의 관광명소로 백제 옛길을 조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설정



[그림 Ⅳ-2] 백제 옛길의 비전

2) 목표 및 추진방향

(1) 목표

▌백제문화의 가치 재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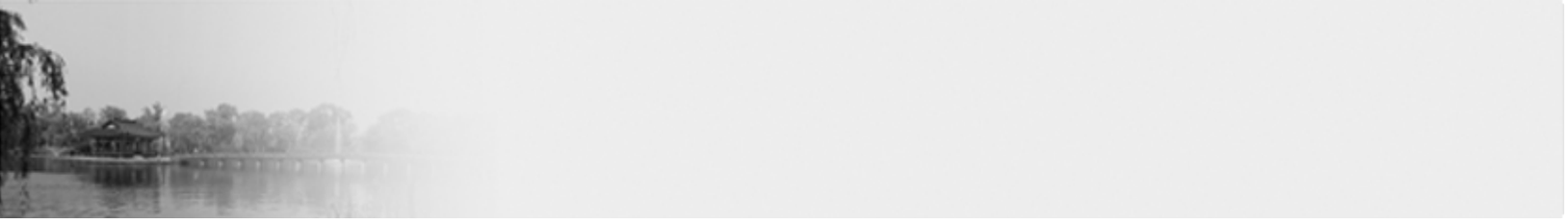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문화의 가치 재창출' 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백제유적에 대하여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가치를 높이고자 함

▌향토자원의 활용제고

○ 백제 옛길이 있는 지역의 역사 · 생태 · 문화자원과 농촌마을, 문화콘텐츠, 축제 및 이벤트 등의 향토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으로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역사회의 협력촉진

○ 백제 옛길 조성사업은 충남과 전북의 5개 시군과 각 지역의 주민과 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추진방향

▌백제 옛길 찾기와 노선 선정사업 추진

○ 백제유적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의 추진과 함께 백제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백제 옛길을 찾고, 이를 찾아가는 노선을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함

▌백제 옛길의 순환루트와 도보여행코스 발굴 및 조성

○ 백제 옛길로의 순수한 도보여행은 백제시대에서 현대까지 장기간의 지형 변화와 고증 자료 미흡으로 걷는 길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역간의 자동차 순환루트와 도보가능구간 및 지역내 도보여행코스로 구분하여 발굴 조성함

▌합리적 관리운영과 보존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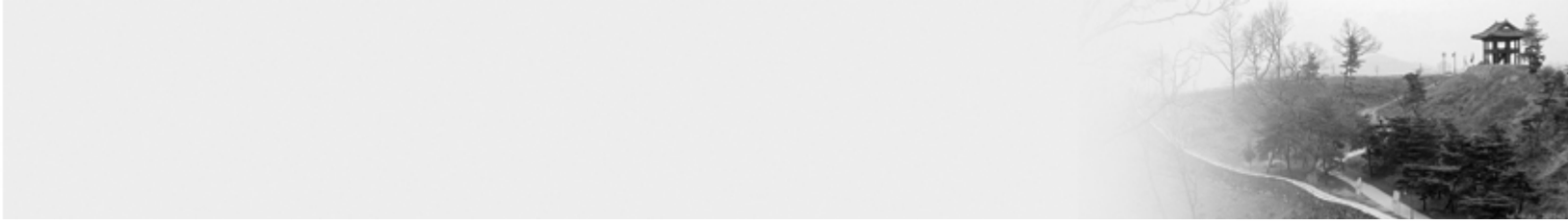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백제 옛길의 노선을 선정하여 여행코스를 발굴·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용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문화재와 환경보존대책을 마련해야함

▌관광상품과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

○ 백제 옛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순환루트와 지역내 도보여행코스를 유형화하여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함

▌협력적 사업추진과 주민참여 유도

○ 백제 옛길 노선에 순환관광루트와 도보여행코스를 발굴하여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5개 시·군간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해야 하며, 백제 옛길 사업과 연관된 지역주민과 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함



3) 기본구상

(1) 백제 옛길과 현대 길을 연계한 역사 여행길

▌백제 옛길의 고증과 찾기

○ 백제 옛길은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상지역내에 있는 분포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과 유물을 찾고 여행 할 수 있는 도로임

○ 과거의 백제시대 길과 고려, 조선, 근대에 이르는 길의 찾기 위하여 백제시대의 행정체제와 왕도 이전, 도성과 성곽분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고지도, 일제강점기의 신작로와 소금길 등과 역사 전문가의 현장답사를 통해 옛길을 발굴함

▌여행이 가능한 백제 옛길 노선선정

○ 백제 옛길의 노선선정은 도시화로 인한 옛길의 차로화로 인한 단절, 이용이 없어 사라진 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백제시대의 왕도와 지방세력도시간 이동, 백제역사유적과 유물의 입지를 분석함

○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는 길의 변화를 중첩하여 여행이 가능한 옛길 노선을 선정함

▌옛길의 이용조건을 고려한 여행길 대안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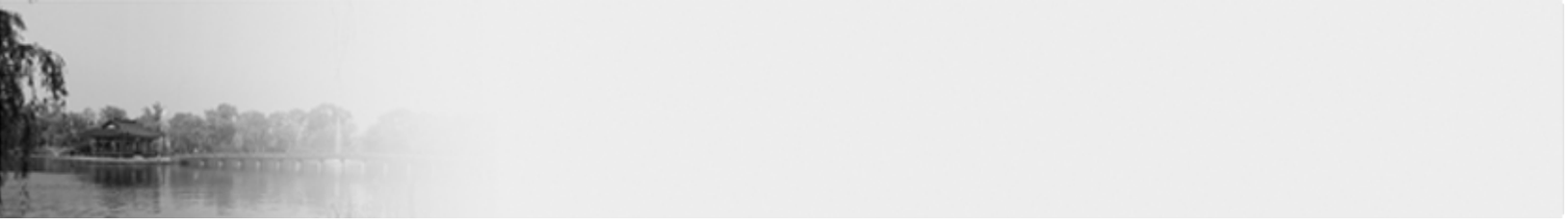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 옛길은 지형조건과 도로의 현대화로 인한 변화 등으로 옛날과 같이 도보이동을 통한 전구간의 여행이 불가능하므로 옛길의 이용조건을 고려하여 자동차와 자전거, 도보로 찾는 백제여행길의 대안을 제시함

(2) 자동차와 자전거, 도보로 찾는 백제 여행길

▌백제의 거점도시를 찾아가는 자동차 여행길

○ 백제 옛길은 백제시대의 왕도와 지방세력 도시를 이동하던 도로로 현재는 고속도로 또는 국도, 지방도로 현대화되었음

○ 따라서 과거로부터 백제문화의 거점도시기능을 하는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익산 등은 자동차 이동을 통한 여행길을 제시함



▌백제역사와 금강을 만나는 자전거 여행길

○ 금강은 웅진백제와 사비백제의 왕도가 천도한 백제역사문화의 발원지로서 금강권에는 백제유적과 유물이 산재하고 있음

○ 또한 금강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청댐,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까지 자전거도로를 이미 조성하였으므로 이와 연계한 자전거 여행길을 제공함

▌백제 옛길을 구석구석 누비는 도보 여행길

○ 백제시대의 왕도와 지방세력도시였던 공주, 부여, 익산 등과 해상교류의 관문인 서천, 백제 최후의 격적지 논산 등에는 백제유물과 유적, 신화와 전설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음

○ 따라서 이곳에 남아있는 백제역사문화자원들을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는 도보여행길을 발굴하여 운영함

(3) 관광객 수요에 맞는 여행 길 발굴 및 제공

▌트레킹 관광객을 위한 도보여행길

○ 최근에 도보여행은 전국적인 트랜드로서 많은 관광객들과 길 여행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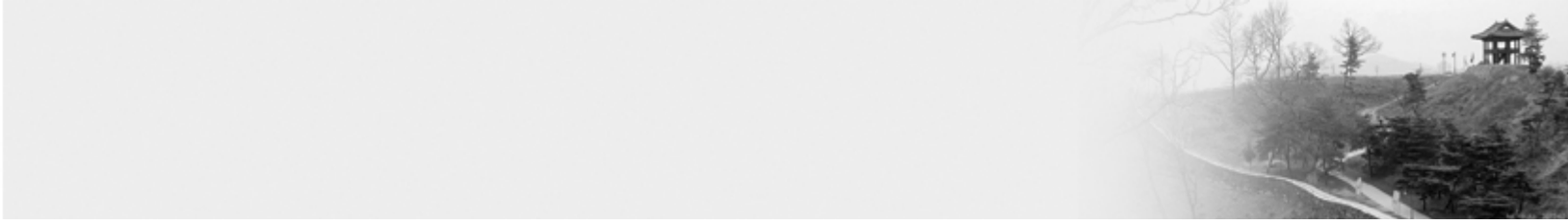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또한 도보여행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느리게 향유하면서 착한여행을 할 수 있어 백제문화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걷는 여행 마니아를 대상으로 하는 트레킹 관광객을 위한 도보 여행길을 발굴하여 운영함

▌가족과 단체관광객을 위한 백제여행길

○ 대상지역은 가족과 단체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과거 백제왕도와 지방세력도시인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이들 관광객들이 찾고, 걷고 여행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한 역사고도 백제여행길을 제공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역사여행길

○ 백제문화권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선호되는 역사문화관광지로서 백제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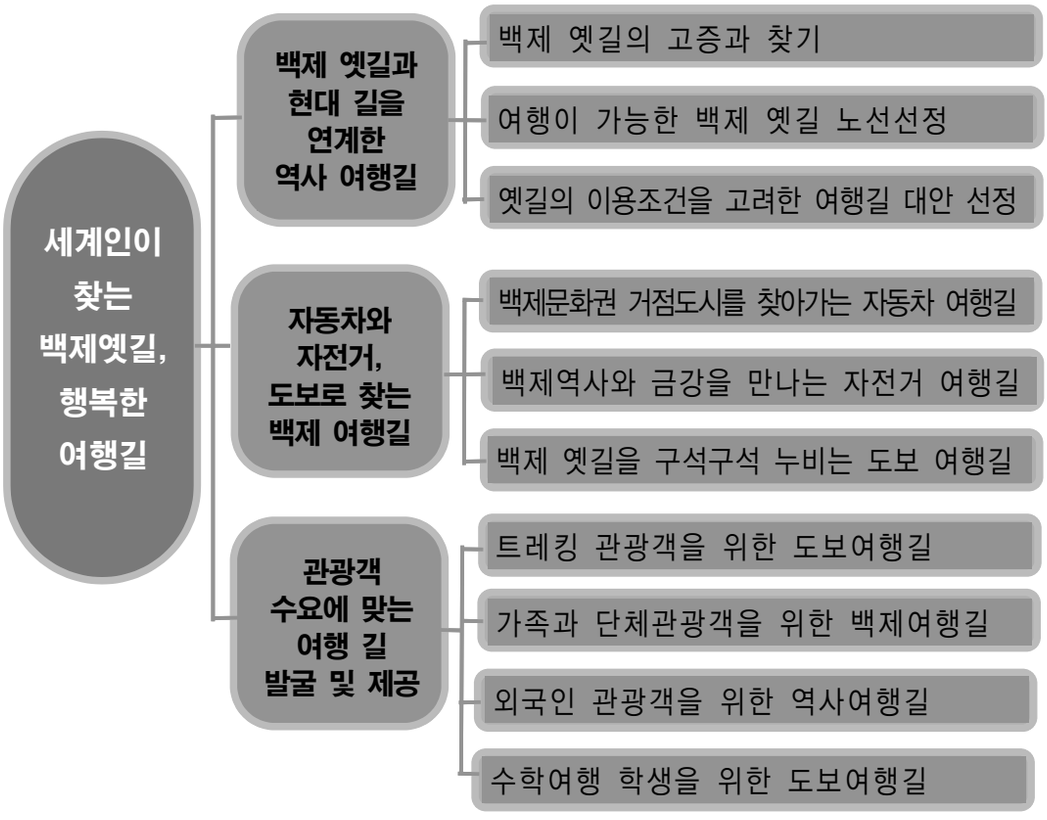
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공주, 부여,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음

○ 이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백제유적지구 자원과 백제시대의 중요한 유물과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역사여행길을 발굴 육성함

▌수학여행 학생을 위한 도보여행길

○ 백제 고도인 공주, 부여, 익산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수학여행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버스로 각 역사문화관광지를 이동하여 관람하기 보다는 백제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과 유물들을 걸어서 찾아볼 수 있는 수학여행 도보여행길을 조성하여 운영함



2. 백제옛길의 노선 선정

1) 노선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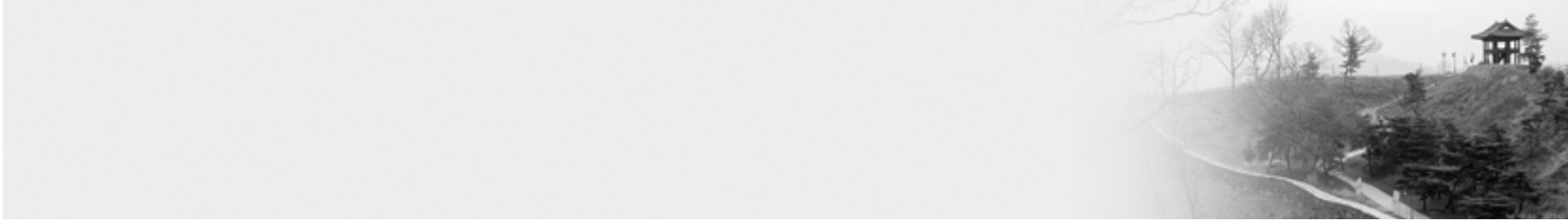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백제 옛길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먼저 노선선정의 계획요인을 선정하고 계획요인별 주제도를 작성하여 적합지역을 도출함

○ 노선 선정을 위한 계획요인은 백제 역사적 요인, 관광자원요인, 정책적 추진요인, 옛길 관련 문헌 및 지도요인, 관광객 성향으로 5가지로 구성

○ 백제 역사적 요인은 백제의 수도, 성곽, 방-군-성 체제와 백제 관련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구성하고, 관광자원요인은 역사문화자원, 자연생태자원, 전시문화자원, 체험관광(마을)자원으로 구성함

○ 정책적 추진요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각 지자체별 길 관련 사업으로 구성하고 옛길관련 문헌 및 지도요인은 백제관련 역사기록에서 길 관련 기록 및 고고학적 자료, 시대별 대상지역 문헌자료, 시대별 지도로 구성하며 관광객 성향요인은 관광객 설문조사, 이용현황, 수요예측, 이동수단으로 구성함

[그림 Ⅳ-3] 적합노선 도출 과정



2) 노선선정의 요인

(1) 백제역사와 옛길 관련 문헌 고찰

▌백제의 역사(수도)

○ 백제의 역사에서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에서 웅진과 사비로 수도를 옮겨 천도를 하고, 대외교류를 한 역사를 기술함

▌백제의 성곽 분포

○ 백제시대 성곽들은 국가 방어의 중심지로서 군사와 물자가 이동하고 백성들의 거주지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모든 길과 연결되고 있음

▌백제의 방-군-성 체제

○ 백제는 담로제에 의해 지방통제 방식에 따라 방-군-성 체제를 통하여 수도에서 지방으로 연결되는 행정체제로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길을 정리함

▌백제 관련 스토리텔링

○ 백제 옛길과 관련된 역사유적, 장소, 시대별로 전해 내려오는 신화와 전설을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옛길 노선과 연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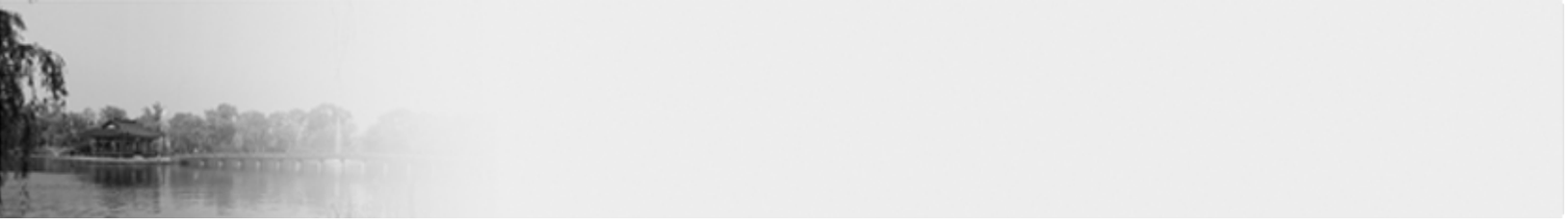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2) 지역 관광자원의 분포

▌역사문화자원 분포

○ 대상지역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국보, 보물 등 다양한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백제유적의 문화재 가치나 분포도의 차이가 있음

▌자연 · 생태관광자원 분포

○ 계룡산과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지역에 자연 · 생태관광자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자원의 가치와 규모, 입지를 달리하고 있음



▌전시문화자원 분포

○ 백제와 지역의 역사 및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박물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지역별로 유형과 분포수가 다르게 입지함

▌체험관광자원 분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마을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로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장소가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음

(3) 정책적 요인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

○ 백제유적지구는 공주와 부여, 익산에 소재하는 백제시대 문화유산을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원현황을 반영함

▌각 시·군의 길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충남연가의 백제길과 고성가도, 공주·논산·부여·서천의 솔바람길, 공주 명승길, 서천 바닷가 생태보행로, 익산 역사탐방의 숨결 둘레길 등의 길 사업 추진현황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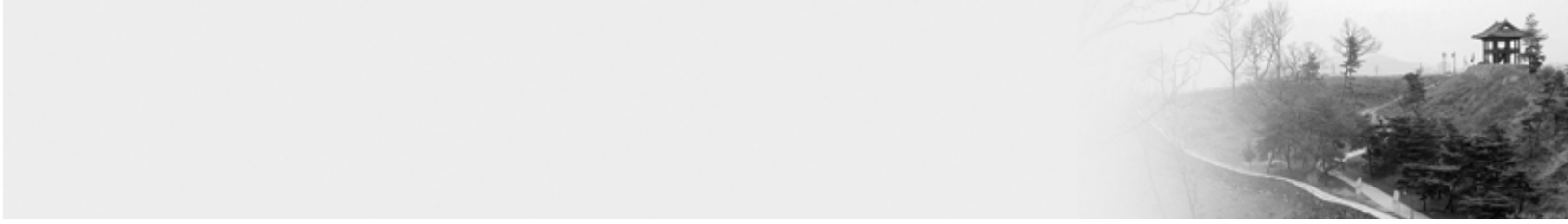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4) 옛길과 관련된 문헌 및 지도 분석

▌백제 관련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

○ 육로는 부여의 사비시대에 지방에서 수도에 이르는 길로 동방성, 서방성, 중방성, 남방성, 북방성 등이 있고, 수도방비를 위한 도로로는 동쪽방면의 길, 금강 방면의 길(금강북로, 금강남로) 등이 있음

○ 수로의 활용은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 수운 및 교역 중심의 백제의 나루터인 곰나루, 왕진나루, 구드래나루, 갓개포구 등과 금강의 소금길에 의한 옛길을 반영함

○ 해로의 활용은 백제는 해상왕국이란 불리며 내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서해가 입지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한반도내 중·서·남부와 교류하고, 인



접바다인 서해와는 서북으로는 중국, 동남으로는 일본열도와 닿는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를 연계토록 함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자료

○ 고려시대 10도제 시행과 5동 양계체제의 역참제에 의한 길, 조선시대 도로망은 도호부와 군현, 그리고 병영과 수영을 연결하여 구축하였는데 제6로가 충남의 백제문화권 지역에 포함된 길이므로 이를 반영함

▌조선시대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의 옛길

○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10대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에 나타난 백제문화권의 지역간에 연결된 옛길을 지도에 표시함

▌일제 강점기 시대 간선도로

○ 일제강점기에는 기존의 길에 신작로라는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조선시대 도로와는 별개의 비교적 폭이 넓은 도로가 만들어져 지역과 지역간을 연결하여 기존의 옛길이 개선됨

▌근현대의 교통망과 토지이용 분석

○ 근현대에 이르면서 도보에서 자동차의 이용으로 변하면서, 도보 중심의 옛길에서 자동차가 이용하는 교통도로망이 건설되면서 기존의 옛길이 조성되고, 또한 도시가 건설되어 도로망이 또 다시 변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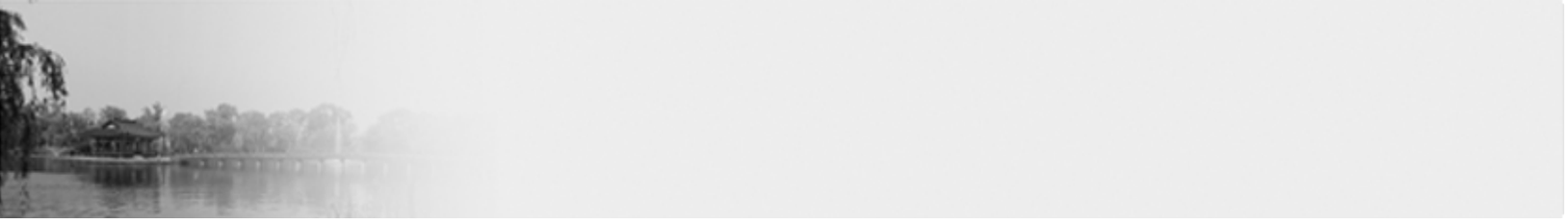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5) 관광객 성향

▌관광객 설문조사

○ 백제문화권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백제옛길의 선호 기대구간, 시·군지역내와 지역간의 옛길의 이용 교통수단 등을 조사하여 옛길 노선 선정에 고려함

▌전문가 인터뷰 조사

○ 백제 옛길에 대한 고증과 노선선정을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인터뷰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조사결과를 반영함



▌관광객 이용현황 분석

○ 백제문화권의 5개 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와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수를 분석하여 옛길 노선 대안제시에 적용함

▌도보이용객 수요예측

○ 백제 옛길의 이용객 수요는 백제문화권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도보이용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별 이용객 수요를 반영함

▌옛길 여행 이동수단

○ 백제문화권의 옛길은 지역간의 이동은 도로여건상 순수한 옛길을 통한 도보여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순수도보여행은 지역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전제함

〈표 Ⅳ-1〉 노선선정의 요인

구 분	요인 또는 분석 내용
백제역사와 옛길 관련 문헌 고찰	• 백제의 역사(수도)
	• 백제의 성곽 분포
	• 백제의 방-군-성 체제
	• 백제 관련 스토리텔링
	• 역사문화자원 분포
지역 관광자원의 분포와 기존 길사업 현황	• 자연·생태관광자원 분포
	• 전시문화자원 분포
	• 체험관광자원 분포
	•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
	• 각 시군의 길 관련 사업 추진현황
옛길과 관련된 문헌 및 지도분석	• 백제 관련 기록과 고고학적인 자료
	•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자료
	• 조선시대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의 옛길
	• 일제 강점기 시대 간선도로
	• 근현대의 교통망과 토지이용 분석
관광객 설문과 전문가의 인터뷰 조사 관광객 이용패턴과 이동수단	• 관광객 설문조사
	• 전문가 인터뷰 조사
	• 관광객 이용현황 분석
	• 도보이용객 수요예측
	• 옛길 여행 이동수단

3) 노선선정 요인별 분석

○ 각 계획요소별 주제도를 구축한 후 각각의 주제도를 중첩하여 백제 관련 자원이 집중 분포하는 지역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을 적정노선으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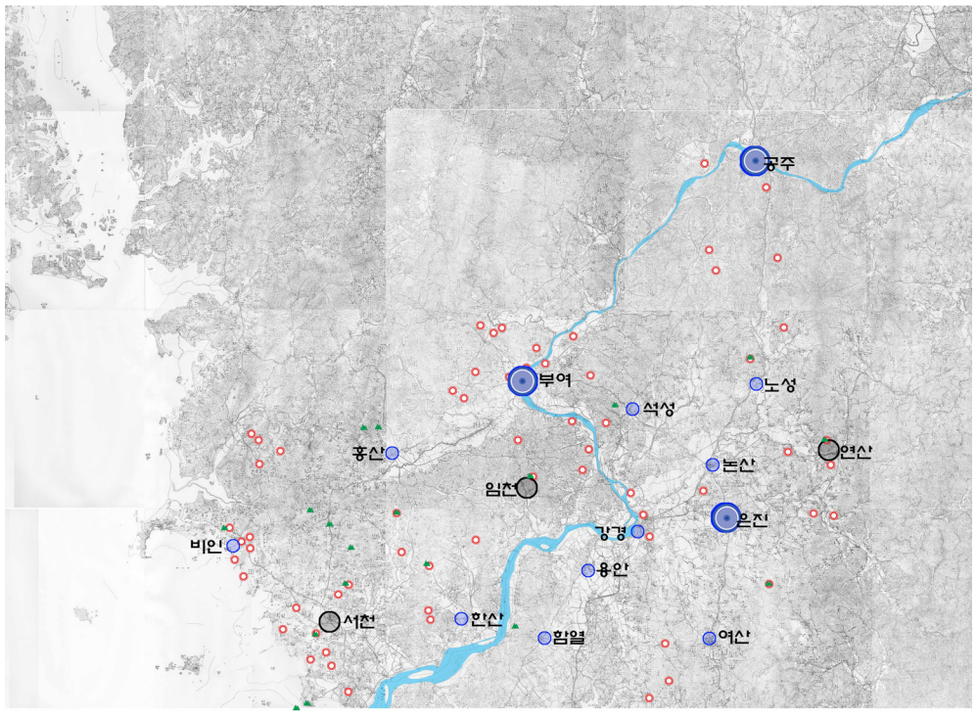
○ 도출된 적정노선을 중심으로 현장 및 지도분석을 통해 노선의 형태를 구상하여 옛길 노선을 선정한 후, 편장확인 및 수정을 통해 최종적인 노선을 제시함

(1) 백제역사와 옛길 관련 문헌 고찰

○ 계획구역 내에 있는 백제 옛길을 찾기 위해서 먼저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백제 시대 지역을 분석하였음

○ 이는 백제옛길의 경우 행정, 국방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한 옛길을 찾기 위함임

○ 이에 따라 수도인 공주, 부여와 함께 백제의 방-군-성 체제에서의 주요 지점으로 동방인 은진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성곽에 있어서도 수도인 부여를 중심으로 한 성곽배치와 서해안의 방위를 담당한 비인과 서천지역 동쪽 방위의 중심지인 연산, 논산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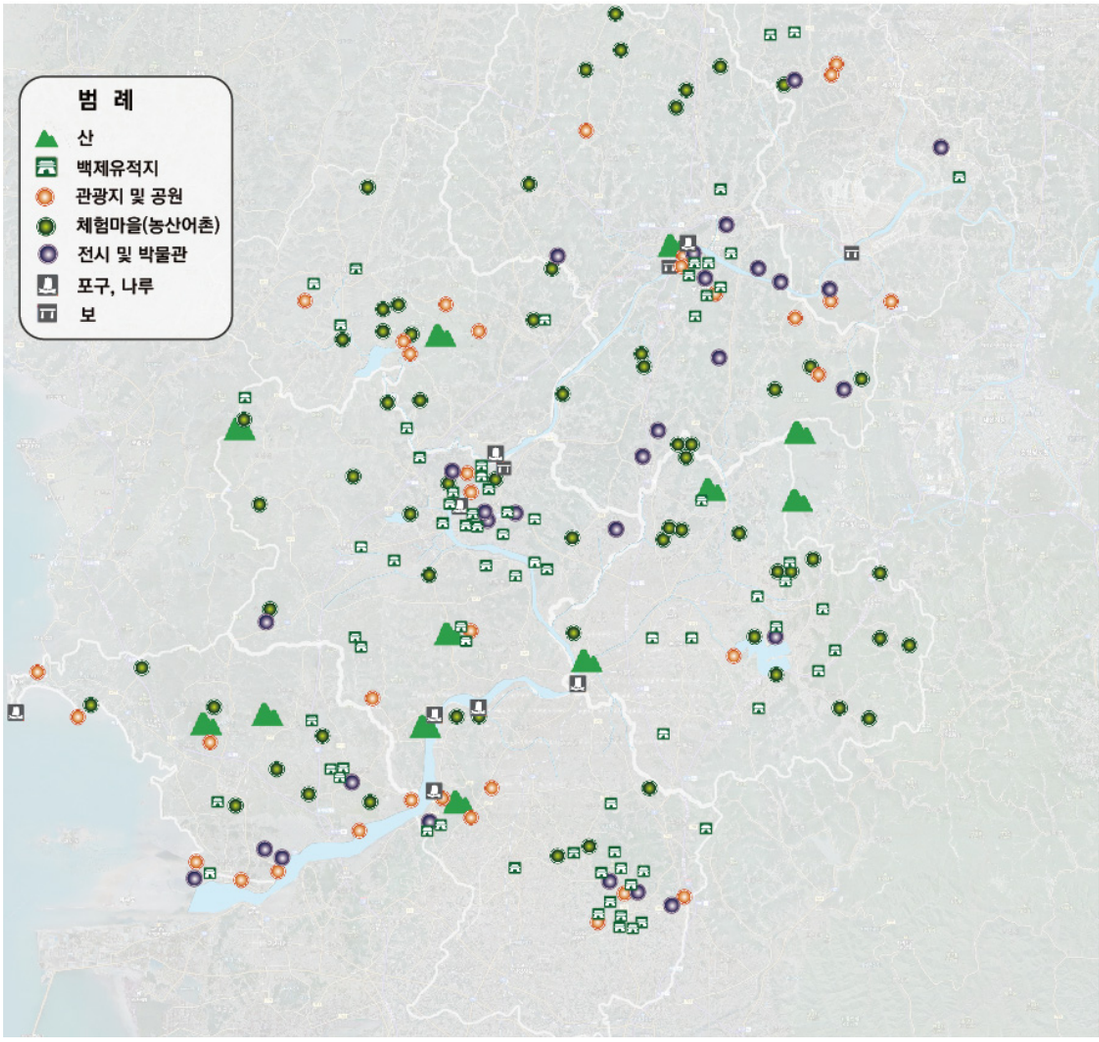
[그림 Ⅳ-4] 사비시대 산성 분석도

(2) 지역 관광자원의 분포

○ 계획 구역 내에서 백제 옛길 사업과 연계 가능한 역사 및 관광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거점지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금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백제의 수도인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집중분포되어 있으며, 백제시대의 주요 교통로인 금강을 중심으로 한 자원분포 현황을 볼 수 있었음

○ 박물관과 체험마을의 경우 계획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어 주요 노선 선정시 이들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Ⅳ-5] 지역별 역사문화 관광자원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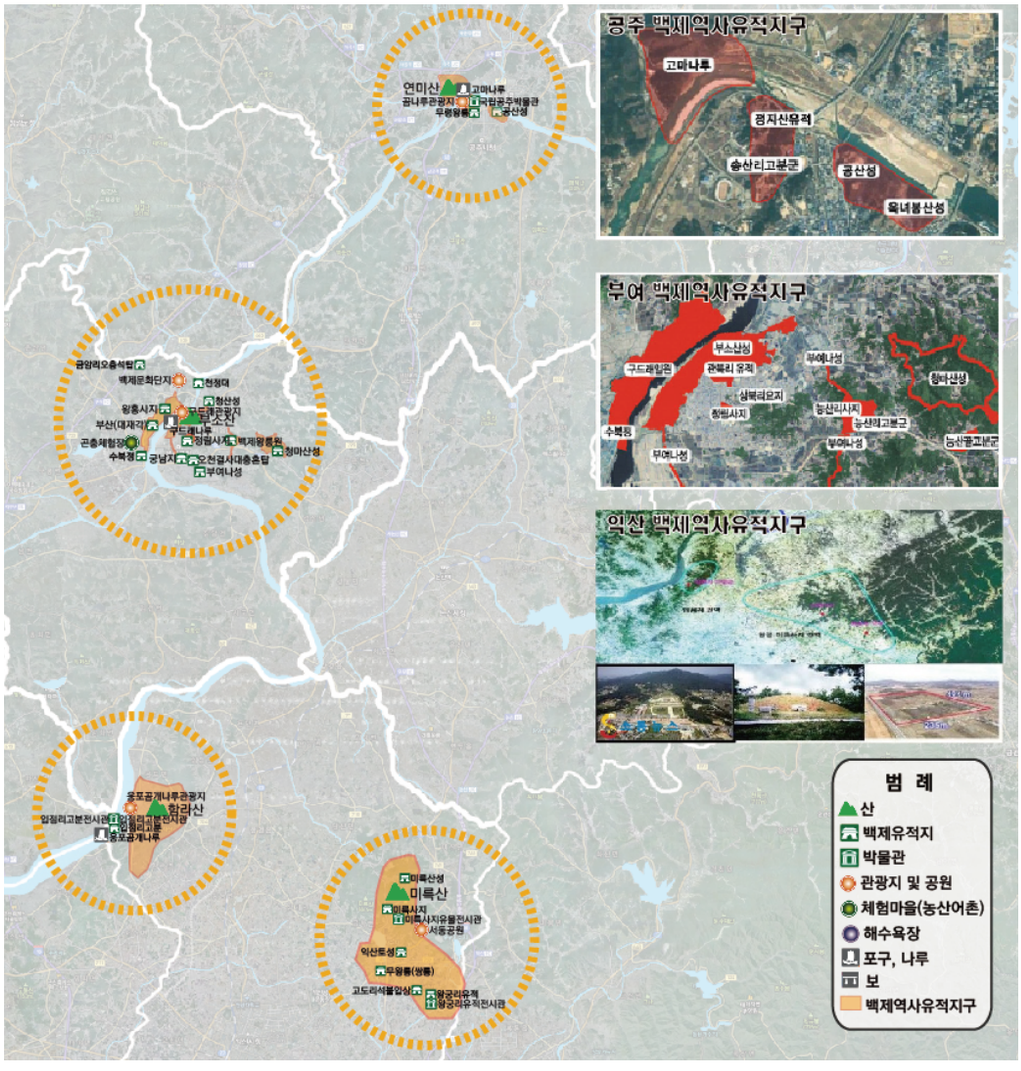
(3) 정책적 요인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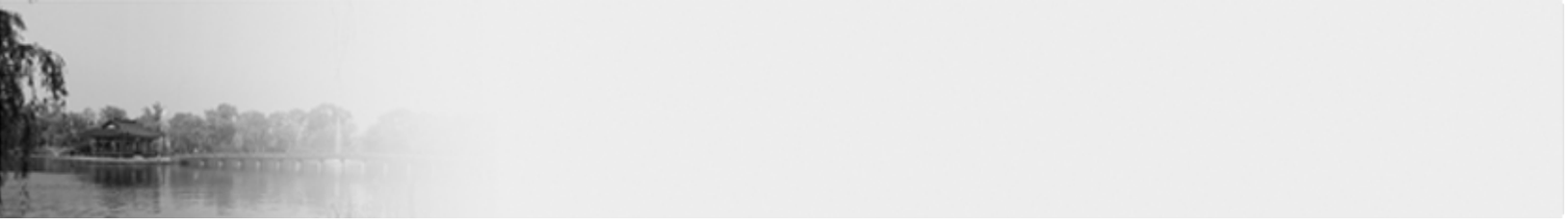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대상지는 공주와 부여 중심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노선에서의 포함보다는 코스를 통한 연결이 바람직함

○ 공주시는 곰나루권역,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권역을 중심으로 연결되었으며 부여는 구드래, 부소산성, 능산리, 청마산성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구간을 연계함

○ 익산시는 입점리고분군과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의 거리적 연계가 불가능하여 거점지내에서 도보코스로 연결함



[그림 Ⅳ-6] 백제역사유적지구



▌각 시·군의 길 관련 사업 추진현황 분석

○ 충청연가의 백제길과 고성가도, 공주·논산·부여·서천의 솔바람길, 공주 명승길, 서천 바닷가 생태보행로, 익산 역사탐방의 숨결 둘레길 등의 길 사업을 분석하였음

○ 각 시군 길 관련 사업 분석 결과 지역 내 주요 자원을 중심으로 이를 연결하는 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코스 개발에 연계할 수 있음

[그림 Ⅳ-7] 지역별 길 사업

(4) 옛길과 관련된 문헌 및 지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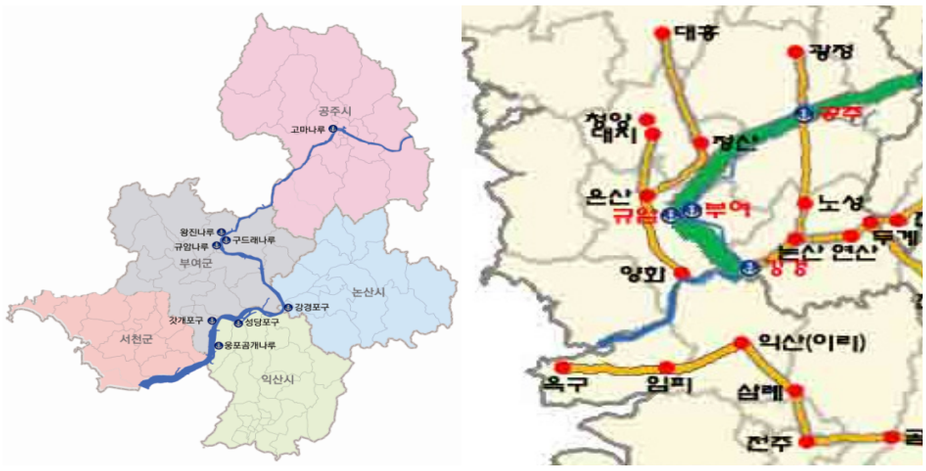
○ 길의 경우 시대가 변화면서 주요 거점에 따라 변화거나 확장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용되던 길이 확장되고 개선되면서 발전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대를 중심으로 백제의 문헌자료를 근거하여 옛길을 추정함

○ 백제 옛길과 관련된 역사적 문헌의 경우 크게 수도방위와 조운과 관련된 자료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수도방위와 관련해서는 육로와 수로로 나눌 수 있는데, 육로의 경우 백제의 수도인 부여의 사비시대 지방에서 수도에 이르는 길로 동방성, 서방성, 중방성, 남방성, 북방성 등이 있고, 수도방비를 위한 길로 계획구역 내에는 동쪽방면의 길이 있으며, 수로는 금강을 중심으로 금강북로와 당군의

진격로인 금강남로가 있음

○ 수로의 활용은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 수운의 교역 중심의 백제의 나루터 곰나루, 구드래나루, 갓개포구 등과 금강의 소금길에 의한 옛길로 서천의 기벌포에서 양화의 갓개포구와 강경을 지나 부여의 구드래나루, 공주의 곰나루에 이르는 길로 양화에서 육로로 은산을 거쳐 청양에 이르는 길과 강경에서 논산을 거쳐 내륙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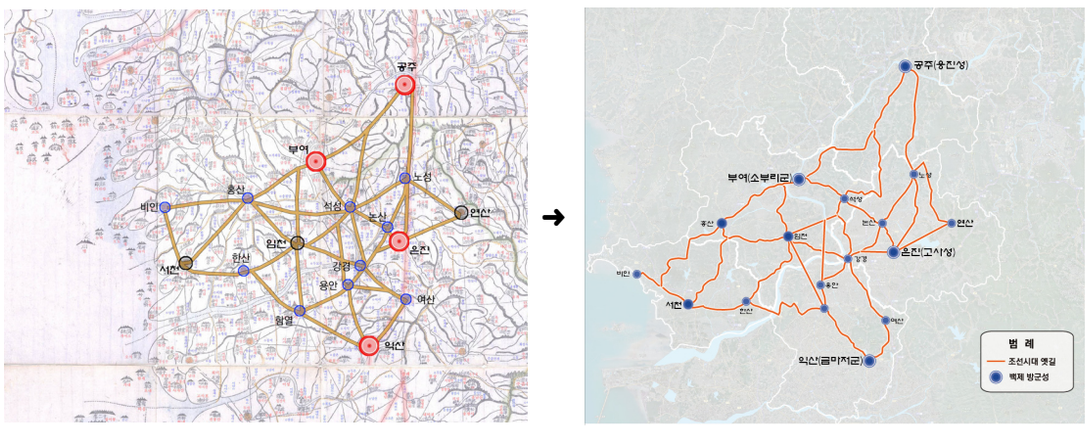


[그림 Ⅳ-8] 백제 내륙 수로와 소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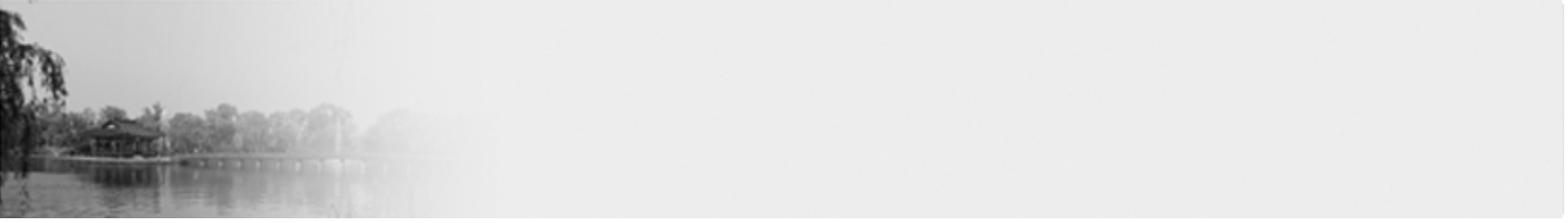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조선시대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의 옛길

○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10대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에 나타난 백제문화권의 지역간에 연결된 옛길 지도를 분석하였음

○ 조선시대 지도는 거리와 지역 등이 축척이 정확하지 않아 조선시대 명칭을 토대로 옮겨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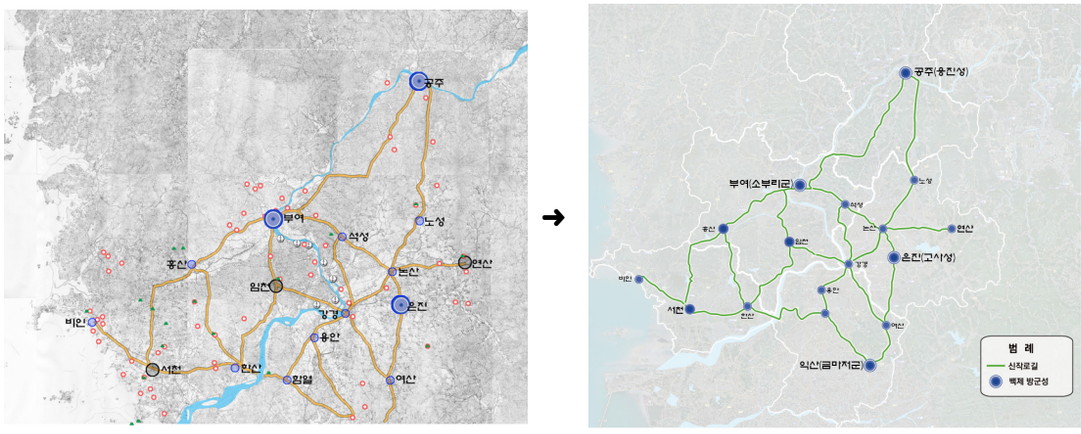
[그림 Ⅳ-9] 대동여지도와 동여도의 계획구역 내 옛길



▌일제 강점기 시대 간선도로와 조선시대 지도 비교

○ 일제강점기시대는 현재의 축척과 거의 일치하며, 이를 이용하여 옛 지도에 나타난 길을 중첩해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결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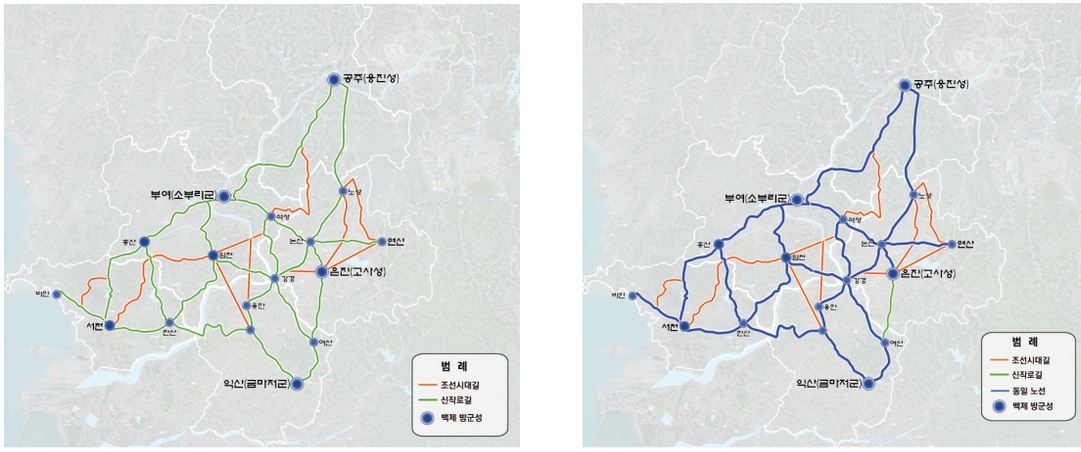
○ 대부분이 현대지도와 비슷하며 공주, 부여 등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신작로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Ⅳ-10] 신작로의 계획구역 내 옛길

○ 현재의 도로 체계에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시대의 공통된 노선을 중첩시키면 타 노선의 존재가 가능하나 조선시대, 일제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변화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특히, 백제 시대의 주요 지역을 잇는 길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운송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시대가 변화면서 운송수단의 변화에 따라 확장되거나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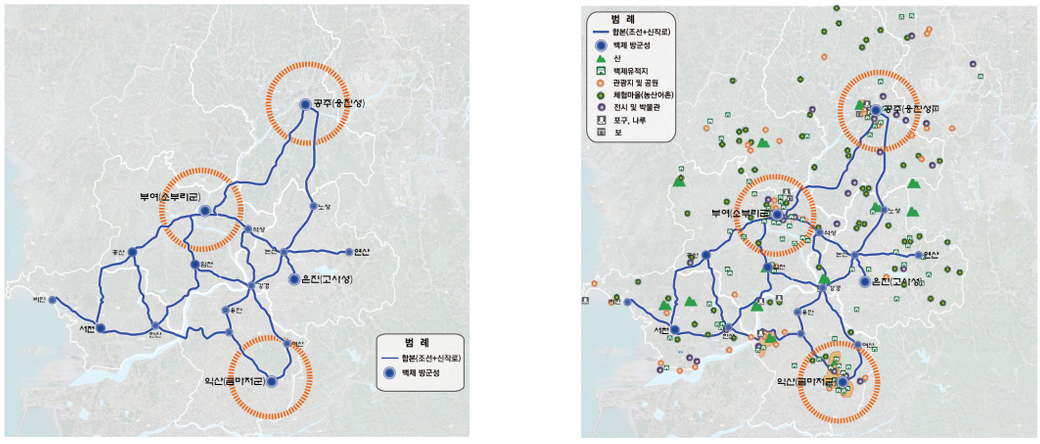


[그림 Ⅳ-11] 조선시대지도와 신작로 중첩 지도

4) 적정노선의 도출

○ 조선시대, 신작로의 길 분석을 통하여 지도화한 자료들을 중첩하고 각 지역에 산재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백제옛길 조성의 적정노선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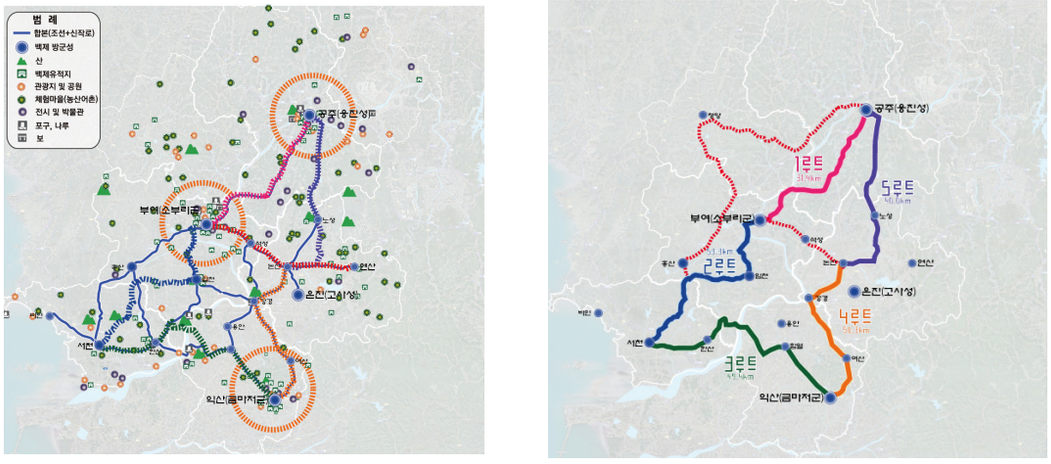
○ 역사자원은 백제시대를 중심으로 분포도를 작성하였으며 공주, 부여, 익산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12] 조선시대지도와 주변 자원 분포도

○ 백제시대 역사자원의 집적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개략노선을 도출하면 백제 옛길의 경우 백제시대 주요 군사적 행정적 요충지를 연결하는 순환 형태의 노선을 도출할 수 있으며,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결 코스를 구축함

○ 백제 역사자원을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를 연결하는 루트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백제이야기를 지닌 지역을 중심으로 루트를 설정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Ⅳ-13] 자원분포 및 루트(안) 제시

3. 백제옛길의 루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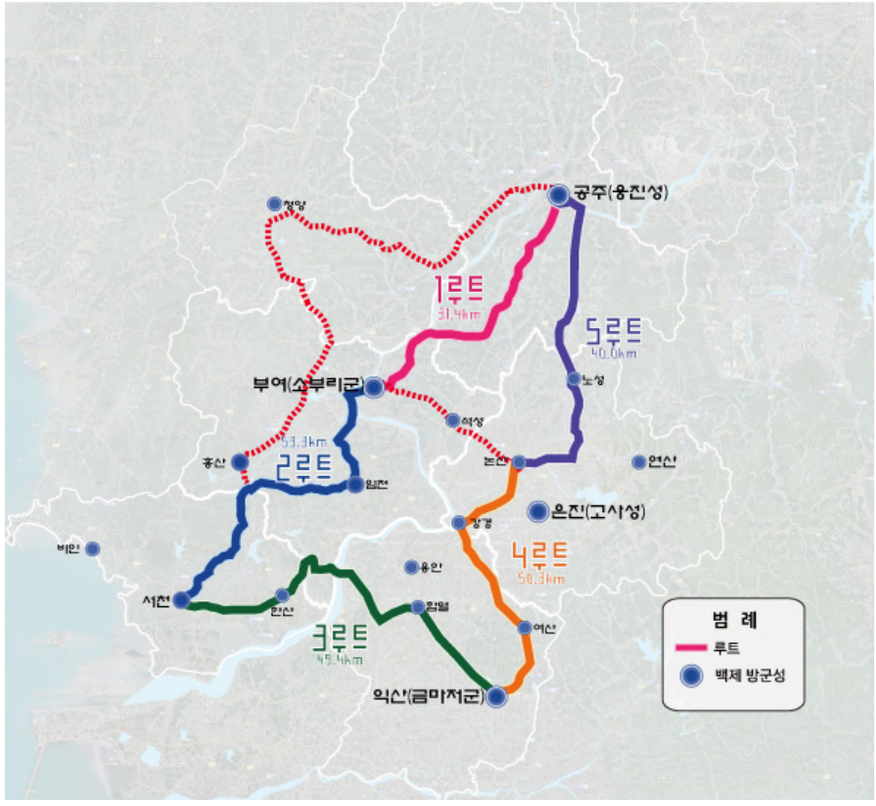
1) 전체적인 백제 옛길의 순환루트

○ 총 연장 225㎞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 논산시 등 5개 시군을 순환하는 루트로 이루어져 있음

– 청양군과 세종시는 각 루트의 거점에서 이어지는 코스로 연결됨에 따라 본 루트에서는 제외함

○ 역사적 문헌, 역사문화자원 분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백제 옛길을 발굴하여, 현대적 도로망과 연계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도보 길과 자동차길이 혼합된 노선으로 구성하고, 중요한 백제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제시함

○ 백제 옛길의 여행은 지역간을 연결하는 루트는 도보와 자전거, 자동차로 이용하는 루트의 복합형으로 구성하였고, 지역내의 코스는 도보와 자전거 여행코스로 제시하였음



[그림 Ⅳ-14] 백제 옛길 5개 전체 순환루트 지도

2) 루트 구상

(1) 1루트 : 공주-탄천-부여(31.4km)

▌개요

○ 1루트는 공주-탄천-부여까지의 노선으로 백제유적 세계 유산 유네스코 등재가 이루어진 공주, 부여를 연결하면서, 백제문화권의 중요 역사유적들을 관람할 수 있는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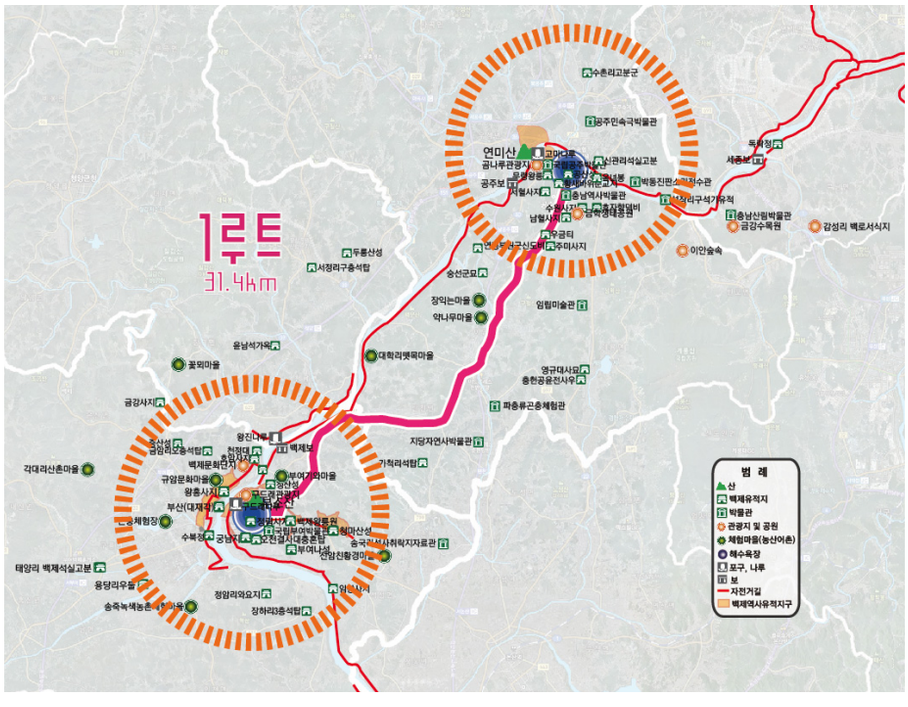
○ 공주는 백제시대에 한성백제에서 천도한 웅진과 이후 다시 천도한 사비백제의 수도인 부여는 지역의 왕궁으로 추정되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백제시대의 많은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을 연결하는 옛길에는 백제유적의 분포가 적어 자원을 순환하는 형태의 도보길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동차 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루트로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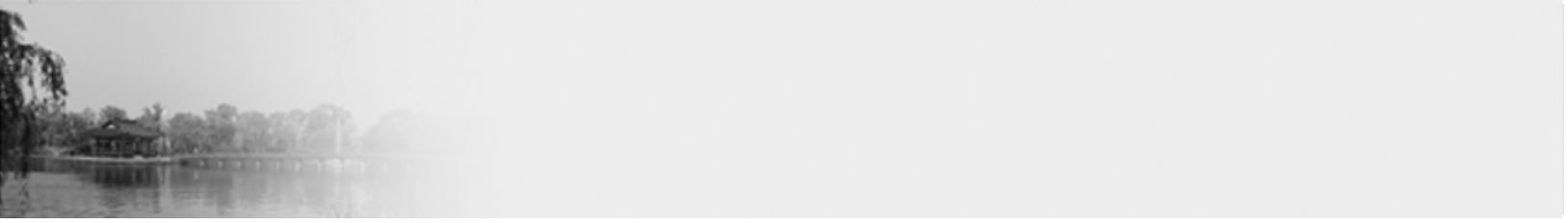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스토리텔링자원

○ 공주권역 : 공주수원사 미륵선화 전설, 부처당이마을 (탄천), 팥죽고개(이인)

○ 부여권역 : 영일루, 고란사, 조왕사, 구드래, 소정방과 맹갱이



[그림 Ⅳ-15] 1루트 자원분포도



▌1루트 거점지 및 자원

○ 1루트는 공주에서 이인-탄천을 거쳐 부여로 연결되는 백제옛길의 첫 시작점으로 백제 옛 수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길임

〈표 Ⅳ-2〉 1루트 거점 및 자원

지역	공주	이인-탄천	부여
주요거점	공산성 곰나루관광지	탄천면사무소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성흥산성
대표 관광자원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연미산자연미술공원	← 대학리뗏목마을 지당 자연사박물관	←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능산리고분군, 궁남지,
스토리텔링 자원	곰나루 전설 공주수원사 미륵선화전설 엄대암(백제멸망장군이야기) 등	부처당이 마을 팥죽고개	무왕-선화공주이야기 의자왕-삼천궁녀 백제패망과 소정방

▌추진사업

○ 지역간 셔틀버스 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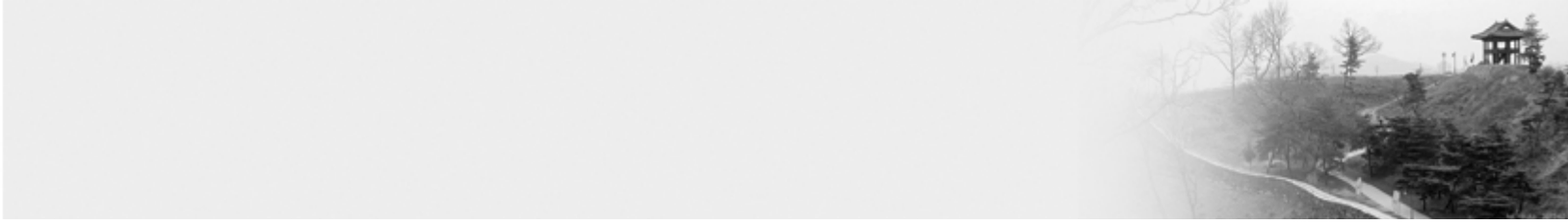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거점간 연결을 위하여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도보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함
- 공주~탄천~부여를 연결하는 순환형 셔틀버스를 운행함

○ 단체, 외국인 관광객 관광상품개발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인바운드 관광상품을 개발함
- 각 지역별 거점지를 중심으로 버스 및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하여 외국인 선호의 유적지를 연계함
- 기존 충청남도 및 각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객 상품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함

○ 종합안내판 등 안내시설 설치

- 거점별로 코스에 대한 안내 및 순환체계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함
- 지역의 역사자원 분포 및 체험마을 등 연계관광지를 설명하여 도보여행객이 도보코스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줌



(2) 2루트 : 부여-임천-홍산-서천(기벌포)(53.3㎞)

▌개요

○ 2루트는 사비시대 수도인 부여에서 수도수비의 요충지인 성흥산성, 천방산, 서천(기벌포)에 이르는 53.3㎞의 구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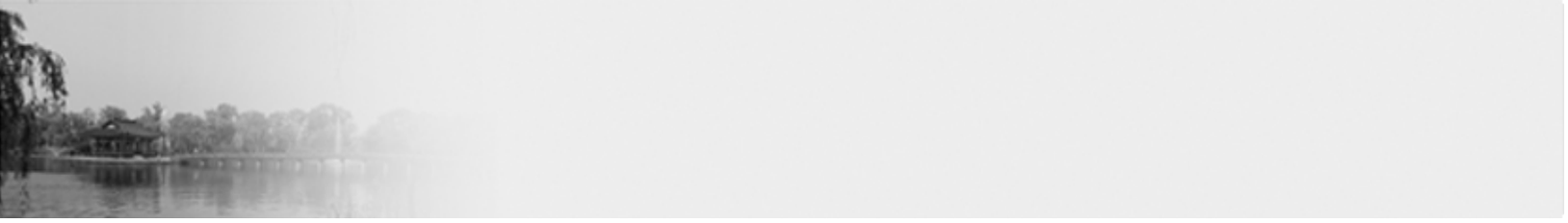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이 루트는 백제수도 사비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를 연결하는 길로 성흥산성, 소정방전설이 내려오는 천방산, 서천 남산성에 이르는 백제수도 방비길임

▌스토리텔링자원

○ 부여권역 : 대조사 미륵, 부산, 조룡대, 백마강, 옥녀산, 시루봉, 치마대, 등

○ 서천권역 : 천방산 천방사, 설림사, 소정방과 김유신, 봉선리유적

[그림 Ⅳ-16] 2루트 자원분포도



▌2루트 거점지 및 자원

○ 2루트는 부여에서 임천을 거쳐 서천으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나당연합군의 기벌포 상륙작전 시 진입한 첫 전략적 요충지이며 이후 백제의 항전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임

〈표 Ⅳ-3〉 2루트 거점 및 자원

지역	부여		임천		홍산		서천
주요거점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성흥산성		성흥산성		팔충사		서천읍성
대표 관광자원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능산리고분군, 궁남지,	↔	대조사 성흥산성자연 휴양림	↔	서동요 테마파크	↔	남산성, 천방산, 봉선리유적
스토리텔 링자원	무왕-선화공주이 야기 의자왕-삼천궁녀 백제패망과 소정방		백제장군이야기 우렁봉과 우두산성 소정방과 금송아지		백제여덟충신 출생지		천방산 천방사, 설림사 소정방과 김유신

▌추진사업

○ 지역간 셔틀버스 운행

- 시군을 거점을 통하여 연결함에 따라 거점간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및 셔틀버스 운행을 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
- 부여~임천~홍산~서천을 연결하는 순환형 셔틀버스를 운행함
- 도로 폭이 좁고 산간지역을 연결함에 따라 큰 셔틀버스 보다는 작은 형태로 운영하여야 함

○ 단체, 외국인 관광객 관광상품개발

- 백제문화권 중 외국인의 방문이 가장 많은 부여를 중심으로 루트 연결에 따라 서천까지 이동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
- 백제문화단지, 서동요테마파크 등 백제역사 중심의 테마파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상품화 함

(3) 3루트 : 서천-한산-웅포-함열-익산(49.4km)

▌개요

○ 3루트는 서천-한산-웅포-함열-익산까지 충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루트로 서천에서 웅포까지는 금강변으로 이어지다가 함열을 거쳐 백제 무왕과 관련된 백제유적이 분포된 익산 금마로 연결됨

○ 특히,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입점리고분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공주, 부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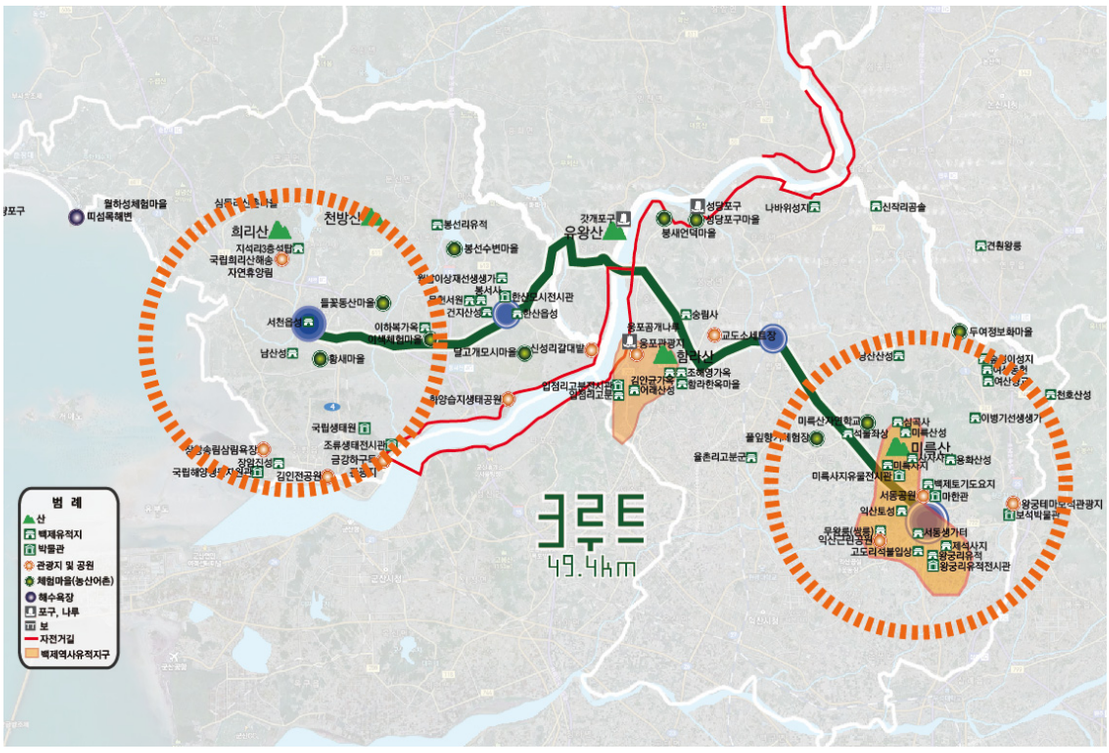
○ 서천의 솔바람길, 익산의 둘레길 등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루트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

▌스토리텔링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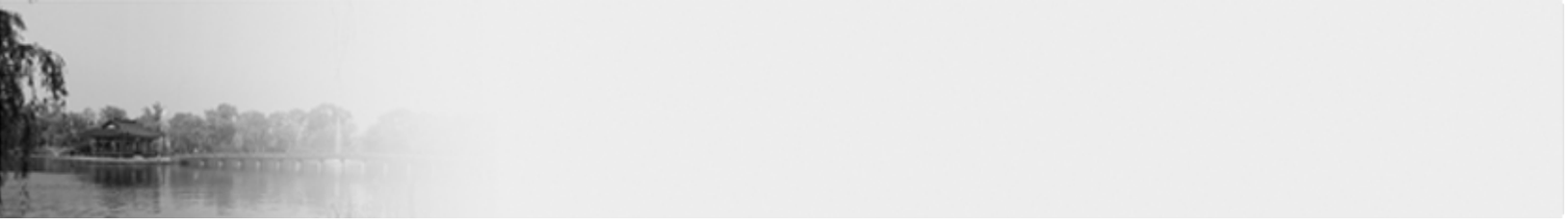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서천권역 : 건지산성, 봉서사

○ 부여권역 ; 유왕산, 갓개포구

○ 익산권역 : 곰개나루, 마 캐던 서동, 금마산(견훤의 말)



[그림 Ⅳ-17] 3루트 자원분포도



▌3루트 거점지 및 자원

○ 3루트는 서천에서 백제의 왕도 익산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건지산성, 입점리 고분군 등 주변에 백제역사자원이 분포하고 있음

〈표 Ⅳ-4〉 3루트 거점 및 자원

지역	서천	↔	한산	↔	웅포
주요거점	서천읍성		한산모시관		입점리고분
대표 관광자원	남산성, 천방산, 봉선리유적		건지산성, 봉서사, 문헌서원		곰개나루관광지, 입점리고분전시관
스토리텔링 자원	천방산 천방사, 설림사 소정방과 김유신		-		곰개나루전설

함열	↔	익산
함라한옥마을		미륵사지
함라산 둘레길		미륵사, 왕궁리유적, 금마관광단지
-		미륵사 창건설화, 견훤의 말, 서동이 마를 캐던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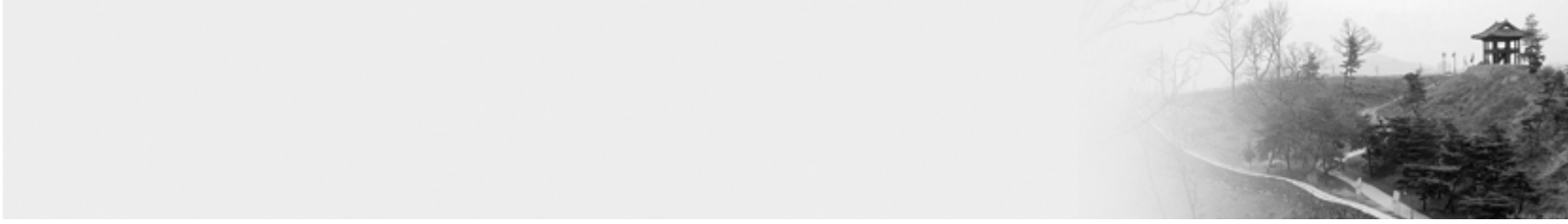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추진사업

○ 지역간 셔틀버스 운행

- 충남과 전북의 광역 지자체를 연결함에 있어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하여 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함

○ 단체, 외국인 관광객 관광상품개발

- 중요한 백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연결하되 외국인이나 단체 여행객일 걸을 수 있는 비교적 동선이 짧고 편안한 길로 상품 개발을 추진함
- 서천의 솔바람 길 및 익산의 둘레길이 함께 운영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



(4) 4루트 : 익산-여산-강경-논산(50.3㎞)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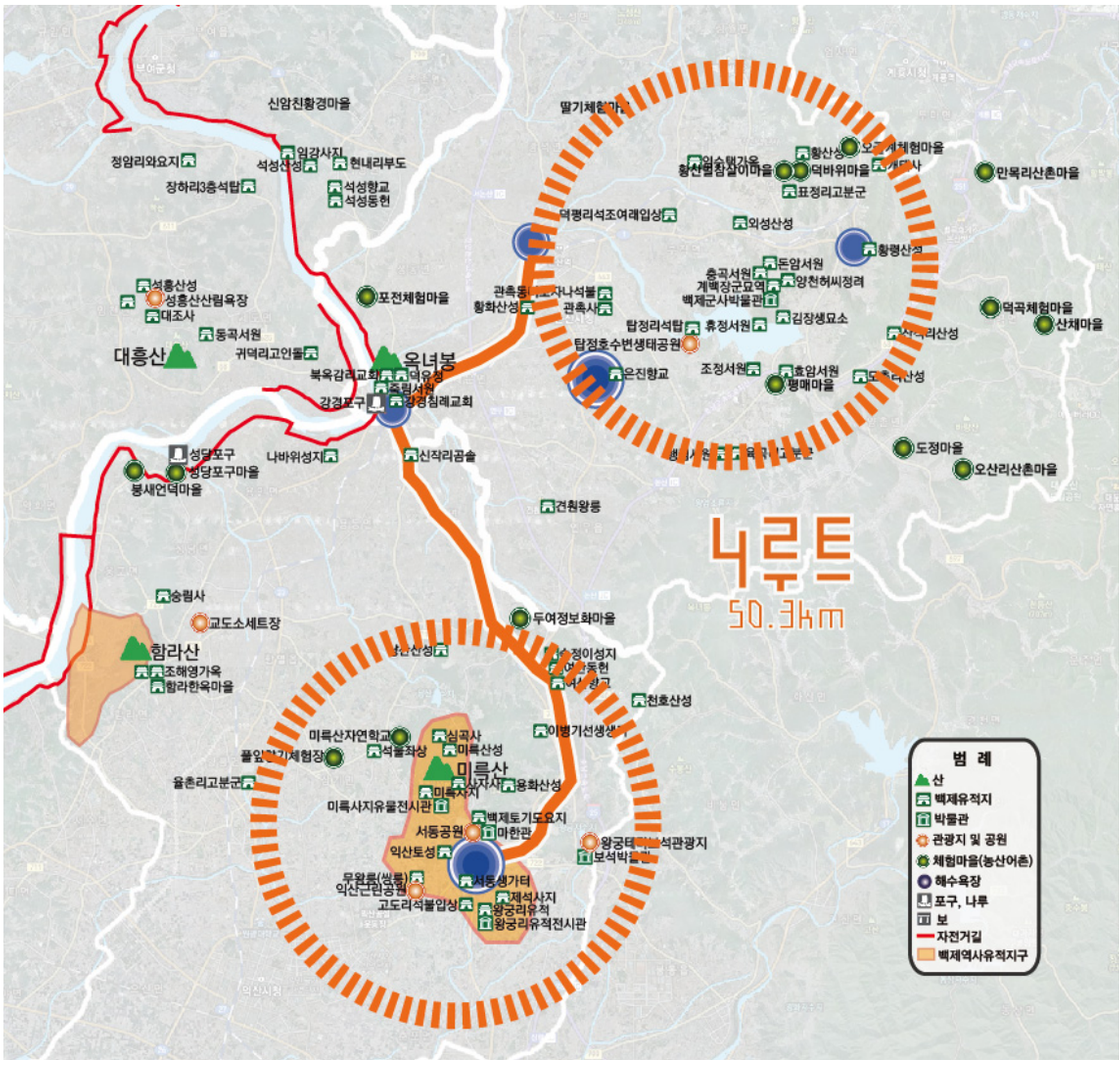
○ 4루트는 익산-여산-강경-논산까지 이어지는 루트로 익산의 금마에서, 여산, 근대유적의 강경을 거쳐 논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임

○ 이 루트는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백제유적의 중심지에서 여산을 거쳐 황산벌의 전적지인 논산을 거쳐 가는 노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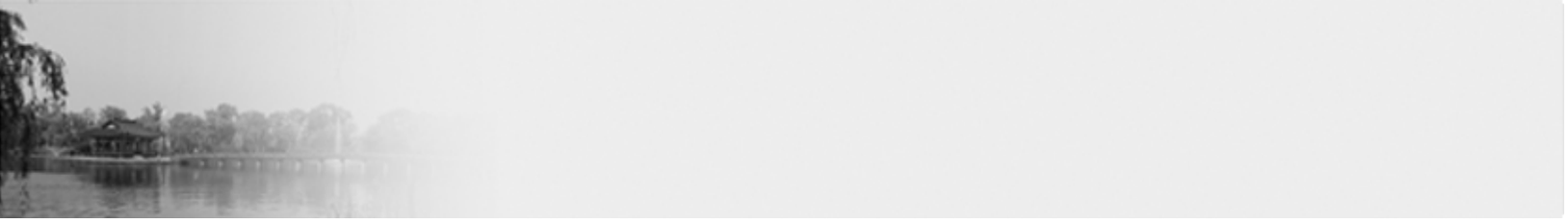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스토리텔링자원

○ 익산권역 : 미륵사·미륵탑 창건이야기, 후백제와 왕궁탑

○ 논산권역 : 숙향이 굴이야기, 황화대, 견훤전설, 등화산성



[그림 Ⅳ-18] 4루트 자원분포도



▌4루트 거점지 및 자원

○ 4루트는 익산에서 여산, 강경, 논산을 연결하는 루트로 백제와 근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루트임

〈표 Ⅳ-5〉 4루트 거점 및 자원

지역	익산		여산		강경		논산
주요거점	미륵사지		여산향교		옥녀봉		논산버스 터미널
대표 관광자원	미륵사, 왕궁리유적, 금마관광단지	↔	두여정보화마을, 숲정이성지	↔	죽림서원, 강경포구 황화산성, 견훤왕릉	↔	관촉사, 계백장군 유적지, 백제군사박물관, 탑정호
스토리텔링자원	미륵사 창건설화, 견훤의 말, 서동이 마를 캐던 산		-		불빛이 밝혀진 등화산성, 숙향이 굴이야기		황산벌이야기 백제장수의 충절 임금터우기리 마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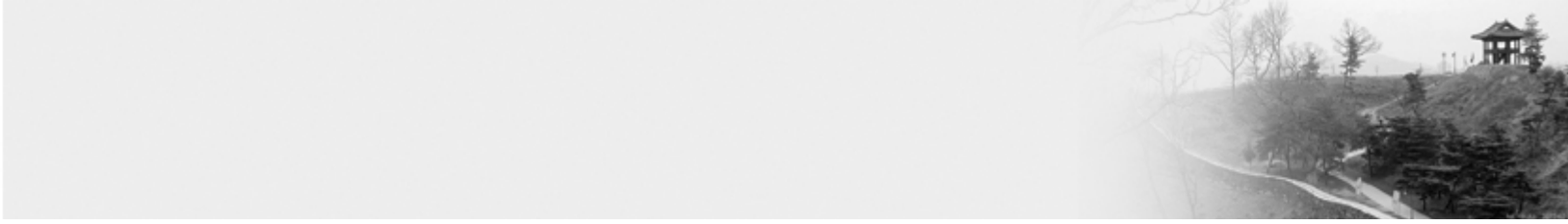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추진사업

○ 지역간 셔틀버스 운행

- 본 루트는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지역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되 백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유적지를 연계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실행함

○ 단체, 외국인 관광객 관광상품개발

- 단체 및 외국인 관광의 특성상 중요자원을 빠르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주요 자원을 선정하여 상품을 개발함
- 강경의 근대역사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백제문화 뿐만 아니라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게 상품화 함
- 지역에서 지정되어 운영되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방문하거나 자전거 길 투어 등 새로운 개발보다는 지역의 상품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상품을 개발함



(5) 5루트 : 논산-연산-노성-공주(40.4㎞)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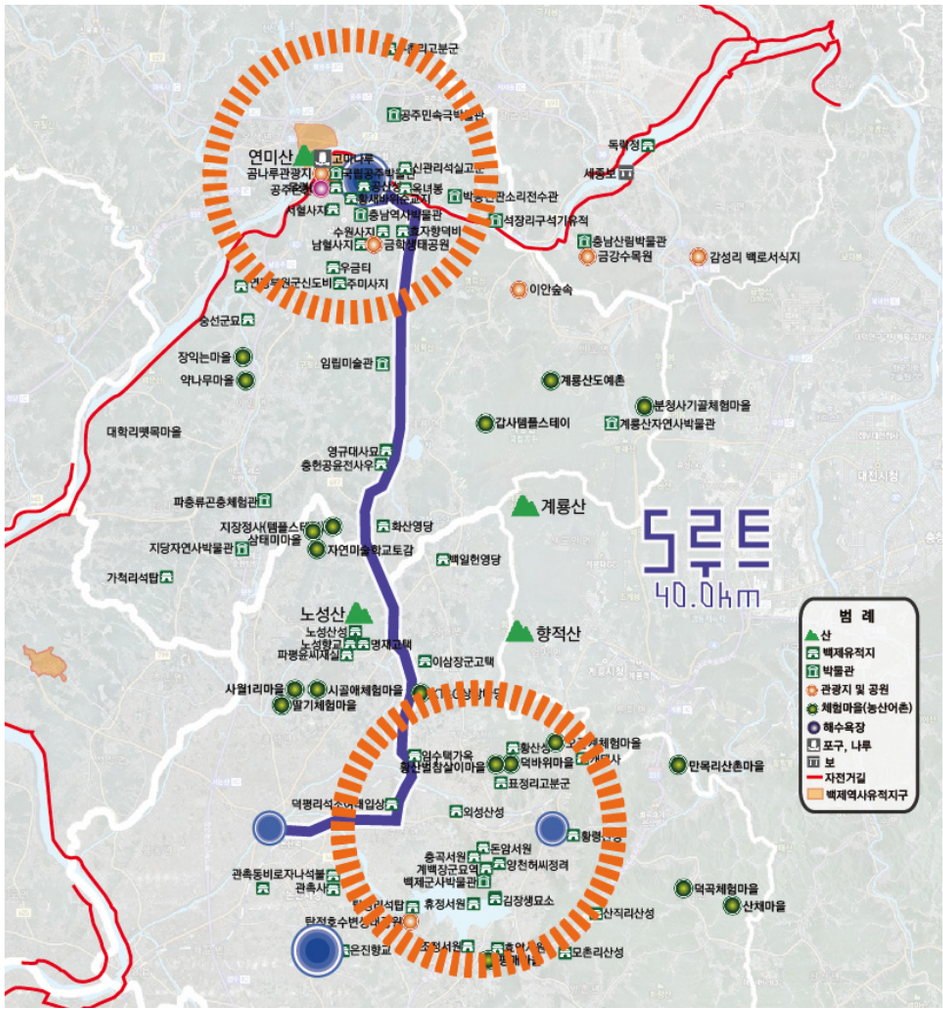
○ 5루트는 논산-연산-노성- 공주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논산에서 출발하여 백제시대의 군사요충지인 노성산, 향적산을 거쳐 공산성으로 이어지는 루트임

○ 이 길은 조선시대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던 과거길로도 활용되었으며 주변에 조선시대 관련한 유적이 분포하여 있어 백제옛길로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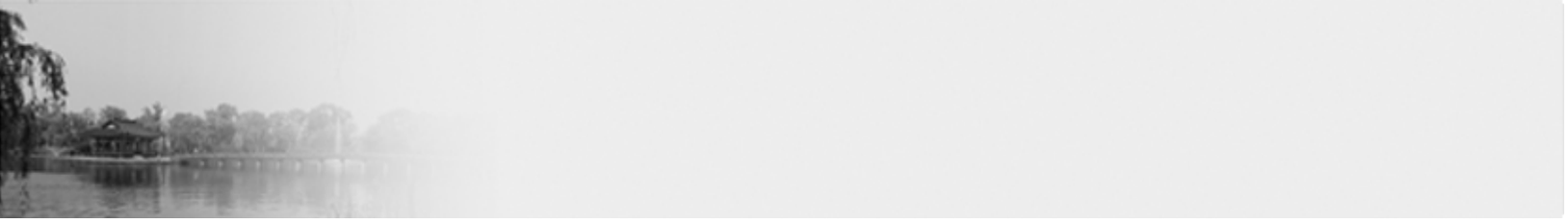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 공주권역 : 곰나루 전설, 수원사지 미륵선화

○ 논산권역 : 황산벌전투, 황산성



[그림 Ⅳ-19] 5루트 자원분포도



▌5루트 거점지 및 자원

○ 5루트는 논산-연산-노성-공주를 연결하는 루트로 백제의 마지막 전투인 황산벌전투와 의자왕이 피신했던 공산성을 연결함

〈표 Ⅳ-6〉 5루트 거점 및 자원

지역	논산	←	노성	←	공주
주요거점	논산버스 터미널		노성산성		공산성 곰나루관광지
대표 관광자원	관촉사, 계백장군 유적지, 백제군사박물관, 탑정호		노성산성, 명재고택, 파평윤씨재실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연미산자연미술공원
스토리텔링 자원	황산벌이야기 백제장수의 충절 임금터우기리 마구평		-		곰나루 전설 공주수원사 미륵선화전설 엄대암(백제멸망장군이야기) 등

▌추진사업

○ 지역간 셔틀버스 운행

- 공주에서 논산간을 연결하는 코스로 도보길의 지선보다는 도로를 이용한 간선의 형태로 이동되기 때문에 지역간을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운행이 필요함

○ 단체, 외국인 관광객 관광상품개발

- 지역을 연결하는 형태의 관광상품개발 보다는 지역내에서 단체 및 외국인을 흡수하는 형태의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
- 공주의 경우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공산성, 무령왕릉 등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킨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논산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안내판 등 안내시설 설치

- 논산은 공주나 부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제문화권으로서의 인식이 미흡하므로 기존에 지역을 표기하는 안내시설이 아닌 공주와 논산을 연결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종합 안내판을 설치함

(6) 지원노선(1) : 부여-석성-논산-연산

▌개요

○ 지원노선(1)은 부여-석성-논산-연산을 연결하는 백제시대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의 출정길로 부여의 부소산성에서 출발하여 시내권을 지나 백제의 마지막 전투인 황산벌 전적지로 가는 노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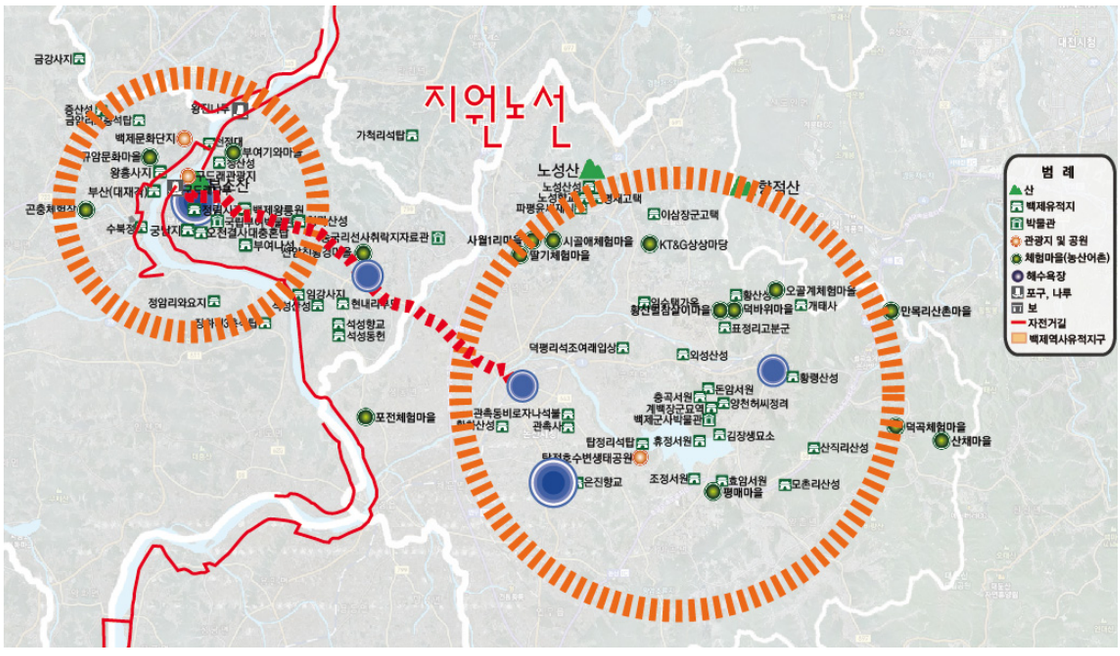
○ 지원노선(1)은 5루트를 지원하는 별개의 노선으로 순환형 5루트에서 연계되어 부여와 논산을 잇는 길임

○ 주변의 백제문화자원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아 도보길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체 루트와 연계하여 대중·단체버스나 자가용 등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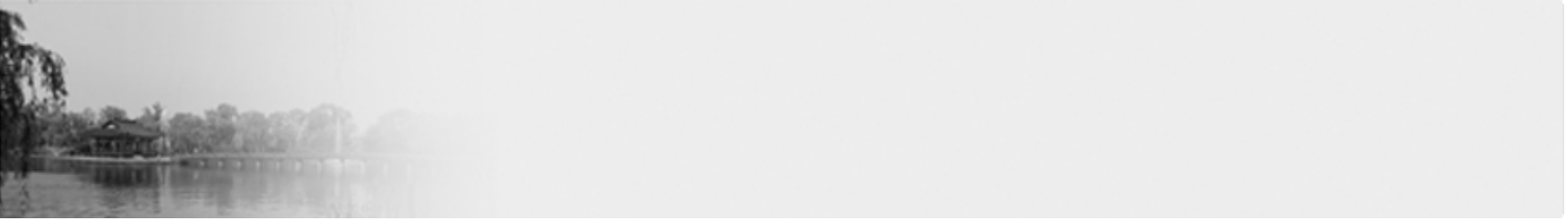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스토리텔링자원

○ 부여권역 : 계백장군설화, 오천결사대 출정

○ 논산권역 : 황산벌전투, 황산성, 개태사 연기설화, 마구평



[그림 Ⅳ-20] 지원노선(1) 자원분포도



▌지원노선(1) 거점지 및 자원

○ 지원노선(1)은 논산-연산-노성-공주를 연결하는 루트로 백제의 마지막 전투인 황산벌전투와 의자왕이 피신했던 공산성을 연결함

〈표 Ⅳ-7〉 지원노선(1) 거점 및 자원

지역	부여		석성		논산
주요거점	부소산성		십자가사거리		논산버스터미널
대표 관광자원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능산리고분군, 궁남지, 백제문화단지	↔	임강사지, 석성산성	↔	관촉사, 계백장군 유적지, 백제군사박물관, 탑정호
스토리텔링 자원	무왕-선화공주이야기 의자왕-삼천궁녀 백제패망과 소정방		파진산 유래		황산벌이야기 백제장수의 충절 임금터우기리 마구평

▌추진사업

○ 구도로 정비를 통한 도보길 조성

- 부여와 논산을 연계하는 4차선 도로가 완공됨에 따라서 기존 능산리고분군~십자가네거리~논산으로 연계되는 도로는 시내버스의 주요 구간이 되었음
- 이에 구(舊)도로의 설비 및 안내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을 연결하는 도보길로 조성하여야 함

○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원노선 연계

- 순환형 5루트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셔틀버스의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순환형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부여~논산간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이용 조건이 좋은 편임

○ 종합안내판 등 안내시설 설치

-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단체나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동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7) 지원노선(2) : 공주-청양-홍산(부여)

▌개요

○ 지원노선(2)는 공주-청양-부여를 연결하는 77㎞의 연장으로 공주의 공산성에서 출발하여 백제시대 왕의 우물을 기르러 갔던 금정우물을 지나 부여의 홍산까지 연결하는 노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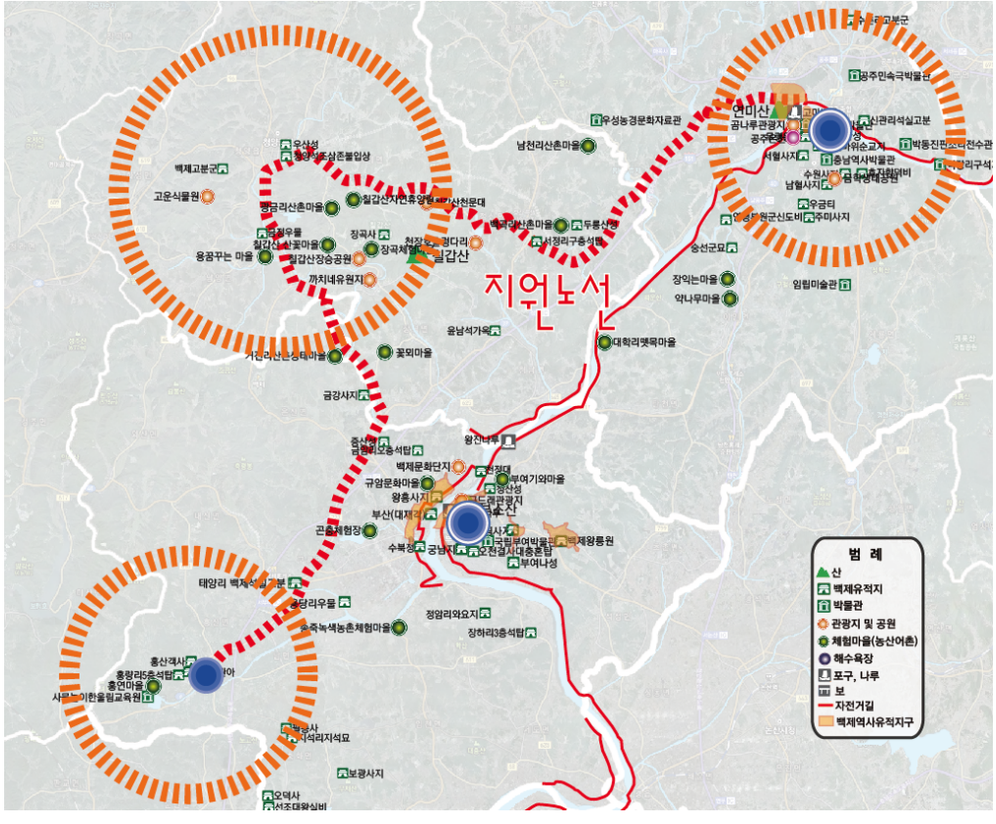
○ 3개 시군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변의 백제 관련 유적이 장거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주와 부여지역의 루트와 연계하여 대중교통이나 단체버스 등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필요하며, 대부분 임도나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안전시설 등이 확보되어야 함

▌스토리텔링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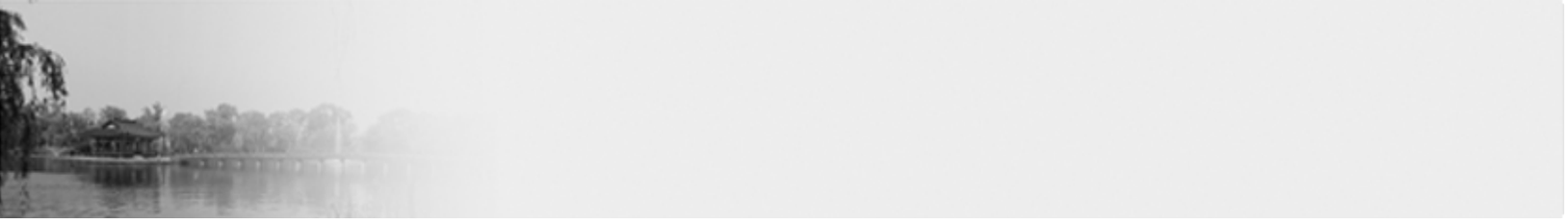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공주권역 : 곰나루 전설, 수원사지 미륵선화

○ 청양권역 : 금정우물, 사양티고개

○ 부여권역 : 용당리우물



[그림 Ⅳ-21] 지원노선(2) 자원분포도



▌지원노선(2) 거점지 및 자원

○ 지원노선(2)는 공주-청양-홍산(부여)을 연결하는 루트로 백제왕이 마셨다는 우물물을 길으러 가는 사양티와 금정우물을 백제시대 왕궁이었던 공산성, 부소산성과 연결함

〈표 Ⅳ-8〉 지원노선(2) 거점 및 자원

지역	공주		청양		홍산(부여)
주요거점	공산성		금정우물		홍산관아
대표 관광자원	곰나루 연미산	↔	우산성 금정우물 사양티 두륜산성	↔	용당리우물 태양리백제석실고분
스토리텔링 자원	연미산 전설 곰나루전설		금정우물 사양티		-

▌추진사업

○ 도보길 정비를 통한 길 조성

- 공주에서 청양으로 이어지는 길은 공사 중이거나 높은 산을 연결한 임도, 2차선으로 이어진 차도주변을 걷는 길로 연계됨에 따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여야 함
- 또한 사양티 등의 산길을 중심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어 이동을 위한 안내체계 및 도로의 정비 등이 필요함

○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원노선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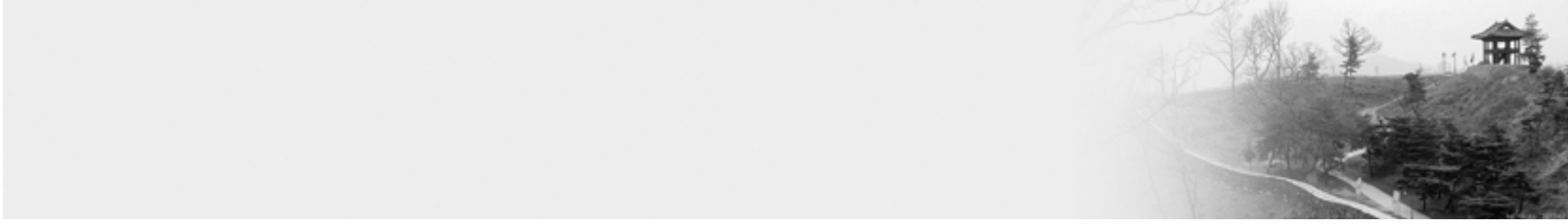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노선의 연장이 74㎞로 타 루트나 지원노선에 비해 장거리임에 따라 시외버스나 구간별 시내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함
- 그러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정류장거리나 배차시간이 길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종합안내판 등 안내시설 설치

- 타 지역에 비해 청양지역은 백제문화지역으로서 인지도가 낮음에 따라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단체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역의 홍보 및 관광안내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V. 백제도보여행길 조성방안

1. 백제 옛길의 조성원칙
2. 백제 도보여행길 조성 방안
3. 도보여행길 조성계획
4.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백제옛길 관광루트개발(안)



1. 백제 옛길의 조성 원칙

1) 옛길조성의 원칙

(1) 국내사례의 적용

▌생태문화보행로 : 환경부

○ 시민들과 접촉성이 높은 공간과 프로그램 및 소재를 활용

○ 도보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와 승마 등 육체적 활동과 연속성을 유지

○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험상황에 대하여 미리 공지하여 대비

○ 자연경관이나 지역의 독특한 경관 등 아름다운 경관지역 우선 고려

○ 각 지역에 산재한 탐방자원을 연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수준의 생태보행로와 네트워크 형성

▌이야기자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태보행로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별·권역별 상징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는 길을 찾고 특화된 주제를 발굴하여 다양한 체험이 제공되도록 조성

○ 다양한 스토리가 탐방자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역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지역마을·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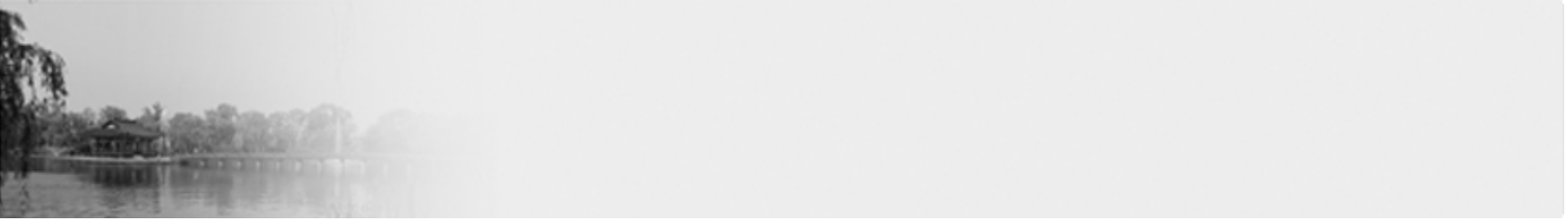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기존에 이용되었던 옛길이나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시설을 최소화 및 친환경재료의 사용, 주변경관과 조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등 제외

○ 이용자 안전성, 편의성 확보와 이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고, 역사, 문화, 생태 및 관광자원 등 자원별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

▌산림문화체험숲길사업 : 산림청

○ 옛길은 최대한 원형으로 복원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

○ 차량통행이 많은 아스파트길,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길, 해발 고도가 너무 높은 길은 연결을 위한 최소한의 구간을 빼고는 제외



○ 사계절 동안 지역의 강, 들녘,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길을 우선 고려

○ 길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연결

○ 마을과 지역이 주체가 되어 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용자와 지역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

(2) 해외사례의 적용

▌일본의 장거리 자연보도

○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고려대상으로 노선 선정과 지역간 교류와 지역활성화 측면 고려

○ 노인에서 어린이까지, 그리고 사계절에 걸쳐 이용가능한지 고려

○ 지역 장거리자연보도 및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결성을 고려

○ 주요 도시와 관광거점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공교통기관 및 자가용 이용을 검토

○ 매력적인 자원이 많은 지역을 통과하고, 산악지대 등 이용이 곤란한 지역은 피하고, 기존의 길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림

○ 벼랑과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파도가 심한 해안주변 등 안전성이 낮은 지역은 회피

○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고려

▌영국의 국가보행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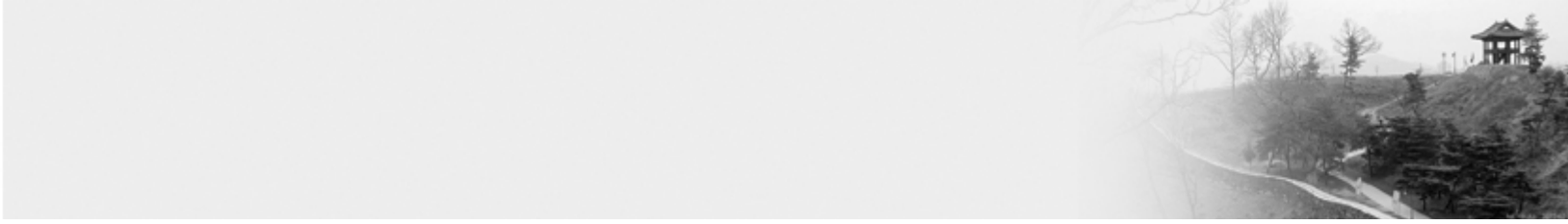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경관이 가장 좋은 지역을 통과하도록 할 것

○ 루트의 대부분이 포장도로에서 벗어날 것

○ 이용자들이 숙박할 수 있고 음식과 음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통과할 것

○ 길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대중교통에 의해 접근 가능할 것

○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통과시킬 것



〈표 Ⅴ-1〉 국내외 사례에서의 발굴원칙

주요내용	생태 문화 보행로	문화 생태 보행로	산림 문화 체험 숲길	일본 장거리 자연 보도	영국 국가 보행로
(환경성) 기존길(옛길)을 적극 활용 - 기존의 등산로, 임도 등을 최대한 활용 - 도보(자전거, 승마 등과 연계) 원칙	○	○	○	○	○ (비포장)
(안전성) 낙석, 실족 등 방문객의 안전 - 위험장소 : 안전시설, 안내문	○		○	○	
(경관성) 자연경관 등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지역 - 주변경관 훼손 방지	○		○		○
(연계성) 산재한 자산을 연계 활용 - 다양한 역사문화, 생태관광자원과 연계 -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 지역인적 · 물적자원 활용, 축제와 연계 - 음식, 숙박 등 편의서비스와 연계	○	○	○	○ (구간의 연속성 ×)	○
(이용성) 시민의 일상적 이용이 가능 - 노인, 어린이까지 이용 가능 -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 가능 - 사계절에 걸쳐 이용 가능	○			○	
(접근성) 주요 관광거점에서의 접근성 -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 고려				○	○
(지역성)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리할 수 있는 길 - 이용자와 지역과의 연계(지역활성화) - 지역 상징성, 고유성 확보		○	○	○	○

자료 : 서산시(2010), 서산 아라메길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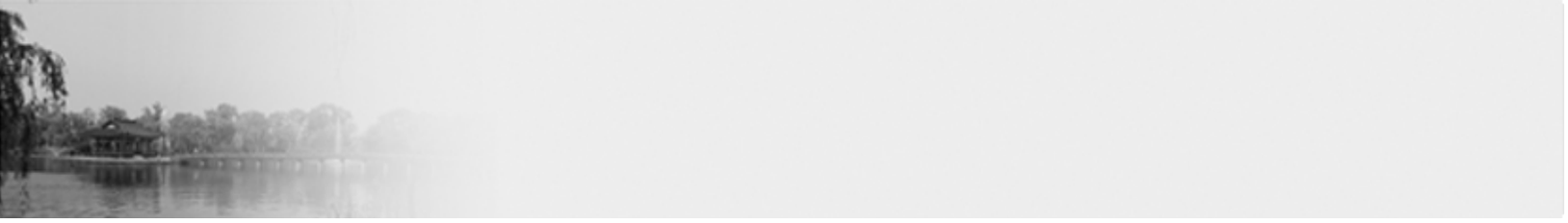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2) 옛길 정비(개발)의 원칙

▌생태문화보행로 : 문화적 · 친환경적인 보행로 조성(정비)

○ 테마(스토리) 중심의 노선 발굴로 지역의 상징성, 고유성이 있는 길을 찾고, 다양한 스토리가 탐방자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선을 발굴

○ 적정한 안내 · 편의시설 설치로 이정표, 안내 · 해설표지판, 유도사인, 조망시설, 탐조대 등 안내시설을 출발지점, 탐방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중점 설치 : 거점지역에 최소 편의시설, 위험지 안전시설, 지역시설의 휴게·숙박장소 활용 등

○ 친환경 보행로 조성, 탐방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방문객 요구에 효과적 대응 등



을 위한 보행로 조성 및 유지·관리 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통일된 심볼체계 구축으로 브랜드와 상징성, 이용객 인식제고,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로고, 심볼마크 등 패키지 디자인을 갖도록 유도

▌산림문화체험숲길 : 지리산길 조성 노선계획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 및 문화·역사 등의 자원을 발굴하여 등산로·옛길 등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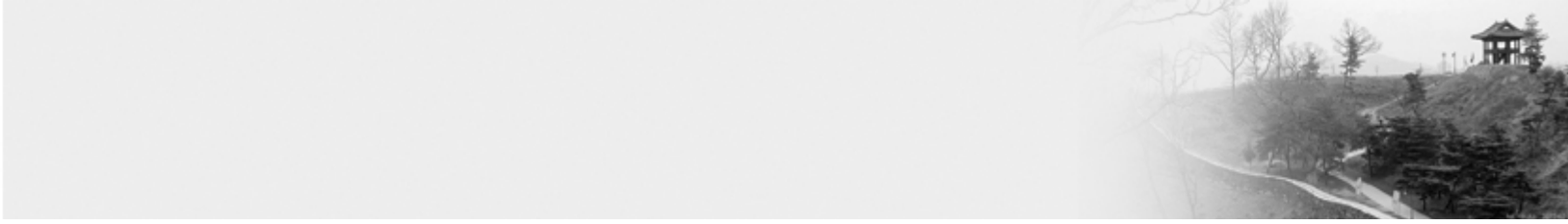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자연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산림박물관, 수목원 등 산림휴양 기반시설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며 환경에 민감하고 파괴되기 쉬운 지역은 제외하고, 주요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출입 보다는 조망 대상으로 활용함

○ 등정과 능선 종주는 지양하며 신규 조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 등산로·임도를 최대한 활용함

〈표 Ⅴ-2〉 국내외 사례에서의 정비원칙

주요내용	생태문화 보행로	문화생태 보행로	산림문화 체험숲길 (지리산길)
(보전성) 보전지역은 가급적 제외 - 주변자산, 경관 훼손의 최소화 - 주변 훼손지역 복원	○		○
(최소성) 기존 지형, 경관을 최대한 활용 - 도입시설의 최소화 - 불가피할 경우 인공적 설치의 최소화	○		○
(거점성) 탐방거점시설의 설치 - 방문객센터, 편의시설, 관리시설 설치 - 정보센터 설치(폐교 등 활용)	○	○	
(안전성) 방문객의 안전 확보 - 경고 표지판,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 노면침식 예방, 횡단배수시설 설치 등			○
(통일성) 브랜드, 상징성, 통합적 디자인		○	
(완결성) 정비는 구간별로 완결하게			○
(참여성) - 전문가와 주민 등의 공감 - 시설 설계시 반드시 전문가, 주민 등이 공감 - 보행로 선정협의회 구성 검토·협의	○	○	○ (생태문화 역사 관찰로)

자료 : 서산시(2010), 서산 아라메길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 연구



3) 백제 옛길의 조성 원칙

(1) 옛길 조성 시 고려 요소

○ 새로운 길의 개발이 아닌 기존 길을 적극 활용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옛길 상품의 경관성·안전성을 기반으로 주변에 산재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가 매우 중요함

○ 옛길 발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백제옛길의 도보길 조성

○ 기존의 옛길, 등산로, 임로, 농로 등을 최대한 활용

○ 이용객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노선을 발굴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안내문 등을 명확히 함

○ 자연경관과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노선을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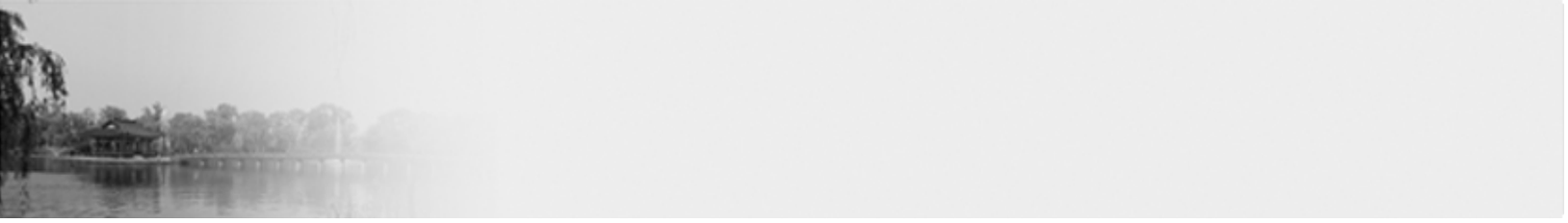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생태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곳

○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 및 관광객의 이용이 자연스러운 곳

- 녹색교통,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의 접근성 고려

○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

○ 간선과 연계된 독특한 지선 발굴을 추진할 수 있는 곳



2. 백제 도보여행길 조성 방안

1) 기본방향

▌5개 루트를 기본으로 한 도보여행 길 개발

○ 지역을 순환하는 형태의 5개 루트를 기본으로 각 거점별로 이용대상을 설정하여 도보여행길을 개발함

○ 백제역사자원 및 체험, 관광, 전시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민이 백제를 느낄 수 있는 거점 도보여행길로 운영함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 연계 도보여행코스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 부여, 익산을 중심으로 백제유적을 연계하여 도보여행길을 발굴함

▌스토리텔링과 연계 도보여행길 구성

○ 각 시군에 입지하고 있는 백제유적과 관련 전설, 설화 등의 스토리텔링을 길의 테마와 부합하게 콘텐츠를 구성함

○ 단순한 길이 아닌 스토리가 있고 백제의 체취가 느껴지는 역사의 길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

▌각 시·군별 길사업 연계 도보여행길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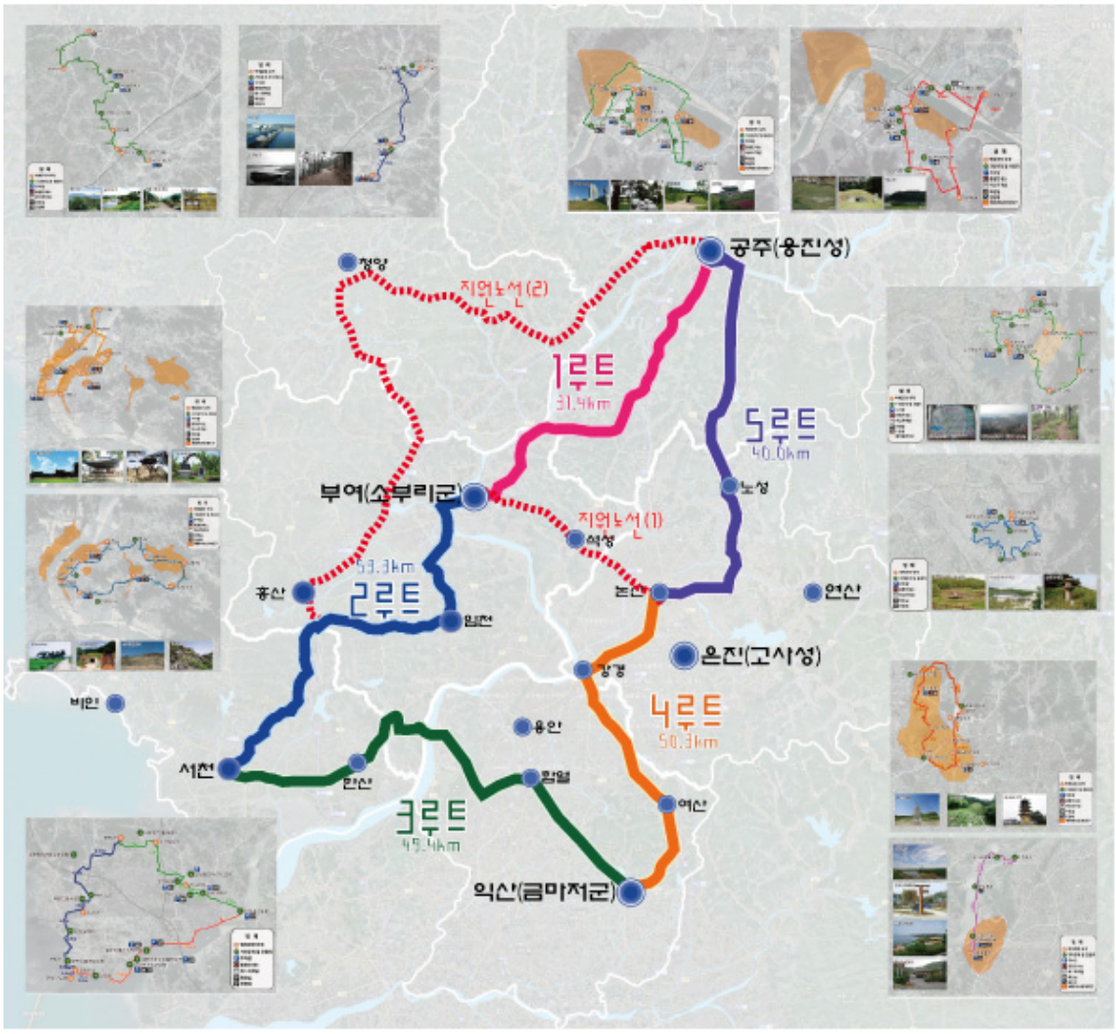
○ 현재 각 시군별로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솔바람길과 테마형 걷는 길 등과 연계하여 백제 옛길 노선을 발굴하여 연결하는 도보여행코스를 발굴함

○ 각 지선별로 백제역사자원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노선을 확장하고 추가 하는 등의 연계 도보여행길을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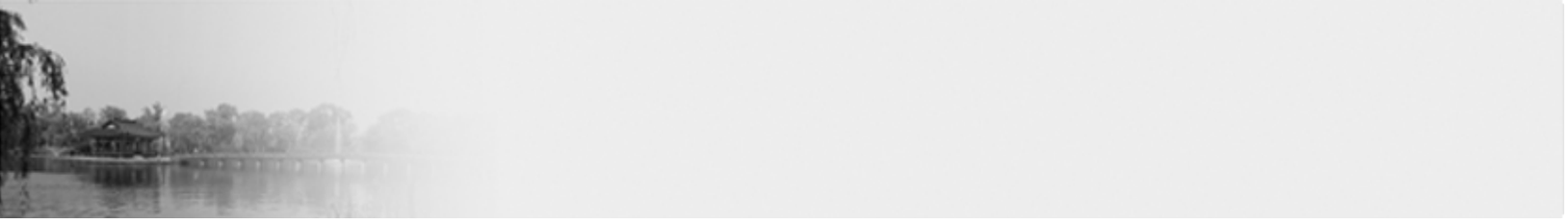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개발 및 훼손의 최소화를 통한 도보여행길 조성

○ 보전을 원칙으로 신설되는 노선은 주변자산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훼손지역은 복원함

○ 기존 지형, 경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입되는 시설은 최소화 하며 대규모 편의시설(정보센터 등) 설치는 거점화하고, 폐교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



[그림 Ⅴ-1] 루트별 연계 코스



2) 각 도보여행길 거점과 대표관광자원

○ 도보여행길의 거점지는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도성이나 유적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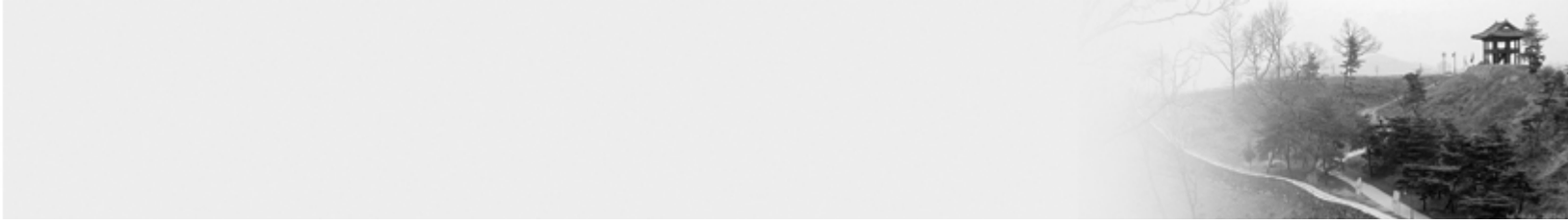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공주와 부여는 각각 공산성과 부소산성 등 도읍지의 중심지였던 곳을 거점지로 선정하여 도보여행의 첫 시작점, 혹은 끝이 되는 지점의 도보여행길 선정함

- 청양과 세종시의 경우 백제의 왕도보다는 지역으로 연계되는 지점이 있음에 따라 그에 따른 지점을 설정하여 도보여행길과 자전거 여행길을 제시함

○ 연결되는 도보여행길마다 구전되어 오거나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스토리텔링 자원을 가미시켜 이야기가 있는 여행길의 방문유도 효과를 제고함

〈표 Ⅴ-3〉 각 코스별 주요거점 및 자원

지역	주요거점	대표 관광자원	스토리텔링자원
공주	공산성 곰나루관광지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곰나루 전설 공주수원사 미륵선화전설 엄대암(백제멸망장군이야기) 등
부여군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성흥산성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능산리 고분군, 궁남지, 대조사	무왕-선화공주이야기 의자왕-삼천궁녀 대조사 창건설화 백제패망과 소정방
논산	탑정호 강경읍	관촉사, 계백장군유적지, 백제군사박물관, 노성산성	황산벌이야기 백제장수의 충절
서천군	기벌포(장항항) 신성리갈대밭	장암진성, 장항송림산림욕장, 남산성, 건지산성, 한산모시박물관	천방사와 소정방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 입점리고분	왕궁리유적, 입점리관광지, 금마관광단지, 미륵산성	미륵사 창건설화 견훤의 말 서동이 마를 캐던 산
(청양군)	우산성 금정우물	까치네유원지, 두릉윤성, 칠갑산, 왕진나루	금정우물이야기
(세종시)	세종보	운주산성	왕의 물 이야기



3. 도보여행길 조성계획

1) 공주시 도보여행길

○ 공주시는 트레킹 여행길로 곰나루전설길(16.5km), 숨은 보물 길(10.4km)을 제안하였고, 가족 및 단체 보도여행길로 웅진의 왕도길(5.9km),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웅진유네스코길(3.9km), 수학여행 도보여행길로 웅진 비밀의 길(5.2km)을 제안하였음

(1) 웅진 트레킹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백제의 왕도였던 공주의 산재된 백제시대 문화재를 연결하는 길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백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성함

○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한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원과 연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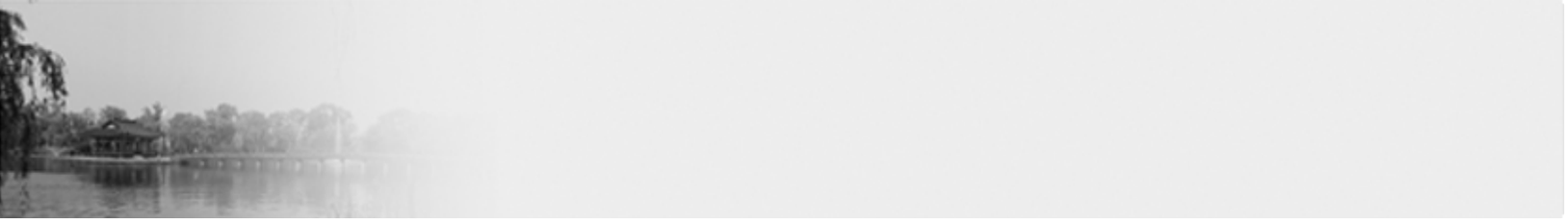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이 길은 총 연장이 10~20㎞ 정도로 장거리 도보가 가능한 도보여행자를 중심으로 노선을 선정함

▌걷는 길 코스선정

○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산성, 정지산, 곰나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트레킹 코스를 총 3코스로 선정하였으며 코스별 주제에 따라 세부 코스명을 부여함

〈표 Ⅴ-4〉 웅진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코스	세부코스명	노선	총길이 (도보시간)
1	곰나루전설길	곰나루관광지→공주보→연미산자연미술공원→정안천생태공원→수촌리고분군→공주민속극박물관→정안천생태공원→금강교→공산성→충남역사박물관→제민천→황새바위→무령왕릉→한옥마을→선화당→국립공주박물관→곰나루관광지	31.1㎞
2	숨은 보물 길	공주시외버스터미널→금강둔치공원→공산성→황새바위순교지→산성시장→당간지주→수원사지→옥녀봉→신관동석실고분	10.4㎞



▌1코스 : 곰나루 전설길(31.1㎞)

○ 테마 및 특징

- 곰나루전설길은 공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금강을 따라 걷는 길로 곰나루, 연미산, 국립공주박물관, 공산성 등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길임
- 공주의 대표적인 백제문화유적을 연결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음

○ 주요구간

- 곰나루관광지 → 공주보 → 연미산자연미술공원 → 정안천생태공원 → 수촌리고분군 → 공주 민속극박물관 → 정안천생태공원 → 금강교 →공산성 → 충남역사박물관 → 황새바위 → 무령왕릉 → 한옥마을 → 선화당→ 국립공주박물관 → 곰나루관광지

○ 주요자원

- 곰나루관광지 : 처녀곰과 나무꾼 총각 사이에 얽힌 전설에서 유래되었으며, 실제로 곰나루 북쪽에 솟아있는 연미산 중턱에는 전설속의 곰이 살았다는 곰골이 있음
- 공산성 : 백제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으로 백제의 문주왕 원년(475) 한강유역의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후 성왕 16년(538)년에 부여로 옮길 때까지 웅진시대의 도성임
- 수촌리고분군 : 백제시대 최고지배층의 것으로 짐작되는 고분군으로 무령왕릉 이후의 최대의 발굴이라고 불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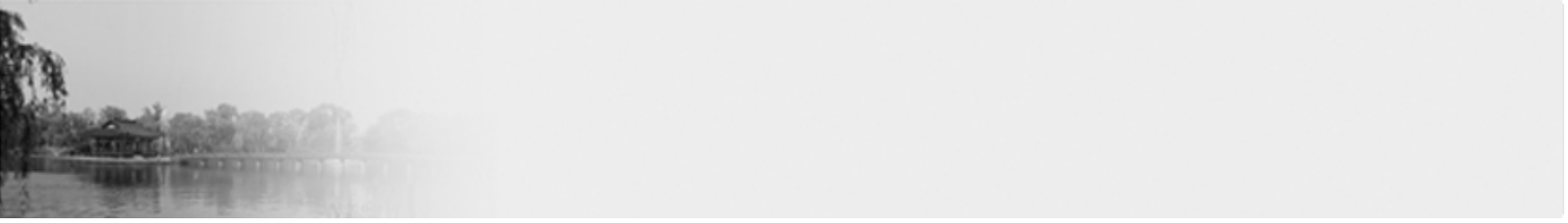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스토리텔링 자원

- 곰나루 전설, 대통사, 장군바위, 병풍바위, 능현(능고개)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공주시에서는 201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마나루명승길(14㎞)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4km의 거리로 약 4시간 30여분이 소요됨
- 문화관광해설사 총 17명으로 구성된 고마나루명승길 지킴이를 통해 고마나루 명승길 이용자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 파악, 걷기지원행사, 지역홍보 및 해설, 주변관광지 연계코스 안내 등이 이루어짐
-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 공산성에서는 철저히 역사적 고증에 의해 제작된 의상과 소품을 이용하여 공산성 수문병 교대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도보길과 연계가 가능함
- 또한 곰나루 주변 산책로와 연미산에 관련된 설화를 스토리텔링 소재로 발굴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수촌리고분군에서는 관광객들이 직접 유적발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장을 조성하였으며 백제사의 중요 유적지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주변 편의시설 확충

- 곰나루 전설길의 신규 편의시설 확충 및 가족단위 도보여행객을 위한 의자, 쉼터 등 설치
- 연미산에서 공산성으로 이어지는 3.1㎞의 구간에 손발과 신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 확충 및 쉼터공간 확보 필요
- 구간별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및 휠체어 대여 시스템 마련

② 지역의 콘텐츠와 연계

- 공산성의 수문병교대식, 백제문화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등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 구간별 연계를 통한 상시 이벤트 개발 및 지역의 운영 축제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백제 옛길 걷기 대회 등)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화를 통해 부여된 테마길로 조성

○ 추진 사업

- 사이버 관광안내소 설치 : 공산성 내, 무령왕릉 내
- 셔틀버스 도입 및 운행
- 화장실 및 식수대 확보 : 총 1개소(연미산-공산성 부근 금강공원)
- 연미산 금강 조망대 설치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現 고마나루명승길 지킴이의 확대 운영

▌2코스 : 숨은 보물 길(10.4㎞)

○ 테마 및 특징

- 웅진시대 주요 거점이었던 공산성에서 출발하여 공주시 시내를 관통하는 코스로 지역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코스임
- 공주에 산재해 있는 백제 문화자원이지만 잊고 지냈던 자원을 연계하여 백제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됨

○ 주요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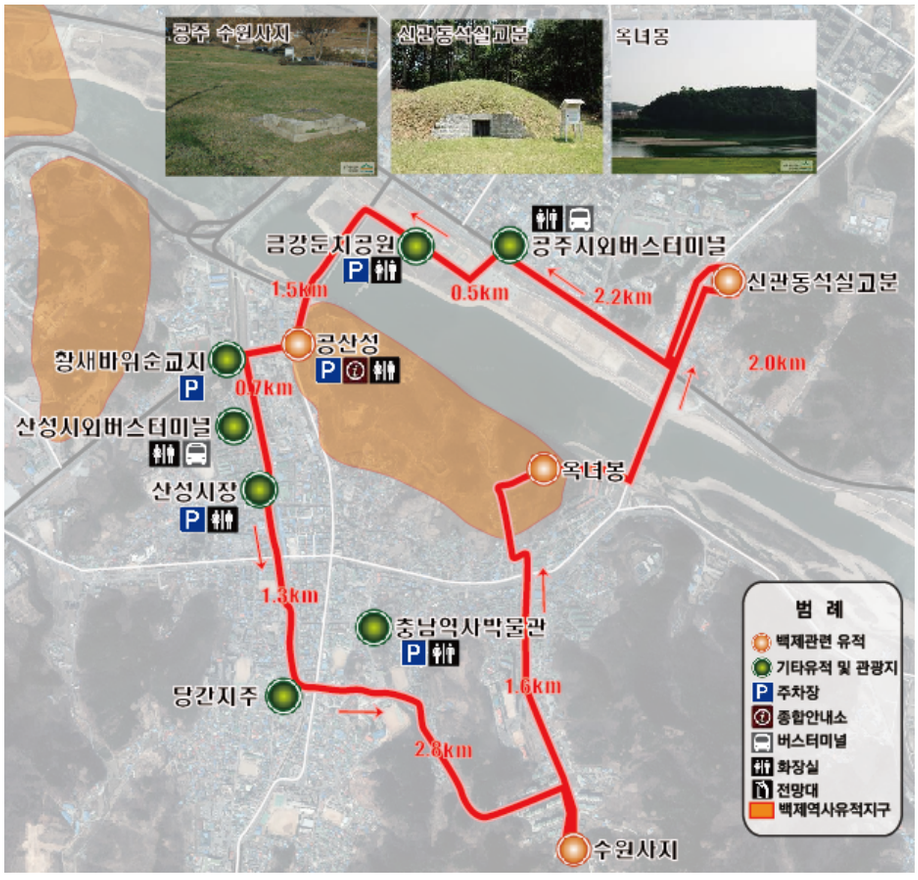
- 금강둔치공원→ 금강교→ 공산성→산성시장→제민천→공주 수원사지→공주 옥녀봉→ 신관리 석실고분→금강둔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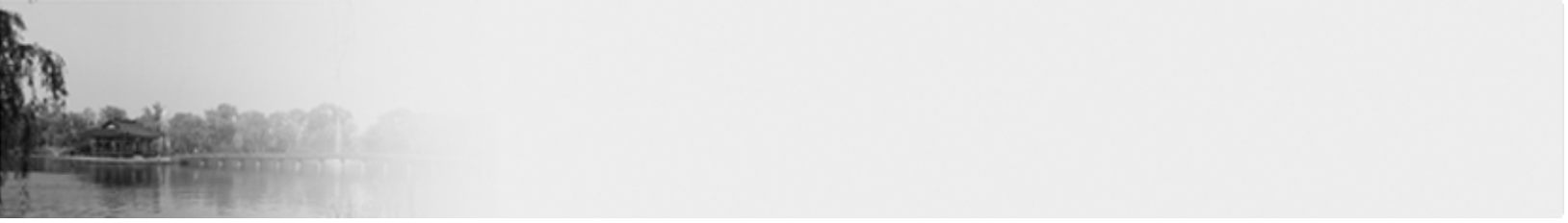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주요자원

- 수원사지 :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백제시대 절터로 『삼국유사』에 기록된 미륵선화의 내용으로 보아 백제 위덕왕(554~598)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여겨짐
- 옥녀봉 : 공산성 남쪽에 위치한 해발 60m의 테뫼식 토성으로 백제토기조각, 기와조각들이 발견됨에 따라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됨

○ 스토리텔링 자원

- 공주갑부 김갑순, 수원사지 미륵선화 이야기(삼국유사)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웅진백제문화길은 고마나루명승길에 일부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명한 자원을 연계한 구간과는 달리 백제의 숨겨진 자원을 보물찾기하는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는 코스임
- 코스내 시장 및 지역을 상권을 통과함에 따라 주민 및 상인의 협조(음료, 화장실 등)가 적극적으로 필요함
-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일제강점기 조선제일의 땅부자 김갑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김갑순가옥이 공주에 위치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과 연계해 이야기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

○ 걷는 길 코스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주변 편의시설 확충

- 산성시장 내 화장실 및 식수대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주변 상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 구간별 버스 이용이 용이토록 안내책자에 버스 이동 구간을 설명하여 도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구간별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및 휠체어 대여 시스템 마련

② 지역의 콘텐츠와 연계

- 수원사지 미륵선화, 공주갑부 김갑순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길로 조성함
- 산성시장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도보관광객을 중심으로 할인쿠폰 제공 및 상시 이벤트 운영

○ 추진 사업

- 사이버 관광안내소 설치 : 공주시청 내 안내부스 마련
- 셔틀버스 도입 및 운행
- 화장실 및 식수대 확보 : 총 1개소(수원사지-옥녀봉 구간)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現 고마나루명승길 지킴이의 확대 운영
- 조망대 설치 : 옥녀봉
- 쉼터는 당간지주-수원사지-옥녀봉-신관동석실고분에 이어지는 구간에 총 2개소를 설치함

(2) 가족 및 단체 도보여행길 계획안

▌기본방향

○ 백제문화권을 방문하는 가족 및 단체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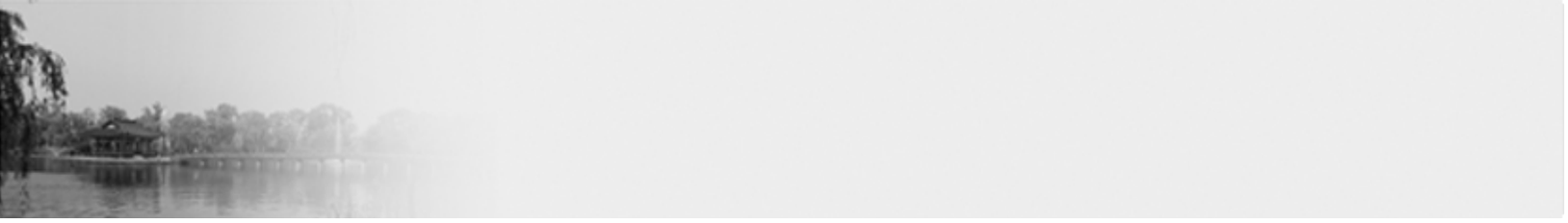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다양한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어 자녀들과 함께 걷으며 백제시대로 여행을 떠나기 좋은 코스로 조성함

▌걷는 길 코스선정 : 웅진의 왕도길(5.9㎞)

○ 백제 문화의 중심지인 공산성, 무령왕릉, 현대식 명소 등을 통과하는 도보관광코스를 조성하되 어린이와 함께 산책하기 좋은 코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주요노선(5.9㎞)

– 무령왕릉→→한옥마을→선화당→국립공주박물관→곰나루솔밭→정지산유적→금강공원→공산성→무령왕릉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코스가 완만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걸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백제유적을 코스로 선정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임
- 코스내에 있는 공주한옥마을은 한국 전통난방으로 따뜻한 구들장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설계되었고 도시·현대인들이 머무는데 편리하도록 숙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가족이 걷는 코스이기는 하나 공주 시내권에 근접한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아 통행 경고 및 안내가 필요한 코스임

○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코스내 편의시설 이용 편의성 증대

- 구간내에 편의시설을 갖춰진 전시자원이 산재해 있어 별도의 편의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음
- 그러나 가족을 타겟으로 한 코스로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버스승강장 등을 활용한 간이 쉼터 형태로 조성되어야 함

② 통행경고 및 안내 시설

- 자전거길과 연계하여 도보코스가 이어짐에 따라 통행경고 및 통행에 대한 사전 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공산성의 주차장을 거점시설로 선정하여 선정코스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재미를 부여함

③ 참여프로그램 확대

- 박물관 및 무령왕릉 등의 어린이와 함께하는 역사교실 등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방문을 촉진함
- 공주보를 중심으로 하는 걷기 행사나 자전거타기 행사가 주기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걷기코스와 연계하여 운영함

○ 추진 사업

- 통행안내 및 종합안내판 비치
- 안내해설사 확대 운영
- 자전거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대

(3) 외국인관광객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코스를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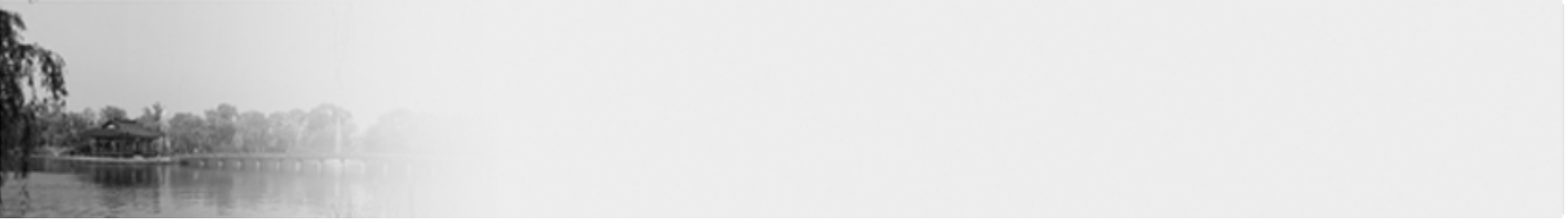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유네스코 등재 후보지에 포함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대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연계함

▌걷는 길 코스선정 : 웅진유네스코길(3.9km)

○ 외국인이 백제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표 문화자원들을 연계한 걷는 길을 조성함

○ 주요노선(3.9km)

– 공산성 → 무령왕릉 → 공주한옥마을 → 국립공주박물관 → 정지산유적 → 공산성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백제역사 유적간 동선이 가장 짧은 곳으로 방문이 용이하고 알차게 볼수 있는 코스임
- 공주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신문홍보를 통해 무령왕릉 및 유적지 관람, 한옥마을에서 다도체험과 백제의상체험, 5도2촌마을 방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연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공주시의 정책에 따라 외국인들이 찾는 코스에 대한 잠재력은 높음

○ 걷는 길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외국어 안내시스템 구축

- 백제문화권의 특성상 일본인과 중국인의 방문이 많으며, 미국 등 영어문화권에서도 방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외국어 가능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해설사를 확대 배치로 지역의 전설과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 등 백제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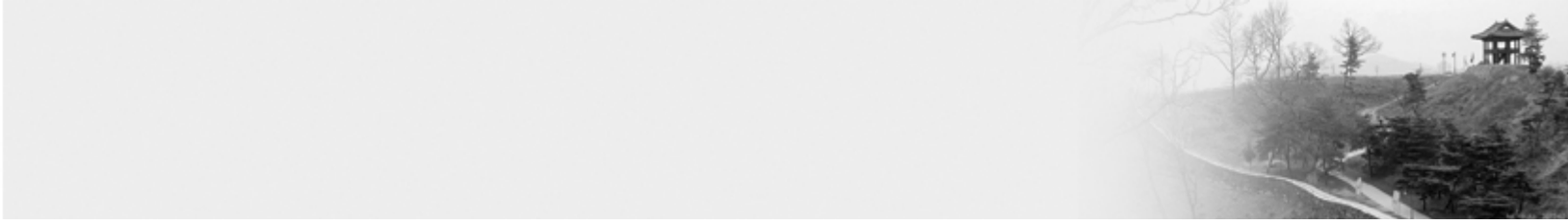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② 통행경고 및 안내 시설

- 자전거길과 연계하여 도보코스가 이어짐에 따라 통행경고 및 통행에 대한 사전 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공주국립박물관, 공산성 등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내외국인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함

※ 무인관광시스템 : 한국관광공사의 지역관광정보 이용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첨단 IT기술과 관광콘텐츠를 융합하여 공사가 자체 개발한 대형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시스템임

○ 추진 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외국어 가능 문화관광해설사 3명 배치: 일본어, 중국어, 영어(現 고마나루명승길 지킴이의 확대 운용)
- 무인관광안내시스템 : 공산성 도입



(4) 수학여행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교과서에 제시된 공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을 거점으로 주변의 분포한 백제문화재를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여 수학여행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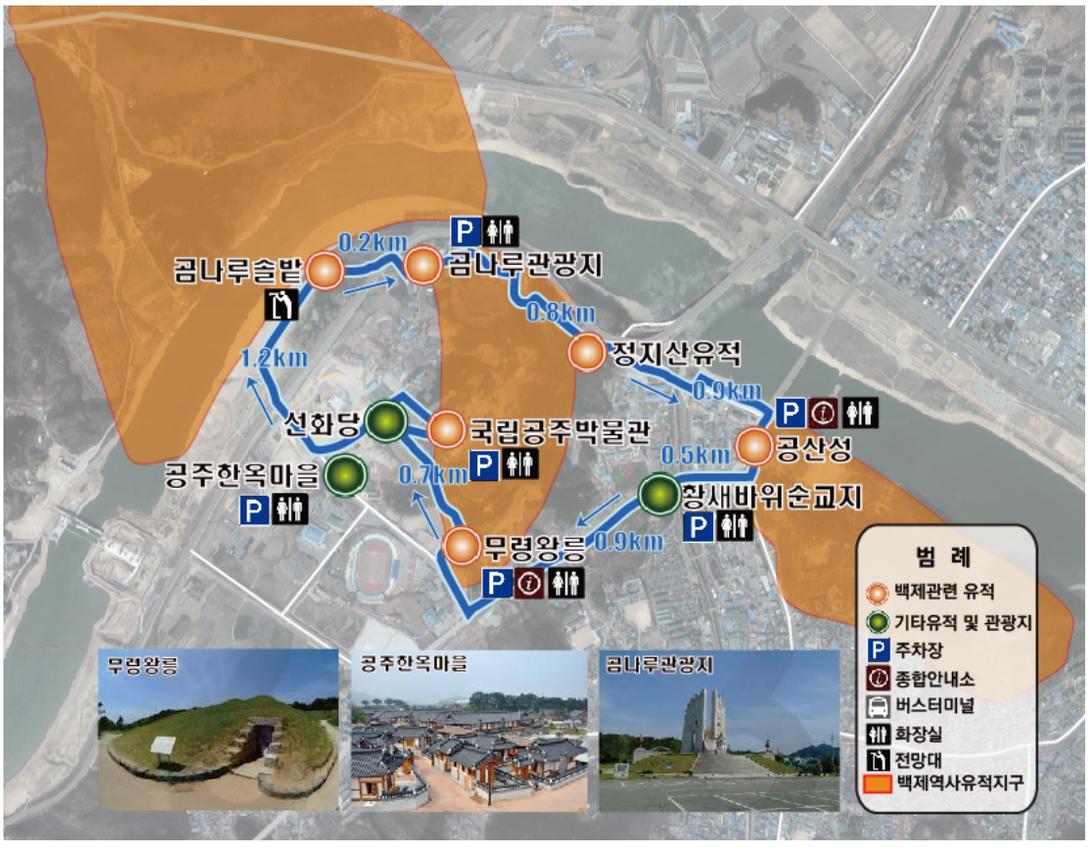
○ 기존 관람형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걸어 다니면서 백제 역사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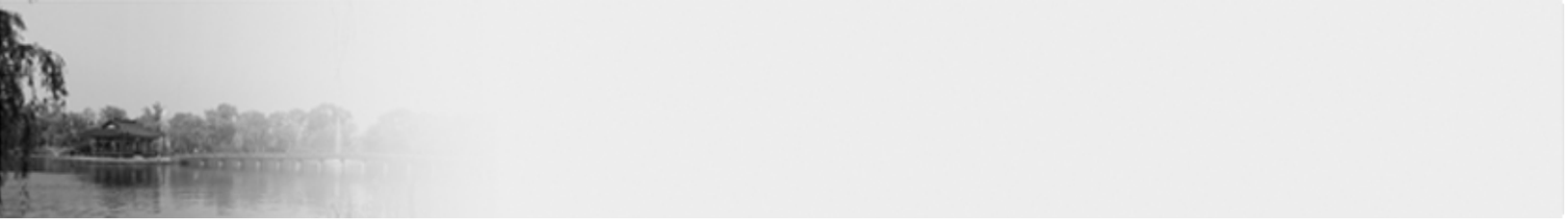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걷는 길 코스선정 : 웅진비밀의 길(5.2km)

○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공산성-무령왕릉을 잇는 노선으로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연결함

○ 주요노선(5.2km)

– 공산성 → 무령왕릉 → 송산리고분군 → 국립공주박물관 → 선화당 → 한옥마을 → 곰나루솔밭 → 정지산유적 → 공산성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공주는 백제문화권 수학여행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도시로 사진과 글로 배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수학여행을 통해 견학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됨
- 충청남도에서는 서울지역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수학여행단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갯벌, 생태, 역사, 국악체험 위주의 수학여행코스를 개발(4개 분야 9개 코스)하여 홍보하고 있음
- 또한 수학여행은 우리나라 학생들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방문함에 따라 백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시스템 구축

- 수학여행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기존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와 문헌기록에 의한 설명보다는 공주시민이나 문화유산해설사가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

② 숙박시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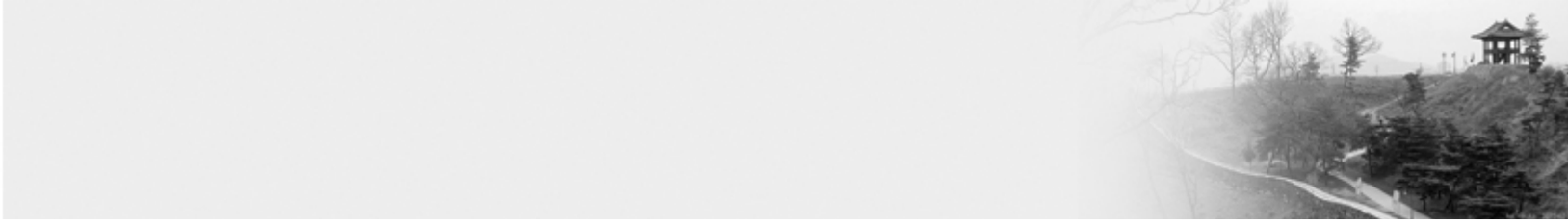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숙박을 하는 수학여행단이 증가함에 따라 공주 한옥마을 등 지역의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함
- 수학여행 다수공급자계약제도 : 학교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대해 조달청에서 여행업체, 숙박시설, 수련시설의 품질과 자격을 심사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리면 각 학교에서 예산과 학생선호를 반영해 원하는 여행사나 숙박·수련시설을 선택할 수 있음

③ 자전거길과 활용

- 공주시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무료 자전거를 소규모 학생여행일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학여행객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제공함

○ 추진 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現 고마나루명승길 지킴이의 확대 운용



2) 부여군 도보여행길

○ 부여군은 사비 트레킹 여행길로 사비왕도길(18.8km), 백제거리박물관길(21.7km)을 제안하였고, 가족 및 단체 보도여행길로 백제왕 사랑길(7.4km), 백마강추억길(9.9km),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사비유네스코길(5.3km), 수학여행 도보여행길로 계백장군출정길(3.0km)을 제안하였음

(1) 사비 트레킹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백제시대 수도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부여를 둘러보는 코스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코스를 조성하여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백제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부소산성을 거점으로 하여, 궁남지, 정림사지로 가는 길은 백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길로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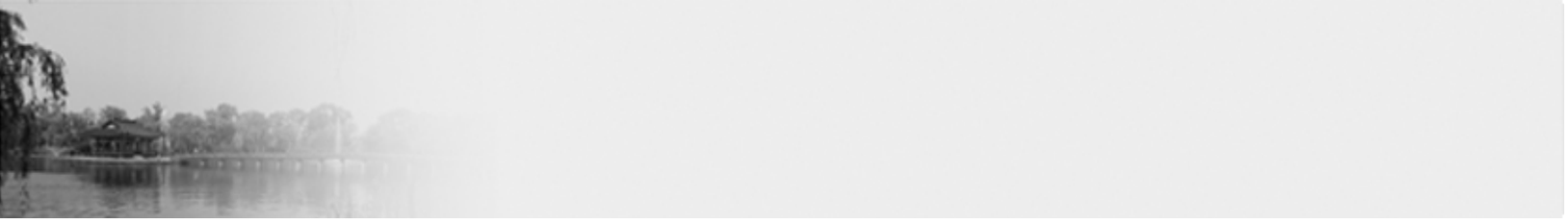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도보길 코스선정

○ 사비 백제의 중요 거점이었던 부소산성, 궁남지, 능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 뿐만 아니라 금강과 어우루진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코스가 전체적으로 완만하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도 코스로 선정함

○ 기존 운영하고 있는 백마강길 및 사비길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을 아우르는 코스 개발과 코스별 주제에 따라 특징을 살린 세부코스명을 부여함

〈표 Ⅴ-5〉 사비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코스	세부코스명	노선	총길이 (도보시간)
1	사비왕도길	백제문화단지→호암사지→천정대→왕흥사지→부산(浮山)→수북정(자온대)→부여나성(신동엽시비)→구드래관광지→부소산성→청산성→백제원→백제문화단지	18.8㎞
2	백제거리박물관길	부소산성→관북리유적→구드래조각공원→부여나성→동남리사지→서동공원→궁남지→오천결사대→백제왕릉원→능안골고분군→청마산성→용정리사지→백제요→청산성→부소산성	21.7㎞



▌1코스 : 사비왕도길(18.8㎞)

○ 테마 및 특징

– 백마강 인근의 아름다운 풍광과 역사적 문화유산을 연계한 도보길로 일출이 아름다운 부소산과 찬란한 백제 역사문화를 알 수 있는 백제문화단지, 그리고 백제시대의 도성인 부소산성을 돌아보는 코스임

○ 주요구간

– 백제문화단지 → 호암사지 → 천정대 → 왕흥사지 → 부산(浮山) → 수북정(자온대) → 부여나성(신동엽시비) → 구드래관광지 → 부소산성 → 청산성 → 백제원 → 백제문화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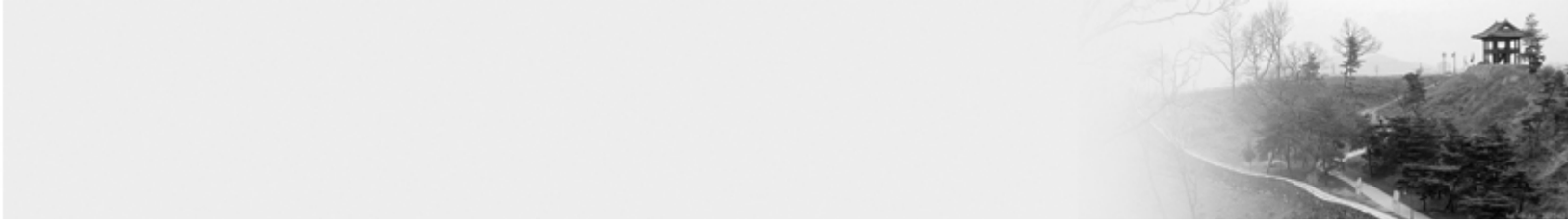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주요자원

– 백제문화단지 : 백제역사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조성된 곳으로 사비성, 백제역사문화관 등이 조성된 테마파크임

– 부소산성 : 백제의 마지막 왕성으로 사비성으로 불렸음

○ 스토리테링자원

– 군창지와 반월성, 고란초, 고란초 효종, 구드래 유래, 백마강과 소정방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백제문화길은 부여에서 운영 중인 백마강길로 부소산, 낙화암 등 백마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코스가 전체적으로 완만하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코스임
- 2012년 7월 부산지내 정비공사가 끝나 본격적인 트레킹이 가능한 코스로 완성되었으며, 각 유적지를 연결하는 길마다 명칭과 이야기가 있어 걷는 재미를 느끼게 함
- 도보여행객의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백제교, 구드래 공원 등 편의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함

○ 걷는 길 코스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숙박시설 연계

- 백제문화단지의 롯데리조트에서 시작되는 코스로 도보길을 걷는 숙박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부여군 사이버시민으로 가입한 도보여행객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등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② 통행경고 및 안내 시설

- 일부 국도변을 걷는 구간에 대해서 차량 및 보행자에게 주의 및 경고 할 수 있는 표지판이 필요함
- 여름철 침수가 우려되는 지점에 경고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자원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판을 곳곳에 배치하여 스토리를 배가시킴
-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코스 혹은 시간마다 배치를 통하여 역사자원에 대한 가치를 교육함

③ 편의시설 확충

- 기존 편의시설을 활용하되 햇빛가림 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쉼터에 도입하여 평지도보시 이용편의를 제고함
- 자전거시설의 확충으로 도보여행객과 자전거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사업

- 비가림시설
- 통행안내 및 노선 안내판

▌2코스 : 백제거리박물관길(21.7㎞)

○ 테마 및 특징

- 사비성으로 불리운 백제의 마지막 왕성인 부소산성을 시작으로 하는 2코스는 부여나성, 청마산성, 청산성, 부소산성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길임

○ 주요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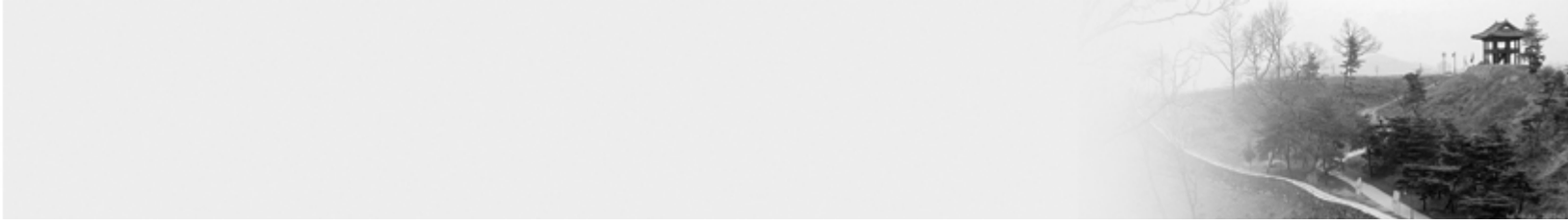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부소산성 → 관북리유적 → 구드래조각공원 → 부여나성 → 동남리사지 → 서동공원 → 궁남지 → 오천결사대 → 능산리고분군 → 능안골고분군 → 청마산성 → 용정리사지 → 백제요 → 청산성 → 부소산성

○ 주요자원

- 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 : 사비시대 백제의 고분군으로 모두 7기가 있으며 왕릉으로 보고 있음
- 능안골고분군(사적 420호) : 능산리 무덤 동쪽에 있는 백제나성, 청마산성과 함께 있는 백제 무덤으로 귀족무덤으로 추측됨

○ 스토리텔링 자원

- 궁남지의 유래, 부소산성(영일루, 군창지) 이야기, 대왕포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역사문화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로 백제시대 왕도 부여를 둘러볼 수 있으며, 주요 문화재 및 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의 역할이 가능함
- 부여읍의 외곽지역을 순회하는 코스로 감춰져 있던 자원을 찾아보는 코스로 백제산성길은 자연보다는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나 산성이 유실되고 끊긴 부분이 적지 않아 인내력과 임기응변이 필요한 코스임
- 산성을 연결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일부 도보길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우회구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며 등산로가 가파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판이 필요함

○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지역과 연계한 편의시설 설치

- 부여 시내권을 벗어나는 코스는 구간별 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등을 간이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마을을 경유하는 코스가 있어 마을회관의 휴게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과의 협의가 관건임

② 통행경고 및 안내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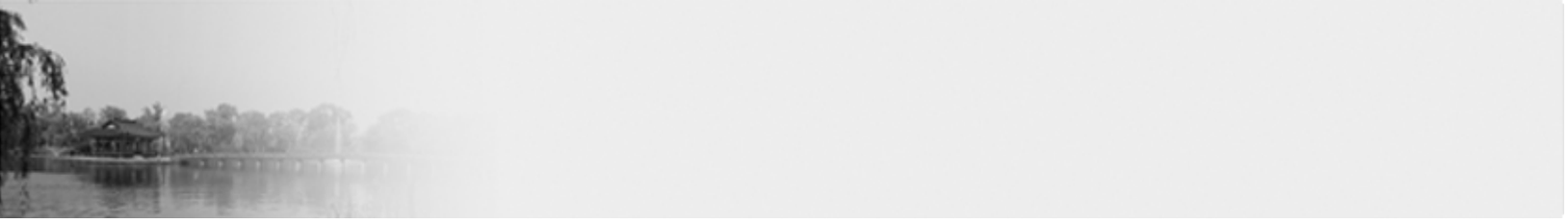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능산리고분군에서 능안골고분군 구간은 마을길로 연결되었으나 일부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차도구간으로 진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통행경고 및 안내가 필요함
- 청마산성에서 용정리 사지는 등산로로 이어져 눈에 띄는 곳에 표식을 설치하며 방향지시 외에도 진행방향 및 거리에 대한 추가안내가 이루어져야 함

③ 지역 체험관광자원 연계

- 백제복식 체험 및 백제요 토기 만들기 등 지역의 체험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지역의 5일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함

○ 추진 사업

- 등산로 정비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조망대 : 청산성 및 청마산성 부근



(2) 가족 및 단체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백제문화를 단순히 관람하는 여행에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함

▌1코스 : 백제왕 사랑길(7.4km)

○ 테마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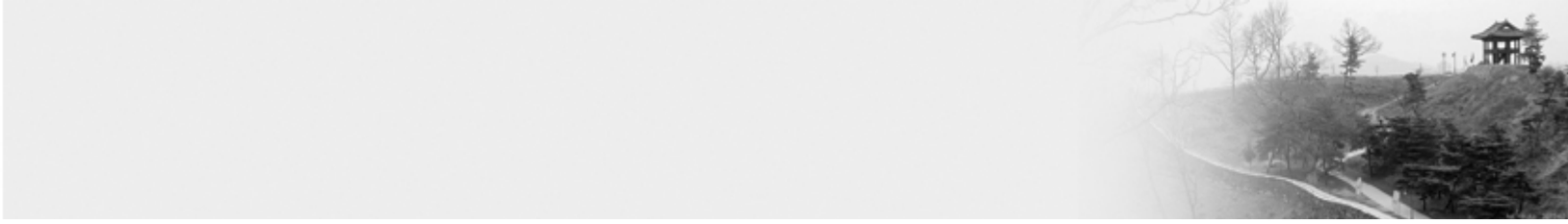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사비시대 백제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동선이 짧은 길을 연계하였음

○ 주요구간(7.4km)

– 부소산성 → 구드래조각공원 → 구아리백제유적 → 동남리사지 → 서동공원 → 궁남지 → 오천결사대충혼탑 → 국립부여박물관 → 정림사지 → 부소산성

○ 스토리텔링 자원

– 서동이야기, 조왕사, 대왕포, 소정방과 맹갱이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가족이 걷는 코스로 비교적 동선이 짧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자원을 연결하였으며 사비길에 포함되는 일부 구간으로 부여옛길 안내소가 있는 부소산성을 기점으로 하여 출발점과 종착점이 되는 루트임
- 부소산성을 한 바퀴 돌아내려와 고란사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구드래공원으로 오는 코스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음
- 백제고도보존센터에서 안내책자와 시청각자료를 통하여 백제 역사 유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교육적 효과가 높음

○ 도보길 코스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스토리가 있는 길 조성

- 부여는 백제의 왕도로서 곳곳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를 바탕에 둔 길로 조성이 되어야 함
- 특히 부소산성의 역할, 구드래 나루 사신방문 등 흥미를 이끌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전달되어야 함

② 주변 편의시설 확충

- 백마강 및 시내권 자전거길과 연계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위험표식 및 통행경고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야 함
- 부소산성의 주차장을 거점으로 루트순환형 셔틀버스 도입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환승센터를 간이 쉼터로 활용함

③ 참여프로그램 확대

- 현재는 박물관의 체험이나 전시 프로그램 위주로 방문객의 참여를 도모하였으나 금성산 보물찾기, 부소산 지명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하여 눈높이에 맞는 도보여행지를 개발함
- 부모와 함께 '다시 걷는 수학여행길'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억을 통해 가족이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경고 시설 확대
- 문화관광해설사 확대편성
- 순환루트 루트 연계 셔틀버스 환승센터 조성

▌2코스 : 백마강 추억길(9.9㎞)

○ 테마 및 특징

– 백제의 역사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길을 조성하여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보행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길로 조성함

○ 주요구간(왕복)

– 1코스 : 백제문화단지 → 호암사지 → 천정대

– 2코스 : 백제문화단지 → 백제원 → 왕흥사지 → 부산 → 수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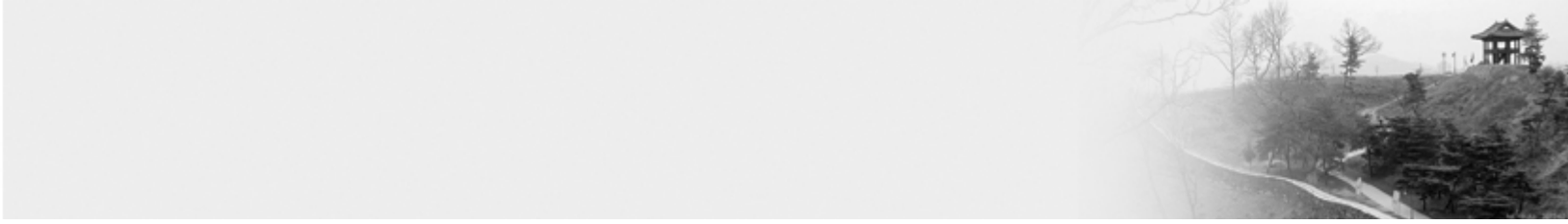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주요자원

– 천정대 : 정사암(政事巖)이라는 백제때 재상 선출 및 국가 회의가 열리 곳으로 백마강을 조망할 수 있음

– 백제원 : 다양한 식물과 자료 등을 전시한 식물원으로 백제 고도 부여사람들의 문화를 엿보고 즐길 수 있는 곳임

○ 스토리텔링자원

– 천정대전설, 부산이야기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백마강추억길은 사비도성길에 비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자원들이 있어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음
- 옛 재상들의 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천정대, 떠내려온 산이라는 이름의 부산 등 부여시내권의 문화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자원을 찾는 재미있는 코스임
- 또한 백제문화단지의 개발로 다양한 형태의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수변관광개발로 카약, 래프팅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도보길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지역자원 안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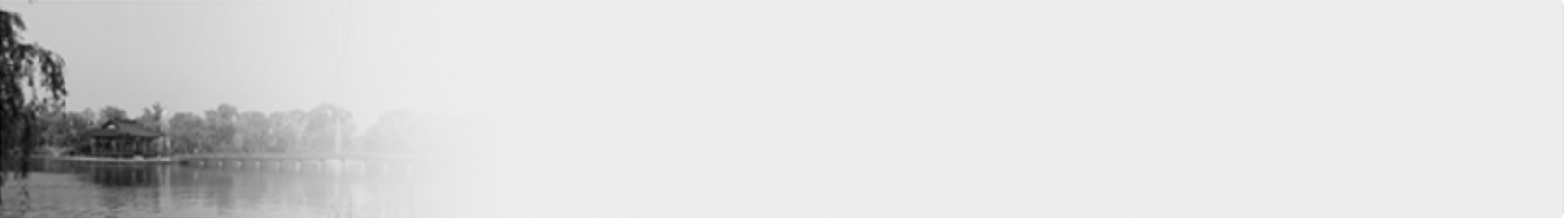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부여 시내권의 문화재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가 산재하여 있음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안내 책자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함
- 문화재별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문화재를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닌 문화재에 대해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② 간이쉼터 등 편의시설 확보

- 부소산성과 백제문화단지를 잇는 개념의 순환형 셔틀버스를 루트와 공동운영하여 도보여행객이 보다 편하게 코스를 설정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함
- 걷는 길 코스에 나무 그늘 등이 부족하여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도보 여행시 쉴 수 있는 그늘 및 간이쉼터의 확보가 필요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경고 시설 확대
- 문화관광해설사 확대편성
- 순환 루트 연계 셔틀버스 환승센터 조성



(3) 외국인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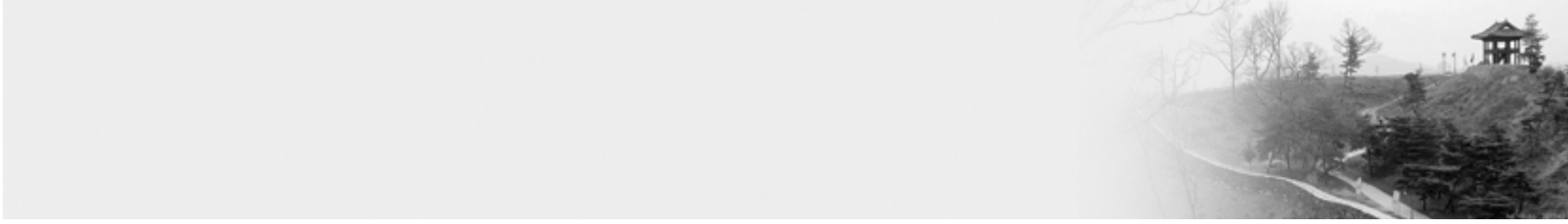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백제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백제 옛길을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자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코스를 선정함

○ 거점지인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 명소를 연계하여 지역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코스선정 : 사비 유네스코길(5.5㎞)

○ 백제문화의 꽃을 피웠던 부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연계하며, 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지역민의 생활상도 함께 감상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구간 : 부소산성 → 궁남지 → 국립부여박물관 → 정림사지 → 부소산성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백제문화권은 일본이나 중국인 관광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방문이 많은 편으로 역사적으로 교류를 했었던 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여는 외국인이 사고하는 백제라는 고유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팸투어 등을 개발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2년 9월 공주와 부여일원에서 중국 청도여행사와 언론사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를 개최함
- 이렇듯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타켓별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도보길 코스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지역자원 안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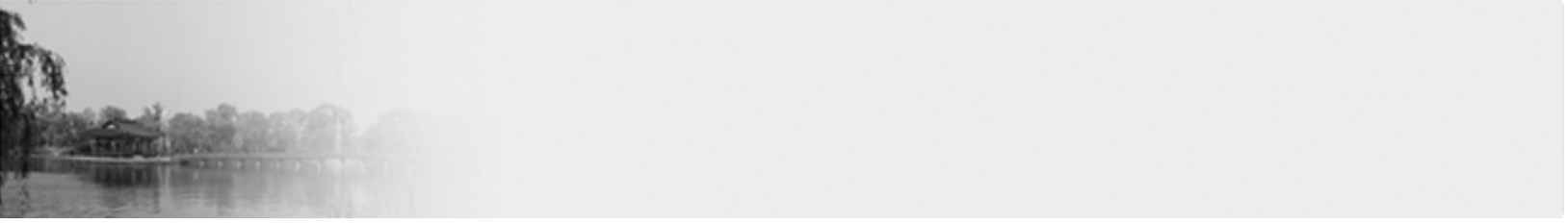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숙박지, 맛집, 관광지 등의 연계를 통하여 코스별, 루트별, 관광지별로 다양하게 제시해줄 수 있는 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외국어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함

② 인바운드 패키지 관광상품화 개발

- 외국인 관광객은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감상하러 온 것으로 백제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해줄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문화상품을 개발함
- 또한 외국여행사와 MOU 체결 등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 관광상품을 개발함
- 또한 부여의 독자상품 개발이 아닌 대전의 의료관광, 공주~부여~익산을 연계한 백제문화권 관광 등의 지역 연계형 관광상품을 개발함

○ 추진 사업

- 안내 및 경고 시설 확대
- 문화관광해설사 확대편성
- 순환 루트 연계 셔틀버스 환승센터 조성



(3) 수학여행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수학여행은 교내에서 한정된 자료에 의하여 이론에만 치중했던 학습 내용을 선열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화유적지와 역사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다양한 현장체험의 계기를 마련함

▌코스선정 : 계백장군 출정길(3.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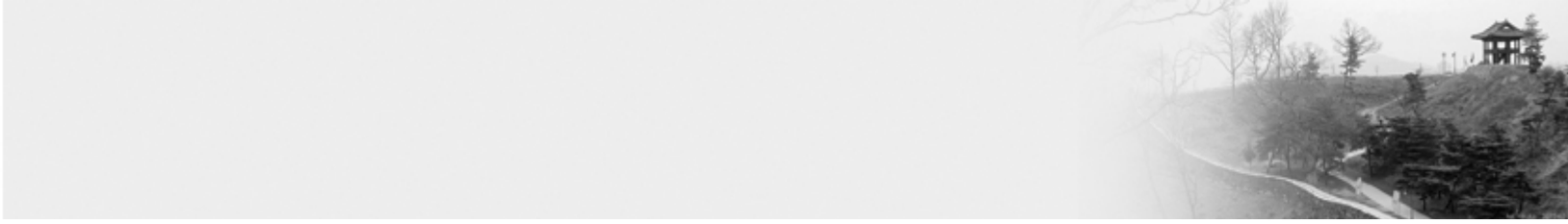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수학여행 코스는 백제문화 중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연결하며, 수학여행의 특성상 장거리를 대형버스를 이용해 이동함에 따라 시내구간을 기본코스로 하되 원거리 이동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함

○ 주요구간(3.0km)

- 부소산성 → 정림사지 → 계백장군동상 → 국립부여박물관 → 궁남지 → 오천결사대충혼탑

○ 스토리텔링 자원

- 궁남지(무왕과 선화공주), 오천결사대 출정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부여군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계획수립 시기에 맞춰 수학여행용 부여관광홍보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펴고 있음
- 특히, 수도권 수학여행 담당자와 학교담당자들에게 1:1면담을 통한 수학여행단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서울 동작교육지원청과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상호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음
- 또한 백제왕도인 부여는 부소산성, 국립부여박물관, 능산리고분군 등 단골 수학여행코스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단지 등 부여전역의 문화자원을 코스로 개발하였음

○ 도보길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지역자원 안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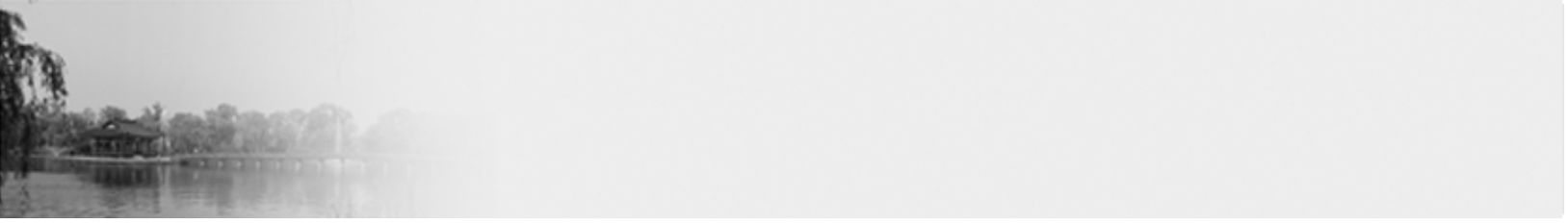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수학여행은 교육의 가치를 가장 우선 시 함에 따라 교과서에서 그림으로만 봤던 문화재를 실제로 보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음
- 따라서 백제를 잘 아는 향토사학자나 문화관광해설사가 팀으로 구성된 수학여행객에게 설명해줄 수 있는 이야기 안내시스템을 구축함

② 다양한 수학여행 상품 개발

- 다양한 콘텐츠로 테마형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수학여행단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 부여 백제의 거점인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둘레길 등을 홍보하고 능산리까지 백제문화재 보물찾기 등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함

○ 추진 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확충
- 테마형 프로그램 개발
- 수학여행단 연계 숙소 지정



3) 논산시 도보여행길

○ 논산시은 트레킹 여행길로 탑정호와 계백장군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황산벌 계백길(36.8km), 탑정호반길(22.5km)을 제안하였음

(1) 트레킹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백제 동쪽 방어의 중심지역으로서 백제의 기상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고 백제의 전투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성함

○ 탑정호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원과 연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이 길은 총 연장이 20~30㎞ 정도로 장거리 도보가 가능한 트레커를 중심으로 노선을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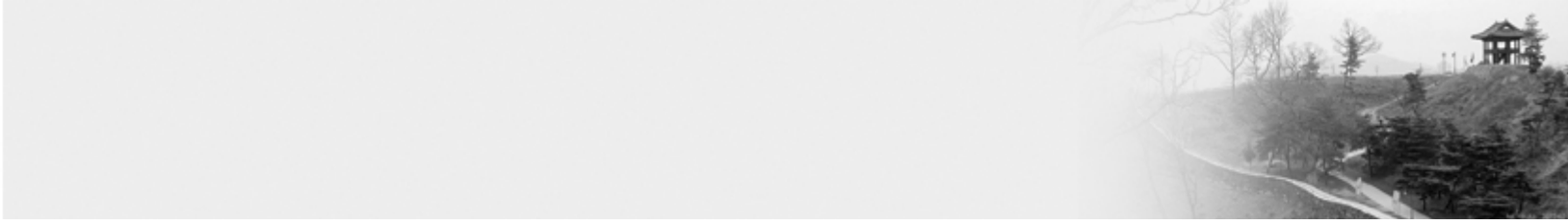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도보길 코스선정

○ 탑정호를 중심으로 계백장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과 황산벌, 백제군사박물관 등을 연계하여 코스를 선정함

○ 백제의 마지막 전투였던 황산벌 전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성을 연결하여 백제시대 군사들의 이동로를 따라 걸어보는 코스를 선정함

〈표 Ⅴ-6〉 논산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코스	세부코스명	노선	총길이 (도보시간)
1	황산벌계백길	백제군사박물관→외성산성→황산성→청동리산성→황령산성→산직리산성→모촌리산성→백제군사박물관	36.8㎞
2	탑정호반길	탑정호수변생태공원 →대명산→ 탑정리석탑 → 조정서원 → 호암서원 → 백제군사박물관 →휴정서원 → 탑정호수변생태공원	22.5㎞



▌1코스 : 황산벌 계백길(36.8㎞)

○ 테마 및 특징

- 660년 계백이 오천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벌인 전투로 황산벌전투의 주 무대가 된 산성을 연결한 코스임
- 모든 산성에서 황산벌의 조망이 가능하며 탑정호와 어우러진 전경이 매우 아름다움

○ 주요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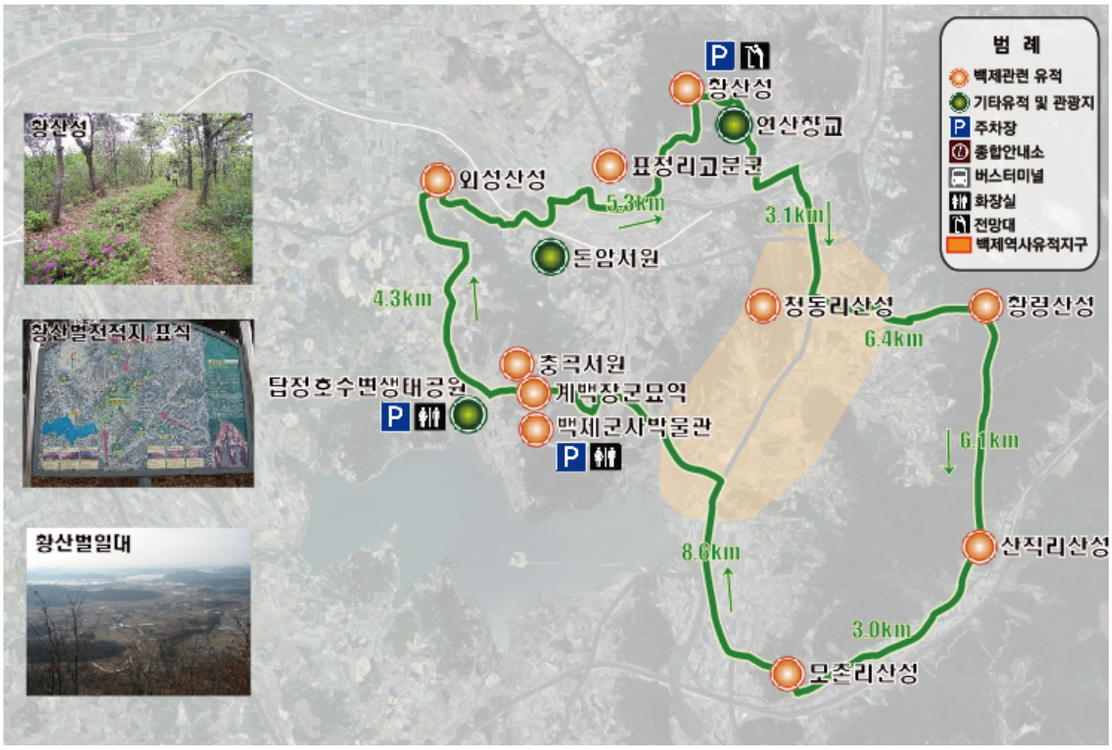
- 백제군사박물관(계백장군 묘역) → 외성산성 → 황산성 → 청동리산성 → 황령산성 → 산직리산성 → 모촌리산성 → 백제군사박물관(계백장군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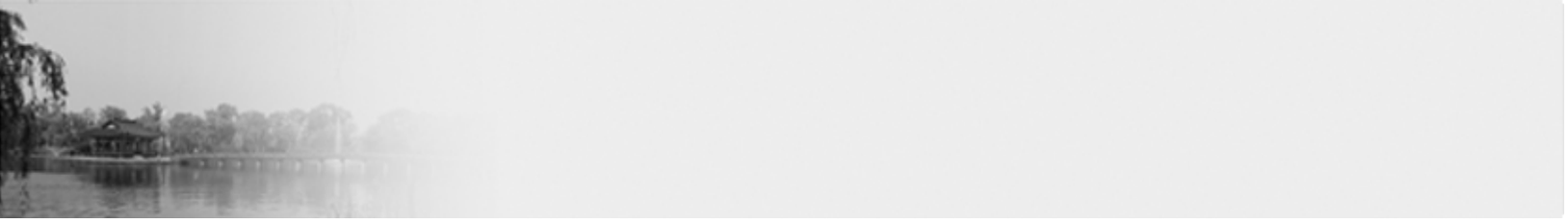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주요 자원

- 계백장군 묘역 : 각종 문헌이나 발굴조사결과 계백의 묘라는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묘소의 방향이 정남향 백제문묘와 같은 방향이고 그의 죽음과 관련된 지명이라는 점에서 백제군사박물관과 함께 유적지로 조성됨
- 황산성 : 삼국시대 산성으로 적의 침입이 어려운 지형조건을 이용하여 자연석으로 축성하였으며 본진의 백제군 사령부가 있던 중요성지로 추정됨

○ 스토리텔링 자원

- 계백과 황산벌, 계백과 관창, 황산벌과 한삼천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황산벌전투와 관련하여 향적산, 황산성 부근에 조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향적산 등산객이나 산악자전거 이용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황산벌전투와 관련하여 지역을 연결한 도보길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산성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길이 험준하여 상당한 시간과 체력이 필요함
- 황산벌전투는 국가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자 한 계백과 오천결사대의 충의정신이 서려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전쟁으로 교육적 효과가 높음
- 충곡서원에서는 매년 4월 계백장군 제향을 지내고 있으며 황산벌전투재현행사를 통하여 계백장군의 충절과 기백을 널리 알리고 있음

○ 도보길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주변 편의시설 확충

- 산성간 연결하는 코스로 원거리 및 등산로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위한 안내가 필요함
- 쉼터도 부족하며 갈림길도 많아 이정표의 설치가 필요하며 간이쉼터를 다수 설치하여 이정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

② 스토리가 있는 길 조성

- 하늘을 담은 호반 탑정호와 주변의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의 항전의 역사적 기록이 함께 어우러져 재미있는 스토리를 발굴함
- 황산벌 전투가 백제의 패망을 가져온 전투이기는 하나 계백의 충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길로 조성함

③ 지역의 관광상품과 연계

- 매년 10월 개최하는 황산벌전투재현행사와 함께 계백이 혼이 서려있는 길을 함께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위험경고 시설 확대

▌2코스 : 탑정호반길(22.5㎞)

○ 테마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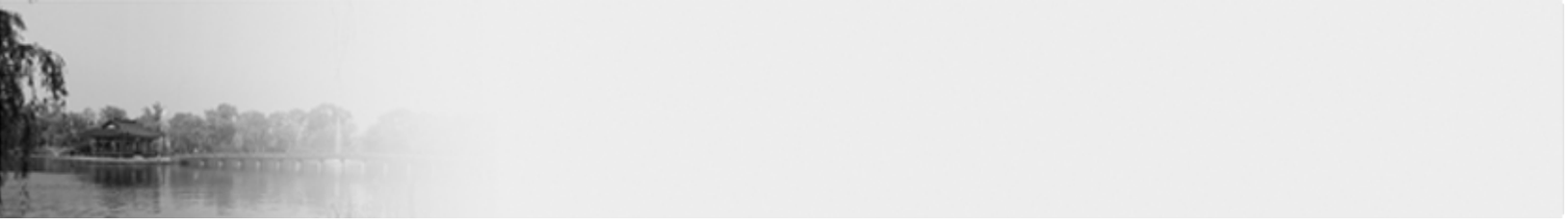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길과 자연경관, 꽃풍경이 아름다운 탑정호를 중심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길로 어린이와 가족, 연인이 모두 함께 걷는 공간으로 조성함
- 탑정호수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수생식물원, 서원, 백제역사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높은 도보길임

○ 주요 구간

- 탑정호수변생태공원→대명산→탑정리석탑→조정서원→호암서원→백제군사박물관→휴정서원→탑정호수변생태공원

○ 주요 자원

- 탑정호 :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곳으로 논산 8경중 제2경이며 논산시 부적면, 가야곡면, 양촌면에 걸쳐있는 호수로 충남에서 두 번째 규모임
- 백제군사박물관 : 백제의 군사와 호국이라는 독창적인 주제로 계백장군 묘소 가까이에 위치한 백제시대 유물 박물관임
- 휴정서원(향토유적 제16호) : 조선시대 서원으로 기호 사림의 종장인 김장생의 친족과 그의 학통을 받은 문인들만을 제향한 점에서 여타 기호계 서원과는 의미가 다름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탑정호수변길은 논산시의 솔바람길과 연계되는 코스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탑정호 주변 전통문화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산책로길임
- 탑정호는 대둔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로 형성되었고 호수의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
- 탑정호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도로연결로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며 농촌체험마을에서 대여해주는 녹색자전거를 타고 바람과 산, 호수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코스를 만끽할 수 있음
- 또한 탑정호수변생태공원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음

○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안전 및 안내표지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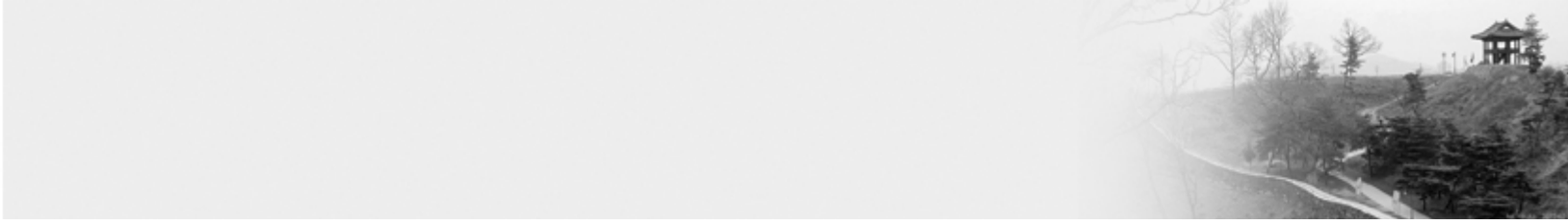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탑정호수변길은 드라이브코스와 일부구간이 병행됨에 따라 위험 표식 경고에 대한 안내표지가 곳곳에 마련되어야 함
- 구간의 시내버스 구간을 설명하며 도보이용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있도록 안내체계를 구체화 함
-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높낮이의 차이가 별로 없는 둘레길로 가족 산행지 혹은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코스이나 산책로의 정비가 필요함

② 주변 편의시설 확충

- 도심을 여유롭게 걸으면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공원과 수변공간을 산책하기 위하여 주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도보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함
- 특히, 수변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하되 쉼터가 이정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성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경고 위험 시설 확대



4) 서천군 도보여행길

○ 서천군 트레킹 여행길은 백제해상로드길(73.5km)로 기벌포 해상왕국길(33.7km), 한산모시길(23.7km), 백제사신길(21.9km)로 구성되어 있음

(1) 트레킹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서천군의 해변축과 수변축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생태자원과 기반시설, 역사자원을 연계함

○ 서천군은 백제가 해상왕국으로 도약하기위한 관문으로서 일본, 중국에 이르는 교류의 요충지의 역할을 하였으며 당나라군이 백제를 침략한 가장 첫 번째 항쟁지로서 역사적 유적지를 관람하고 가슴 아픈 백제 패망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함

○ 다양한 도보관광자원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형 도보길을 조성하고 각 테마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특정 지역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지역 · 하천 · 습지 · 해안지역 등 다양한 연계자원을 개발함

▌도보길 코스선정

○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기벌포 문화 거리(장항항)를 기점으로 하여 도보길을 조성함

○ 백제시대 자원을 중심으로 생태자원, 경관자원 등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문화역사 스토리 자원을 연결하여 체험이 가능한 코스를 연결함

〈표 Ⅴ-7〉 서천군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코스	세부코스명		노선	총길이 (도보시간)
1	백제 해상 로드 도보 여행길	기벌포 해상왕국길	기벌포 문화의 거리(장항항)→전망산등대→장암진성→장항송림산림욕장→옥남리철새도래지→동백꽃마을→남산성→서천읍성→ 천방산	33.7㎞
2		한산모시길	신성리갈대밭→동자북마을→한산모시관→건지산성→문헌서원→봉선리유적→천방산	23.7㎞
3		백제사신길	신성리갈대밭→하구둑관광지→장암진성	21.9㎞

▌백제해상로드 도보여행길(73.5㎞) - 전코스(1코스~3코스)

○ 백제해상로드길은 백제의 해상의 요충지였던 서천의 자원을 연결하여 순환하는 길로 총 연장 73.5㎞의 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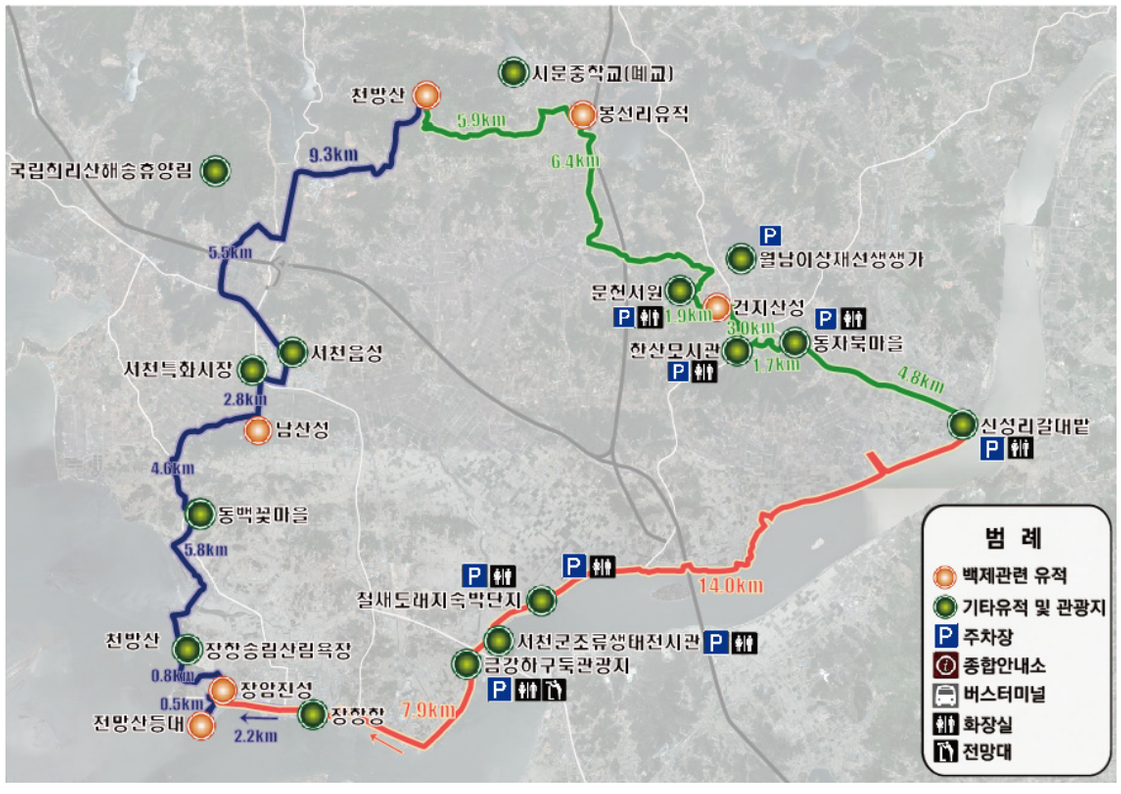
○ 기벌포는 사비도성이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 제반시설이 갖춰진 백제시대의 도시로 조운로와 해상교역로의 초입에 소재하여 해상왕국 백제의 거점이 된 지역임

- 특히,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후반까지 기벌포 항구는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항구로서 백제의 번영과 함께 큰 무역항으로 발전하였음

○ 기벌포길, 한산모시길, 금강생태길로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산성, 소정방의 이야기가 있는 천방산, 봉선리유적을 거쳐. 백제부흥운동의 본거지인 건지산성, 서천생태의 보고 신성리갈대밭을 지나 장암진성으로 돌아오는 길임

○ 금강생태길은 국토해양부의 비단금강자전거길이 조성 운영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화장실 및 안내판, 쉼터 등을 활용함

○ 백제해상로드길의 거점지는 총 3곳으로 장암진성, 천방산, 신성리 갈대밭이며, 이를 중심으로 도보여행길의 시작점과 종착점을 설정함



▌1코스 : 기벌포 해상왕국길(33.7㎞)

○ 특징 및 테마

- 서천의 생태자원과 주변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굴·제공하는 문화적 친환경적인 보행로 임

○ 주요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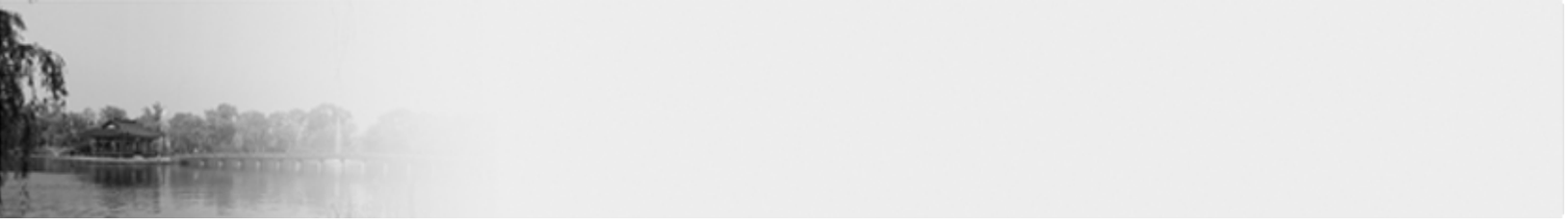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기벌포 문화 거리(장항항) → 전망산등대 → 장암진성 → 장항송림산림욕장 → 옥남리철새도래지 → 동백꽃마을 → 남산성 → 서천읍성 → 국립희리산해송휴양림

○ 주요 자원

- 장암진성 : 장암진성(長巖鎭城)은 해발 90.1m의 후망산(後望山) 남서쪽에 길게 드리워진 말미에 있는 백제시대 성으로 전망산(前望山)에 오르면 금강 하구와 서해바다가 한눈에 조망되며, 성의 후면에 위치한 후망산에서 동북쪽을 바라보면 남산성이 조망이 가능함
- 남산성 : 삼국시대의 성곽으로 산성은 정상부의 평평한 지형을 따라 축조한 토성과 그 외곽을 다시 넓혀서 석축으로 축조한 이중산성(二重山城)임

○ 스토리텔링자원

- 기벌포 해전, 천방산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본 코스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바닷가 생태보행로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코스로 서천 남산성, 특화시장, 희리산해송휴양림, 천방산까지 확대 조성하는 코스임
- 기벌포는 서천군 장항읍 일대를 일컫던 명칭으로 백제시대때 국제교류를 위한 중요한 무역항인 동시에 경제, 군사적 거점으로서 백제 장군 성충과 흥수가 기벌포 연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백제의 국방상 요지였음
- 기벌포는 현재 역사적인 명칭으로 남아 있으며 장암진성과 더불어 백제시대부터 국방의 요지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 장항읍 일대에 기벌포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
- 동백꽃 마을을 비롯하여 주변의 바다에서 갯벌 및 생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음

○ 도보길 운영시 필요사항

① 지역간 코스의 연계

- 주변지역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마을이 많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민들과의 교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특히, 어촌테마의 체험프로그램에서 사계절 모두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수기 및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함

②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인위적 개발보다는 생태자원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개발을 마련함
- 자연의 훼손을 막고 생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자연관찰로를 설치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위험 경고 시설 확대

▌2코스 : 한산모시길(23.7㎞)

○ 특징 및 테마

- 서천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함
- 지역 마을을 돌아보며 넉넉한 삶을 느껴보고, 한산모시관 등을 방문을 통하여 독특한 지역문화를 체험함

○ 주요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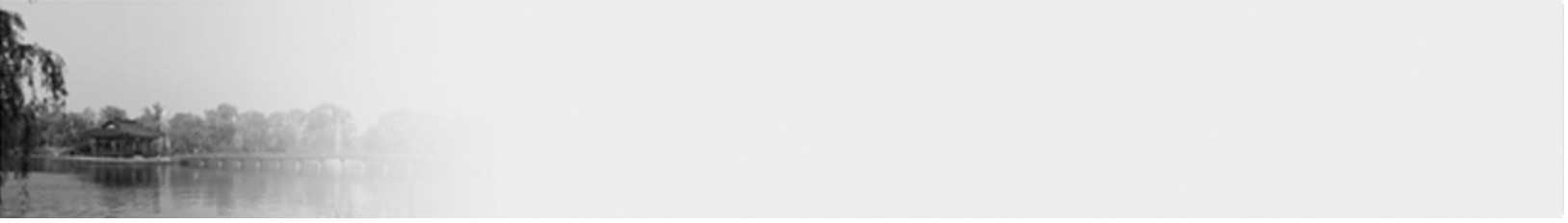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신성리갈대밭 → 동자북마을 → 한산모시관 → 건지산성 → 문헌서원 → 봉선리유적 → 천방산

○ 주요 자원

- 건지산성(사적 제60호) :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산성으로 주류산성이라고도 하며, 산성은 신라 초기 외성으로 축조된 것으로 백제 말기에 나당연합군에 대항하던 백제 부흥운동군의 거점이 되면서 널리 알려졌음
- 천방산 : 당나라 소정방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해발 324m가량의 높지 않은 산임

○ 스토리텔링자원

- 천방사와 소정방, 설림사와 소정방이야기, 신털뫼, 한산소곡주



○ 현황 및 잠재력

- 한산모시길은 서천군에서 진행 중인 문헌서원 솔바람길의 연장을 확대하여 백제 소정방의 이야기가 있는 건지산성에서부터 신성리갈대밭까지 연결하였음
- 천방산은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기도를 드린 산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며, 등산로와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정비되어 있으며 누각에 올라서면 금강과 서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함
- 건지산성은 백제시대 산성으로 천방산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백제시대 유적으로서 도보길의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도보길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스토리가 있는 길 조성

- 천방산은 나당연합군인 소정방과 관련하여 천방사를 건립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이야기 길을 조성함
- 특히 돌 천개를 배치한 천방사의 연기설화를 재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제고함
- 봉선리 유적이 자리한 시초면은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짚신에 묻은 흙을 털었다고 전하는 신털뫼 등의 이야기를 마을과 연계하여 마을길로 조성함

② 유적 정비

- 서천 봉선리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마한, 백제,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유구들이 조사된 유적으로 현장에서 관람이 가능한 형태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유적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할 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홍보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위험 경고 시설 확대

▌3코스 : 백제 사신길(21.9㎞)

○ 특징 및 테마

- 기벌포는 백제시대 해상교통로의 관문으로 일본과 중국 등 국제사신들이 금강을 따라 사비의 구드래항까지 올라가며 배를타고 올라가며 지나간 코스를 연결함
- 또한 백제시대 나당연합군의 진격로로 가장 번성했던 항구였던 동시에 가슴아픈 역사를 가진 길임
- 금강 하구둑에서 신성리갈대밭까지 이어지는 노선은 자전거길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 도보길과 자전거길로도 이동이 용이함

○ 주요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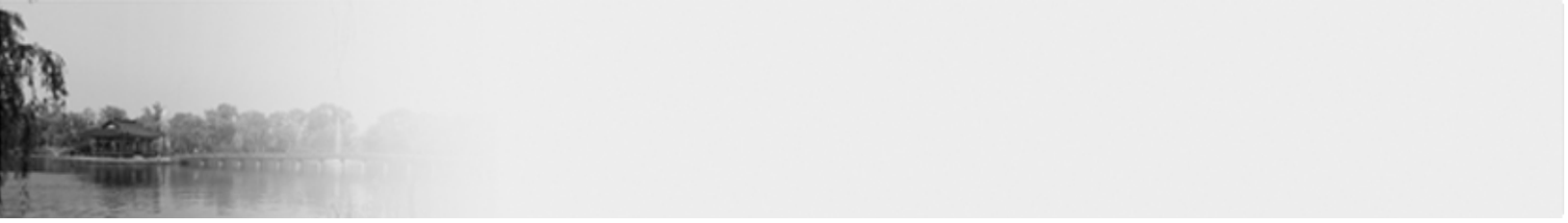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신성리갈대밭 → 하구둑관광지 → 장암진성(소요시간 약 6~7시간)

○ 주요 자원

- 신성리갈대밭 : 면적이 무려 6만여 평에 이르는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의 하나인 신성리 갈대밭은 금강물결과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겨울철에는 고니, 청둥오리 등 철새의 군락지로도 유명한 곳임
- 금강하구둑관광지 : 우리나라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에 아름다운 경관을 감싸안고 흐르고 있는 금강하구둑에 조성된 관광단지임

○ 스토리텔링자원

- 장암진성, 전망산 및 후망산, 기벌포해전



○ 현황 및 잠재력

- 신성리 갈대밭에서 기벌포 해전의 중심지인 장항읍까지 이어진 코스로 금강과 철새를 조망하며 걷기에 좋으며 가을에 걸으면 갈대와 노란 들녘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함
- 신성리 갈대밭에서 영화촬영관광지로 보행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금강하구둑까지는 매우 한산하고 조용하여 금강을 조망하면서 걷기에 최적이나 중간에 매점이나 마을 등이 멀리 떨어져 있어 편의시설의 이용이 어려움
- 금강하구둑 근처에는 강둑길이 아닌 2차선 도로의 경우 이용하여 위험하며 금강자전거 종주길과 연계되어 코스로 운영됨에 따라 도보길, 자전거길이 혼용되어 이용됨
- 금강하구둑 관광지는 종합위락단지로 넓은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장암진성까지 가는 길은 장항산업단지가 있어 근대시대 발전했던 장항읍의 모습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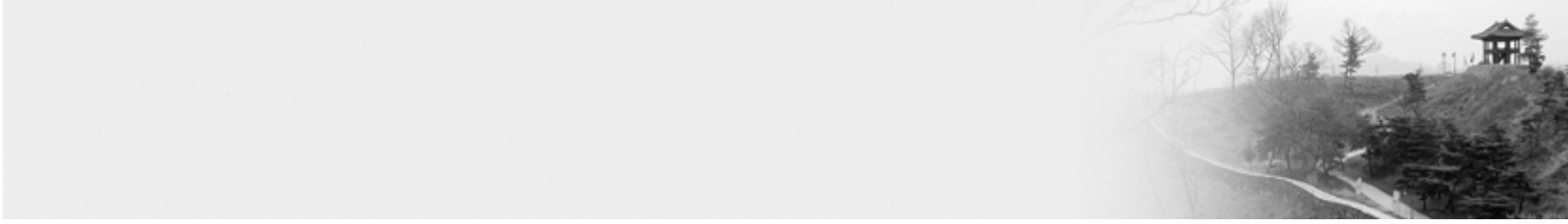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안전 및 경고사인

- 도보길이라 하더라도 차가 통행됨에 따라 안전을 위한 경고표식이 곳곳에 비치되어야 하며, 철새탐방코스 등에는 안내판 등의 설치가 필요함
- 코스의 연장이 길고 논둑길로 이어져 있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함에 따라 비가림시설을 완비한 쉼터가 곳곳에 필요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위험 경고 시설 확대



5) 익산시 도보여행길

○ 익산시는 트레킹 여행길로 미륵산성길(15.6km), 금강노을길(15.1km)을 제안하였고 가족 및 단체 보도여행길로 무왕의 만남길(15.0km),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익산유네스코길(9.5㎞), 수학여행 도보여행길로 어린시절 서동길(16.8㎞)을 제안하였음

(1) 익산 트레킹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선조들의 삶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지역생태를 연결하여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함

○ 익산시가 백제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둘레길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하여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함

○ 금강, 동쪽에 평야가 펼쳐지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백제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함

▌도보길 코스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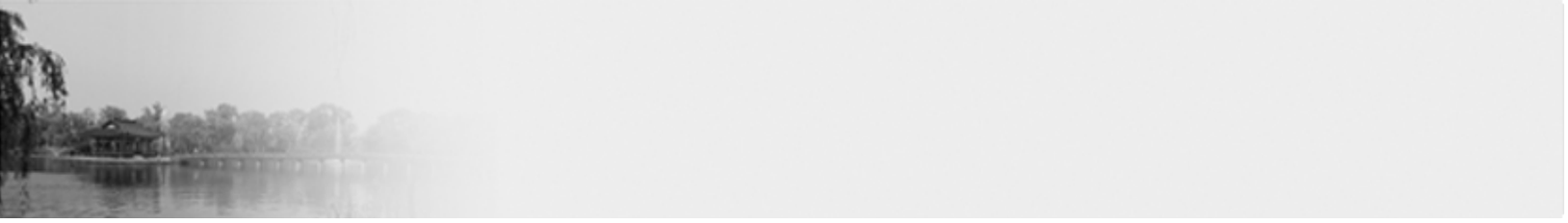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의 세 번째 수도라 불릴 만큼 왕도로서 계획된 도시로 각지에 백제의 문화재를 걸으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코스를 선정함

○ 미륵사지와 입점리고분 등 유네스코 등재 후보지를 거점으로 하여 백제시대의 자원을 연결함

○ 백제의 역사와 현재의 아름다움이 잘 담겨 있어 아련한 향수와 함께 문화와 역사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음

〈표 Ⅴ-8〉 익산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코스	세부코스명	노선	총길이 (도보시간)
1	미륵산성길	미륵사지→미륵산→미륵산성→금마관광단지→서동공원→금마도토성→서동생가터→익산토성→미륵사지	15.6㎞
2	금강노을길	입점리고분전시관→웅포관광지→붕새언덕마을→성당포구마을	15.1㎞



▌1코스 : 미륵산성길 (15.6㎞)

○ 테마 및 특징

- 무왕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미륵사를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를 도보여행객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여행길임
- 익산의 역사유적지 탐방형태의 걷기코스로 무왕길과 연결되며 모든 유적을 연결하는 순환형 코스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연결됨

○ 주요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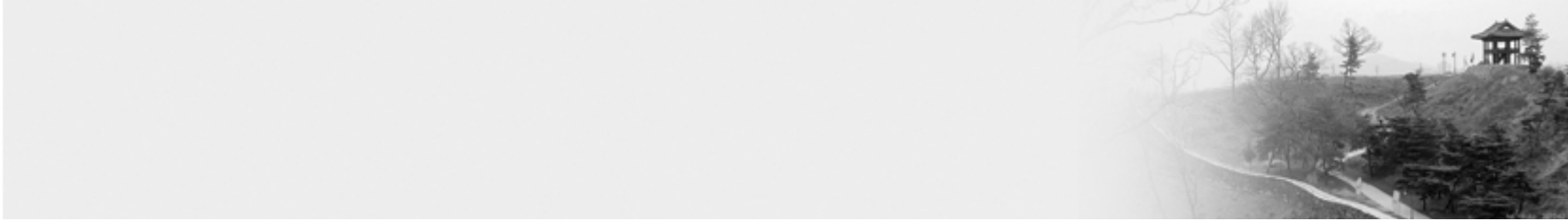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미륵사지 → 미륵산 → 미륵산성 → 금마관광단지 → 서동공원 → 금마도토성 → 서동생가터 → 고도리석불입상 → 왕궁리유적 → 익산쌍릉 → 익산토성 → 미륵사지

○ 주요 자원

- 미륵사지 : 백제 무왕때 왕비의 발원으로 지어진 사찰로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서탑)과 복원된 동탑이 있고, 목탑이 있었던 터가 있으며, 미륵사지 당간지주(보물 236호)외에 무왕과 선화공주(善花公主)의 설화가 깃든 유물과 유적 등이 발굴되었음

○ 스토리텔링자원

- 기준성, 미륵사 창건이야기, 무왕의 탄생



○ 현황 및 잠재력

- 익산은 백제의 왕도로 무왕과 관련된 이야기 및 역사유적지가 곳곳에 있으며 익산시 자체 도보길인 무왕길을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익산에서는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6개 코스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미륵산성은 축조공사를 통해 산성으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안내시설 및 쉼터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시민과 도보여행객의 호응을 얻고 있음
- 또한 공주, 부여를 연결하는 백제로의 개통으로 백제문화권의 연결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도보길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무왕길과 연계 홍보

- 운영 중인 무왕길과 연계하여 백제 옛길로서의 무왕길을 홍보하며 특히 서동인 무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시함
- 특히 팸투어 개념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길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확충

- 백제와 무왕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여행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하여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설정함
- 대상별, 중점유적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눈높이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위험 경고 시설 확대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2코스 : 금강노을길(15.1㎞)

○ 테마 및 특징

- 붉은 노을과 함께 강줄기로 빨려 들어가는 태양이 아름다운 금강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음
- 조선시대 조운선이 드나들었던 전통적인 포구마을의 역사와 금강의 생태를 배우는 등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음

○ 주요구간(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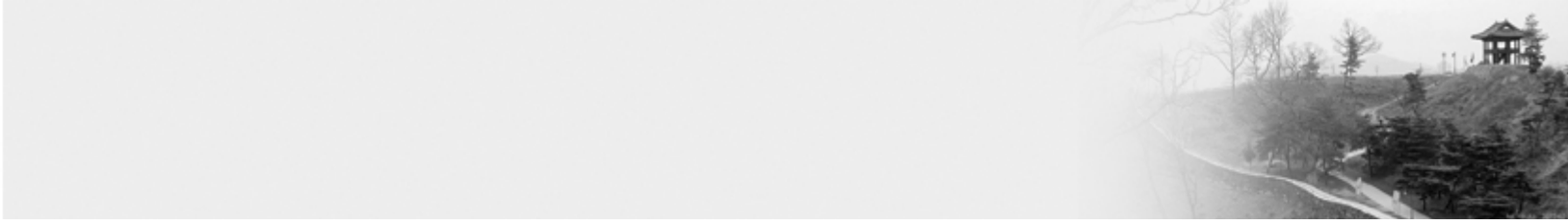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입점리고분전시관 → 웅포관광지 → 웅포대교 → 붕새언덕마을 → 성당포구마을

○ 주요자원

- 성당포구마을 : 금강과 서해를 거쳐 한양으로 세곡을 운반하기 위한 성당창이 있었던 곳으로 각지에서 올라온 물산의 집산지이자 운송의 거점지로 활기를 띠었던 큰 항구지역임
- 마을 곳곳의 벽화와 고란초 군락지, 전라북도 천연기념물 109호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둘러볼 수 있음

○ 스토리텔링자원

- 곰개나루 전설



○ 현황 및 잠재력

- 금강변포구 자전거길과 연계된 코스로 아름다운 금강을 끼고 비상하는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를 감상할 수 있으며 마을 곳곳의 벽화와 고란초 군락지, 전라북도 기념물 109호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둘러볼 수 있음
- 시작점인 입점리 고분군은 백제시대 귀족의 고분으로 백제시대의 문화와 생활상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적지로 백제역사문화지구에 포함되었음
- 성당포구와 웅포사이에 모두 세 곳의 정자가 있어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화장실은 곰개나루와 성당포구 등에 마련되어 있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보코스임
- 익산시는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산책로와 등산로, 야외공연장, 숙박시설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도보코스 완성 후 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임

○ 도보길 코스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주변 체험마을과 연계

- 주변의 붕새언덕마을 성당포구마을 등 체험마을이 곳곳에 있으며 숙박과 체험, 농수산물의 구입이 가능함에 따라 코스에 포함시켜 운영함
- 시내버스와 연계하여 지역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② 자전거길과 연계

- 금강종주자전거길이 지역간에 연결되어 별도의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지역별로 자전거 보관함 등이 마련되어 있어 자전거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경고 시설 확대

(2) 가족 및 단체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가족, 이웃 등과 함께 장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가족형 코스로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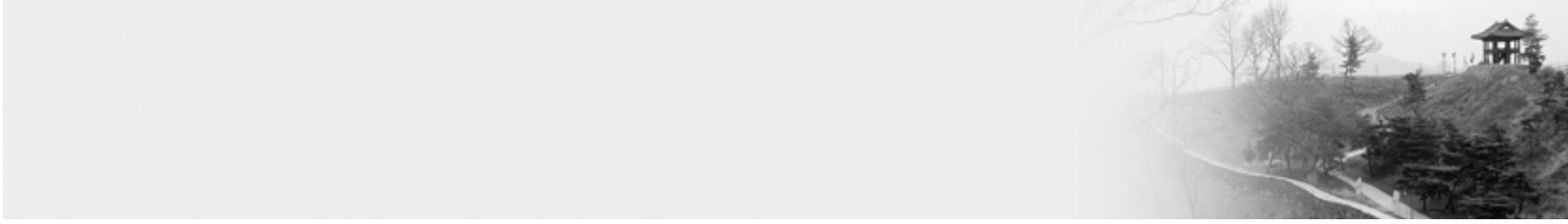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익산의 중요 백제유적을 둘러보고 자녀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고 시킬 수 있는 코스로 연결함

▌도보길 코스선정 : 무왕만남길(15.0㎞)

○ 무왕의 숨결이 배어있는 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쉽게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우선적으로 연결함

○ 주요 구간(왕복)

- 미륵사지 → 금마도토성 → 서동생가터 → 고도리석불입상 → 왕궁리유적 → 보석박물관
- 셔틀 및 대중교통 이용



○ 현황 및 잠재력

- 익산시에서는 가족건강도시 사업의 하나로 둘레길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웰빙 걷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음
- 익산둘레길은 총 6개 코스로 조성되어 있으며 본 코스에서는 무왕길에 포함되는 코스로 자전거여행이나 트레킹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 코스에 포함된 익산 토성길은 고개가 있어 조금 힘들지만 확 트인 백제유적을 바라볼 수 있어 경관이 아름다움
- 익산 둘레길 조성으로 중간 중간 쉼터와 전망대가 있어 주변의 호수와 자연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음

○ 도보길 코스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참여프로그램 확대

- 가족단위 도보여행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보고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만져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함
- 공주의 수촌리 고분군의 경우 유적 발굴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유형의 왕궁리 유적에서 모형의 유적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행사 등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임

② 자전거 및 대중교통과 연계

- 익산역이나 시내버스 등과 연계하여 여행을 편안하게 즐기고 하이킹이나 자전거 여행을 통해 논길과 호수변을 따라 걷는 재미를 가질 수 있음
- 하이킹이 가능한 코스를 종합안내판에 설치하여 도보여행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함

○ 추진 사업

-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안내판 설치

(3) 외국인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외국인 관광객의 특성상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를 연결하되 도보코스보다는 자전거나 자동차를 활용하여 코스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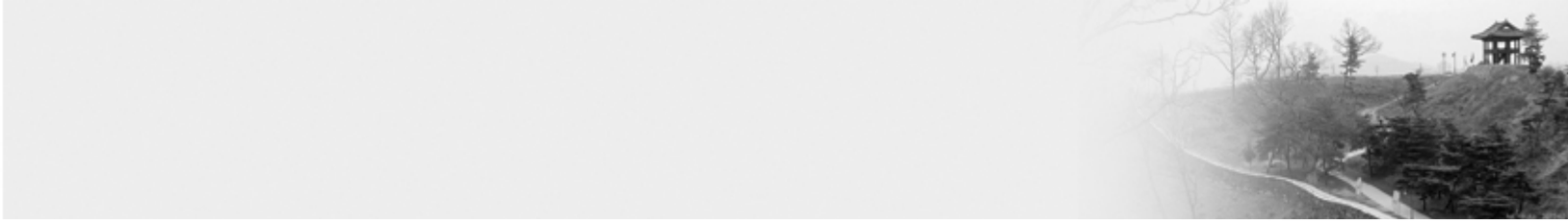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유네스코 등재후보지를 중심으로 백제문화를 외국인이 느낄 수 있는 코스를 중점적으로 연결함

▌코스선정 : 익산유네스코길(9.5㎞)

○ 백제시대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소통의 길 역할을 하되 자연과 문화를 하나로 묶는 코스로 외국인의 필수 방문지를 연결함

○ 주요 구간(왕복)

– 미륵사지 → 익산토성 → 서동생가터 → 고도리석불입상 → 왕궁리유적



○ 현황 및 잠재력

-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함에 따라 백제 왕도로서의 익산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익산시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여행코스 발굴 및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강사, 교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2012 외국인 관광홍보단을 발대하여 익산의 문화관광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공주-부여-익산으로 이어지는 백제 왕도로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백제유적의 거점으로서 역할확립이 시급함

○ 도보길 코스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참여프로그램 확대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둘레길과 유적을 연계한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로 익산만의 백제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는 익산 서동축제와 백제 옛길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이 보다 백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여행상품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의 여행사와 연계한 인바운드 관광상품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발함

② 외국어 안내시스템 구축

- 관광시장에서 주요 고객층이 중국인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외국어 통역안내서비스 및 홍보물 제작이 필요함

○ 추진 사업

-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안내판 설치
- 셔틀버스 이용 및 간이 쉼터 마련

(4) 수학여행 계획안

▌기본방향

○ 교과서 속 익산 여행지를 중심으로 기존에 익산시가 운영하는 수학여행 코스를 반영하여 코스를 계획함

○ 여러 문화재를 연결하여 코스를 조성하되 각 학교별로 수학여행 코스를 개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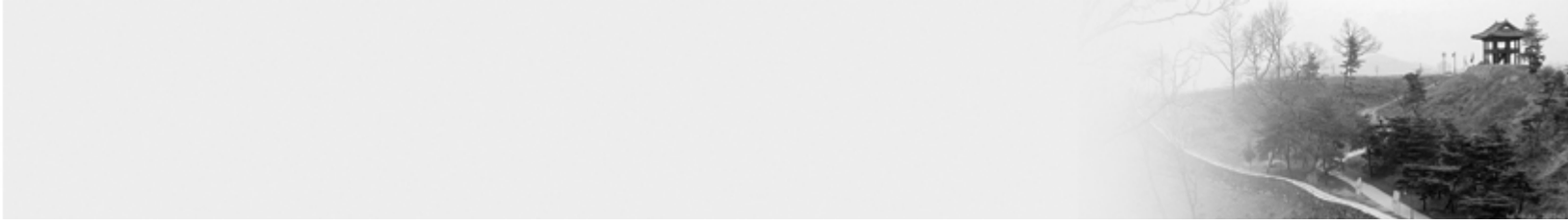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코스선정 : 어린시절 서동길(16.8㎞)

○ 교과서에 수록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여 코스를 선정함

○ 주요 구간

– 미륵사지→금마도토성→서동생가터→고도리석불입상→왕궁리유적

–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자체 순환코스로 운영하며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함



○ 현황 및 잠재력

- 익산시에서는 수학여행을 1일 코스와 2일 코스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코스임
- 또한 교과서 속 문화유적지를 연결하여 수학여행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책으로 보았던 문화유적지를 눈과 귀로 다시 들을 수 있음
- 그러나 공주나 부여, 경주에 비해 왕도로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수학여행객의 참여가 비교적 저조한 편임

○ 도보길 코스 운영 시 필요사항

① 문화유산 안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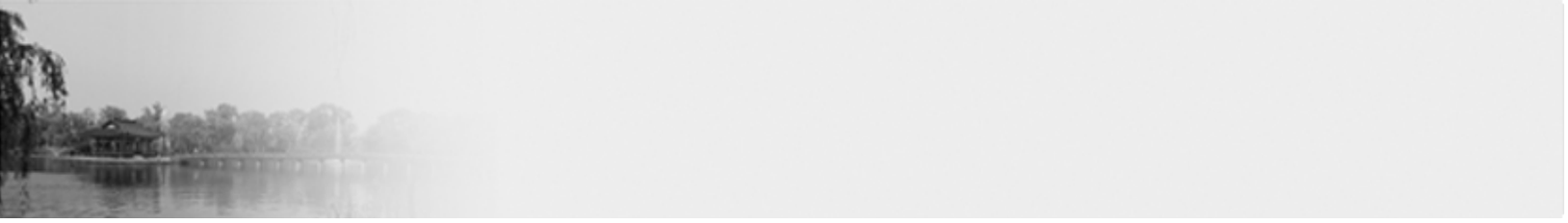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려줄 수 있는 수학여행 전담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담 배치하여 수학여행객의 만족도를 제고함
- 기존 박물관에 있는 무인안내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여 각 지점별로 관광안내시스템을 보완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안내를 도울 수 있도록 함

②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

-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을 연결하는 기존의 수학여행 코스상품을 개선하여 무왕을 따라 걷는 길, 익산의 둘레길 등 이야기를 가진 코스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2일 코스에는 지역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험과 유적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 학부모 수학여행 팸투어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가 문화유산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함

○ 추진 사업

-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안내판 설치
- 셔틀버스 이용 및 간이 쉼터 마련



6) 청양군 도보여행길

○ 청양군은 트레킹 여행길로 백제시대 왕도였던 부여와 연계된 금정어라하우물길(48.8km), 어라하왕진나루길(21.8km)을 제안하였음

(1) 트레킹 도보여행길

▌기본방향

○ 백제시대 왕에게 바친 우물을 기르러 가는 길로서 이야기가 담긴 길을 걸으며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지역의 경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아름다운 곳,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백제왕도 부여로부터 연결되는 도보길을 조성함

▌도보길 코스선정

○ 산 정상에 오르기 보다는 산자락을 끼고 완만하게 걸으며 칠갑산 주변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함

○ 금강에서 작은 수로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연계된 관광지와 칠갑산을 조망하며 이야기를 따라 걷는 길로 조성함

○ 청양의 코스는 금정우물길과 왕진나루길 등 2개 코스로 조성하였으며 각 길을 걸으며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의 청양을 감상할 수 있음

〈표 Ⅴ-9〉 청양 트레킹 도보여행길 코스

코스	세부코스명	노선	총길이 (도보시간)
1	금정어라하 우물길	백제문화단지→증산성→금강사지→거전리산촌생태마을→까치네유원지→칠갑산장승공원→금정우물→우산성	48.8㎞
2	어라하 왕진나루길	부소산성→왕진나루→서정리구층석탑→두릉윤성	21.8㎞

▌1코스 : 금정어라하우물길(48.8㎞)

○ 테마 및 목적

- 백제시대 때 의자왕이 마셨다는 금정우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로 칠갑산과 금강의 지천을 따라 걷는 아름다운 길임

○ 주요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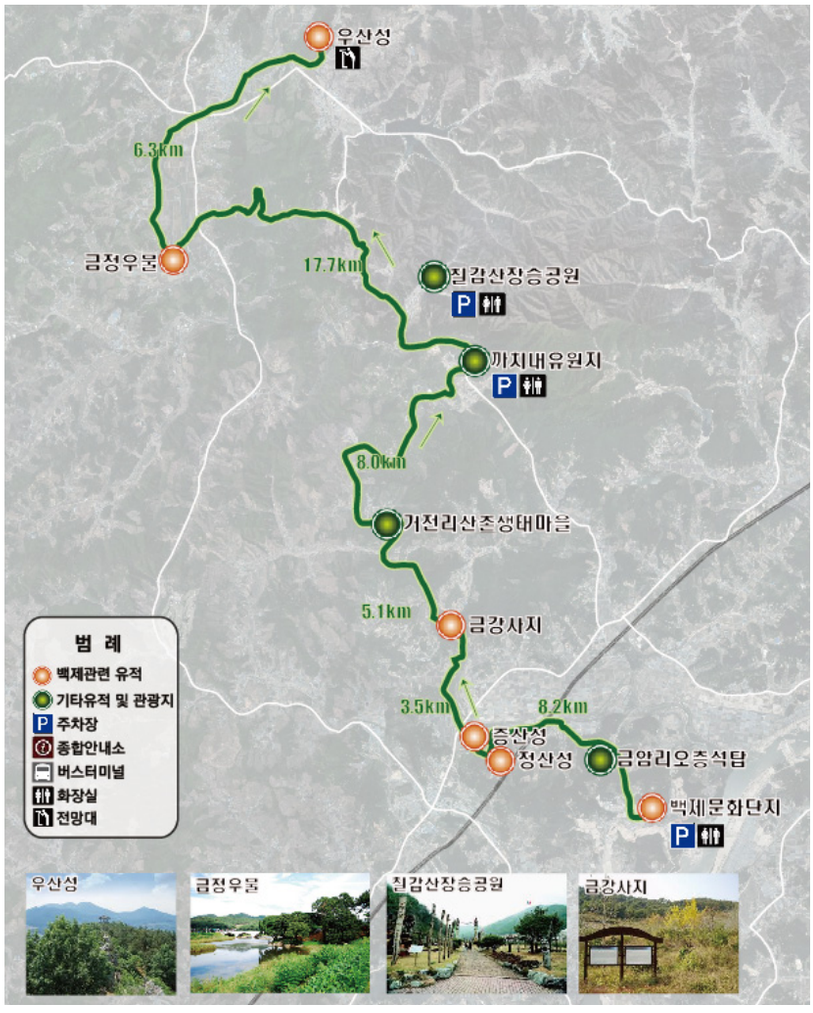
- 백제문화단지 → 증산성 → 금강사지 → 거전리산촌생태마을 → 까치네유원지 → 칠갑산장승공원 → 금정우물 → 우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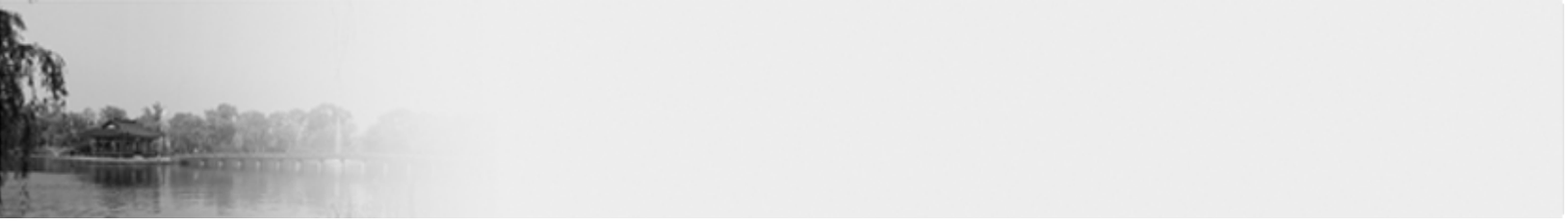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주요자원

- 금정우물 :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특징이 있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아 백제 31대 왕 의자왕이 이 우물물만 마셨다는 전설이 내려옴

○ 스토리텔링자원

- 금정우물과 의자왕





○ 현황 및 잠재력

- 부여와 청양을 연결하는 코스로 백제시대 의자왕이 마시던 우물을 길어오던 이야기가 전해지는 길로 당시 금정에서 사비성까지 왕복하는데 하루종일이 걸렸다고 전해짐
- 물을 길어 가는 왕궁사람들이 남양면 옥직리와 부여군 장평면 거전리 사이에 있는 고개를 넘을 때에 해가 기울어서 그 고개 이름을 사양티로 불리었으며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음
- 금정우물은 지금도 마을사람들에게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운영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객들이 쉽게 마시거나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금정우물길은 곳곳에 배치된 관광자원 및 역사자원을 둘러가는 길로 기존에 사료에 제시와는 달리 칠갑산을 돌아가는 루트임

○ 도보길 코스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안내 및 경고 시설

- 금정우물길은 등산로 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릉 위한 안내가 필요하며 마을길로 들어서는 입구나 지역을 우회하는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야 함
- 특히 농로나 등산로를 걸을 때 파충류 위험 등의 경고문구가 담긴 안내시설이 필요함

② 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 코스내 마을길 경유구간이 많아 주민 및 상인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함
- 특히 마을회관이나 정자 등의 이용을 위하여 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협력을 추진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위험 경고 시설 확대

▌2코스 : 어라하 왕진나루길(21.8㎞)

○ 테마 및 목적

- 왕이 다녀간 나루라는 뜻으로 청양군 청남면과 부여군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던 왕진나루에서 정산의 두릉윤성까지 연결하는 도보길로 금강과 농촌을 연결하는 코스임

○ 주요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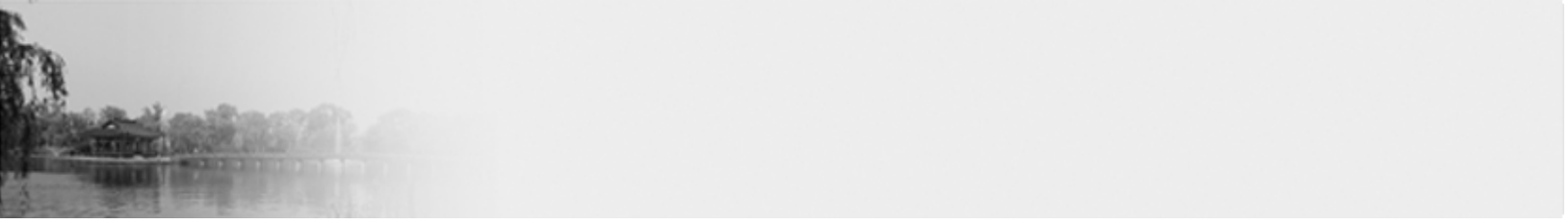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부소산성 → 왕진나루 → 서정리구층석탑 → 두릉윤성

○ 주요자원

- 왕진나루 : 왕진나루는 백제시대에 '왕이 다녀간 나루'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졌으며, 인근 마을 이름도 또한 같은 뜻으로 원왕진으로 불리움
- 두릉윤성 ; 백제때 열기현에 속해서 백제가 서북쪽으로 번영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였으며 백제 멸망 후에는 백제 부흥군의 요람지로 저항하던 성임

○ 스토리텔링자원

- 왕진나루 전설, 두릉윤성 전투



○ 현황 및 잠재력

- 두릉윤성은 백제시대 왕도인 사비(부여)의 북방에 위치에 수도를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웅진과 사비가 함락된 이후에는 나당연합군의 교통로를 끊는 전략적 요충지였음
- 현재 청양군은 두릉윤성 백제부흥군 위령제를 열고 있어 이와 연계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공주 부여 등 백제문화권과 연계된 길로 조성하여야 함
- 왕이 다녀간 나루라는 뜻으로 지어진 왕진나루는 백제보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역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도보길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역사적 고증을 통한 역사문화재 정비

- 두릉윤성은 최근까지도 성벽의 많은 부분이 허물어지고 훼손되어 원래를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백제옛길의 거점으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어 산성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이 백제시대 산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 활용하여야 함
- 왕진나루는 사비성의 외곽나루로 백제보를 통해 일부 복원되고 있으나 공원이나 캠핑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전해 내려오는 전설 등에 대한 안내 등 일부 시설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② 구간별 쉼터 및 안내시설

- 두릉윤성까지 가는 길은 쉼터가 거의 없어 마을 정자나 회관에서 쉬어가야 하며 그 외 쉼터는 조성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산책로 및 마을 주변 등 곳곳에 간이 쉼터를 조성하고 손발과 신발을 씻을 수 있는 화장실과 식수대 등을 조성하여 도보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
- 주변의 약초 및 특산품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쉼터를 통해 조성함

○ 추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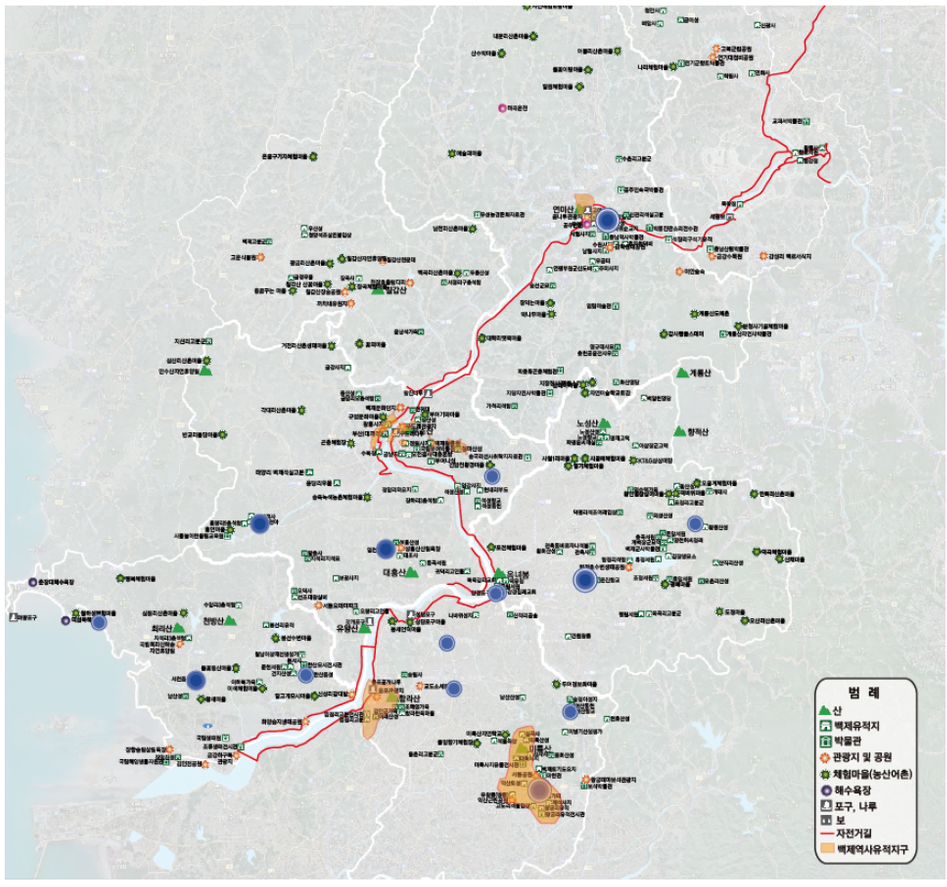
- 역사문화자원 정비, 등산로 정비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경고 시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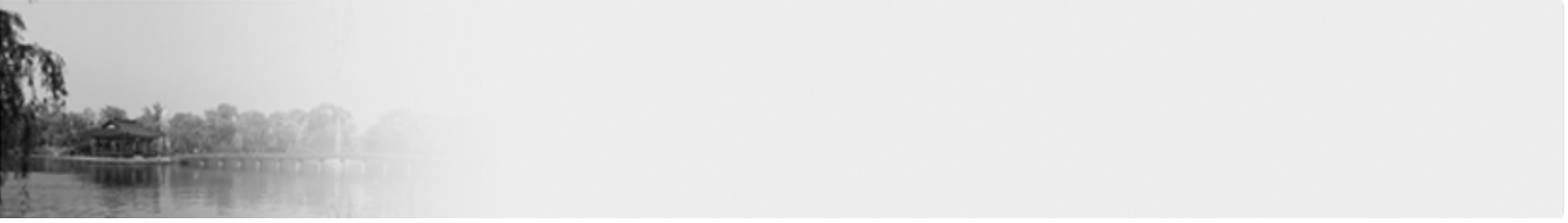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7) 비단강 자전거 여행길

(1) 금강 웅비천(웅진-사비-서천) 자전거여행길 코스

▌전체코스

-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비단물길 금강길은 자전거 길을 따라 금강변의 수려한 자연과 역사 문화경관을 찾아 떠나는 테마길임
- 세종시부터 연결되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지나 서천의 금강하구둑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46㎞의 여행길로 길이 평탄하고 표지판과 안내판이 꼼꼼하게 세워져 있으며 조용하고 평안한 풍경을 이루고 있음
- 금강자전거길은 백제옛길의 대상 지자체를 모두 통과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백제 옛길 구간과 연계하여 이용함
-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백제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백제 옛길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주요코스 : 세종시 → 공주시 → 부여군 → 강경 → 서천





(2) 연계코스

▌1코스 : 웅진백제 자전거 여행길

○ 공주시에서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확대를 목표로 자전거 도로 및 무인 자전거를 보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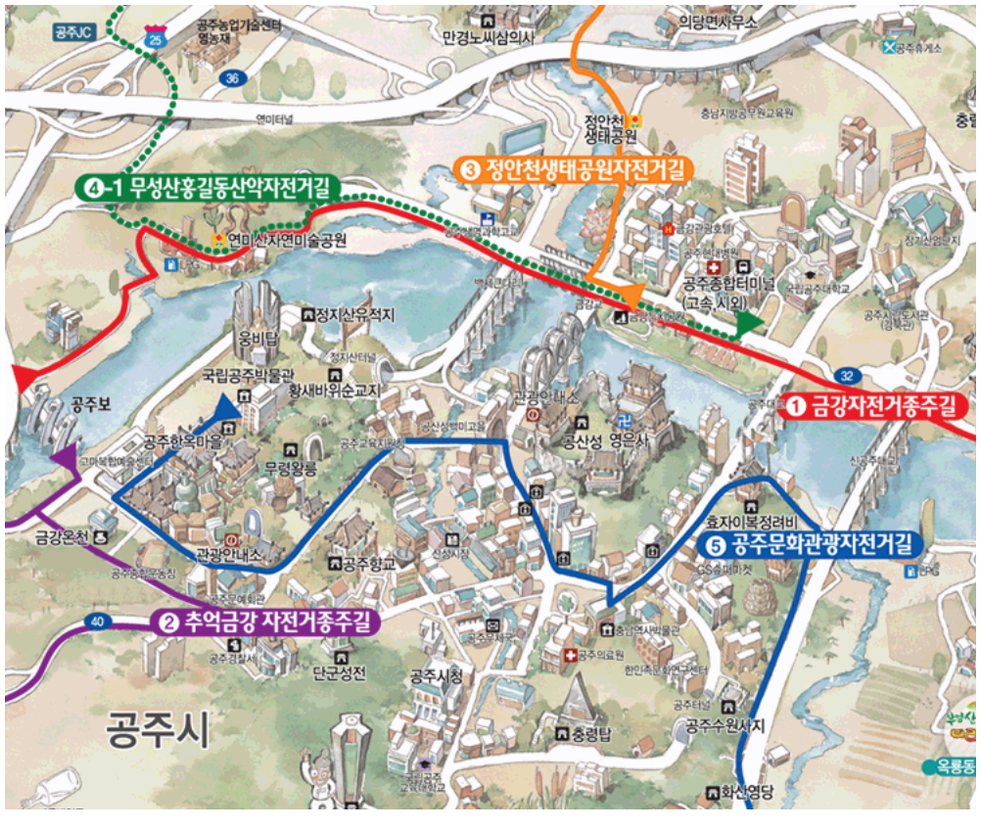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안전시설 확충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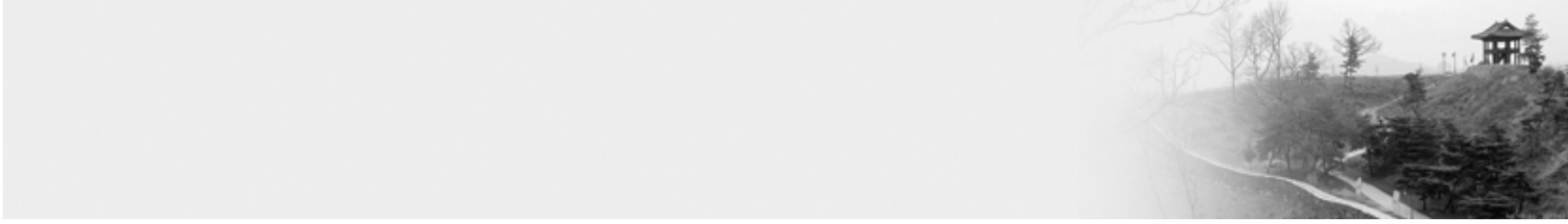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또한 곳곳에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Eco-station)을 설치하여 공공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 요금결재 등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음

○ 공주시는 금강길 자전거 대행진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현재 총 5개의 코스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 하고 있음

○ 주요구간 :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공산성, 효자이복정려비, 수원산성, 연미산 등





▌2코스 : 사비백제 자전거 여행길

○ 쾌적한 도심환경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무인자전거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전거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함

○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전시관, 서동공원 등 3개소에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 30여대의 자전거를 비치하고 있음

○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약 3배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등 자전거 동호인과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현재의 설치장소와 자전거 대수를 확대하고 부소산성, 구드래, 부여박물관 등 부여읍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돌아보고 반납할 수 있는 자전거 연동제 대여 시스템 도입이 필요

○ 주요구간 : 부여산성,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궁남지, 능산리고분군 등

▌3코스 : 어라하 사냥길(10.9㎞)

○ 테마 및 특징

- 기존 부여군에서 조성한 장암송죽억새길과 연계된 코스로 걷기 좋은 평탄한 코스가 농촌경관을 배경으로 길게 이어져 있음
-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변활동 및 자연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천혜의 자연조건과 백제역사의 조화가 돋보임

○ 주요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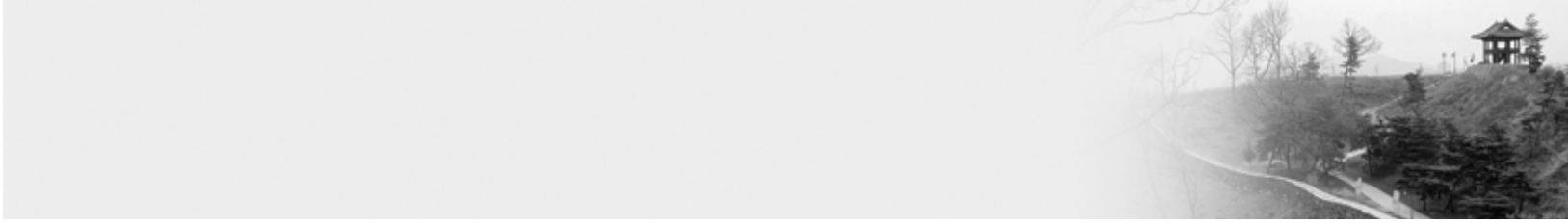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송죽녹색농촌체험마을 → 정암리와요지 → 장하리삼층석탑 → 남산초등학교(폐교)

○ 주요자원

- 정암리와요지(사적 제373호) : 부여에서 남쪽으로 4km떨어진 백마강가의 내동마을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백제시대 요지임
- 장하리삼층석탑 : 정림사지오층석탑의 양식을 모방한 백제계석탑으로 고려시대에 건립되었음

○ 스토리텔링자원

- 옥녀산(백제시대 임금 사냥터), 시루봉(백제시대 신하들 좌객 산), 해태(해타의 신력)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어라하 사냥길은 부여군의 사업인 억새길과 주변 백제자원을 연결하여 트레킹 코스로 운영하고 다양한 수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보길을 조성함
- 송죽억새길은 금강권 생태관광과 연계한 친수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변 억새길을 정비하고 관광안내시설을 설치한 도보길임
- 송죽농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하여 금강 수변 등이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생태관광과 연계한 도보길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그러나 백마강 근처 야산에 자리한 정암리 와요지는 주변에 수풀이 무성하고 문화재로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보코스로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도보길 코스 운영시 필요사항

① 백제 문화재 유적 정비 필요

- 현재 야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움에 따라 접근이 보다 용이토록 주변의 수풀제거 등 관리 운영이 시급함

② 지역과 연계한 편의시설 설치

- 지역내 폐교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며, 학교내 벤치, 공터 등을 활용한 쉼터의 조성이 필요함
- 금강변을 중심으로 금강이 조망한 곳에 비가림시설이 포함된 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함

② 통행경고 및 안내 시설

- 억새길이 끝나는 곳에서 장암면소재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차량통행이 많아 위험하며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아 이에 대한 경고안내가 필요함
- 또한 장암면소재지를 경유하는 코스에 따라 안내 및 우회경로의 안내가 필요함

③ 지역 체험관광자원 연계

- 송죽농색농촌체험마을을 통해 농색농촌체험마을에서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판 및 경고시설

▌4코스 : 성흥산성 솔바람길(23.9㎞)

○ 테마 및 특징

- 백제시대 수도를 수호하기 위해 축조된 성흥산성을 중심으로 강경 옥녀봉까지 이어지며 주변의 임도를 중심으로 걷는 코스임
- 성흥산성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지대가 높아 금강을 조망할 수 있으며, 특히 강경 옥녀봉에서 본 일몰은 논산 7경에 꼽힐 정도로 장관임
- 그러나 임도를 중심으로 조성됨에 따라 성흥산성에서 이어지는 난코스가 많은 편임

○ 주요 구간(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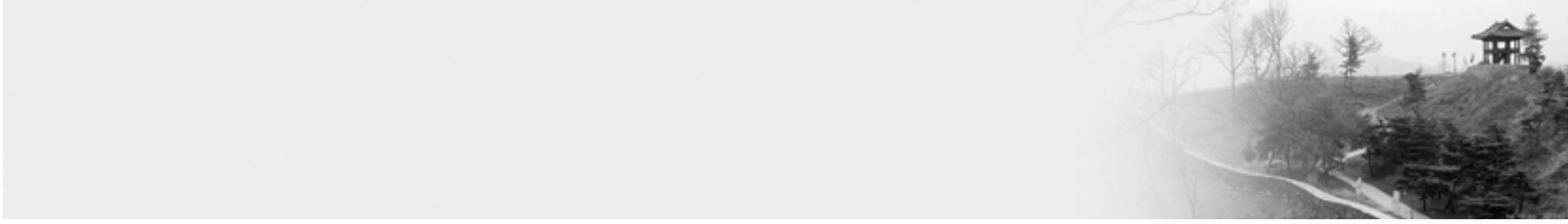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옥녀봉 → 동곡서원 → 대조사 → 성흥산성 → 유금필장군사당 → 임천향교

○ 주요자원

- 성흥산성(사적 제4호) :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백제 동성왕 23년인 501년에 도읍지인 웅진과 사비를 수호하기 위해 금강하류가 조망되는 곳에 만들어진 테뫼식 석성임
- 대조사 : 성흥산 남쪽 기슭에 있는 사찰로 사적기(寺蹟紀)에는 527년(성왕 5년) 담혜(曇慧)가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 《부여읍지(扶餘邑誌)》에는, 백제 불교를 중흥시킨 겸익(謙益)이 세운 것으로 되어 있어 두 기록이 다른 까닭은 알 수 없으나 6세기 초에 건립된 것은 확인됨

○ 스토리텔링자원

- 가림성, 사랑나무, 유금필장군, 대조사, 강경 옥녀봉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부여 가림성 솔바람길과 연계한 도보코스로 성흥산성에서 강경 옥녀봉까지 마을길과 농로를 따라 걷는 길임
- 성흥산성의 둘레를 도는 솔바람길을 걸으며 4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사랑나무(느티나무)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평야지대가 장관임
- 강경 옥녀봉에서는 금강과 드넓게 펼쳐진 평야 등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주변의 근대역사거리와 젓갈시장이 있어 볼거리가 풍부한 지역임
- 임천-세도-강경으로 이어진 이 길은 기존의 솔바람길 및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길로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예상됨

○ 걷는 길 운영 시 필요사항

① 스토리가 있는 길 조성

- 백제의 가림성이었던 성흥산성을 중심으로 백제시대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라 길에 이야기를 부여하여 테마로 활용함
- 특히, 사랑나무에 대한 전설을 토대로 연인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로 조성하여 궁남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② 통행경고 및 안내 시설

- 성흥산성은 솔바람길 조성을 통하여 안내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강경으로 연결되는 동곡서원길은 안내 및 편의시설의 부재로 확대가 필요함
- 세도에서 강경으로 이어지는 황산대교의 경우 차량통행이 많으며 인도가 노출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경고안내가 필요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위험경고 시설 확대

▌5코스 : 유왕산길(17.6㎞)

○ 테마 및 특징

- 백제의 패망 후 왕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했던 유왕산을 중심으로 우여회가 유명한 갓개포구, 드라마 촬영지인 서동요테마파크를 연결하는 길임
- 갓개포구에서 유왕산까지 백제의 마지막 길을 돌아보고 아름다운 패망의 역사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코스임

○ 주요 구간(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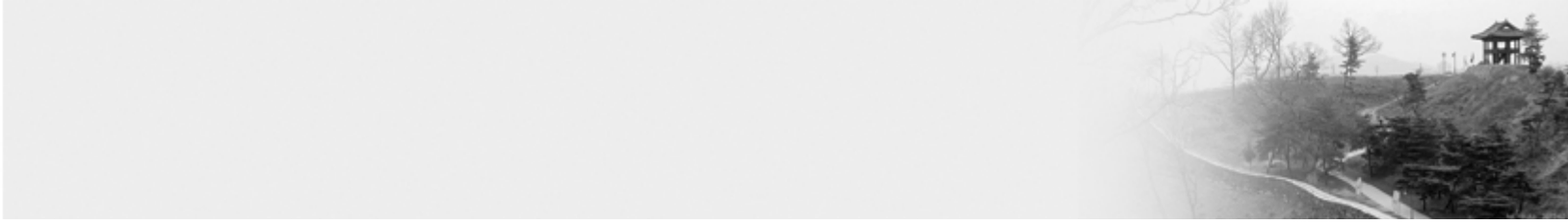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갓개포구 → 유왕산 → 서동요테마파크 → 오덕사 → 팔충사

○ 주요 자원

- 유왕산 : 660년(의자왕 20)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하자 의자왕 등의 왕족과 대신, 유민 1만 2800여명이 당나라로 잡혀가게 되자 백제인들이 잡혀가는 왕을 잠시라도 머무르게 하기 위해 이산에서 기다렸다고 하여 유왕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짐(유왕산추모제)
- 서동요테마파크 : 약 1만여평의 대지위에 조성된 오픈세트장으로 백제의 30대 왕인 무왕의 사랑이야기로 알려진 서동요를 드라마화 한 곳의 중심지를 테마파크로 조성하였음

○ 스토리텔링자원

- 의자왕과 유왕산, 서동요 이야기, 백제 팔충신(팔충면 지명 유래)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유왕산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 나서는 도보길로 갓개포구에서 출발하여 서동요테마파크, 팔충사로 이어지는 코스가 비교적 어려운 도보길임
- 갓개포구에서는 매년 갓개포구 우여축제가 개최되는데 백제의 맛을 상징하는 우여는 부여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의자왕이 보양식으로 먹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 마을을 지나가는 코스로 지역의 농로나 소로를 따라 이동하여야 하며 서동테마파크에서 팔충사로 이어지는 코스는 산이 높아 길이 가파르고 비교적 힘든 코스임

○ 도보길 운영시 필요사항

① 스토리가 있는 길 조성

- 본 코스는 의자왕과 관련된 팔충신, 갓개포구, 유왕산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각 구간마다 스토리라인을 구축하여 도보길에 반영함
- 백제의 팔충신 등 인물을 활용한 테마를 코스에 적용하여 안내를 함으로써 학습효과와 흥미를 제공함
- 인물을 테마로 한 안내시설을 적용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 인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함

② 주변 편의시설 확충

- 산으로 연결된 구간이 많아 어려운 코스가 많아 타 구간에 비해 쉼터가 비교적 짧은 거리로 조성되어야 함
- 일부구간 중 노약자가 걷기 어려운 구간은 경고 및 우회 경로를 안내함
- 마을길로 우회함에 따라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함

○ 추진 사업

- 쉼터 및 식수대, 화장실 조성
- 안내 및 경고 시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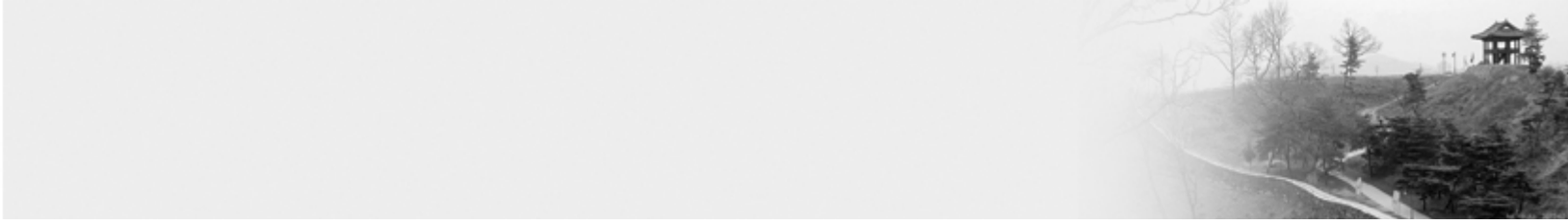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8) 비단강 뱃길 여행

○ 테마 및 특징

-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뱃길 복원이 부각됨에 따라 소통과 교류의 물길이었던 금강의 옛모습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함을 목적으로 함
- 비단강 뱃길 여행은 백제역사문화유적이 분포된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내 축제 및 수변자원 등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강의 뱃길을 연결함
- 또한 강을 따라 찬란한 역사를 꽃피웠던 대백제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관광객들이 변화된 금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될 것임

○ 주요 구간(왕복)

- 부여~강경~하중도~신성리갈대밭
- 현재 운영 중인 부여의 뱃길에서 확대되어 금강 하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할수 있도록 함



○ 주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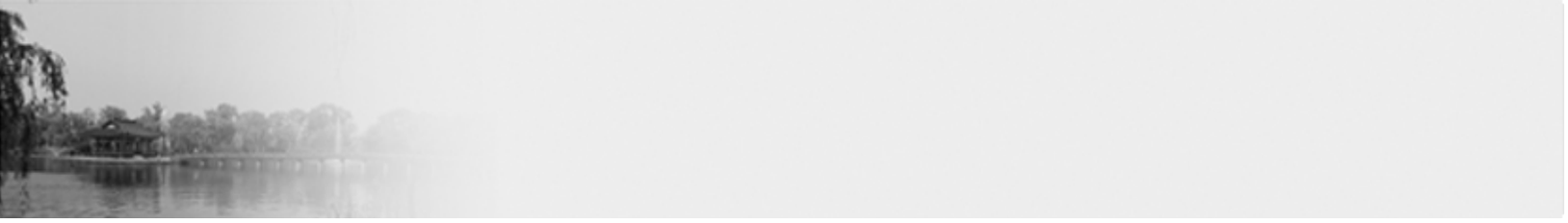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구드래 나루터(사적: 제6호) : 백제시대에 외국 사신들이 부소산성을 드나들었던 유서 깊은 포구로, 구드래란 큰나라라는 뜻의 백제를 말하며 현재는 백마강의 유람선 선착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강경포구 : 주변의 평야지대와 연계된 관문으로 일찍부터 수운이 발달하여 조선중기부터는 여각, 객주, 상선을 갖춘 거상들로 인하여 조선말 전국 3대 시장이었으며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일제시대 초기까지 2대 포구로 명성을 떨쳤음
- 신성리갈대밭 : 영화 JSA의 촬영지로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의 하나임

○ 스토리텔링자원

- 구드래나루, 백마강이야기

○ 운영현황 및 잠재력

- 부여군에서는 고란사선착장에서 구드래나루와 수북정 선착장까지 옛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내부는 편의시설과 안전설비를 갖춘 47인승 황포돛배 14척을 운영하고 있음
- 논산시 강경에서는 강경포구만들기 조성사업을 통하여 강경포구 옛모습의 재해석을 통한 근대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즐길수 있는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함
-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하여 부여군에서는 수상관광시대를 선포하고 부여 고란사선착장에서 논산 강경선착장에 이르는 24㎞ 금강 뱃길에 '금강유람선'을 우선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신성리 갈대밭으로 확대 운영하여 운영하고자 각 지역간 MOU를 체결하였음(2012년 7월)



- 4개시군은 공동으로 수상관광활성화 공동개발을 위한 4개시군 MOU 체결과 시군 공통사업 중 뱃길 노선개발, 나루터 조성, 나루터 특산품 전시·판매점 운영 등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 위주로 1단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국비확보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함
- 금강뱃길 운영시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 자연생태축을 활용한 여가중심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도보길 운영시 필요사항

① 문화관광콘텐츠 확충

- 나루, 포구, 조창 등의 조사, 발굴을 통해 다양한 문화역사자원을 복원하고 황포돛배체험과 뱃길 탐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함
- 강과 주변마을을 연계하여 옛길을 복원하고 강 주변의 정자를 연계하는 풍류가도를 조성하여 운영함
- 선상공연과 강변문화행사, 축제, 이벤트 등과 연계하고 전통돛배, 백제시대때의 고선박 등을 이용한 체험상품도 개발함

○ 추진 사업

- 나루터 및 포구 확대
- 안내 및 경고 시설 확대
- 고증을 통한 선박 설비 조성

▌웅진뱃길

○ 웅진뱃길은 공주시내를 통하는 금강의 주변을 배를 타고 운행할 수 있는 길로 곰나루를 중심으로 공산성까지 이르는 뱃길임

○ 공주시에서 현재 뱃길을 운영 중에 있지는 않으나 백제문화제 등 축제 기간에 황포돛배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웅진 뱃길의 활용을 위해서는 곰나루에 전해지고 있는 전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자원을 보강하고 근대까지 활용했던 공산성 나루터를 복원하여 뱃길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사비뱃길

○ 구드래나루를 중심으로 한 사비 뱃길은 금강의 16㎞구간인 백마강을 중심으로 고란사선착장에서 수북정선착장까지 현재 조성되어진 뱃길을 활용함

○ 사비뱃길은 낙화암의 조망이 가능하며, 조룡대, 자온대 등 백제의 전설이 내려오는 역사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어 스토리텔링자원과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부여에서 운영 중인 황포돛배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섬세하고도 여유로운 백제인의 마을을 느낄 수 있는 자원임

○ 부여군은 수상관광시대를 선포하고 수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며 금강하류와 연계하여 뱃길의 확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청양의 왕진나루는 백제보와의 경계로 연계활용이 어려움

○ 사비뱃길의 운영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걷는 즐거움에서 배를 타는 즐거움, 주변의 관광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즐거움 등 색다른 재미를 부여 할 것으로 사료됨

▌강경뱃길

○ 강경포구는 군산과 부여, 공주를 지나던 금강뱃길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 뱃길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금강의 하류에 위치하여 강폭이 넓고 깊어 포구가 발달할 수 있었음

○ 강경포구만들기 조성사업을 통해 조선 2대 포구 및 3대시장이었던 강경포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근대역사문화유적을 관람할 수 있는 연계성을 확보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 강경시내와 연결되어 옥녀봉, 천주교 성지 등과 향후 조성되어지는 강경포구체험과, 강경포구문화공원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함

4.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백제옛길 관광루트 개발(안)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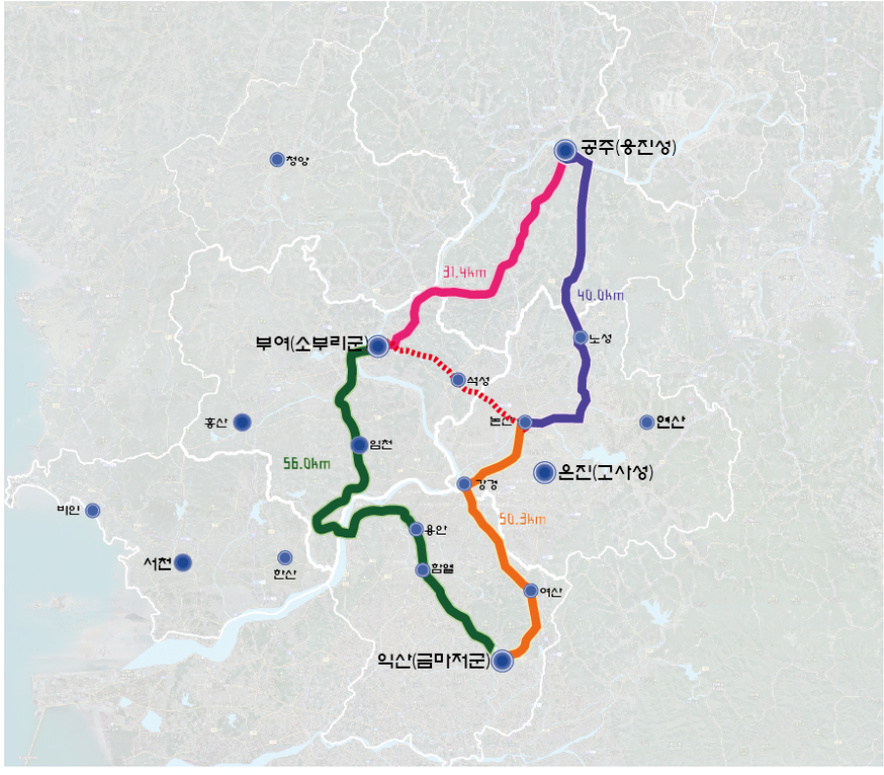
○ 공주시 공산성, 부여군 정림사지, 익산시 미륵사지, 논산시 황산벌, 천안시 천빛사, 충북 충주지 백제지 등 백제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지정하고 이들 유적지의 관광편의시설을 확대하여 관광수요 창출

- 본 보고서에서는 연결 관광루트 중 백제 옛길 조성사업에 포함되어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논산시 지역 177.7km에 대한 루트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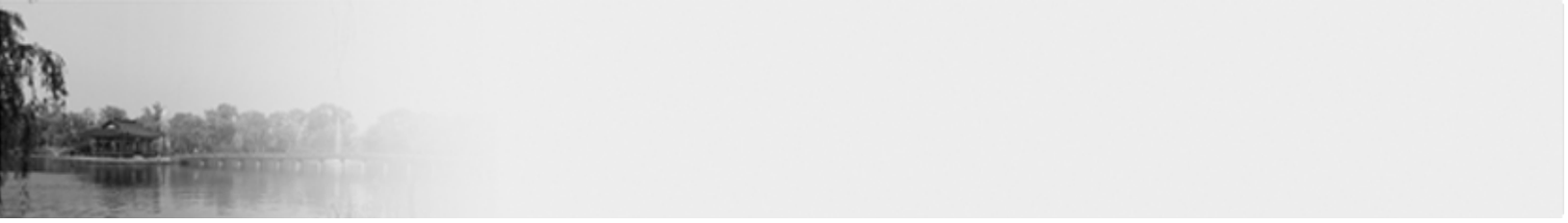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권 유적지 정비 및 백제권 관광수요를 확보하여 유적지 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 달성

- 내륙첨단산업권의 문화관광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내륙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백제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 확보
- 전북, 충남권의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증대 가능

○ 백제문화 유적지 관광루트는 백제 옛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보와 자전거, 자동차로 이용하는 루트의 복합형으로 구성하고, 지역내의 코스는 도보와 자전거 여행코스로 제시



[그림 V-2] 내륙첨단산업권 백제옛길 루트 개발(안)



2) 거점과 대표관광자원

▌스토리텔링자원

○ 공주권역 : 공주수원사 미륵선화 전설, 부처당이마을 (탄천), 팥죽고개(이인)

○ 부여권역 : 계백장군설화, 오천결사대 출정

○ 논산권역 : 황산벌전투, 황산성, 개태사 연기설화, 마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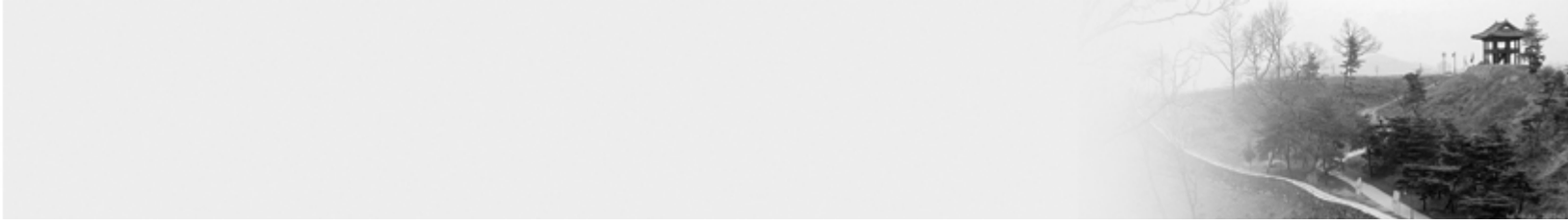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익산권역 : 미륵사·미륵탑 창건이야기, 후백제와 왕궁탑

▌지역별 거점지 및 자원

○ 내륙첨단산업권 종합발전계획 상의 백제옛길 루트는 공주에서 부여, 익산, 논산을 연결하는 루트로 백제의 대표 유적지를 답사하는 루트임

〈표 Ⅴ-10〉 각 지역별 주요거점 및 자원

지역	주요거점	대표 관광자원	스토리텔링자원
공주	공산성 곰나루관광지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연미산자연미술공원	곰나루 전설 공주수원사 미륵선화전설 엄대암(백제멸망장군이야기) 등
부여군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 성흥산성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능산리 고분군, 궁남지, 대조사	무왕-선화공주이야기 의자왕-삼천궁녀 대조사 창건설화 백제패망과 소정방
논산	탑정호 강경읍	관촉사, 계백장군유적지, 백제군사박물관, 노성산성	황산벌이야기 백제장수의 충절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 입점리고분	왕궁리유적, 입점리관광지, 금마관광단지, 미륵산성	미륵사 창건설화 견훤의 말 서동이 마를 캐던 산



3) 추진사업

(1) 백제옛길 관광루트 개발

○ 지역별 주요 유적지 정비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

- 지역별 주요 유적지에 대한 정비 및 발굴의 지속적인 추진과 유적지내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함

○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원노선 연계

- 순환형 루트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셔틀버스의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순환형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4개 시군의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이 연결되도록 추진함

○ 종합안내판 등 안내시설 설치

-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단체나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동이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복합환승센터 설치

- 관광객 이용의 편리성과 다양한 경험 제공을 위해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함
- 복합환승센터는 도보와 자전거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 및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 주차장 및 안내센터와 관광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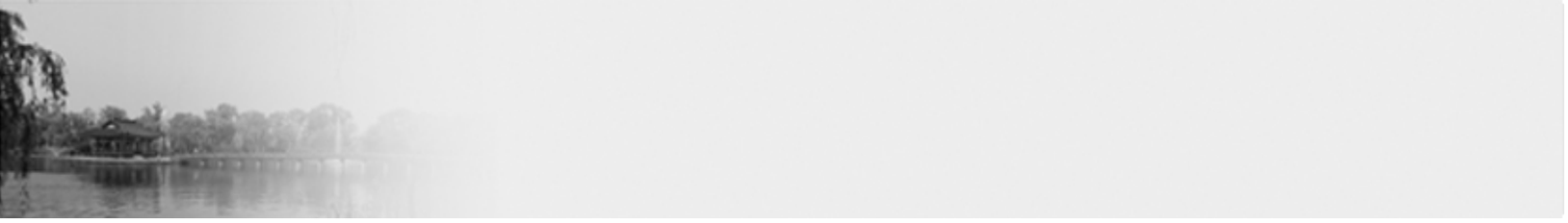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2) 스토리텔링 공모전 운영

○ 백제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극본의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극본을 디지털영상화하여 시판함

- 전국규모의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극본을 창작제품화하여 이를 시판하거나 관광객에게 시연함으로써 백제역사문화를 일반에 널리 보급하는 계기를 마련함

○ 전국대회를 통해 다양하고 독특한 극본공모가 가능하며 시상을 통해 전문가로 데뷔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함

- 관광수요와 더불어 백제문화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수요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공모된 극본의 상품화뿐 아니라 제작자의 데뷔도 가능



(3) 전시회, 축제 및 포럼 운영

○ 부여의 백제문화재현단지 등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전시회(예를 들어 '2010 대백제전)등을 개최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유발하고 백제문화를 보급·확대함

- 유물, 서화 관련 전시회 상설화
- 백제문화 공연(백제의상 시연회 등), 창, 마당극 시연

○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컨퍼런스 및 포럼을 운영하여 백제문화에 대한 고찰과 일반인에 백제문화 전파하는 창구로 활용함

○ 익산 서동축제 개최

- 천년고도 백제문화와 서동, 선화공주의 세계적인 사랑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익산서동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
- 무왕제례, 서동선화 행차퍼레이드, 서동선화어린이 인형극, 시민참여마당 등 추진

(4) 비즈니스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유통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함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국제적 교류회 및 세미나 지원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컨퍼런스 개최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앱 커뮤니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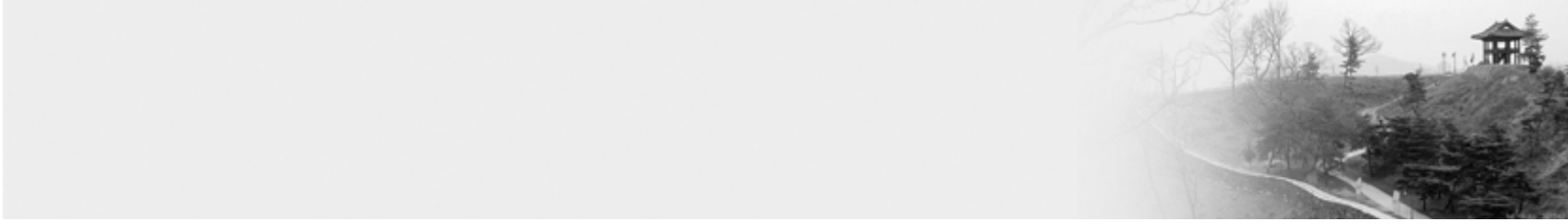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가상공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 커뮤니티 운영

-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을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운영

Ⅵ. 관리운영 방안

1. 관리운영방안
2. 가이드라인 설정
3.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4. 백제옛길 네트워크 방안



1. 관리운영방안

1) 관리운영 방향

(1) 기본방향

▌운영 주체간 파트너십의 강화

○ 백제 옛길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

○ 특히, 지역에서 유사한 자연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단체나 기관, 도보 관련 동호회 등이 높은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다양성과 방문객 만족도의 제고

○ 어떤 지역의 탐방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자원성에 의존적이며, 자원의 고유성을 발굴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고 탐방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기반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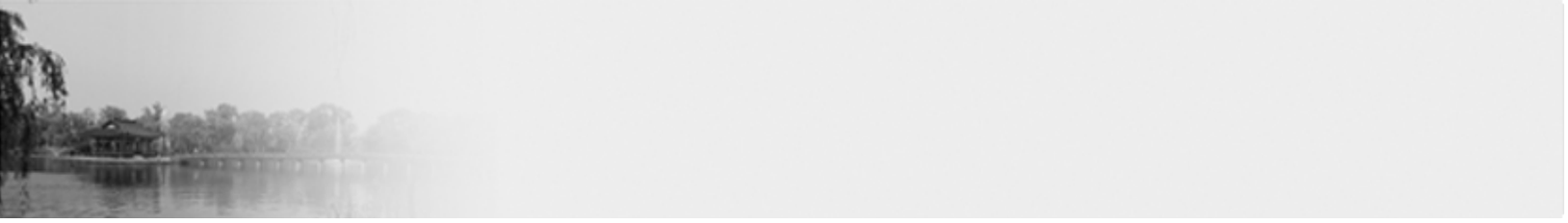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 옛길 프로그램은 일회에 완결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평가-개선의 진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개발이 필요함

▌적극적 주민 참여를 통한 유지관리비용의 최소화

○ 대부분의 백제옛길 시설은 문화시설과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용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인 개선과 변화를 필요로 함

○ 이 모든 측면이 유지관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백제옛길이 갖고 있는 선적인 특성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지역민들이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가급적 직접적인 관리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관리운영체계 구성

(1) 전제 조건

○ 백제 옛길 운영조직의 법적지위로 고려 가능한 것은 ① 신설법인체, ②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자체 연합 행정기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운영방식은 법적지위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민간 위탁을 통해 간접 운영할 것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법적지위에 따른 운영방식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백제옛길 운영조직의 정체성 확립 및 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운영주체별 특징

▌신규 법인

○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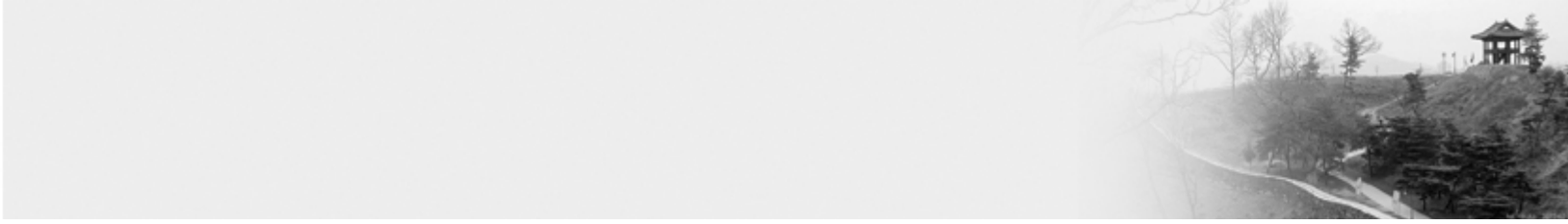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민법 제32조 적용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
- 건립 주체가 법인 출연금을 통해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법인의 이사장이 되어 연구기관을 운영, 지휘, 감독

○ 설치근거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
- 민법 제32조

○ 법인형태

-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제3섹터법인으로 구분됨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정한 후 일정한 법인 설립절차를 거쳐 행하는 설립자들의 합동행위임
- 재단법인은 앞서 설명한 사단법인의 설립요건과 유사하나 설립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야 함
- 제3섹터는 민관공동출자 방식을 그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지



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의 설립) 및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표 Ⅵ-1〉 법인 형태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사단법인	• 설립 비용 절감 • 전문성 확보 용이	• 조직 구성원 책임감 결여 • 예산 운영의 경직성
재단법인	• 조직의 안정성 확보 • 독립적 사업 추진	• 출연기관의 재정적 부담
제3섹터 법인	• 조직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 가능	• 공공성과 영리성의 조화에 어려움 • 책임소재 불명확

○ 신규 법인체의 장점

-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지속적인 조직의 안전성, 자생력 제고 가능
-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인체 운영을 위탁하기 용이

○ 신규 법인체의 단점

- 초기 출연금을 비롯한 안정적 재원확보의 노력 필요
- 초기 안정화 및 자립 단계까지 장기간의 시간 소요
- 관리감독기관과의 연계성 저하
- 지자체 관리감독에 시간과 비용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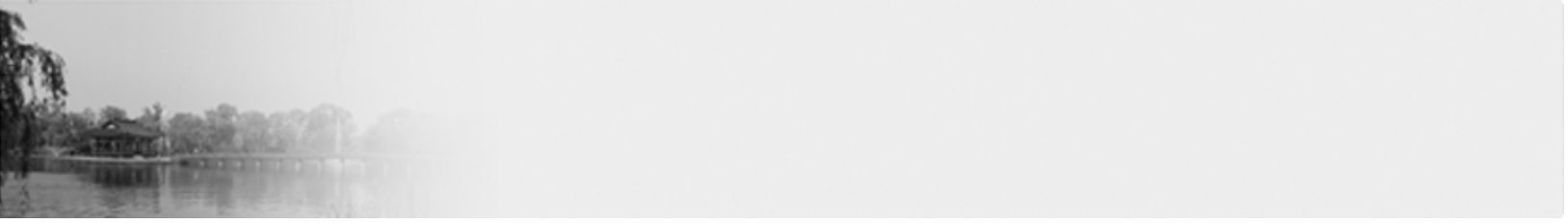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지자체 행정기구

○ 운영체계

-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행정기구로 소관 지자체 산하에 두고 관리 운영하는 체계
- 지자체 예산으로 조직의 운영 및 각종 사업비 지원
- 별도의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

○ 설치근거

- 해당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 장단점

- 장점 : 책임 경영가능, 운영비의 안정적 확보
- 단점 : 자율적, 독립적 운영 불가능,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표 Ⅵ-2〉 설립주체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신규 법인체	• 운영의 독립성 보장 • 운영의 자율성 보장 • 조직의 안정성	• 출연금 확보 필요 • 중앙정부(지자체) 관리감독에 비용과 시간 소요
지자체 행정기구	• 책임경영 가능 • 운영비의 안정적 확보	• 각종 사업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 불가능 • 지자체 재정 부담

(3) 운영 방법

▌직접운영

○ 백제옛길 운영조직을 법인체, 행정기구, 지방공기업 등의 법적지위로 설립하고 주체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하는 방식

▌간접(위탁)운영

○ 백제옛길 운영조직을 법인체, 행정기구, 지방공기업 등의 법적지위로 설립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소관 사무를 타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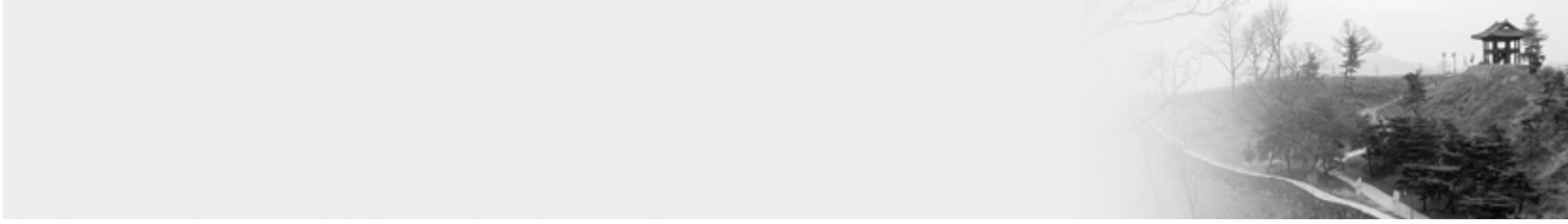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4) 대안

▌대안1 : 길 여행 민간조직을 활용한 사단법인 설립

▌대안2 : 각 지자체와 민간조직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인 제3섹터법인 설립

▌대안3 : 지자체, 민간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

▌대안4 : 각 「시·군 고도보존 협의회」 관리운영



3) 운영조직의 자립화

(1) 초기 :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연계

○ 백제옛길 조성 및 유지관리 시 희망프로젝트와 같은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

(2) 중장기 : 각종 수익사업 추진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사업과 연계

○ 행정안전부 :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

- 경영컨설팅, 교육,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행정안전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유형에 길 조성 사업 포함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농촌형 커뮤니티비즈니스)

○ 충청남도 :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 각종 수입사업 추진

- 농산물직매장 : 무인판매장
- 백제옛길 기념품 개발, 판매
- 방문객 가방(소지품) 배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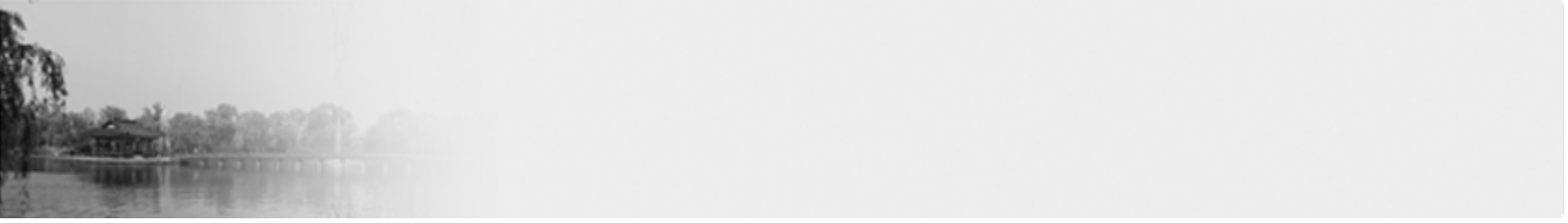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4) 근거법 제정 및 협의체 구성

(1) 근거법 제정

○ 백제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지자체가 주관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 협조하여 매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활용해야 함

- 충남도가 전체의 백제옛길 체계를 관리하고, 각 지자체별로 속한 백제옛길은 지역의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백제옛길 코스를 관리·운영함



○ 지속적인 백제옛길 계획 수립과 실행,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백제 옛길 계획 전담 부서업무를 백제문화관리사업소 내에 독립적인 부서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일관된 계획 가이드라인과 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들을 만들고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독립된 부서의 설치가 필요

(2) 이용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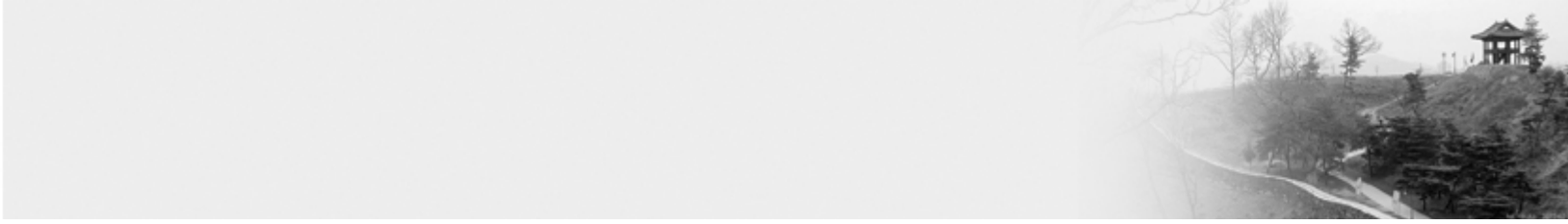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지역별 백제옛길 수칙 작성 및 이용자 교육

- 지역별로 백제옛길 관리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백제옛길 방문 수칙' 을 별도로 작성하여 방문객들이 이용 시 지역 환경 배려가 필요함

〈표 Ⅵ-3〉 백제옛길 방문 수칙 예시

방문 전
• 방문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 문화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고 지역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방문할 자원이 무엇이며 이용할 내용과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을 숙지한다. • 주로 이용할 보행로를 어디로 선택할지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한다.
방문 활동 중
• 보행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보행활동을 하지 않는다. • 야생 동 · 식물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다. • 큰소리를 내거나 야생 동 · 식물을 만지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삼간다. • 지역주민의 농작물이나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 산딸기, 머루, 다래 등의 열매, 씨앗 등을 함부로 채취하지 않는다. • 야생 동물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지 않는다. • 보호되는 야생 동 · 식물을 채취하지 않는다. • 기타 관찰 및 학습프로그램 이외의 활동을 할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안내자의 지시를 따른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흙이나 물을 더럽히지 않는다. • 생태 탐방활동 전 공지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다.
방문을 마치고
• 방문 후에 생태탐방의 경험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생각한다. • 자연과의 만남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배운다.

자료 : 환경부, 전국단위 국토생태보행로 조성계획 연구(2007)



○ 백제옛길은 백제문화자원에기초하고 있으며 탐방자원의 문화유적의 가치를 유지되지 못하면 탐방의 질이 현격이 저하되거나, 탐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는 백제옛길 계획의 핵심사항임

○ 백제옛길 관리계획 수립 시에 백제옛길 자원 관리방안도 함께 고려하거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안내자 및 관리자 배치 사업

○ 지역단위로 기존에 양성해온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확대·육성하고 이들을 거점시설에 배치토록 함

○ 백제옛길 안내자로 활동하게 하면서 동시에 백제옛길의 훼손이나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존의 문화관광해설가를 백제옛길 해설가로 재교육하여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인증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주민참여형 백제옛길 관리·운영

○ 지역의 주민이 백제옛길 코스를 선정하고 조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도입토록 함

○ 시설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은 지자체에게 공모하여 선정된 곳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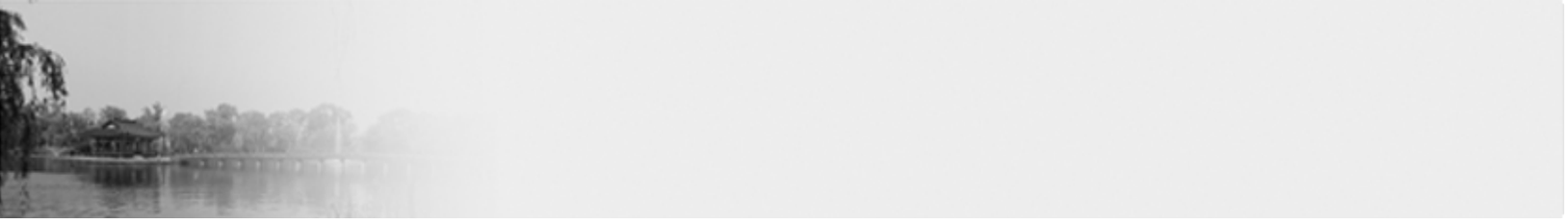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지자체에서 시민단체에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지자체에서 선정, 조성, 운영하되 지방의 경우 시민단체의 역량 차이가 있으므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공모사업을 구성해야 함

○ 실제 운영 시 충남도와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결합하면서 이용자의 편의나 문화자원훼손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방문자 안내소, 표지판 등의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등 다양한 운영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함

○ 학생 체험단 운영

- 각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등 관심 있는 학생들을 통한 역사체험 및 보호활동, 백제옛길 코스 관리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러한 활동은 이후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으로 연계하여 관리함



○ 백제옛길 사랑 가족제도 운영

- 단위구간별 혹은 단위지역별로 관리하는 가족(한 가구, 초·중·고등학교의 한반, 한동아리, 그룹 등)을 정하여 그 구간에 담당 가족의 이름을 표시하고 그 구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운영함

5) 관리·운영계획 수립

(1) 백제옛길 마스터플랜 수립

○ 장기적인 백제옛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백제옛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계획까지 수립함

○ 충남도내의 보행로 계획과 연계하여 충남도 도보길 사업과 지자체별 도보길 계획 및 자전거 도로 계획 등의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법적효력이 있는 통합적인 백제옛길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충남도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자전거 도로, 공원·녹지, 보행관련 계획을 통합한 백제옛길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된 백제옛길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유지의 직접 규제가 가능한 법정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내에서 단계별,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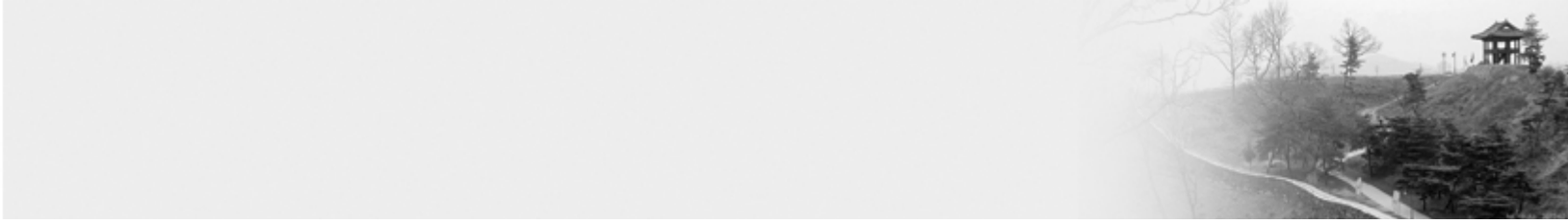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2) 백제옛길 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개별적 공공 및 민간 개발 사업 및 시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계된 계획을 수립함

○ 자전거 도로 설치, 도로의 녹화 및 개선, 시설물 정비, 수변공원 정비, 산책로 정비 등의 개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백제옛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

○ 백제옛길의 기초가 될 잠재력 있는 지역 내 백제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백제옛길 네트워크를 형성함

○ 충남도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한 하천변길, 산길, 유휴지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백제옛길을 형성하고, 지정된 백제옛길에 새로운 문화 및 스토리를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수립함



2. 가이드라인 설정

1) 백제옛길 사업 추진 단계별 가이드라인

○ 친환경 보행로 조성, 이용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방문 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을 위하여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은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적 원칙과 최소기준을 제시한 것임

(1) 입지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행로 안전성

○ 방문객 안전성, 양호한 시계, 대중 교통시설과의 연계, 차도와의 교차 최소화, 자연경관과 의 연계, 지역문화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방문객이 직접 걸으면서 자연, 유적지 등을 관람하고 휴식할 수 있는 도보관람체계를 구축

○ 보행로의 폭원, 평탄면, 구배, 시설물 등은 기능적이고 안전한 도보여행이 되도록 적정 보행량, 보행 속도 및 밀도 등의 보행자 척도를 고려

○ 지반침하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및 산사태 붕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 위험지역이나 해수면 상승, 홍수발생 등으로 재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개발을 원칙적 자제하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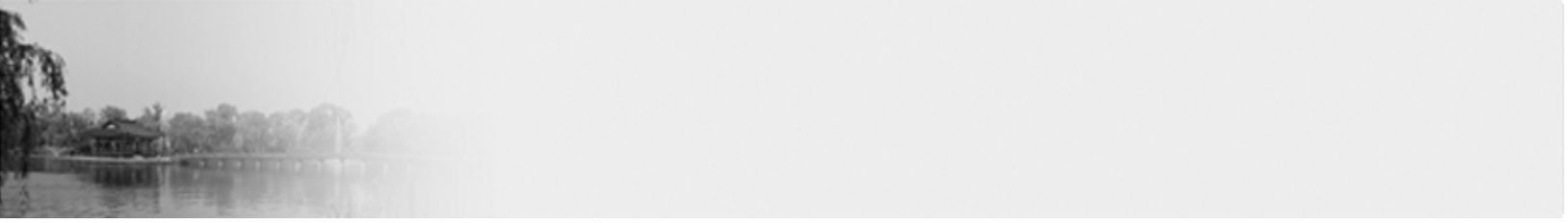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보행자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행로는 보행로 지역자율방범 및 경찰제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보행로의 생태 · 문화적 환경관리

○ 생태 및 역사 · 문화적 보전가치가 높고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지역은 개발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러한 지역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로 개설을 결정

○ 보행로면은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표지판은 적정한 간격에 명확한 색상으로 설치하여 편의성을 제고

○ 지형적으로 자연배수가 잘되고 절개지가 적게 분포하며 보행로 조성이 양호



한 지역을 선정하되, 생태녹지축이 보행로에 포함하는 경우 원형보전녹지로 설정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불필요한 건축물은 최대한 자제하되 필요한 간이시설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공급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여건을 고려

▌보행로에 스토리텔링 가미

○ 지역의 상징성, 고유성을 갖고 있는 길을 찾고, 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탐방자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노선을 발굴

– 관계전문가로 백제옛길 도보여행길 선정협의회 구성하여 노선 선정의 적정성 등 검토·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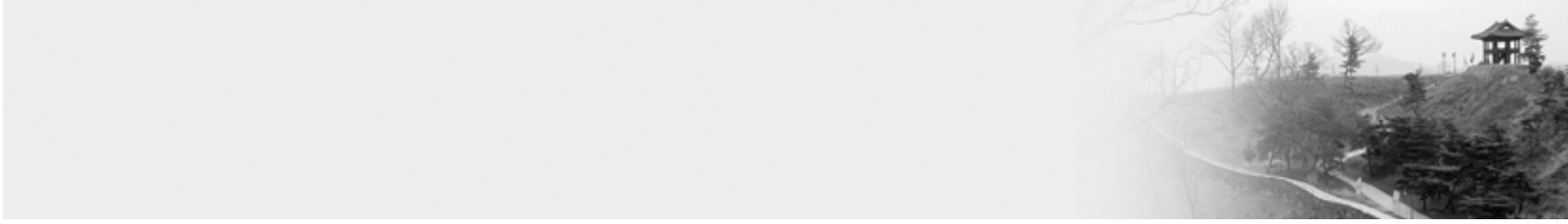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역사, 문화, 생태 및 관광자원 등 자원별 인벤토리(inventory)를 작성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

○ 도심지 도보여행 보행로 개발 시, 그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을 고려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보행로를 개발

▌도보여행 보행로 개설 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 도심지 시설물인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 설치 현황 및 장래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하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고려하되, 지역 내 다른 관광개발 발전방향이 부합하여 주변 지역관광의 전체 환경이 교란되지 않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에서 보행로 개발

○ 광역교통의 현황 및 향후계획을 검토하고 보행로 개설로 인한 교통부하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되,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간선시설 설치가 용이하거나 불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2)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1) 보행로 조성계획

▌친환경 보행로 조성계획

○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자연순응형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연약지반 등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지층이나 특이한 자연현상으로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등은 신중하게 파악한 후 개발 가능한 지형을 설정

○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등 등급이 높은 지역,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녹지는 보행로개발 시 원형녹지로 존치시켜 보존지역으로 설정

○ 생태기능을 유지 강화하고 생태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발면적의 적정수준 이상을 녹지면적으로 확보하되, 인접지역의 녹지축,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로 내 분산된 녹지가 최대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녹지체계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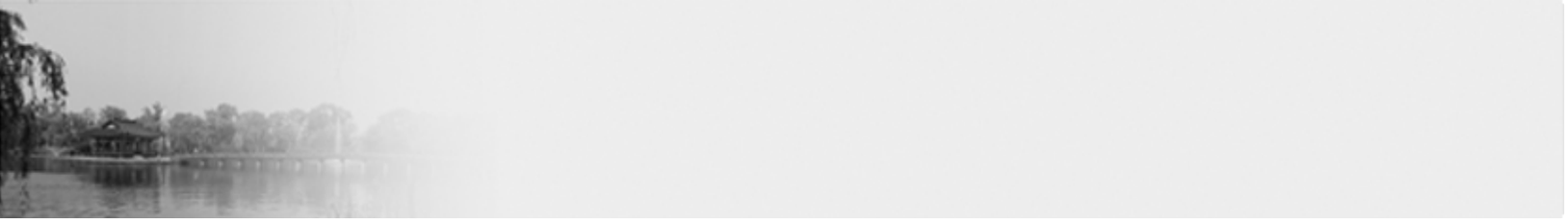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불필요한 절토사면과 토공량의 발생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보행로개발계획을 수립

○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면과 절토지역은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며, 그 지역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생태복원방법을 도입하여 보행로와 자연이 어우러지도록 계획

▌보행여건을 고려한 조성계획

○ 도보여행의 특성상 이동 후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걷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의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대상 보행로의 개발규모와 입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회귀형 공간구조가 되도록 계획

○ 보행로의 인위적 개발에 의해 분리된 비오톱(Biotope:생물서식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주변 지형, 생태적 연속성, 안전한 생물의 이동을 위한 통로 보조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생태이동 통로 확보 및 조성



○ 보행로이용 및 관련시설배치 계획수립 시, 보행로 개발대상지역의 자연 및 역사 문화 경관자원의 조사, 경관영향 분석 등을 실시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

○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는 산림, 녹지 등 기후적으로 주요한 지역은 보존하고, 바람길이 되는 녹지축을 적절한 폭으로 확보하여 미기후 조절 및 공기 순환의 기능을 가지도록 계획

▌보행로 주변 시설 조성계획

○ 보행로 주변 식재계획 수립 시에는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을 적극 활용하고, 탄소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생밀도를 강화하고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을 높여 다층적 직재구조가 되도록 계획

○ 보행로나 간이시설 배치 시, 에너지 절약과 비용절감을 위해 현지 지형을 이용한 시설을 배치하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및 에너지를 저감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조량과 채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남향으로 시설을 계획

(2) 교통

▌보행자 우선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보행로와 접근하는 교통동선은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친화적 도로망을 위주로 구성하되, 진입도로, 주도로 및 보조도로 등은 생태계 또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을 배려하는 자연친화적 생태도로로 조성

○ 주차장 수요예측으로 적정 주차장 면적을 산출하되, 대규모 아스팔트 포장 대신 생태블록 등의 투수성 포장, 풍부한 녹지공간 또는 빗물정원 조성 등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을 조성

○ 보행로 주변 도로는 차량의 서행유도를 기본 원칙으로 계획하며,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도록 도로선형 곡선화, 회전 교차로, 속도 방지턱 설치, 노면요철화 등 자동차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하되, 속도저감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설치

※ 보행자도로의 구조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근거 1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내 용 : 보행자도로의 유효 폭, 노상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규정
- 근거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내 용 : 교통수단 ·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확충,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사회적 시설이용 약자가 보행로 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개별시설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도로,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 건축물 등에 경사로, 전용 화장실 등의 무장애 이용시설을 조성

▌대중교통 이용 방안

○ 자가용 이용수요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차 없는 지구(Car Free Zone) 도입,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대상지 내 순환버스 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제고방안을 마련

○ 보행로 간 이동, 관광체류지와 보행로 간 이동을 위해 순환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은 수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CNG(천연가스) 버스,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

▌자전거도로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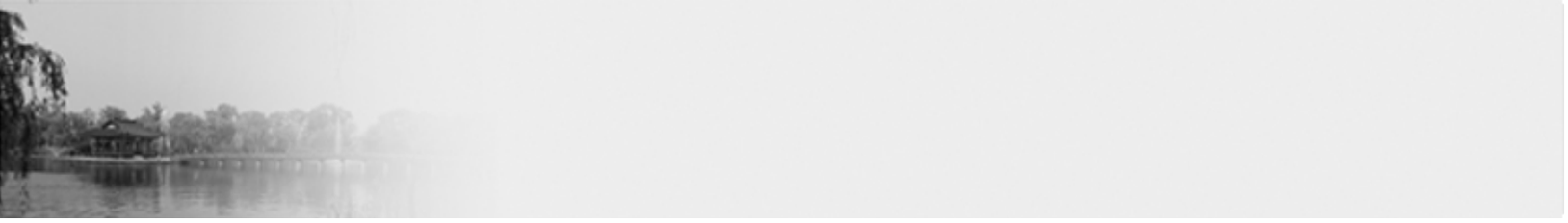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대상지 내 전역에 이용자 안전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경관성,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로망을 구성

○ 자전거도로 폭원은 지형, 경사도 등을 고려하되,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결정

○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 대중교통 연계 지점, 휴게시설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또는 보관대를 설치하고, 조명 장치, 주차 장치, 도난방지 장치 등을 설치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근 거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
- 목 적 : 자전거이용시설 구조와 시설의 기술적 기준 규정
- 내 용 :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 설계속도, 자전거 안전표지 및 경사로 설치, 자전거 주차장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3) 에너지 및 자원 활용

▌신재생에너지 도입

○ 보행로 주변 시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 기상 등의 대상지 여건에 적합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

○ 수변·산악지역 보행로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를 적용하고, 도시지역 보행로에는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적용하는 등 대상지의 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

○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조사 시 대상지의 기상 여건(일사량·시간, 풍력속도·밀도 등), 에너지 시스템의 독립적 효율성 및 안전성(설비성능, 에너지 부하형태 등), 경제성(설치비용, 정부지원재원, 운영비 절감액 등) 등을 고려하고 보행로의 형태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간의 경관 조화성 등을 고려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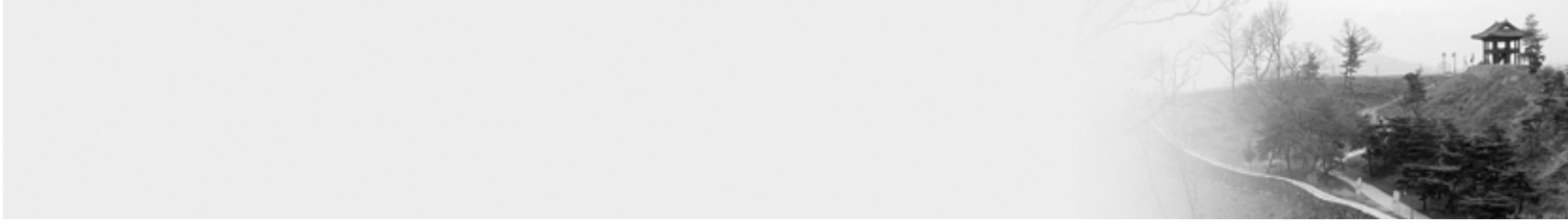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휴게시설, 관광안내센터,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 부하량 총량의 5%이상을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공급

▌에너지 절약 시설물 설치 및 에너지 효율 향상

○ 보행로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및 자원을 총체적으로 절약하고,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방문객의 건강과 쾌적성 증진을 추구하는 친환경 건축으로 조성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 절약성능이 높도록 설계하여 설치하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준용

○ 폐기물 감량과 이를 통한 대기환경 오염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보행로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종류 · 성상별로 철저히 분리배출을 하고, 스스로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



▌수질오염 방지와 친환경 물사용 방안 수립

○ 보행로 내 시설물의 우수와 오수는 분리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생활하수는 연못과 수생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자연정화 처리방안을 검토

○ 지하수 함양 및 우수 외부유출 억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행로는 불투수성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대신 비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가급적 공극이 있는 투수성 포장을 적용

(4) 지역경제와 연계

▌어메니티(Amenity) 자원 활용으로 장기체류 관광유도

○ 방문객의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행로와 인접지역을 연계하는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관광인프라 정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창출 등을 통해 방문객의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

○ 보행로 및 보행로 주변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창출하여 그 지역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고유한 매력으로 증진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보전가치가 높은 어메니티 자원은 자원특성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

▌지역주민의 사업참여와 고용방안 마련

○ 도보여행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지역사회 전체에 널리 확산되고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율적인 개발역량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율

○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공공이나 관련 민간단체에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등의 운영관리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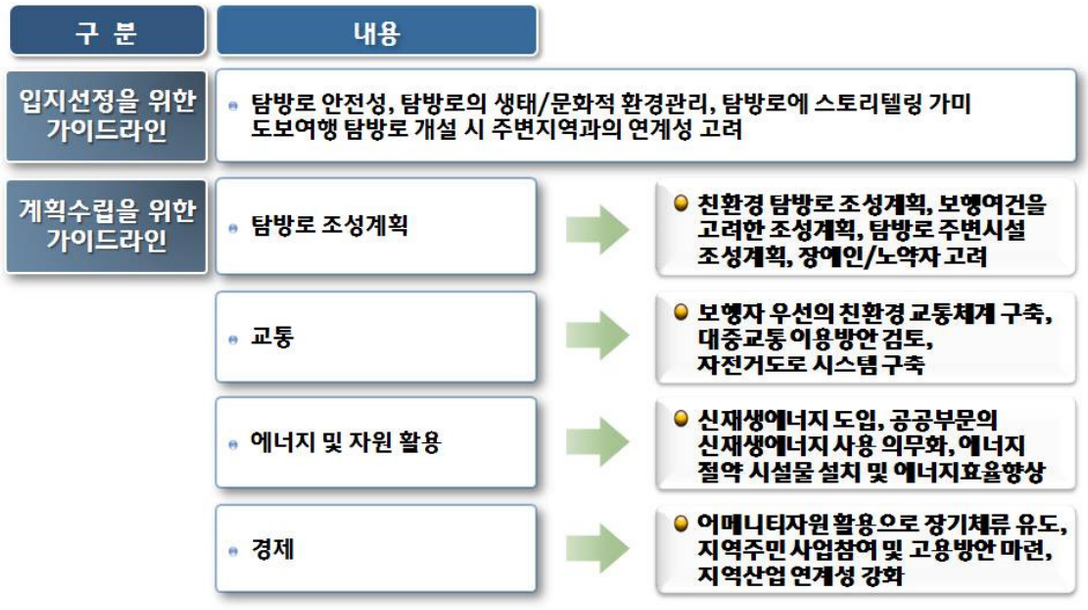
▌역사문화관광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 보행로 주변 전시관, 체험관 등 지역의 고유성을 내포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 해설프로그램의 운영, 마케팅 활동 등으로 역사문화관광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과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있는 견실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에게 고용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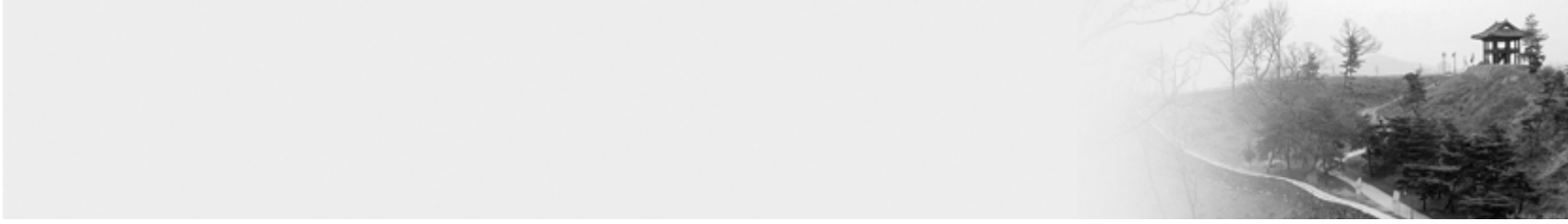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녹색자연산업 연계성 강화

○ 자연생태, 역사, 문화유적, 향토음식 등 지역에 적합하며 지역 특성과 역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보여행 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함

○ 농수산물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보행로 주변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등의 운영관리 시 안전하고 신선한 국내산 및 지역산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그림 Ⅵ-1] 보행로 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3.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1) 개념

○ 문화유산관리(cultural heritage management : CHM)는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가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는 체계적인 관리

○ 문화유산관리 또는 문화자원관리로 사용되고 있는데, 자원(resource)이라는 말을 쓸 때 해당자원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남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반면, 유산이라는 말은 자원의 비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물려받은 유산(legacy), 즉 어떤 의무와 책임을 내포함

(1) 핵심개념

▌백제문화권 대표적 문화자원 표본의 보존

○ 역사문화자원의 주요 목적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유형 및 무형의 대표적 표본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것임

○ 따라서 백제문화권 역사문화자원 표본 발굴 및 보존을 위한 공공 제도 확립 필요

▌지역문화자원의 진정한 내재적 가치의 보존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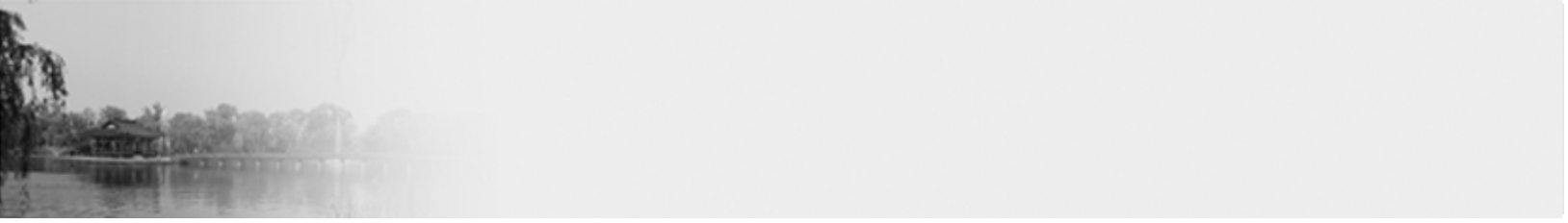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역사문화자원이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문화유산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에 관한 것임

○ 역사문화자원 관리에서는 여러 자원들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유산보존으로부터 오는 공익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므로 백제 문화자원의 내재적 가치를 보존 및 활용함

▌백제의 문화자원은 대중에게 공개되고 설명되어져야 함

○ 문화자원이 바람직하게 공개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류의 방문객이 이해할 수 있게 그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설명되어져야 함

○ 백제역사문화자원을 공개할 때에는 교육적인 면과 관광적인 면의 조화가 방문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백제권 유형 및 무형의 문화자원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를 고려할 때 유형문화자원과 함께 무형자원, 문화배경 그리고 민속, 구전, 축제, 종교행사 등을 인식하고 보존해야 함

○ 따라서 백제권 문화유적과 전설, 설화 등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자원 모두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의 기반을 구성함

▌백제문화유산은 규모, 복잡성, 해결과제 면을 고려하여 활용

○ 서로 다른 규모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해결과제와 기회를 제공해 주며, 각각의 자원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고유한 관리계획 또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여러 가지 문화자원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 복잡성, 주기성(periodicity), 이용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문화자원 관리방법을 유기적이게 으로 접근하여 백제문화자원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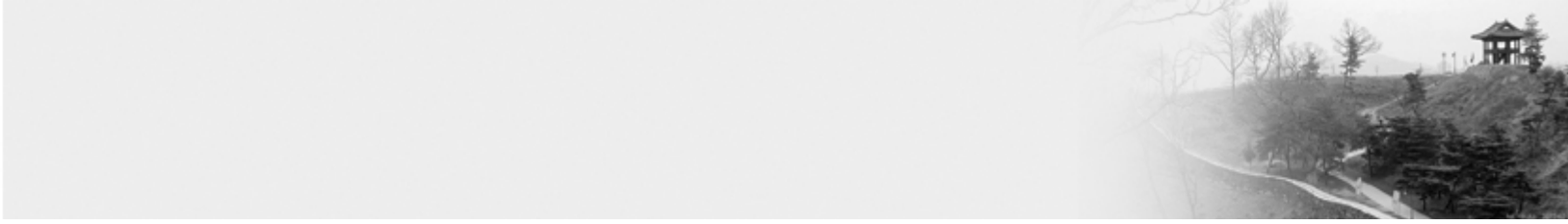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역사문화자원 관리는 진화체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

○ 역사문화자원 관리는 5단계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해서 진화 발전 양상을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백제옛길 조성사업을 추진함

○ 최초, 계속적인 목록작성 단계, 초기 보호법 제정단계, 전문성 고조 단계, 이해관계자 협의 및 참여단계, 전문가 검토 및 국가책임단계를 거침

〈표 Ⅵ-4〉 역사문화자원 관리 진화체계

단 계	주요 특징
목록작성	• 사회관심 고조, • 문헌적 고증 • 비전문가로부터 전문가로의 작업수준 격상
최초입법	• 문화유사의 식별 및 보호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최초의 입법 • 무형유산이 아닌 유형유산에 관리집중 • 문화유산정부기관 발족 • 타 정부기관 또는 법률과의 약한 수준의 통합
전문성고조	• 문화유산 국제정부(IGOs) 및 비정부기구(NGOs) 설립 • 윤리강령, 보존원칙 헌장 등 공식적으로 제정 • 문화유산관련 전문 직종 개발(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협의	•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출현, • 갈등 부분 확인 • 지역의 공동이익에 무게를 둠
검토	• 여러 가지 책임들을 새롭게 이해, •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 좀 더 종합적인 계획 및 실천, •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제고 • 다른 이용자 그룹 인식, •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 문화유산관리의 최고성숙단계 도달



(2) 역사문화자원 관리와 역사문화관광

○ 역사문화관광은 문화자원 개발 및 활용 계획 여하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해야함

○ 관광개발과 역사유적 및 환경 보존정책 사이에 요구가 서로 상이하여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화롭게 운영해야 함

○ 따라서 관광목적의 이용과 문화유산자원관리상의 보존 목적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보존 및 운영관리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

▌역사문화자원 관리 시 관광객 요구 이외도 많은 것을 고려

○ 관광객은 문화자원 이용자그룹 중의 하나로 문화자원의 관리 및 전시방법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 중의 하나임

○ 그러나 백제역사 문화자원에 관한 서로 다른 수준의 지식, 해당 유산에 대한 관심의 차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 서로 다른 기대 등으로 인하여 지역 이용자를 위한 문화자원 공개전시와는 달라야 하므로 관광목적을 위해서는 관리면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관광이 중요하지만 백제문화자원을 조화롭게 활용

○ 관광목적의 이용과 백제역사문화자원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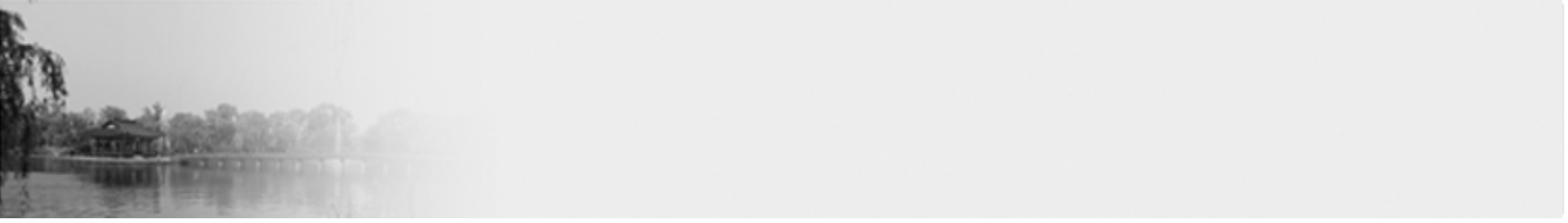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또한 다양한 이용자그룹을 위하여 백제문화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백제 옛길 조성사업에서는 장기적인 계획 및 관리정책에는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함

2) 관리운영체계

(1) 관리부문의 설정

○ 백제옛길의 자원, 이용자,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구축하며, 시설별 행위제한과 관리목표, 지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도보여행길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보존, 정비, 활용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관리자는 각 시설물에 대한 보존, 훼손, 재해,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함

○ 도보여행길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각각의 시설현황을 도면 정보화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시설목록을 작성하고, 시설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표 Ⅵ-5〉 관리부문 및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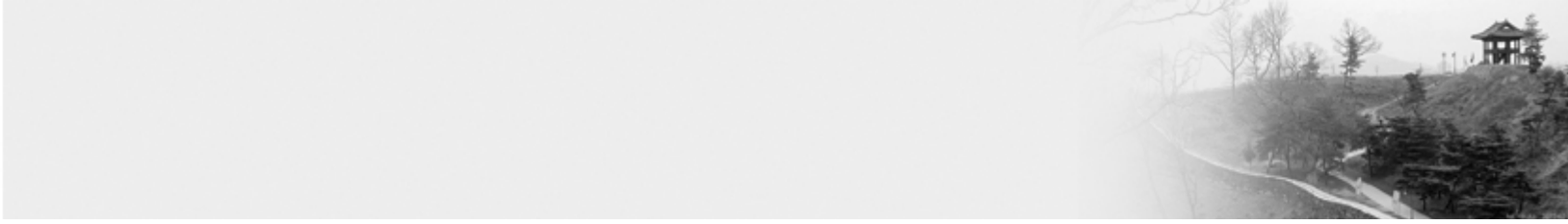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구 분	세부 관리	세 부 내 용
시설물	역사문화자원관리	• 보존 · 정비 · 활용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전시시설관리	• 전시시설물, 관객 편의시설물,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체험교육시설관리	• 지속적 유지보수 및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편의시설관리	• 정기적으로 시설의 유지보수 실시 • 시설물의 외관, 색채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관리
환 경	주변경관 및 위생	• 자연훼손방지 및 지속적 경관가꾸기 사업추진 • 쓰레기, 오수처리 시설 확충, 청결교육
마케팅	관광상품관리	• 문화예술 이미지 창출, 차별화 정책에 의한 관광상품개발
	이용체계관리	•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등의 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관리	• 방문객의 불편사항 신고운영 • 관리인, 지역주민, 공무원의 적극적 서비스 정신교육
방문객	보행객교육	• 보행 이용 안내, 이용객 보호활동 교육
	공공안전관리	• 사고 · 재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및 구호대책 수립
	보행객 혼잡관리	• 보행지역의 제한, 인원수의 제한, 시간제의 적절한 활용 추진

(2) 부문별 관리계획

▌시설물 관리

○ 백제옛길 관리영역을 설정하고 시설 성격에 따라 역사문화자원, 체험자원, 조경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도보여행길 시설별 세부관리는 시설운영의 목표, 지침,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여 시행



〈표 Ⅵ-6〉 시설물 관리방안

구 분	세부 내용
역사문화자원	• 절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백제유적, 유물 등 문화재 및 자연경관이 포함
체험자원	• 지속적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설로서 농촌 및 생태체험시설 등이 포함
조경편의시설	• 휴게쉼터 수준 및 방문자를 위한 서비스 시설로서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대상

▌환경 훼손방지

○ 쓰레기, 오수처리 등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 오염방지를 실시함

○ 자연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도록 함

▌마케팅 전략과 홍보

○ 현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백제역사에 대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도보여행길 및 체험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홍보수단으로서 각종 안내책자, 팜플렛 등을 배포, 홍보하고 전국 방송(TV, 라디오 등), 지역민영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안내책자와 팜플렛은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입출구,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공기관 등에 비치하여 흥미와 방문을 유도하여야 함

○ 대부분의 SIT관광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광대상과 지역을 검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홈페이지 구축과 기존 백제문화 및 관련단체와의 홈페이지 간 링크를 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지를 찾는 방문객 및 인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면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방문객 안전관리

○ 백제 도보여행길 방문객 교육을 통하여 이용안내 및 방문객 보호 활동 등을 시행하며 정기적인 공공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사고·재해 등에 대한 위험 방

지 및 구호대책을 수립함

○ 성수기에 많은 방문객 또는 행사로 인하여 혼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방문지역 제한, 시간제의 적절한 활용, 인원수 제한 등을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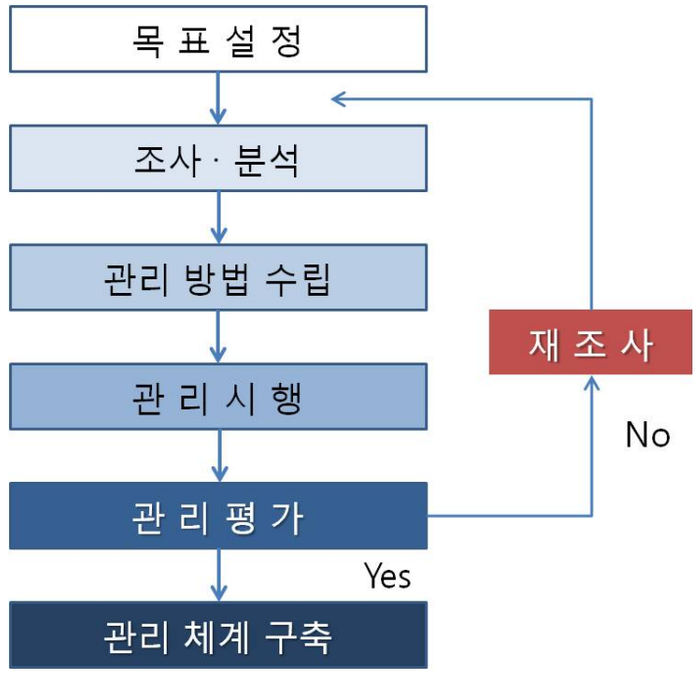
3) 관리운영방법

○ 백제 도보여행길 주변 유적·유물, 주민주거지, 주변환경 등을 부문별로 관리하되, 운영과 관리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자원과 시설별 관리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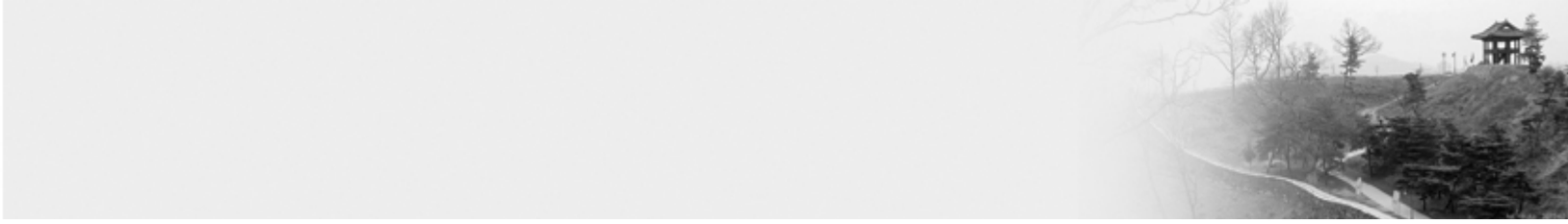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면적관리경계로서 보존영역(문화재, 자연경관 등), 체험영역(농촌 및 생태체험장 등), 서비스영역(쉼터 주차장, 안내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관리구역의 공간적 범위와 대상은 목표연도 및 사업추진에 따라 반영하며, 관리평가·조정 등의 유연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특히, 관리구역과 대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함



[그림 Ⅵ-2] 백제 옛길 관리체계 수립 및 과정



4. 백제옛길 네트워크 방안

1) 도보길 관련 정책과 연계 및 전략 코스 개발

(1)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생태보행로 사업

○ 비전 :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문화스토리가 흐르는 길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로 나눠 사업 추진

▌환경부 : 생태문화보행로 사업

○ 비전 :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고 즐기면서 보전하는 국토생태보행로 조성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1단계 사업 추진

▌산림청 : 산림문화체험숲길 사업

○ 비전 :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숲길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 추진

▌국토부 : 해안누리길

○ 비전 : 인위적으로 걷는 길을 조성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이미 개발된 바닷가 숲길, 산책길, 마을길 중 걷기 편하고 주변경관이 우수한 길을 찾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

○ 전국 동, 서, 남해안에 52개의 아름다운 해안길 선정

(2) 충청남도 정책과 연계 추진

▌솔바람길

○ 충남도 사찰을 중심으로 한 걷기 코스로 마곡사 가는 길, 백범 명상길, 명상 산책길, 솔잎 융단길, 향토숲길, 불교문화 유물길과 연계

▌충남연가 고성가도

○ 충남의 옛 성에서 선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충남 전역의 성을 연결하여 조성함

○ 백제옛길 권역에 포함된 공산성, 부소산성, 노성산성, 성흥산성, 건지산성길을 연계함

2) 백제옛길 특성화와 이용의 편리성 제고

(1) 백제옛길 인력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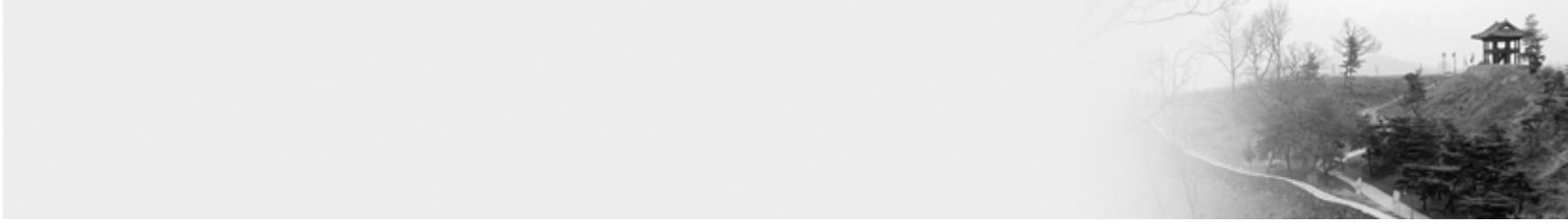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길 해설사는 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공의 한 분야로 길에 대한 정보 및 길과 연결된 지역사회의 자연,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임

○ 기존의 지역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활용하거나, 지역대학 및 지역 NGO 등에 백제옛길 전문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신규 해설자를 육성함

○ 충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양성기관인 청양도립대학을 이용하거나, 각 지역 문화원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육성 가능함

○ 지역주민 대상 문화해설사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며 문화자원이 집중된 코스에 집중 배치함

[그림 Ⅵ-3] 오타루길 안내인 사례



(2) 백제옛길 투어버스 운영

○ 투어버스란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관광지를 상호 연계시켜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알차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순환관광 프로그램임

○ 백제옛길 투어버스는 백제옛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광지를 순환하는 코스로 관광객들이 백제옛길 일부지역을 걷고 거점지역을 버스투어로 연결하는 형태로 개발함

○ 투어버스 운행상품개발을 위해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자원 조사 필요 및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투어코스를 개발함

(3) 백제옛길 여행사 패키지 관광투어 개발

○ 지역여행사와 연계하여 백제옛길 투어상품을 개발하되, 코스별, 테마별, 계절별 상품을 개발함

○ 지역 문화유적 관광과 연계한 투어상품은 물론 농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함

○ 백제옛길 해설가가 동반하는 투어상품과 자유로운 투어상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함

○ 백제옛길 전 코스에 순환 미니버스 운행하며 주변 문화재,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버스 프로그램을 개발함

(4) 백제옛길 탐방단 운영

○ 백제옛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백제옛길 탐방단 운영

○ 탐방단 참가비는 기본적으로 무료, 단 식비, 교통비 등은 참가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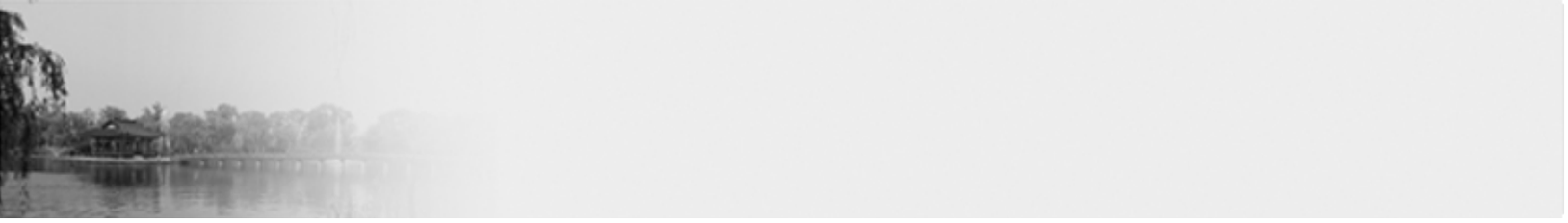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차량대여, 여행자보험, 입장료 등은 주최 측 부담

○ 매월 1회 정도 운영하되, 횟수는 탄력적 운용

○ 지역 내 기업이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5) 백제옛길 무인 물품/택배서비스

○ 이용자가 소정의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하고 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백제옛



길 시종점 간, 백제옛길 자택 간)를 수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함

○ 무인 물품 보관 서비스는 물품 보관 및 찾기 / 신용카드, T-Money카드, 휴대폰, 현금 결제 지원 / 영수증 출력 / 비밀번호 방식으로 나뉠 수 있음

○ 무인 택배 서비스는 부재 시 택배 수발 업무 / 택배 사업자 연계 / 결제서비스(신용카드, T-Money카드, 휴대폰, 현금결제) / 영수증 출력 / 비밀번호 방식임

3) 백제옛길 네트워크 강화

(1) 1사1백제옛길, 1교1백제옛길 협약

○ 관공서, 회사, 학교 등 기관의 직원 연수프로그램과 연계

○ 각종 기관(단체)과 MOU체결

- 협약기관(단체) : 정기적 방문, 백제옛길 관리(청소, 보수 등)
- 백제옛길 운영조직 : 지역 농·특산물 제공, 급식 식재료 제공

(2) 지역상가(전통시장)와 연계

○ 백제옛길 방문객에게 협정을 맺은 지역 내 상가 및 음식점의 할인권(서비스권)을 제공하거나 연계된 홍보체계를 구축함

○ 협정을 맺은 상가 및 음식점은 백제옛길 운영조직에 일정액을 기부하도록 함

(3) 지역 농산어촌 체험마을과 연계

○ 농·산·어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백제옛길 투어 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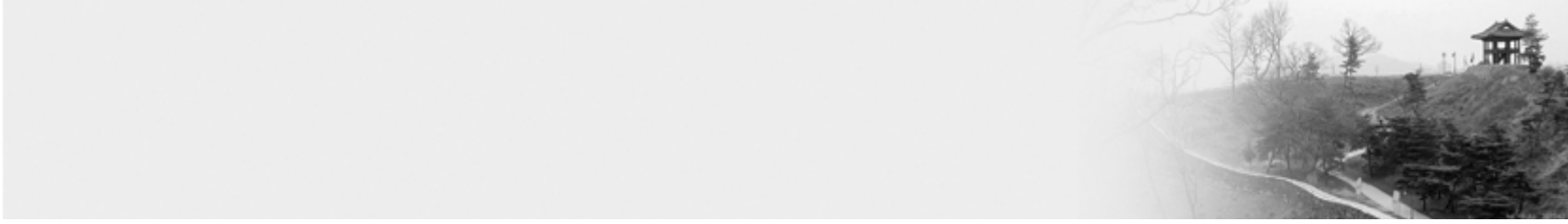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체험마을과의 백제옛길 지선 개발

- 24절기별 마을행사 및 놀이, 마을행사 참여 프로그램 개발

○ 백제옛길 홈페이지에 체험마을 사이트 연계

○ 백제옛길 방문객에게 체험마을 내 각종 편의시설 및 숙박 제공

- 체험마을 내 조성된 공용 화장실, 식당,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일정 사용료를 받고 제공함
- 코스 내 농촌민박 및 고택 등을 활용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함
- 단체 행사 및 연수 시 체험마을 내 조성된 커뮤니티 센터 등 필요시설 제공 또는 임대



○ 백제옛길 방문객에게 체험마을 숙박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할인권 제공

○ 백제옛길과 체험마을 복합 체험프로그램 개발

- 농촌체험 + 농업체험 + 길 체험

(4) 다양한 농산물직판장 운영

○ 코스별 시종점과 주요 시설(마을회관, 농촌체험장 등)에 지역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 및 운영

- 상설 직매장이 아닌 주말·휴일 또는 행사 기간에만 운영하는 간이 직매장 설치
- 각종 지역 농산물 및 간이 도시락 판매
- 인증(계약) 농가 또는 작목반과 협정 체결 : 판매 수수료 10~15%

○ 도보여행길 코스 도중에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 운영

- 상설 시설보다는 간이 천막 등으로 설치
- 도보 중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 및 채소 판매

4) 홍보·마케팅 방안

(1)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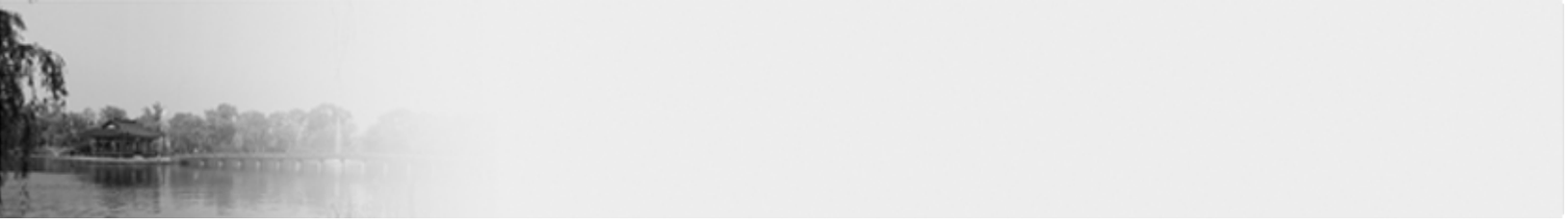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길여행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길 여행의 특징

-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해서 짧게 스쳐가듯이 보고 오는 방식으로는 과정은 없고 목적지를 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

○ 길 여행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문제점

- 참가자에게 물리적 고통과 인내를 강조하는 점
- 명목상으로는 과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과도하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과정이 적고 걷기만 계속되는 경향
- 안전사고(교통사고, 화상, 골절 등)에 대한 불충분한 대처
-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등 각종 관리문제 발생



▌새로운 길 여행의 성격

○ 보다 느리게 걸어가면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음

○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과 생태의 변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구성함

○ 문화와 생태의 상호연관성을 통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지역주민이 탐방서비스의 주체로 역할을 나누어 맡고, 탐방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지속가능한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함

▌길 여행 문화 확산 방안

○ 도보여행길을 지역단위의 보행로 체계구축을 통한 전국단위 보행로의 풍부함과 내실화를 추구하며, 지역단위로 차별화된 이용주제와 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수립 및 적용함

○ 적정 탐방속도 기준 제안(예, 최대 시속 2㎞)이 필요함

- 영국에 설치된 National Trail의 길이와 소요시간을 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걷는다고 할 때 최대가 2㎞내외인 것을 알 수 있어, 탐방속도는 시간당 1.3~1.5㎞에서 최대 2㎞정도로 제안

(2) 홍보/촉진 전략(Promotion)

▌AIDA 홍보 모델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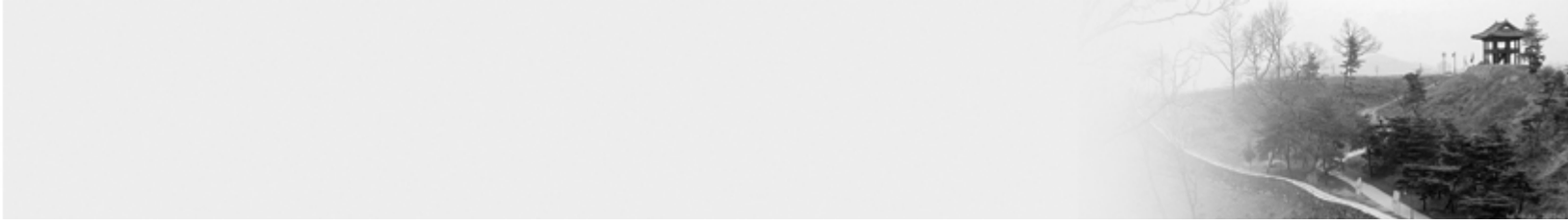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백제옛길이 많은 지역민들에 의해 인지되고 일상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별 홍보/촉진 전략을 수립하며, 홍보매체, 홍보방법을 구체화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를 병행토록 함

○ AIDA모델은 백제옛길의 잠재이용자들이 코스를 이요하기까지의 태도변화를 나타내며, 각 단계별 특징을 살려 홍보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Ⅵ-7〉 백제옛길 AIDA 모델

구 분	내 용
Attention(주의)	• '백제옛길이 생긴다던데', '백제옛길이 뭐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잠재 이용객들에게 주의되는 단계
Interest(관심)	• '백제옛길은 어떨까?', '백제옛길에는 어떤 게 있지?' 라는 질문과 대화가 나누어지게 되는 단계
Desire(욕망)	• '이번주에는 백제옛길에 가자' 라는 생각이 드는 단계
Action(행동)	• '백제옛길에는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백제옛길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

자료 : 환경부, 전국단위 국토생태보행로 조성계획 연구, 2007. 재구성



○ 백제옛길의 단계별 홍보/촉진 전략은 1단계 시장침투 단계, 2단계 집중화 단계, 3단계 확산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음

〈표 Ⅵ-8〉 백제옛길 단계별 홍보/촉진 전략

단 계	목 표	주요 촉진도구	전략방안
1단계 (시장 침투)	인지도 확산	• 언론 홍보, 광고, 출판	- re-event의 기획 및 실행 - 팸투어 기획 및 실행 - CI, 캐릭터 개발
2단계 (집중화)	지역적 명소화	• 홈페이지, 관광안내판, 지역 관광 안내소 • 지역 언론 • 지역교육청/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	- 홈페이지 구축 - 관계기관 및 주변 사업체와 연계방안 모색 - 지역 언론을 통한 인근지역 주민의 관심집중
3단계 (확산)	전국적 명소화	• 홈페이지 • 각 학교 및 청소년 관련기관 홍보 • 도로변 옥외광고	- 기존의 홍보/촉진 전략의 보완·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실시 - 구전 효과를 통한 홍보 및 재방문 유도

자료 : 환경부, 전국단위 국토생태보행로 조성계획 연구(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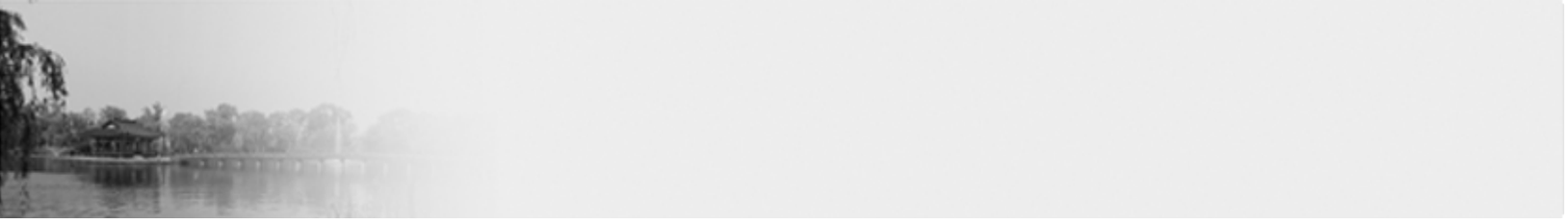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매체별 홍보방안

○ 백제옛길의 홍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홍보매체는 다음과 같음

〈표 Ⅵ-9〉 백제옛길 적용 가능 매체별 홍보방안

구 분	종 류	활용방안
온라인 매체	홈페이지	• 홈페이지 개설 •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 • 한국관광공사 사이트 등 주요 관광사이트에 링크
인쇄매체	신문, 잡지	• 광고, 홍보거리 제공 • 특집 혹은 기획기사 게재
	브로셔	• 각급 학교 및 관련기관 배포 • 주요 관광안내소 배포
전파매체	TV	• 광고, 홍보거리 제공 • 행사장소 제공 • 드라마, 다큐멘터리, 여행정보 프로그램 제공
	라디오	• 광고, 홍보거리 제공
옥외광고	관광안내판	• 주요 터미널, 역, 휴게소 등에 안내판 설치
	대중교통	• 대중교통 수단에 홍보물 부착

자료 : 환경부, 전국단위 국토생태보행로 조성계획 연구(2007)



▌유통/경로 전략(Place)

○ 유통전략은 판매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경로전략은 이용객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 전략은 대상지로의 접근성 향상과 심리적 거리감 해소,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 접근 수단의 다양화, 연계 교통체계 개발,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예약 및 장소서비스 제공, 일괄적인 안내시스템 개발, 계절별, 비수기·성수기의 이용시간 조절 등을 통한 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백제옛길 코스에 대한 일반개황, 교통수단, 편의시설, 숙박시설, 이용방법(도보, 자전거)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토록 구성함

〈표 Ⅵ-10〉 홍보 적용 가능 경로전략(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 전략)

구 분	전 략	적용방법
접근성 향상전략	• 연계 교통체계 개발	- 인접 터미널, 역 등에 셔틀버스 운행 - 인접 관광자원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
	• 심리적 거리 해소	- 고속도로 및 접근 도로의 휴게소 등과 연계 - 야외 안내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정보 제공 - 대상지 접근 대중교통 이용 시 안내방송을 활용 - 특징 있는 도로 안내판 설치 - 대상지 접근로 상에 나무를 활용한 Sign 설치
이용성 향상전략	• 예약 및 스케쥴링	- 인터넷을 통한 자체 컴퓨터 예약시스템(Cyber Reservation System : CRS) 개발
	• 안내 데스크 운영	-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와 동시에 안내데스크를 통해 생태보행로의 이용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내/정보제공	- 대상지 입구 상징물, 방문객 유도 안내판, 내부 전시시설, 관리 및 지원시설의 통합적 구축 - 교육청 및 각종 청소년 단체를 통한 안내 및 정보제공
	• 단지 이용시간의 탄력적 운영	- 계절별, 비수기·성수기마다 이용 및 체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 각 지역 단위별로 관광자원 및 관광명소와 연계하는 교통체계 운영

자료 : 환경부, 전국단위 국토생태보행로 조성계획 연구(2007)

▌인터넷 서비스

○ 백제옛길을 기획·운영하는 별도의 주체(예, 사단법인)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수 있음

○ 홈페이지는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백제옛길 홈페이지가 완성되기 전부터 환경부나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코너를 설치하고 백제옛길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해야 함

○ 백제옛길의 소개, 특징, 주변관광 정보, 교통수단 및 숙박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백제옛길 주요 지점의 정보(날씨, 기온, 혼잡도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그 밖에 충남도청에서 2015년을 '백제옛길 이용의 해' 를 선포하고 도민 1인이 최소한 1개의 백제옛길 코스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면서 이러한 홍보 및 안내의 거점으로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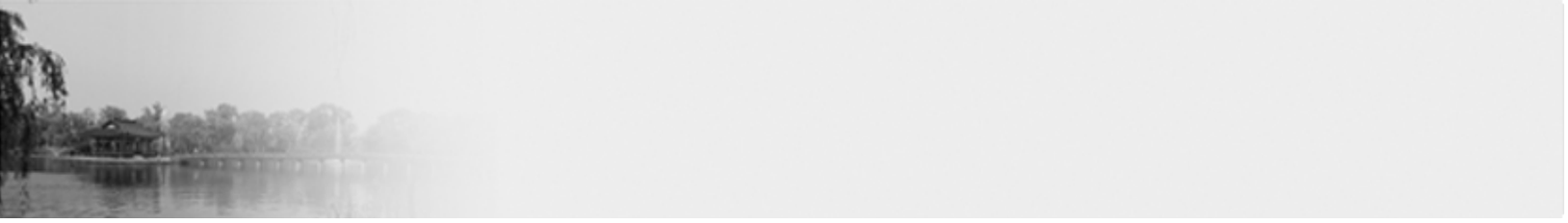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이 과정에서 일정구간을 입양하여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전반적인 사업추진의 속도와 단계는 자원조사, 홈페이지 구축, 타 부처와의 관계 조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또한 현재는 웹 2.0기반의 1인형 미디어 전성시대로 관광지의 의미는 개별관광객의 체험이 모여 담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따라서 마케팅조직과 관광객, 지역주민과 관광객, 관광객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웹커뮤니티(블로그, 카페, 클럽 등)를 적극 개설해야 함

○ 또한, 엔터테인먼트형 소비시대의 관광객은 즐거운 정보를 찾으려 하므로 게임기와 결합한 안내정보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Ⅵ-4] 휴대용 관광게임-JTB 닌텐도



〈표 Ⅵ-11〉 백제옛길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방안

구 분	내 용
제작시기	• 백제옛길이 운영되기 이전 최대한 빨리 제작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백제옛길의 조성, 운영, 관리 주체의 결정,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주체를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
제작방법	• 지역단위 백제옛길은 지역에서 내용을 채우고, 최신화하도록 유도 • 단, 형태와 기본틀은 충남도에서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준비 • 방문객에 따라 3~4가지 서로 다른 홈페이지 구성으로 연결되도록 설계 (예를 들어, 방문객이 로그인을 하면 그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홈페이지 제공) • 새로운 탐방문화의 도입을 위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운영방법	• 홈페이지 운영방안을 시기별로 나누어 장기적 ·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홈페이지 개장 전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방문객의 호기심 유발 • 백제옛길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지식 전달 • 심도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방문객을 위하여 링크를 적절히 사용

자료 : 환경부, 전국단위 국토생태보행로 조성계획 연구(2007)

(3) 백제옛길 브랜드 및 캐릭터 상품개발

▌기본방향

○ 백제옛길 브랜드 개발에 따른 통합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백제옛길 브랜드 관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 및 농 · 특산물 홍보 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을 통한 대외 홍보로 백제옛길의 인지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

▌기념품 개발

○ 백제옛길 이미지에 부합하는 BI(Brand Identity) 및 슬로건 개발

○ 백제옛길의 일관된 디자인 기념품 개발

○ 백제옛길 주요 입구 및 시설물의 통합된 간판 이미지(공공디자인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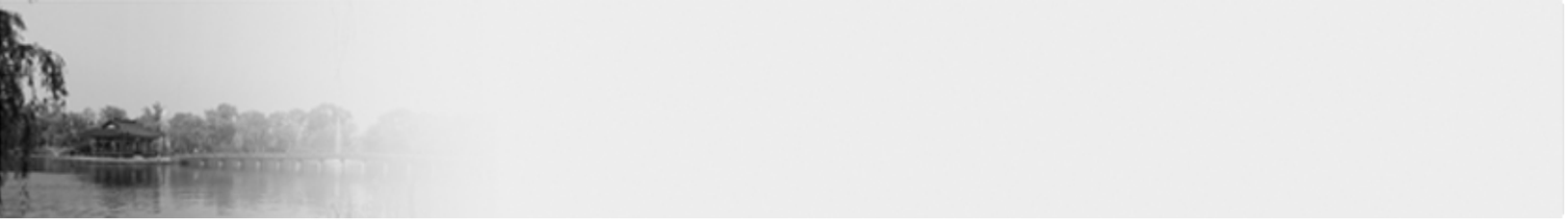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그림 Ⅵ-5] 토로 캐릭터 상품 사례

▌백제옛길 수첩

○ 백제옛길 전체의 요약 정보 및 교통정보, 지역의 주요 정보와 코스별 노선, 자원, 거리, 소요시간 등 세부정보를 제공함

○ 백제옛길 방문자의 여행증명서 역할로써 각 코스의 시종점 및 백제옛길 안내소, 쉼터 등을 지정하여 완주 확인 스탬프를 받음

○ 백제옛길 패스포트 소지자에게 특산품, 숙박, 식당, 서비스 이용 등의 할인



5) 백제옛길 이용 프로그램 구성

(1) 이용 촉진 프로그램

○ 백제옛길 이용자에게 '백제옛길 탐방 카드' 를 발급하여 각 백제옛길별로 탐방한 내용을 메모하고, 탐방한 표시로 수첩에 고유도장이나 사진을 붙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함

○ 충남의 백제옛길을 모두 탐방한 경우 시군에서 탐방기념으로 기념품이나 메달을 수여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는 가정의 부모와 아이들이 백제옛길을 이용함에 있어서 참여도를 높이고 충남의 숨은 경관 및 문화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 충남 이외의 거주자에게는 일정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탐방해설가 또는 숙소 예약, 음식점 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토록 함

○ 이용 대상자의 연령별, 마일리지 누적별 등에 따라 카드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일종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마니아층을 형성하도록 유도함

○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문화탐방활동을 연계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친숙감 유지 및 문화체험을 유도함

○ 유치원 교사나 원장, 교육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연수를 도입하여 연초 활동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백제옛길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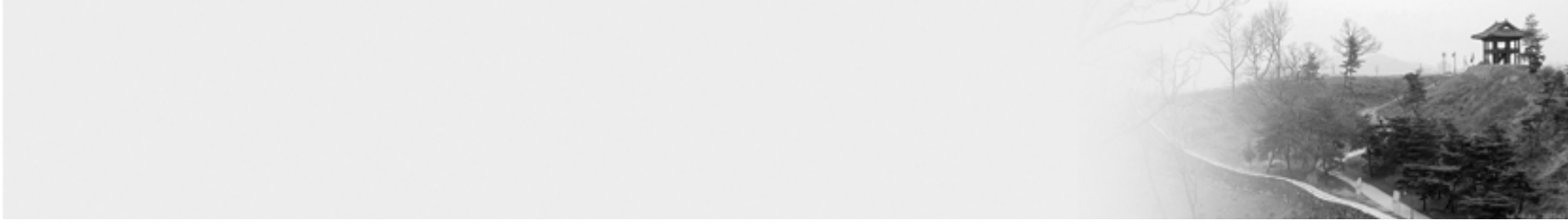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아동들과 함께 백제옛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쉽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이나 활용안내서를 제작 및 보급함

○ 청소년이나 성인, 단체 등의 이용을 증대하기 위한 봉사나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함

○ 교육적 요소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문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

○ 백제옛길 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일정부분 백제옛길을 직접 만들어 가는 형식으로 하여 소속감 및 주인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조성사업에 참여한 구간에는 참여자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기입하여 성취감을 함



양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새로운 백제옛길 조성 시 참여를 확대함

(2) 지역별/구간별 프로그램 개발

○ 백제옛길이 위치한 지역별/구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백제옛길 조성

○ 지역별/구간별로 백제옛길 주변 나무심기, 금강수변 지역 청소 등 특색 있는 봉사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여 확대 프로그램 발굴

○ 백제옛길 주변의 새로운 문화자원 및 역사자원을 찾아내고 만들어 내는 '백제옛길 스토리텔링 참여 프로그램(가칭)' 을 만들어 내고장 알기 등과 연계

○ 백제옛길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이나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여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사회봉사로 확대

(3) 백제옛길 홍보를 위한 백제 여행길 도보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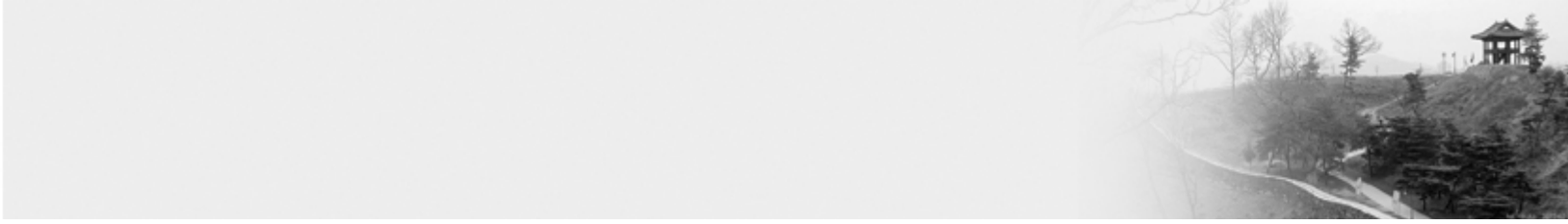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걷기 좋은 충남 홍보를 위하여 백제옛길 코스를 활용하여 50~100km 등의 장거리 코스(가칭 울트라코스)를 연계하여 홍보를 위한 국내 · 외 도보대회 유치

- 걷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장거리 걷기를 위한 기회제공
- 광범위한 걷기 코스로서, 충남 도민의 걷기운동 활성화에 촉매역할 수행
- 백제옛길의 관광자원화 효과

○ 숨겨진 보물찾기 등의 주제를 두고 짧은 코스의 도보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보대회 개최

Ⅶ. 집행계획 및 사업 파급효과

1. 투자계획
2. 재원조달방안
3. 투자파급효과
4. 사회문화와 정책적 파급효과



1. 투자계획

1) 기본전제

○ 백제옛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시설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의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에 근거하여 투자계획을 제시함

○ 백제옛길 조성 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각 지자체별로 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적인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분은 기존 길 관련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어 제외하고 최소한의 시설만을 추정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도별로 구분하였고 계획의 비전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음

○ 해당사업의 투자비는 타 유사 관광사업의 투자계획을 참고로 하였고, 소요계산 산정은 2010년 기준물가를 근거하여 평균시설비용을 산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시설물의 재료·품질, 물가상승에 따른 변화요소가 있음을 전제로 함

2) 부문별 주요사업 투자비

(1) 시설종류별 단위사업비

▮ 자연공원형 쉼터 조성 : A-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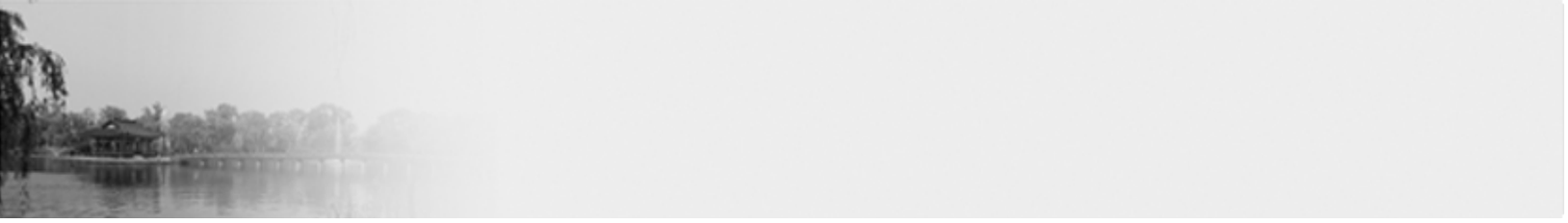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자연공원형 쉼터는 백제옛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설과 규모로 갖춘 휴게공간으로 조성함

○ 각각의 자연공원형 쉼터는 화장실과 식수대, 쉼터(파고라)를 중심으로 벤치, 휴지통 등 편의시설과 조망대(데크)를 갖추고 있으며, 주변 자연지역과의 연접부에 은행나무 등 식재를 실시하여 영역성을 확보함

○ 백제옛길 탐방코스의 특성 상 최소 10㎞의 이동이 요구됨에 따라, 각 코스(총 16개 코스)에 1개소씩 설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논산시 제1코스(황산벌을 찾아서)는 총 연장 54.0㎞로 다른 코스에 비해 장거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2개소를 설치함

○ 백제옛길 탐방코스에는 총 17개의 자연공원형 쉼터(논산시 1코스 2개 포함)를 조성함



○ 바닥은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조성하되 잔디나 자연석을 도포하여 친환경적 공간으로 연출함

〈표 Ⅶ-1〉 자연공원형 쉼터 조성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종합		102.7
기본계획 및 설계	1식	5.2
공원등	가로등 1개소	3.6
시설물	쉼터 2개소, 벤치 2개소, 휴지통 1개소, 식수대 1개소	3.4
화장실	1개소 40㎡, 수세식(2조)	20.0
조망대(데크)	1개소 40㎡, 목재	32.0
수목식재	은행나무H4.0 x B1.0, 9m간격:(20m x 2+10m x 2)/9 x 218,121원(이식비 140,621원, 취득가격 77,500원)	1.5
공원바닥 포장	120㎡, 잔디포장	8.4
기반공사(토목 등)	토공, 우수공(D450~1000), 상수공(D50~75)	24.0
부대비용	1식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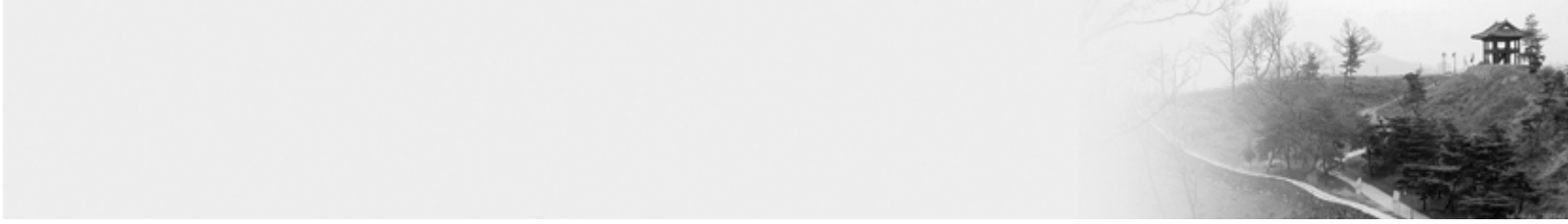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휴식형 쉼터(화장실) 조성 : B-Type

○ 휴식형 쉼터(화장실)는 백제옛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잠시간의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시설과 규모로 조성함

○ 자연공원형 쉼터 10㎞ 간격으로 조성되고 보행특성 상 약 4~5㎞(성인 남성 기준 약 1시간~1시간 30분 거리)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 5㎞ 구간마다 1개소씩 설치를 원칙으로 함

○ 백제옛길 탐방코스 중 연장 20㎞이상 구간에 설치하며, 설치 대상 구간은 부여 2코스, 논산 1코스, 논산 2코스, 서천군 1, 2, 3코스, 청양 1, 2코스 등 총 8개 구간에 총 20개소를 설치함

○ 각각의 휴식형 쉼터(화장실)는 화장실 1개소, 벤치 2개소를 설치하여, 간단한 휴식과 충전을 지원하도록 함



○ 가급적 자연지형 그대로를 사용하여 공간을 조성함으로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바닥은 잔디나 자연석을 도포함

〈표 Ⅷ-2〉 휴식형 쉼터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종합		43.1
기본계획 및 설계	1식	2.2
시설물	벤치 2개소	0.3
화장실	1개소 40㎡, 수세식(2조)	20.0
공원바닥 포장	60㎡, 잔디포장	4.2
기반공사(토목 등)	토공, 우수공(D450~1000), 상수공(D50~75)	14.5
부대비용	1식	1.9

▌이동형 쉼터(벤치) 조성 : C-Type

○ 휴식형 쉼터(벤치)는 백제옛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잠시간의 휴식과 충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벤치)을 조성한 간이 휴게공간으로 조성

○ 이동형 쉼터(벤치)는 여성의 보행특성을 고려하여 약 2~3㎞ 구간마다 1개소씩 설치함으로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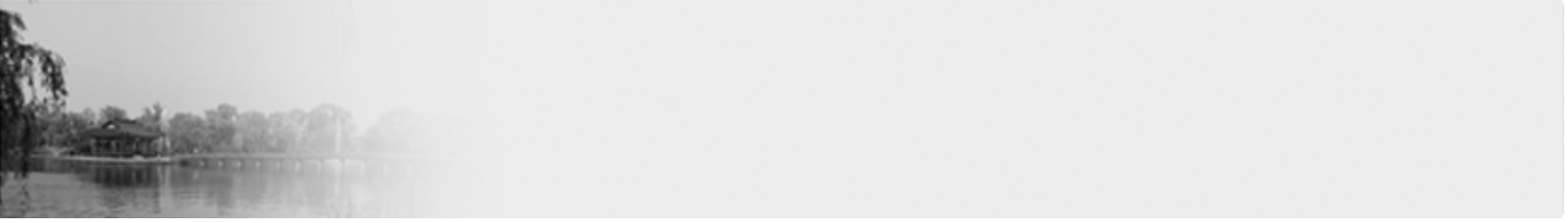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옛길 전체 탐방코스를 대상으로 총 80개소를 설치함

○ 각각의 휴식형 쉼터(벤치)는 간단한 휴식을 위한 벤치 2개소만 설치함

○ 가급적 자연지형 그대로를 사용하여 공간을 조성함으로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바닥은 잔디나 자연석을 도포함

〈표 Ⅷ-3〉 이동형쉼터 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종합		14.5
기본계획 및 설계	1식	0.7
시설물	벤치 2개소	0.3
공원바닥 포장	50㎡, 잔디포장	3.5
기반공사(토목 등)	토공, 우수공(D450~1000)	9.3
부대비용	1식	0.7



(2) 백제옛길 조성사업 전체 사업비

○ 전체 사업비는 11,252,200천원으로 시설비와 운영지원비로 구성

○ 시설비는 쉼터에 자연공원형 쉼터 1,746,000천원, 휴식형 쉼터 861,800천원, 이동형 쉼터 1,162,200천원으로 3,770,000천원이 소요되고 복합환승센터가 3곳 6,000,000천원이 소요됨

○ 안내와 홍보 관련 운영지원비는 BI구축이 30,000천원, 인쇄물이 150,000천원, 종합안내표지판이 25,000천원, 방향 및 거리표지판이 10,000천원, 홈페이지 구축이 150,000천원, 홍보메신저 지원이 80,000천원, 인력양성이 30,000천원, 스토리텔링공모전 42,200천원, 전시회 및 컨퍼런스 400,000천원, 비즈니스지원 500,000천원으로 소계는 1,482,200천원이 소요됨

▌백제옛길 조성 시설비

○ 자연공원형 쉼터(A-Type)은 1개소 당 102.7백만원이 소요되며, 전체 17개소를 조성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1,746.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휴식형 쉼터(화장실)(B-Type)는 1개소당 43.4백만원이 소요되며, 전체 20개소를 조성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861.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동형 쉼터(벤치)(C-Type) 1개소당 14.5백만원이 소요되며, 전체 80개소를 조성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1,162.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복합환승센터는 1개소당 2,000백만원이 소요되며, 3곳(공주, 부여, 익산)에 조성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6,000백만원이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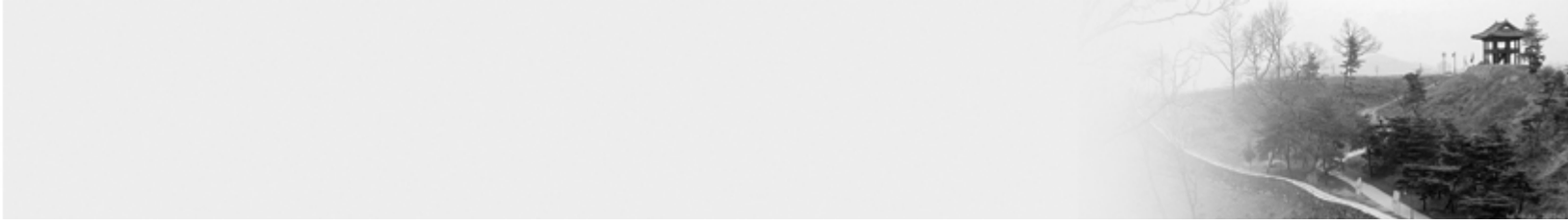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따라서 백제옛길 조성에 따른 전체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9,770.0백만원으로 예상됨

▌백제옛길 운영지원비

○ 백제옛길 BI구축사업은 공공투자비로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조성하고 전체 사업비는 30,000천원이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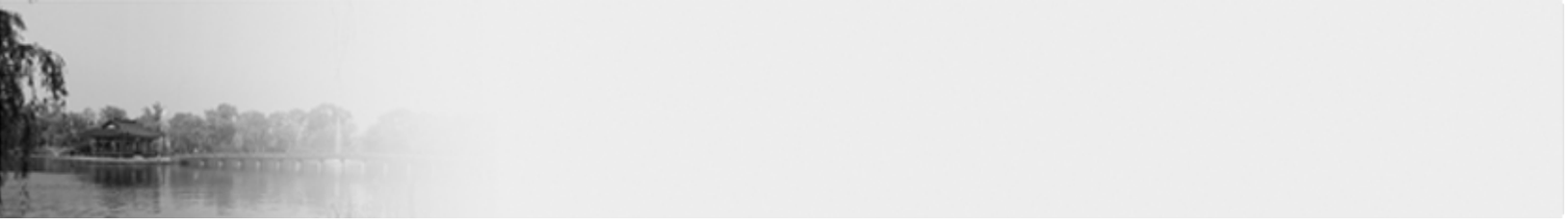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백제옛길 인쇄물은 3개 국어로 조성하며, 5개 지자체별로 제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따른 전체 사업비는 150,000천원이 예상됨

○ 종합안내판은 각 지자체별로 백제옛길이 시작되는 곳에 설치하며, 1개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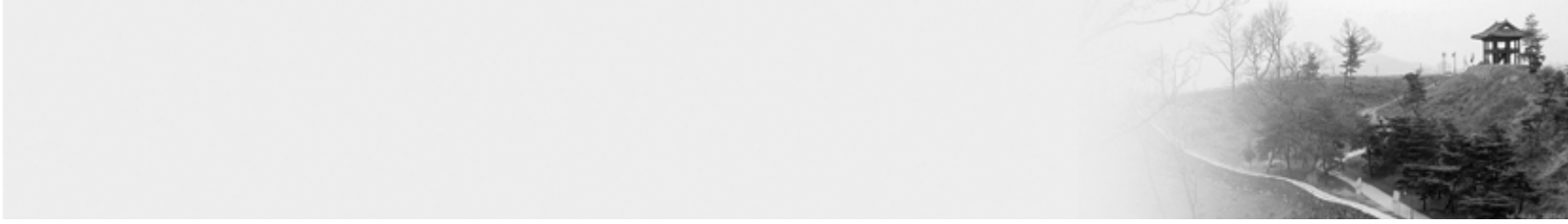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5,000천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25,000천원이 예상됨

- 방향 및 거리표지판은 주요 갈림길에 설치하며, 1개소당 200천원으로 50개에 설치하고 전체 사업비는 10,000천원으로 예상됨
- 홈페이지는 5개 지자체별로 제작하며, 도메인 및 호스팅, 인건비 및 제작비, 사이트 관리비(자료 업데이트), 유지보수비로 한 지역당 사업비는 30,000천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150,000천원으로 예상됨
- 홍보메신저 지원사업은 정기 블로거 기자단 및 트위터 서포터즈, 포털 파워블로거 초청백제옛길투어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0천원이 소요됨
- 인력양성은 백제옛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교육으로 백제 옛길 탐방 안내자 및 행사 진행요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1회 소요비용은 10,000천원으로 3회를 실시하고 전체사업비는 30,000천원이 소요됨
- 스토리텔링 공모전 운영은 백제역사문화를 소재로 한 극본의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극본을 디지털영상화하여 시판하는 것으로 2회를 실시하고 전체 사업비는 42,200천원이 소요됨
- 전시회, 축제 및 포럼 운영은 백제문화 전시회(예를 들어 '2010 대백제전) 등을 개최,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컨퍼런스 및 포럼을 운영, 익산 서동축제 개최 등으로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400,000천원이 소요됨
- 비즈니스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은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유통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앱 커뮤니티 구축, 백제문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 커뮤니티 운영 등으로 전체사업비는 500,000천원이 소요됨



〈표 Ⅷ-4〉 시설조성 및 투자비내역

사업명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시설비	자연형쉼터 (A-Type)	코스별 1개씩 설치	17개×102.7백만원	1,746,000
	휴식형쉼터 (B-Type)	5km 단위로 설치	20개×43.4백만원	861,800
	이동형쉼터 (C-Type)	2~3km 단위로 설치	80개×14.5백만원	1,162,200
	복합환승센터	공주,부여,익산	3곳×200.0백만원	6,000,000
	소 계			**9,770,000**
운영 지원비	BI구축	백제옛길 BI	1식×30,000천원	30,000
	인쇄물	3개 언어로 구성	6개지역×3식×1,000원×10,000부	180,000
	종합안내 표지판	각 지역별로 설치	5,000천원×6개소	30,000
	방향 및 거리표지판	주요 갈림길에 설치	200천원×50개소	10,000
	홈페이지	도메인 및 호스팅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6개 지역×30,000천원	180,000
	홍보메신저 지원	서포터즈, 파워블로거 초청	1식×80,000천원	80,000
	인력양성	인력교육	3회×10,000천원	30,000
	스토리텔링 공모전		2회×21,000천원	42,000
	전시회 및 컨퍼런스		4년×100,000천원	400,000
	비즈니스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2개 지역×100,000천원 2개 지역×150,000천원	500,000
	소 계			**1,482,200**
합 계				**11,252,200**



3) 연도별 · 재원별 투자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 총 사업비의 시기별 배분을 보면 2013~2016년간(4년간) 투입될 총 11,252,200천원 중 연차별 소요액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2,803,440천원(24.9%), 2014년 2,552,100천원(22.7%), 2015년 3,066,780천원(27.3%), 2016년 2,829,880천원(25.1%)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사업의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길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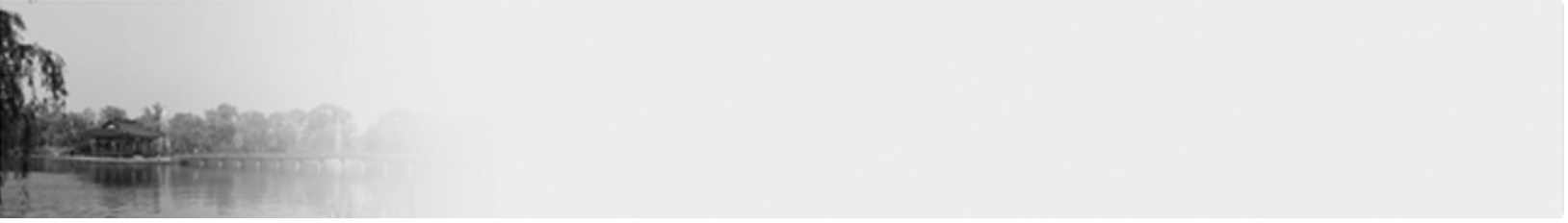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표 Ⅷ-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금액(천원)	2,803,440	2,552,100	3,066,780	2,829,880	11,252,200
비율(%)	24.9	22.7	27.3	25.1	100.0

○ 연도별 세부내역 전체비용 중 시설비는 9,770,000천원(86.8%)으로 이중 2013년에 2,582,340천원(26.4%), 2014년에는 2,331,000천원(23.9%), 2015년에는 2,591,780천원(26.5%), 2016년에는 2,264,880천원(23.2%)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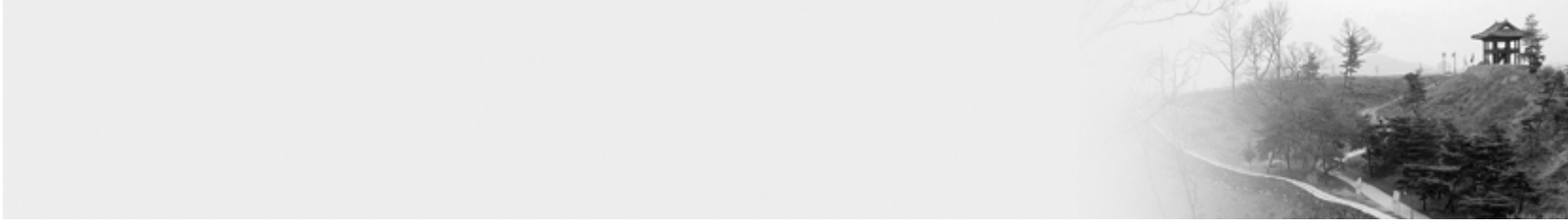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전체 사업비 중 운영비는 1,482,200천원(13.2%)으로 2013년 221,100천원(2.0%), 2014년에 221,100천원(2.0%), 2015년에 475,000천원(4.2%), 2016년에 565,000천원(5.0%)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Ⅶ-6〉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명	사업비	2013	2014	2015	2016
시설비	자연형쉼터	1,746,000	523,800	523,800	698,400	–
		15.5	30.0	30.0	40.0	–
	휴식형쉼터	861,800	258,540	258,540	344,720	–
		7.7	30.0	30.0	40.0	–
	이동형쉼터	1,162,200	–	348,660	348,660	464,880
		10.3	–	30.0	30.0	40.0
	복합환승센터	6,000,000	1,800,000	1,200,000	1,200,000	1,800,000
		53.3	30.0	20.0	20.0	30.0
	소계	3,770,000	782,340	1,131,000	1,391,780	464,880
		86.8	22.9	20.7	23.0	20.1
운영 지원비	BI 구축	30,000	–	–	30,000	–
		0.3	–	–	100.0	–
	인쇄물	180,000	–	–	90,000	90,000
		1.6	–	–	50.0	50.0
	종합안내표지판	30,000	–	–	–	30,000
		0.3	–	–	–	100.0
	방향거리표지판	10,000	–	–	–	10,000
		0.1	–	–	–	100.0
	홈페이지구축	180,000	–	–	90,000	90,000
		1.6	–	–	50.0	50.0
	홍보메신져지원	80,000	–	–	–	80,000
		0.7	–	–	–	100.0
	인력양성	30,000	–	–	15,000	15,000
		0.3	–	–	50.0	50.0
	스토리텔링 공모전	42,200	21,100	21,100	–	–
		0.4	50.0	50.0	–	–
	전시회 및 컨퍼런스	4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6	25.0	25.0	25.0	25.0
	비즈니스지원	5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4.4	20.0	20.0	30.0	30.0
	소계	1,482,200	221,100	221,100	475,000	565,000
		13.2	2.0	2.0	4.2	5.0
합계		**11,252,200**	**782,340**	**1,131,000**	**1,586,780**	**744,880**
		100.0	**18.4**	**26.6**	**37.4**	**17.5**



(2) 재원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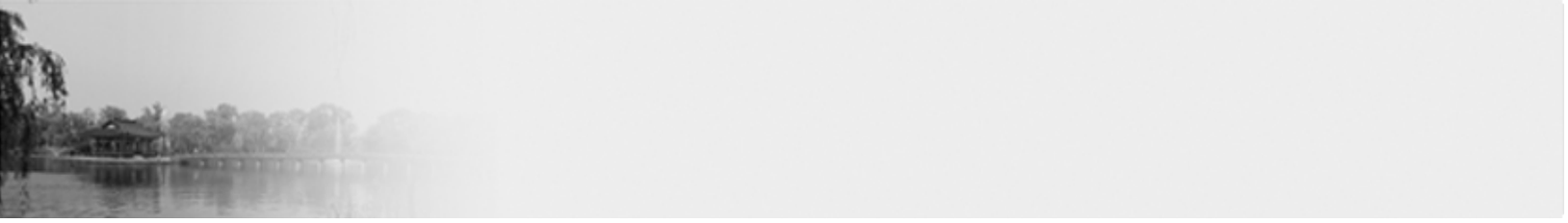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2013~2016년간 투입될 총사업비 11,252,200천원 중 주체별 분담액은 아래 〈표 Ⅶ-7〉과 같으며 국비 6,130,000천원(54.5%), 지방비 5,122,200천원(45.5%)이며,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의 특성상 민자사업은 없음

○ 재원별 세부내역에서 전체 중 시설비는 국비가 5,485,000천원(48.7%), 지방비가 4,285,000천원(38.1%)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645,000천원(5.7%), 지방비가 837,200천원(7.4%)로 나타남

〈표 Ⅶ-7〉 재원별 투자계획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명	사업비	국 비	지방비
시설비	자연형쉼터	1,746,000	873,000	873,000
		15.5	50.0	50.0
	휴식형쉼터	861,800	430,900	430,900
		7.7	50.0	50.0
	이동형쉼터	1,162,200	581,100	581,100
		10.3	50.0	50.0
	복합환승센터	6,000,000	3,600,000	2,400,000
		53.3	60.0	40.0
	소계	3,770,000	5,485,000	4,285,000
		86.8	48.7	38.1
운영 지원비	BI 구축	30,000	-	30,000
		0.3	-	100.0
	인쇄물	180,000	90,000	90,000
		1.6	50.0	50.0
	종합안내표지판	30,000	-	30,000
		0.3	-	100.0
	방향거리표지판	10,000	-	10,000
		0.1	-	100.0
	홈페이지구축	180,000	90,000	90,000
		1.6	50.0	50.0
	홍보메신저지원	80,000	-	80,000
		0.7	-	100.0
	인력양성	30,000	15,000	15,000
		0.3	50.0	50.0
	스토리텔링 공모전	42,200	-	42,200
		0.4	-	100.0
	전시회 및 컨퍼런스	400,000	200,000	200,000
		3.6	50.0	50.0
	비즈니스지원	500,000	250,000	250,000
		4.4	50.0	50.0
	소계	1,482,200	645,000	837,200
		13.2	5.7	7.4
합계		**11,252,200**	**6,130,000**	**5,122,200**
		100.0	**54.5**	**45.5**



4)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백제옛길 사업비용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의 백제옛길 관광루트 개발 사업으로 제안한 4개 지역(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사업비용은 10,000백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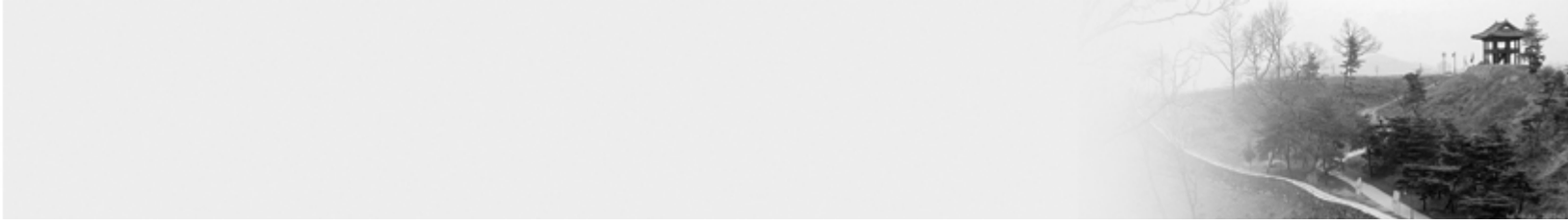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세부내역에서 시설비가 8,647.8백만원이고 운영지원비가 1,352.2백만원으로 추산되었음

○ 지역별로는 공주시가 시설비 2,508.7백만원 운영지원비 67.5백만원으로 합계 2,576.2백만원, 부여군이 시설비 3,019.0백만원, 운영지원비 67.5백만원으로 3,086.5백만원, 논산시가 시설비 712.5백만원, 운영지원비 67.5백만원으로 780.0백만원, 익산시가 시설비 2,407.6백만원, 운영지원비 67.5백만원으로 2,475.1백만원, 권역 공통으로 운영지원비 1,082.2백만원으로 추산됨

〈표 Ⅶ-8〉 투자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곳)

구 분	사업명		사업비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공통
시설비	공원형 쉼터	개수	12	2	5	3	2	
		비용	1,232.4	205.4	513.5	308.1	205.4	
	휴식형 쉼터	개수	14	3	5	4	2	
		비용	603.4	129.3	215.5	172.4	86.2	
	이동형 쉼터	개수	56	12	20	16	8	
		비용	812.0	174.0	290.0	232.0	116.0	
	복합환승센터		6,000.0	2,000.0	2,000.0		2,000.0	
	소계		8,647.8	2,508.7	3,019.0	712.5	2,407.6	
운영 지원비	BI 구축		30.0					30.0
	인쇄물		120.0	30.0	30.0	30.0	30.0	
	종합안내표지판		20.0	5.0	5.0	5.0	5.0	
	방향 거리표지판		10.0	2.5	2.5	2.5	2.5	
	홈페이지구축		120.0	30.0	30.0	30.0	30.0	
	홍보메신져지원		80.0					80.0
	인력양성		30.0					30.0
	스토리텔링공모전		42.2					42.2
	전시회및컨퍼런스		400.0					400.0
	비즈니스지원		500.0					500.0
	소계		1,352.2	67.5	67.5	67.5	67.5	1,082.2
합계			10,000.0	2,576.2	3,086.5	780.0	2,475.1	1,082.2



2. 재원조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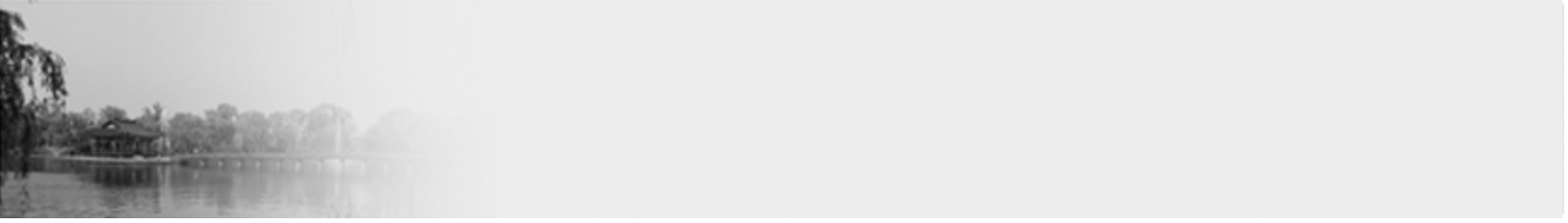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공공부문에서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지역수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광자원개발과 연계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강구

○ 민간부문에서 민간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의 각종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자본의 참여 유도, 투자분위기 창출, 지역주민의 참여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

〈표 Ⅶ-9〉 부문별 투자재원 조달방안

구 분	조 달 주 체	조 달 방 안
공공부문	중앙정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문화부 등)	• 주요 교통시설 투자의 적극 유도 • 공급처리시설의 개발 촉진 • 환경 및 관광자원 개발의 중앙정부 예산사업을 적극반영
	지방정부 (충청남도 및 시·군)	• 지역문화관광발전의 선도투자와 관련 공공사업비 자체확보 추천 • 문화관광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우선 조정 추진 • 관련 행정절차 조기추진,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간참여 유인강화
	지역단체	• 지역문화관광 행사 및 관광요원 교육 • 지역 문화·여가공간의 조성과 활성화 • 산·관의 협동체제 구축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상품개발
민자부문	민간기업	•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합동개발 모색 • 관광자원별 기업 단독 또는 기업간 합동개발 유도
	지역주민	• 지역주민 개발참여기회 우선 보장 • 개발 시 합리적 보상 실시 • 관련지역 사업의 전담권 홍성(특산물 생산판매, 원자재 조달, 각종 서비스 등)



2) 공공부문 투자재원 조달

○ 공공부문의 재원조달은 기존의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측면과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구분하고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짐

○ 현행 지원형태는 교부금, 보조금, 직접 투자참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이 중 국고보조금과 관광기금 등 관련 정책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는 자체재원을 개발하거나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경상비의 지출을 감소시켜 투자비를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개발부담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백제옛길 관련사업 목적으로 투자를 유도함

○ 관광지 개발관련 개발부담금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능 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과 관광사업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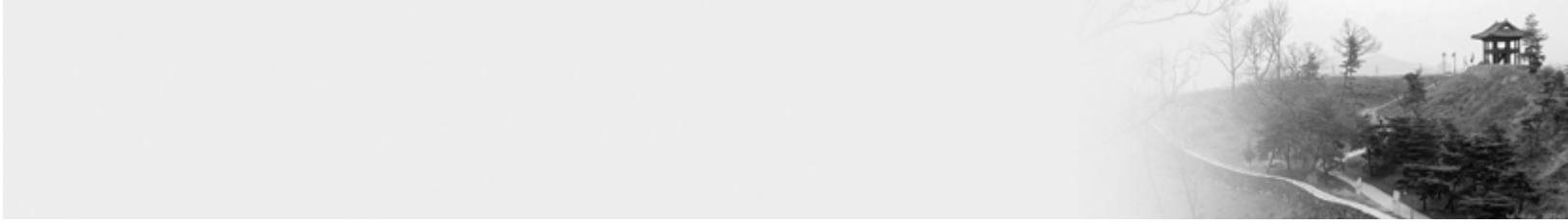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표 Ⅷ-10〉 관광지 개발관련 개발부담금 부과가능 사업

구 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사업	관련 법규
도시계획 사업	• 공동시설 –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 특수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 스포츠 위주 유원지 • 호수 등에 설치하는 유원지 – 보트장, 보교, 잔교, 계류장 등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관광개발 사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종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관광진흥법

○ 관계부처의 협의 자금에서 확보가 가능한 재원으로는 농림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자금에서 농어촌 정주권개발,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등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활용이 가능한 재원조달로는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의 농특회계 재원으로 자금지원대상으로는 농어촌 휴양단지, 관광농원, 민박마을, 한계농지개발 등이 있음

– 또한 산림청이 산림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휴양림 개발과 청소년진흥기금의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재원조달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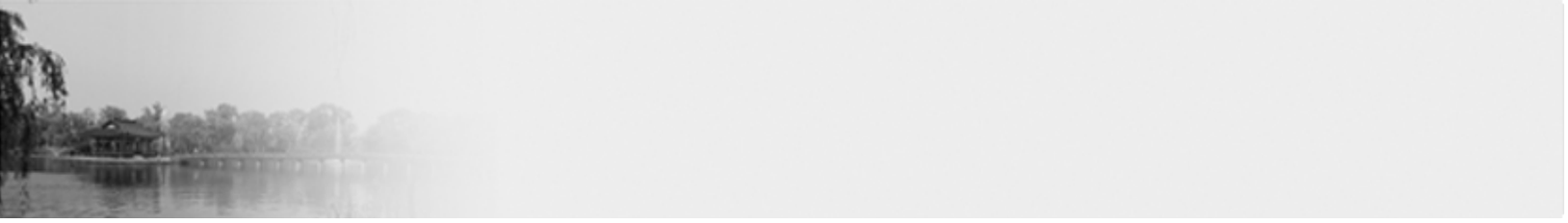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3) 민간부문 투자재원 조달

○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은 투자대상사업의 수익성을 전제로 하여 투자의 타당성이 기본요건이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장기적 전망을 미리 제시하고 공익성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함

○ 민간부문 투자재원 조달은 크게 충남 내·외의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방안과 지역주민·단체에 의한 방안 그리고 각종 협회 · 조합 · 지역금융기관 등 기존 지역자본 보유단체에 의한 조달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함

〈표 Ⅶ-11〉 민자유치 기본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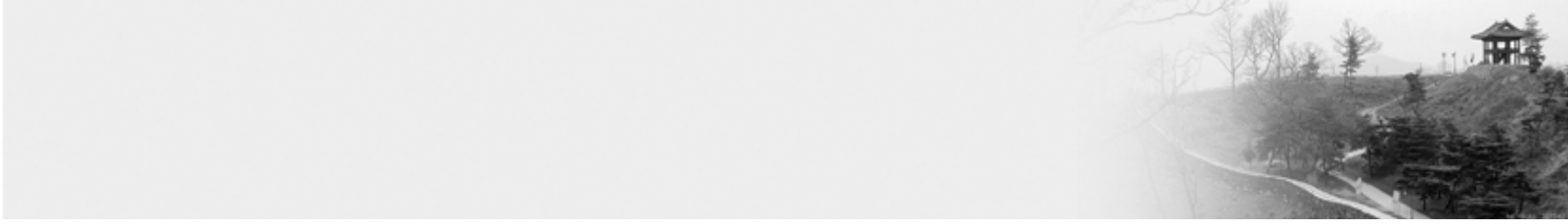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기본전략	활 성 화 방 안
공공시설 투자개발	• 하부기반시설 개발에 중앙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의 적극적 지원유도(건설교통부 등) • 일부 대규모 개발 시에도 직접참여 및 개발이익 재투자 유도 • 개발 전담권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일부 공공사업의 민간기업 대거 시행제도 검토(도로일부구간, 공원조성 등)
민간투자 여건개선	• 지역연고가 있는 외부기업 적극 유치 및 타 산업 기업체의 참여문호 개방 • 지역 잠재 투자가의 적극 발굴(토지소유자, 향토기업, 지역금융기관, 지역단체 · 조합 등) 및 개발권을 지역 연고자에게 우선 제공(연고권 인정제도 등) • 각종 개발투자 촉진 인센티브의 제공(행정지원 · 세제 · 금융 등) • 제3섹터방식의 적극 참여 유도
사회여론의 긍정적 환기	• 백제옛길 개발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 홍보 · 선전 •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을 제도화(공청회 등)하고,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수립 및 실행 의무화 – 백제옛길 사업의 주민참여 보장 – 기술 · 정보지원, 교육훈련 실시 등 • 자율적 백제옛길 개발조합의 결정지원으로 지역주민 참여와 지지기반 강화
용지매입 및 보상의 원활한 추진	• 백제옛길 자원개발지역의 토지보상 시 시유지와 환지 방식 고려 •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 참여 유도(현물출자 방식 등) • 보상물권이 최소화되도록 관련계획 검토(토지, 가옥 등) • 민간기업의 개발용지 확보 시 행정지원 강화



○ 민간부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 백제옛길개발 사업에 관한 경제적·사회적 중요성 및 의의 등을 지역주민과 군민들에게 홍보·계도하여 백제옛길 개발사업의 분위기를 사전에 확산시킴
- 백제옛길 개발사업 관련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조기에 추진함
- 지역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을 원칙으로 하나 역외 자본도 적극 유치하여 활용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함
- 지역기업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백제옛길 개발사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잠재 자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에 연고가 있는 외부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

○ 지역주민의 백제옛길 개발의 참여를 확대하여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여건을 조성하여 "개발사업의 참여보장"과 "주민의사의 최대 반영", "제도적 지원", "토지소유자의 합동개발" 유도 등의 방안이 있음



3. 투자파급효과

1) 투자파급효과 측정의 전제

○ 지역경제의 성장은 지역을 구성하는 각 산업의 성장에 의해 나타나며, 각 산업의 성장은 그 산업제품의 외부 수요 변화에 의해 결정됨

○ 이러한 측면에서 백제옛길 조성 사업은 관광객들의 집객에 따라 지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소비지출 증대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은 지역의 생산구조와 지역간 교역구조가 구체적으로 고려된 모형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정책분석에 있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백제옛길 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 유입과 이에 따른 비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여효과는 제외하고 추정함

○ 경제적 요인에 의한 파급효과는 크게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로 추정되며, 본 분석에서는 충남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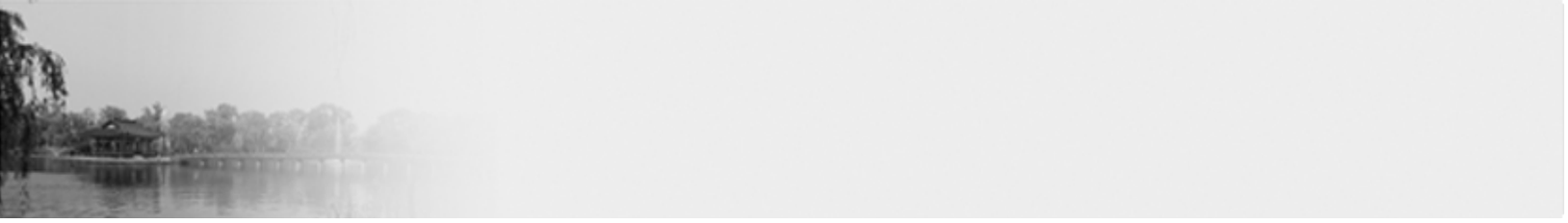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모형

(1) 분석의 개요

○ 지역개발의 파급효과 분석은 기본적으로 수요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함. 왜냐하면 개발사업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건설 및 투자수요에 따른 지역총생산(GRDP)은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 백제 옛길 조성의 파급효과는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라 지역에 발생되는 효과임

○ 따라서 개발에 따른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지역 투입산출모형(multi-region input-output model, MRIO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함



○ 따라서 본 결과는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5년 산업연관표를 세분화한 다지역산업연관표(충남발전연구원, 2009)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되었음

- 전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남, 충북, 대전, 전라권(광주, 전북, 전주,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8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따라서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충남지역과 나머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민경제는 두 지역 경제로 구성됨을 가정함

○ 또한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백제옛길 조성의 사업후인 2016년부터 발생하는 파급효과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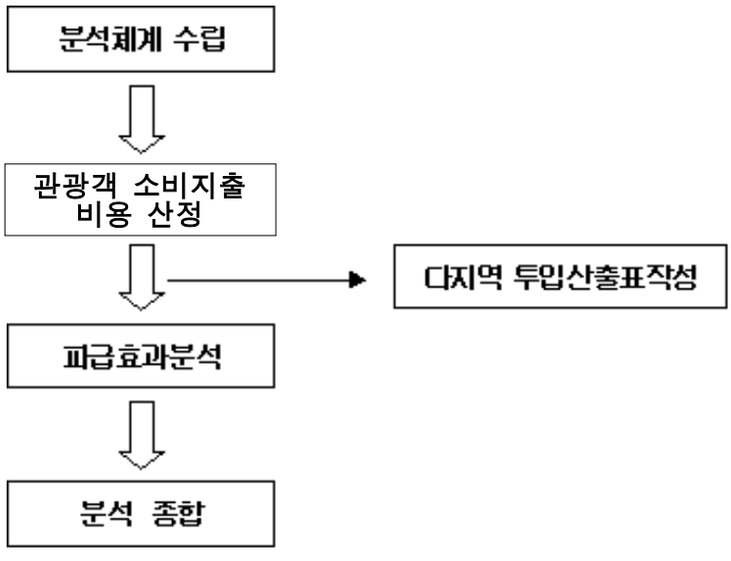
○ 앞에서 제시한 관광객 수요를 바탕으로 관광객 소비지출 규모를 추정하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함

○ 또한 분석결과의 파급효과 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경상가격으로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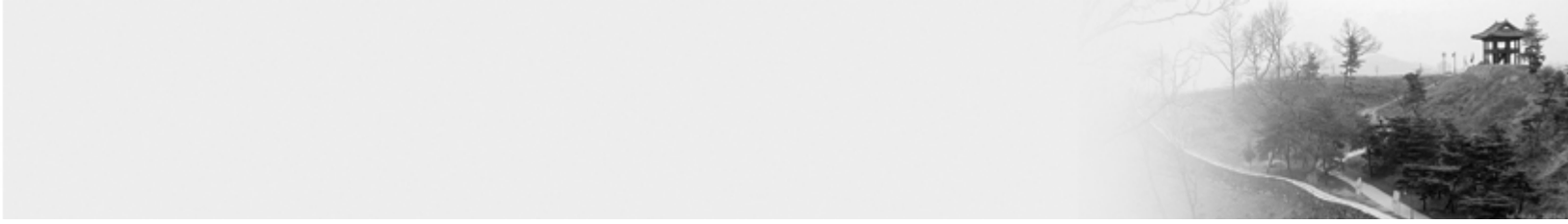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파급효과 분석은 다음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단계에 의해 이루어짐

○ 제1단계는 분석체계를 수립하며, 제2단계는 개발에 관광객 소비지출 규모를 산정하게 됨

○ 제3단계에서는 다지역 투입산출표가 작성되며, 제4단계는 앞의 제1단계에 제시된 사업의 개요와 수립된 분석체계에 따라 파급효과가 분석되며, 마지막으로 분석과 파급효과가 종합됨



[그림 Ⅶ-1] 파급효과분석의 진행과정



3) 관광객 소비지출 구조 변화

(1) 도보여행 수요 추정

○ 앞서 분석된 도보여행의 수요 추정의 결과 도보여행 수요는 2012년 451,809명에서 2016년 866,74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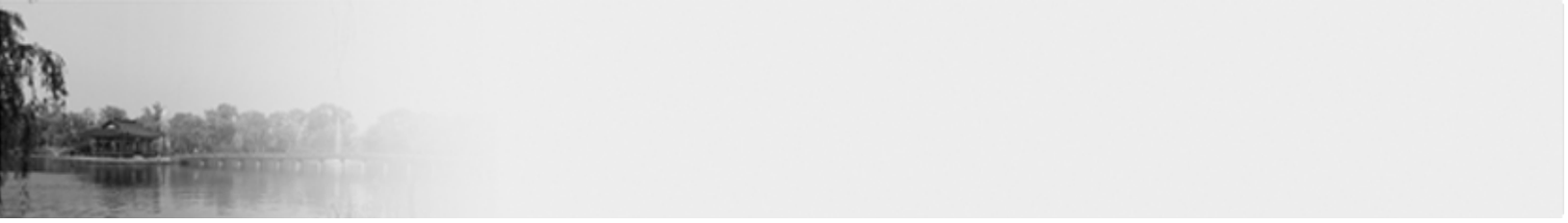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또한 계획구역의 도보여행 수요 예측을 위해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계획구역 도보여행 참여의사 68.8%를 적용하였음

○ 이에 따라 2012년 310,845명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376,657명, 2014년 446,065명, 2015년 519,229명, 2016년에 596,319명으로 추정되었음

○ 본 분석에서는 2016년 관광객 수요인 596,319명이 매년 백제 옛길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분석을 실시함

〈표 Ⅶ-12〉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추정

구 분	충남관광객수 추정	계획구역 관광객수 추정	도보여행 비율	도보여행 수요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
2010년		점유율	4.55%		참여의사
2011년		18.2%	5.80%		68.8%
2012년	35,212,312	6,408,641	7.05%	451,809	310,845
2013년	36,241,697	6,595,989	8.30%	547,467	376,657
2014년	37,302,261	6,789,012	9.55%	648,351	446,065
2015년	38,395,081	6,987,905	10.80%	754,694	519,229
2016년	39,521,380	7,192,891	12.05%	866,743	596,319



(2) 자료의 이용

▌1인당 평균 여행 지출액 및 여행일수

○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평균 여행 지출액은 206,17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 평균 여행일수는 7.99일로 나타났음

○ 따라서 1인 여행 1회 평균 지출비용은 25,803원임

〈표 Ⅶ-13〉 1인 평균 여행 지출액 및 여행일수

구분	전체	숙박	당일
1인 평균 여행 지출액(만 15세이상) (A)	206,170	161,327	44,843
1인 평균 여행일수(만 15세이상) (B)	7.99	6.2	1.79
1인 1회 여행시 평균 지출액(C=A/B)	25,803	26,020	25,05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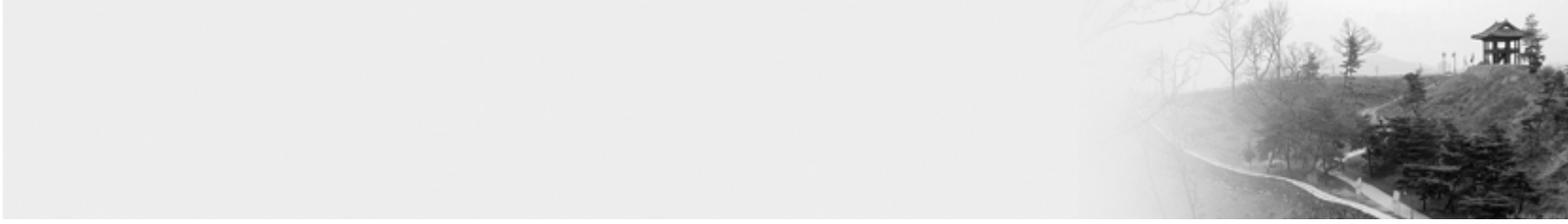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여행객 여행 지출액 구성비

○ 국민여행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여행객들의 항목별 지출비용은 교통비 20.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단체여행비 20.5%, 외식비 19.6%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Ⅶ-14〉 여행객 항목별 여행 지출액 구성비

항목		비율(%)
1	음식료품	10.6
2	외식비	19.6
3	숙박	9.2
4	문화오락운동비	6.2
5	교통비	20.6
6	쇼핑비(상품/서비스)	5.5
7	단체여행비	20.5
8	여행상품구입비	6.8
9	기타	1.0

주: 문화제육관광부(2011),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



▌관광객 소비지출액

○ 추정된 도보여행객들의 수요와 1인당 여행 1회 평균 지출비용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 계획구역 도보여행 수요는 연차별로 증가세에 있음. 본 분석에서는 2016년 도보여행 수요인 596,319명이 매년 백제옛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가정하여 관광객 소비지출액을 산출하였음

○ 매년 산출된 소비지출액은 다음과 같으며 2016년 관광객 소비지출액은 15,386백만원임

〈표 Ⅶ-15〉 관광객 소비지출액

연도	소비지출액(백만원)
2012년	8,020.73
2013년	9,718.88
2014년	11,509.82
2015년	13,397.67
2016년	15,386.82

(3) 산업구분 및 산업별 소비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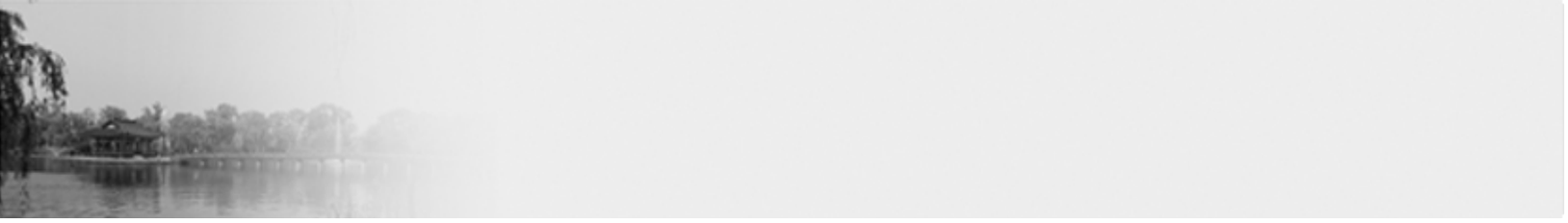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다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관광객 소비지출액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함

○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구분과 여행 항목별 구분상의 산업구분이 일치하여야 함

○ 따라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구분과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여행 항목별 구분은 다음 표와 같음

- 여행항목별 음식료품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구분인 음식료품(3), 여행항목의 교통비는 수송장비(15), 쇼핑비는 도소매(19), 외식비와 숙박은 음식점 및 숙박(20), 문화오락운동비, 단체여행비, 여행상품구입비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27), 기타는 기타(28)산업으로 구분됨

○ 앞서 산출된 2016년 관광객 소비지출액은 15,386백만원이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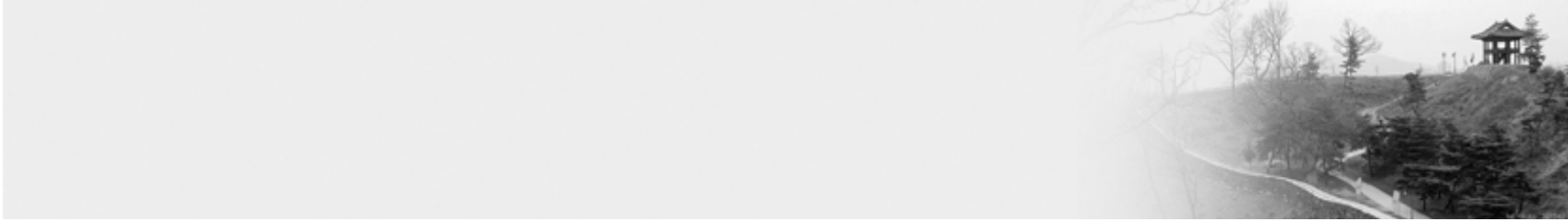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여행 항목의 소비지출액은 총 15,386백만원 중 음식료품 1,631백만원, 수송장비 3,169백만원, 도소매 4,431백만원, 사회 및 기타서비스 5,154백만원, 기타 153백만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산업으로 구분된 관광객 소비지출 금액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최종소비 변화액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Ⅶ-16〉 여행항목의 산업구분 및 소비지출 금액

산업연관표 산업구분		여행 항목별 구분			소비지출 금액(백만원)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음식료품			1,631.00
4	섬유 및 가죽제품				-
5	목재 및 종이제품				-
6	인쇄 및 복제				-
7	석유 및 석탄제품				-
8	화학제품				-
9	비금속광물제품				-
10	제1차 금속제품				-
11	금속제품				-
12	일반기계				-
13	전기 및 전자기기				-
14	정밀기기				-
15	수송장비	교통비			3,169.68
16	기타제조업제품				-
17	전력,가스및수도				-
18	건설				-
19	도소매	쇼핑비 (상품/서비스)			846.28
20	음식점 및 숙박	외식비	숙박		4,431.40
21	운수				-
22	통신 및 방송				-
23	금융 및 보험				-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25	공공행정 및 국방				-
26	교육 및 보건				-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문화오락 운동비	단체여행비	여행상품 구입비	5,154.58
28	기타	기타			153.87
계					15,386.82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모형

○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은 매우 다양하며, 기존의 지역경제모형으로는 계량경제모형(economic model), IO(input-output model)모형,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 method), 수출기반모형(export-based model)등과 같은 부분균형체계모형(partial equilibrium framework)의 모형들이 정책이나 계획분야의 분석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음

○ 본 연구에서는 다지역 산업연관 모형을 사용하도록 함

(1) 산업연관분석모형의 개요

▌산업연관분석모형

○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은 원재료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직접, 간접으로 연관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임

○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인 산업연관표의 작성이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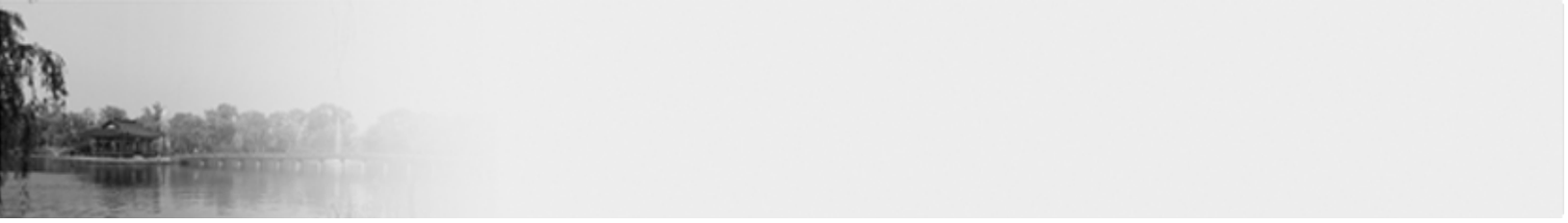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다지역산업연관모형

○ 전국 투입산출모형은 산업의 구분이 지역별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제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측정될 수 없음

○ 투입산출모형이 지역경제에 대해 의미 있는 분석 및 예측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념, 즉 공간개념이 고려되어야 함. 공간개념이 투입산출표에 반영될 때에 지역모형은 전국모형과 구분될 수 있음

○ 투입산출모형이 지역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의 두 특성이 투입산출표에 반영되어야 함

- 첫째는 생산구조의 지역특성임. 전국 투입산출표로부터 계산되는 산업간 투입계수는 각 지역의 산업간 투입계수의 전국 평균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의 투입계수는 전국의 투입계수와 유사할 수도 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모형에 반영되어야 함



- 둘째는 지역의 개방성임. 이는 지역간 상품의 흐름 즉, 지역간 교역을 의미함. 지역간 교역에 의해 지역간 상호 연관관계는 나타나므로 정확한 지역경제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의 개방성이 모형에 반영되어야 함

○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석지역을 포함한 다지역 투입산출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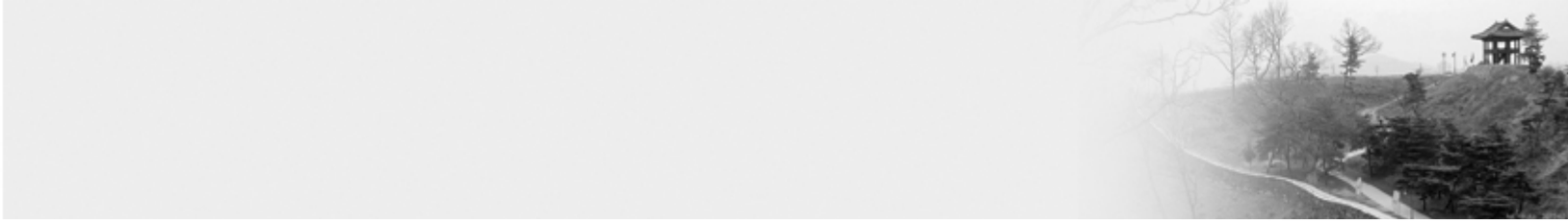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기본구조

○ 일반적인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구조는 다음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음.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국민경제는 r과 s의 두 지역경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지역 모두 n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함

배분 / 투입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산출
			지역 r	지역 s	지역 r	지역 s	
			1 … j … n	1 … j … n			
중간투입	지역 r	1 … i … n	$c_i^{rr}a_{ij}^{r}X_j^{r}$	$c_i^{rs}a_{ij}^{s}X_j^{s}$	$c_i^{rr}F_i^{r}$	$c_i^{rs}F_i^{s}$	X_i^{r}
	지역 s	1 … i … n	$c_i^{sr}a_{ij}^{r}X_j^{r}$	$c_i^{ss}a_{ij}^{s}X_j^{s}$	$c_i^{sr}F_i^{r}$	$c_i^{ss}F_i^{s}$	X_i^{s}
부가가치	노동		$w_j^{r}L_j^{r}$	$w_j^{s}L_j^{s}$			
	자본		$r_j^{r}K_j^{r}$	$r_j^{s}K_j^{s}$			
총투입			X_j^{r}	X_j^{s}			

주) c_i^{rs}: 지역간 교역계수, a_{ij}^{r}: 투입계수, F_i^{r}: 최종수요, X_i^{r}: 총산출액.

[그림 Ⅷ-2]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의 구조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모형

▌생산효과

○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은 지역간 산업간 재화의 흐름을 나타내는 다지역 투입산출표를 바탕으로 지역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해당 지역경제를 포함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시해 줌

○ 앞의 그림에 제시된 다지역 투입산출표에 나타난 재화의 배분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CAX + CF = X \qquad \cdots(1)$$

X : 지역별 산업별 총 산출액 행렬($nm \times 1$)

F: 최종수요 벡터($m \times 1$)

C: 지역간 산업간 재화의 교역계수 행렬($nm \times nm$)

A: 투입계수 행렬($nm \times nm$)

m: 지역 수, n: 산업 수

○ 위의 식으로부터 지역별 산업별 산출액 및 각 산업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와의 관계는 식(2)와 같이 표현됨

○ 이를 이용하여 지역의 산업별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지역 및 전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됨

$$\Delta X = (I - CA)^{-1} \cdot C \cdot \Delta F \qquad \cdots(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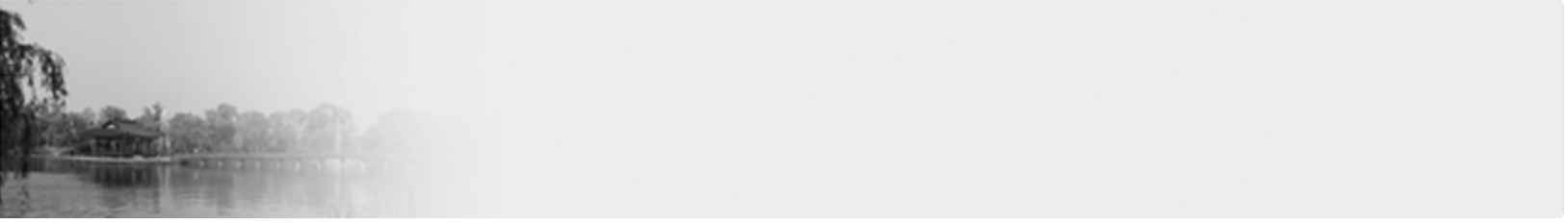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I - CA)^{-1} = \left[\lambda_{ij}^{RS}\right] \qquad \cdots(3)$$

ΔX: 생산액 변화, ΔF: 최종수요의 변화

$\left[\lambda_{ij}^{RS}\right]$: 레온티에프 역행렬(S지역 j산업의 최종수요 한단위 변화가 R지역 i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란 각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지역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액에 미치는 효과를 말함

○ 이러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식(4)와 같이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규모와 부가가치 계수 행렬의 곱으로 계산됨

- 부가가치 계수행렬은 투입산출표의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생산액으로 나누어 준 값임

$$\Delta V = A_V \cdot (I - CA)^{-1} \bullet C \bullet \Delta F \quad \cdots(4)$$

$$A_V = \frac{VA}{X} \quad \cdots(5)$$

ΔV: 부가가치 유발효과

A_V: 부가가치 투입계수

VA: 산업별 부가가치

▌고용효과

○ 고용효과란 각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함

○ 고용효과는 식(6)과 같이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규모와 고용자 투입계수 행렬의 곱으로 계산됨

- 고용자 투입계수 행렬은 단위 생산액당 고용자의 투입규모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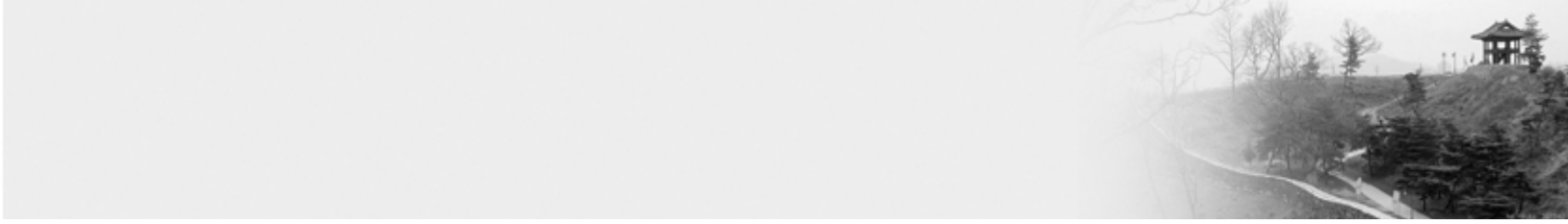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Delta W = E_W \cdot (I - CA)^{-1} \bullet C \bullet \Delta F \quad \cdots(6)$$

$$E_W = \frac{EM}{X} \quad \cdots(7)$$

ΔW : 건설부문의 고용승수

E_W : 고용자 투입계수 행렬

EM : 산업별 고용자 규모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분석대상 및 전제

○ 분석대상은 충청남도에 조성되는 백제 옛길 조성의 건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투자개요는 본 연구의 앞 절에 밝힌 바와 같음

○ 분석기준년도는 2012년이며, 투자금액 총 42.45억원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함

○ 또한 옛길 조성을 위한 건설 투자기간인 동안인 2013~2016년의 총 파급효과를 분석함

○ 투자금액은 공장 건설에 따른 비용과 업종과 관련된 시설투자로 나뉘며, 이때 총 투자금액에서 공장건설 비용과 시설투자 비용의 투자비율은 같다고 가정함

(2) 분석자료

▌2005년 지역간 산업연관표 적용

○ 본 결과는 2005년 산업연관표를 충남, 충북, 대전 등 8개 권역으로 세분화한 산업연관표(충남발전연구원, 2009)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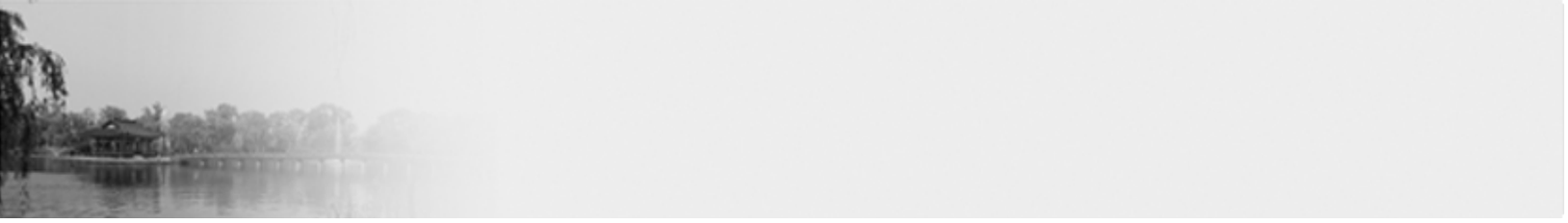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전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남, 충북, 대전, 전라권(광주, 전북, 전주,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8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3) 분석결과

○ 백제옛길 조성에 따른 관광객 소비지출 비용인 15,386백만원이 매년 충남지역에서 지출됨에 따라 충남지역 효과는 22,898백만원의 생산유발, 9,038백만원의 부가가치 증가, 290명의 고용증가 효과 발생

○ 우리나라 전 지역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40,684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5,387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383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매년 관광객들이 지출하는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유발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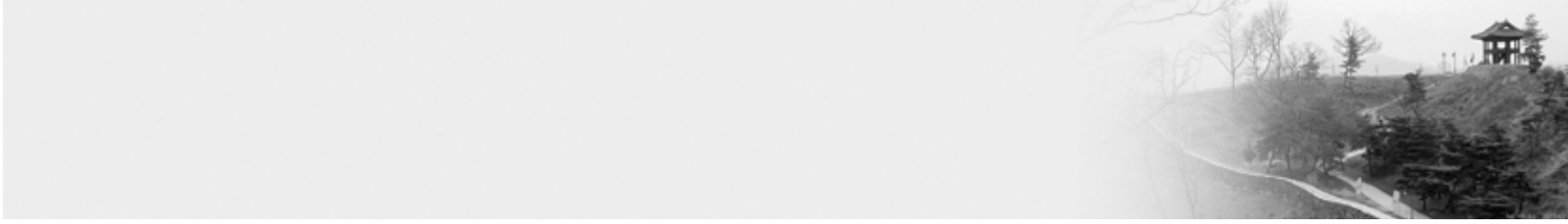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표 Ⅷ-17〉 백제옛길 조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합계
관광객 총 지출금액			15,386
파급 효과	생산 유발효과	충남(백제권)지역	22,898
		기타지역	17,786
		전국	40,684
	부가가치 유발효과	충남(백제권)지역	9,038
		기타지역	6,349
		전국	15,387
	고용 유발효과	충남(백제권)지역	290
		기타지역	93
		전국	383

주1 : 파급효과는 시설 투자 후인 2016년 이후에 발생하는 1년 단위의 효과임

주2 : 관광객 총 지출금액 15,386억원에 인한 효과임



(4)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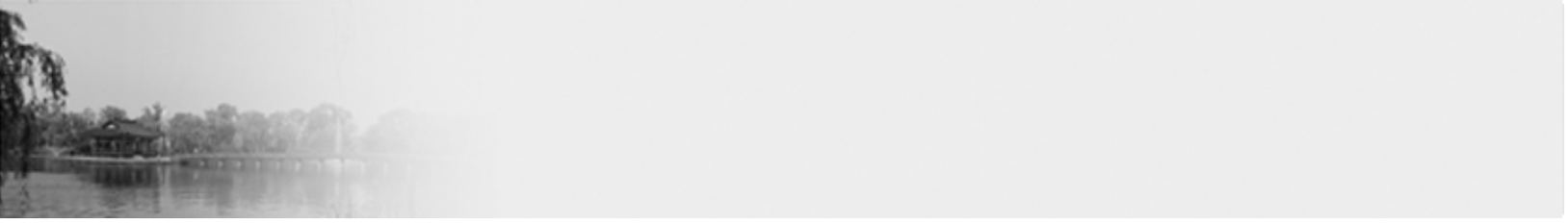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의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충남지역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으로 5,461백만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산업 4,803백만원, 수송장비 3,481백만원, 음식료품 2,47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Ⅷ-18〉 지역별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산업구분		전국	충남지역	기타지역
계		40,684	22,898	17,786
1	농림수산품	2,081	510	1,571
2	광산품	992	203	789
3	음식료품	4,001	2,479	1,522
4	섬유 및 가죽제품	219	19	200
5	목재 및 종이제품	550	62	489
6	인쇄 및 복제	192	12	180
7	석유 및 석탄제품	1,136	171	965
8	화학제품	2,297	413	1,884
9	비금속광물제품	184	38	146
10	제1차 금속제품	1,997	74	1,923
11	금속제품	469	45	425
12	일반기계	577	42	535
13	전기 및 전자기기	950	102	848
14	정밀기기	134	6	128
15	수송장비	5,629	3,481	2,148
16	기타제조업제품	212	13	199
17	전력,가스및수도	728	439	289
18	건설	129	74	55
19	도소매	2,199	1,730	469
20	음식점 및 숙박	4,934	4,803	131
21	운수	942	237	705
22	통신 및 방송	444	300	144
23	금융 및 보험	832	478	355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152	864	1,288
25	공공행정 및 국방	24	13	11
26	교육 및 보건	153	101	53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5,540	5,461	79
28	기타	986	728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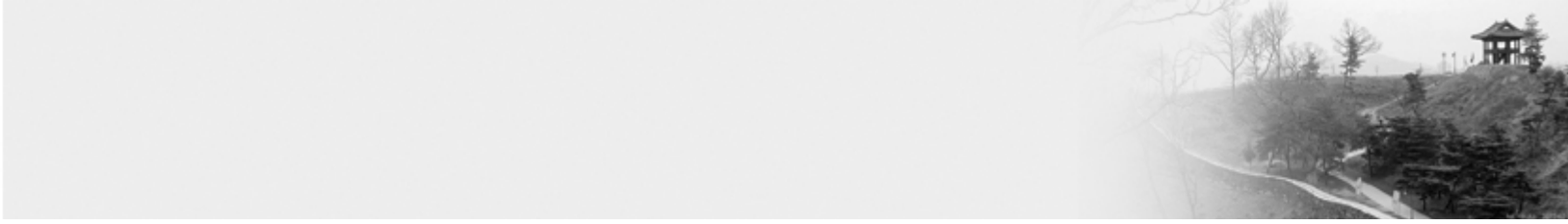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부가가치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충남지역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 2,715백만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산업 1,927백만원, 도소매 1,031백만원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Ⅶ-19〉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산업구분		전국	충남지역	기타지역
계		15,387	9,038	6,349
1	농림수산품	1,228	307	922
2	광산품	571	116	455
3	음식료품	973	499	474
4	섬유 및 가죽제품	66	5	60
5	목재 및 종이제품	152	17	135
6	인쇄 및 복제	80	5	75
7	석유 및 석탄제품	343	52	291
8	화학제품	530	97	433
9	비금속광물제품	59	13	46
10	제1차 금속제품	382	14	368
11	금속제품	147	14	133
12	일반기계	160	12	149
13	전기 및 전자기기	238	27	211
14	정밀기기	38	2	36
15	수송장비	1,178	702	475
16	기타제조업제품	63	4	59
17	전력,가스및수도	315	199	116
18	건설	58	33	25
19	도소매	1,310	1,031	279
20	음식점 및 숙박	1,980	1,927	53
21	운수	419	122	298
22	통신 및 방송	216	146	70
23	금융 및 보험	522	299	222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481	602	879
25	공공행정 및 국방	16	9	8
26	교육 및 보건	106	70	36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2,755	2,715	40
28	기타	-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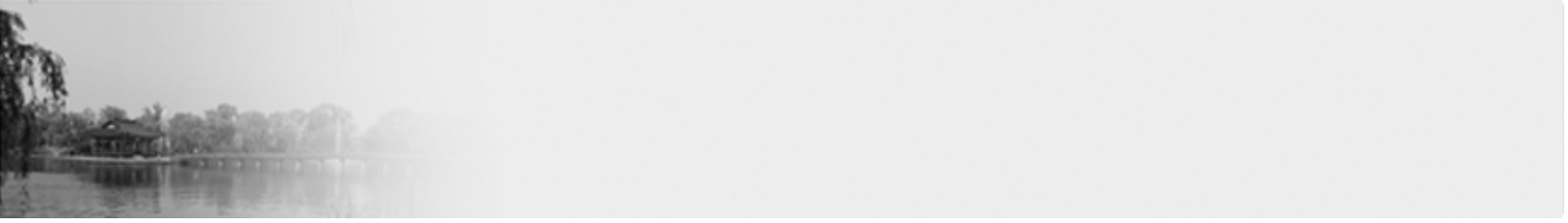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고용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의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충남지역 음식점 및 숙박산업으로 144명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산업 53명, 도소매 40명, 음식료품 11명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Ⅷ-20〉 지역별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구분		전국	충남지역	기타지역
계		383	290	93
1	농림수산품	2	0	1
2	광산품	5	1	4
3	음식료품	17	11	6
4	섬유 및 가죽제품	2	0	2
5	목재 및 종이제품	3	0	3
6	인쇄 및 복제	4	0	4
7	석유 및 석탄제품	0	0	0
8	화학제품	6	1	5
9	비금속광물제품	1	0	1
10	제1차 금속제품	2	0	2
11	금속제품	4	0	3
12	일반기계	3	0	3
13	전기 및 전자기기	3	0	3
14	정밀기기	1	0	1
15	수송장비	15	9	6
16	기타제조업제품	2	0	2
17	전력,가스및수도	1	1	0
18	건설	1	0	0
19	도소매	51	40	11
20	음식점 및 숙박	148	144	4
21	운수	11	4	8
22	통신 및 방송	1	1	0
23	금융 및 보험	6	3	2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5	9	16
25	공공행정 및 국방	0	0	0
26	교육 및 보건	3	2	1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54	53	1
28	기타	13	10	4



4. 사회문화와 정책적 파급효과

1)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일반적으로 백제옛길 조성은 투입금액에 비해 조성 및 관리 등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발생함

○ 백제옛길 조성은 지역의 명품 걷기 코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외부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집객효과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음

- 지역에 숨겨져 있던 자원을 재발견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 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관광객의 지출액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고, 지역민과 외지인이 직접 대면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외지인에게는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계기를 마련함
- 또한 지역의 최대 고민이었던 비수기 시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수행함

○ 백제옛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있음

- 지역 관광이 단체관광버스나 자동차가 이동수단의 대부분이었지만, 백제옛길 조성을 통해 일반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 정책적 파급효과

○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문화유적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하여 백제옛길 조성을 통해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여론 형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의 역할을 수행함

○ 기존 공주, 부여 중심의 백제문화권 인식에서 공간적으로 확대시켜 지역의 홍보 및 위상 강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으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효과가 기대됨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자긍심을 부여하며, 외래 관광객들의 왕래로 인한 타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가 증대하여 주민의식의 선진화 효과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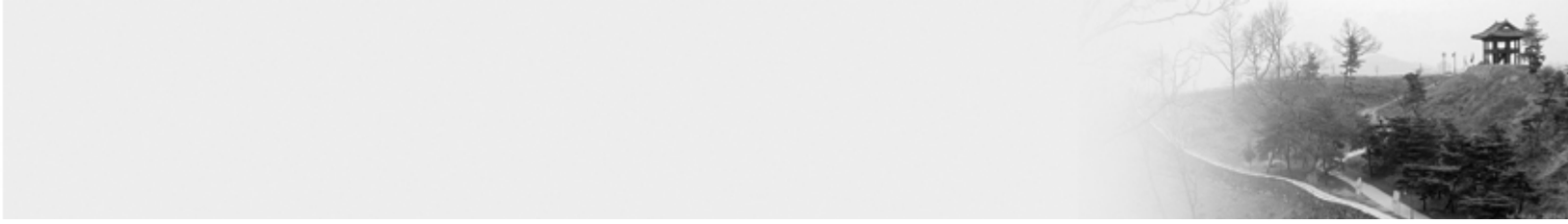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 또한 백제옛길 조성으로 지역을 걷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데 지역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부 록

1. 설문지

2. 지역별 역사문화자원

3. 루트별 역사문화자원



1. 설문지

「백제옛길 조성 연구용역」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에서는 백제역사유적의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백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백제 옛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 옛길 구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백제 옛길 조성과 관련된 요구사항과 필요사항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백제 옛길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 5.

연락처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김경태(041-840-1253, kimkt@cdi.re.kr)
권미정(041-840-1256, mwhs@cdi.re.kr)

◆ 백제 옛길 조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백제 옛길(공주-부여-논산-익산-서천) 조성 시 가장 기대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① 공주-부여	② 부여-서천	③ 부여-논산	④ 논산-익산	⑤ 기타

2. 도보 여행 지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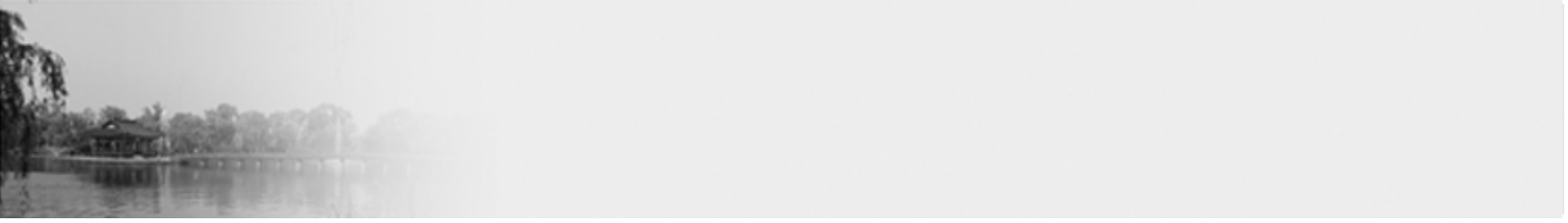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① 주변 경관 및 자연환경	② 역사문화적 자원	③ 걷는시간(거리)
④ 같이 가는 사람	⑤ 주변 편의시설	⑥ 집에서부터의 거리

3. 도보 여행 지 관련 정보 획득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① TV 방송	② 신문/잡지	③ 인터넷	④ 주변인물	⑤ SNS	⑥ 기타

4. 백제 옛길 조성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야	평가 문항				
안전시설	① 노면 상태	② 안전장치	③ 가로등	④ 대피공간	⑤ 기타
안내시설	① 탐방길 자료	② 구간소개 및 안내표지	③ 이정표	④ 안내원	⑤ 기타
편의시설	① 휴게공간	② 화장실	③ 식음시설	④ 주차장	⑤ 기타
체험시설	① 역사체험공간	② 전망공간	③ 놀이공간	④ 생태체험공간	⑤ 기타
지원시설	① 방문자센터	② 의료공간	③ 물품보관소	④ 배달시설	⑤ 기타
부대시설	① 야영장	② 농산어촌 체험관	③ 휴양림 등 숙박시설	④ 지역특산물판매소	⑤ 기타
연계시설	①역사문화유적 체험	② 주변마을 탐방	③ 숙박 및 음식시설	④ 대중교통 연계시설	⑤ 기타



5. 백제 옛길에서 걸을 때 한 코스 당 가장 적당한 소요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입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시간-2시간	③ 2시간-3시간	④ 3시간-4시간	⑤ 4시간 이상

6. 백제 옛길에서 전체 여행 기간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당일	② 1박2일	③ 2박3일	④ 3박4일	⑤ 4박5일

7. 백제 옛길을 여행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증진	② 자아성찰	③ 주변사람과 유대감	④ 백제역사자원 체험
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⑥ 자연생태 체험	⑦ 역사,환경 등 교육	⑧ 기타 ( )

8. 백제옛길 여행 시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①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애인	④ 직장동료	⑤ 동호회

9. 백제 옛길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버스 등 대중교통	④ 자가용	⑤ 기타( )

10. 백제 옛길 지역 간(공주-부여-논산-익산-서천)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자전거	③ 버스 등 대중교통	④ 자가용	⑤ 기타( )

11. 백제 옛길 조성 시 여행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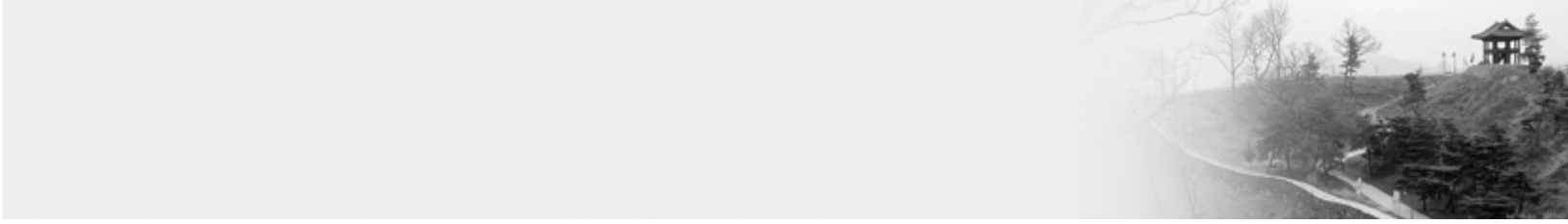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① 절대 없다	② 없다	③ 중간이다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 다음은 인구통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세)
직 업	① 농·임·어업	② 생산직	③ 사무직	④ 자영업	⑤ 공무원
	⑥ 서비스직	⑦ 전문직	⑧ 관리직	⑨ 대학(원)생	⑩ 가정주부
학 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졸업 이상	
거 주 지					

◆ 백제 옛길 조성과 관련하여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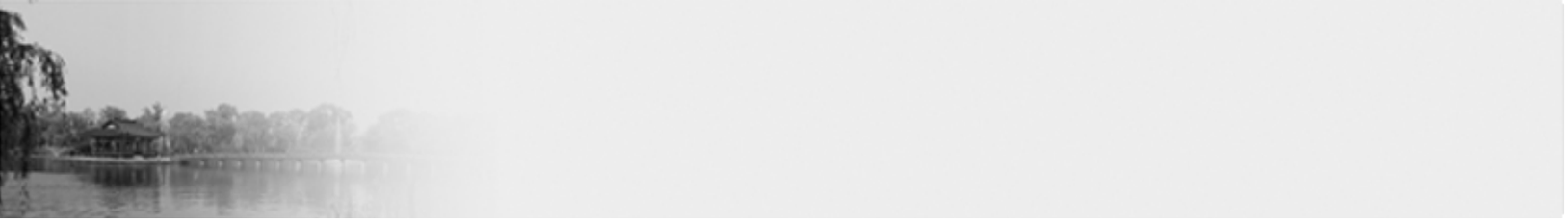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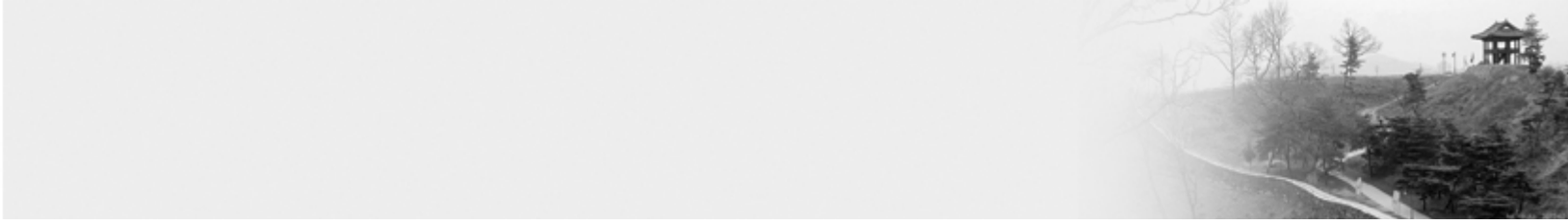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2. 지역별 역사문화자원

1) 공주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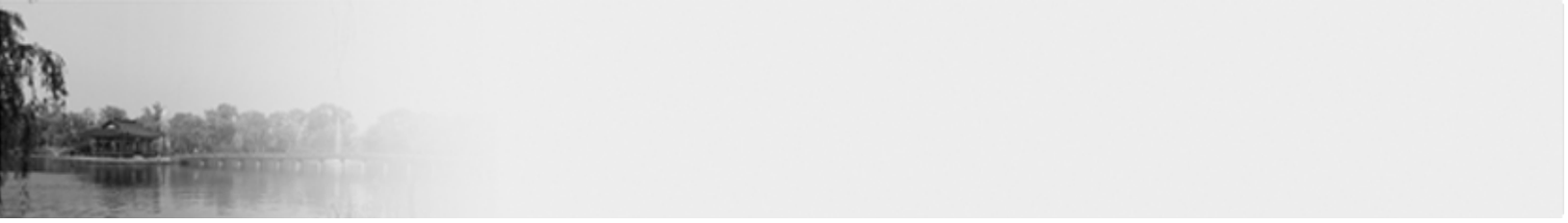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구분		주소
문화재	수촌리고분군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외 일원
	무령왕릉(송산리 고분군)	공주시 금성동 산5-1
	공산성	공주시 금성동
	성곡사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산2
	동학사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
	영평사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441
	갑사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신원사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8
	마곡사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공주 장선리 토실유적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6 일원
	공주 정지산유적	공주시 금성동 산1외 7필
	우금치전적지	공주시 금학동 327-2 외
	공주 석장리구석기유적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외
	공주 학봉리 도요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12일원
	선화당	공주시 웅진동
	포정사문루	공주시 웅진동
	마곡사심검당 및 고방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공주 상세동 산신도	공주시 유구읍 세동리 상세동마을
	영은사	공주시 금성동 11-3
	공주소학리효자향덕비	공주시 소학동 76-6
	공주가척리석탑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5
	공주상신리당간지주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소재 184-1
	연평부원군신도비	이인면 만수리 524
	공주향교	공주시 교동 211
	공주 오룡리귀부	이인면 오룡리 295
	공주동원리석탑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380
	충현서원유적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81
	고간원지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81
	금학동 고분군	공주시 금학동 45-5 일원
	공주중동성당	공주시 중동 31-2
	공주옥녀봉성	공주시 중동 31-2
	공주구룡사지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389외 11필
	공주주미사지	공주시 주미동57
	공주서혈사지	공주시 웅진동 207-3외 3필
	공주수원사지	공주시 옥룡동 111외 2필
	공주남혈사지	공주시 금학동 93외 2필
	공주귀산리만경노씨삼의사생가지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94
	계룡산 초혼각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
	김종서장군묘	장기면 대교리 산45
	영규대사묘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산5번지
	김옥균 생가유허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38
	공주신관리석실고분	공주시 신관동 산14
	당간지주	



주요 관광지	공주한옥마을	공주시 웅진동 337
	정안천 자연생태공원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03
	공주 파충류곤충체험관	공주시 이인면 복룡리 422
	고마나루	공주시 웅진동 산22-1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지	공주시 금성동 601
	솔바람길	공주시사곡면운암리567
	공주도령서당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수리치골성지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 산376
	마곡사 장승공원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11-1
	금강자연휴양림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5-3
	금강수목원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5-3
	이안숲속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648-3
	상원계곡(상원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산	연미산	공주시 쌍신동
	봉황산	공주시 반죽동
	운암산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계룡산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77
	무성산	공주시 사곡면
	월성산	공주시 옥룡동
	태화산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박물관/전시관	임립미술관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791-1
	고토도예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선화당	공주시 웅진동 332-9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 26-3
	계룡산 조각공원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박정자삼거리
	농경문화자료관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공주시 무릉동
	공주 민속극박물관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357
	충남역사박물관	공주시 중동 284-1
	국립공주박물관	공주시 웅진동 360
	석장리박물관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지당자연사박물관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95
체험관광자원	용문서원 어린이 체험 경제교실	공주시 옥룡동 상왕2통 340-4
	팜스피아관광농원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배랑농원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7-12
	마곡사템플스테이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갑사템플스테이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대룡1리무르실고추마을	공주시 신풍면 대룡1리 400-5
체험마을	풀꽃이랑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달원	공주시 정안면 쌍달리
	영천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분청사기골	공주시 반포면 온천1리
	산수박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자연애밤토랑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장익는마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약나무마을	공주시 이인면 구암1
	예술과 마을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484
	내문리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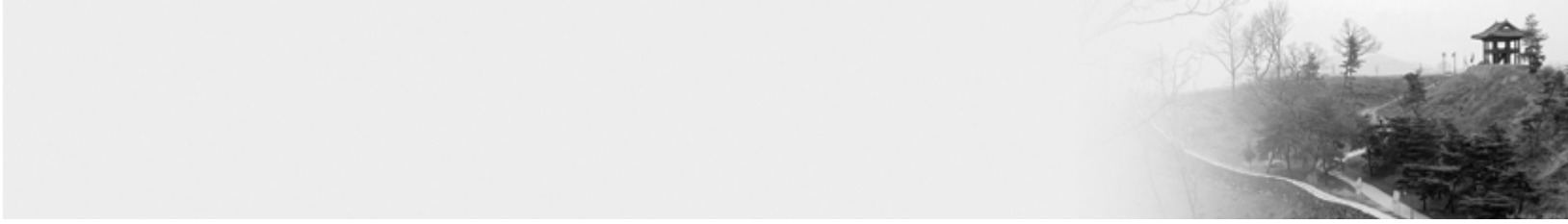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어물리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산수박마을	유구읍 동해리
	올푸른 우렁이마을	유구읍 만천1리
	구난이 약나무마을	이인면 구암2리
	장익는 마을	이인면 초봉리
	계룡산 우와마을	계룡면 기산1리
	계룡뜰 자전거 마을	유평1리
	도담골 호반마을	도신리
	예하지 서당골	두만리
	구시울 솟대마을	온천1리
	돌담풍경마을	상신리
	자연애밤토랑마을	산성리
	꽃내미 풀이랑마을	고성리
	아이손 고사리마을	내문리
	달빛 영근마을	쌍달리
	허수아비마을	문천리
	무성산 홍길동 마을	한천리
	산하람레포츠마을	반촌리
	예울림 물레방아마을	봉현리
	노루목마을	내산1, 2리
	지게마을	선학리
	무르실 고추마을	대룡1리
	부엉산 다람이마을	상왕2통
	천탑마을	부곡리
스토리 자원	공주 수원산 미륵선화 전설	
	부처당이	부처당이 마을 유래(탄천)
	대통사	공주 중학동
	마명암	마명암 애화(계룡산)
	남매탑	오누이탑(계룡산)
	효가리	효자에 대한 전설지
	당골	당나라군 주둔지 당암리 1구
	팥죽고개	효녀의 애화(이인)
	옥녀봉	오영일가 이야기(신풍)
	구리내	구리내의 연유(우성)
	웅천	웅진의 유래, 고마루 전설, 곰나루, 곰하나루
	장군바위	바위틈에서 나온 장군 이야기(중학동)
	병풍바위	병풍바위 전설(중학동)
	엄대암	백제 멸망 장군 이야기(신풍)
	고마니 고개	백제 멸망 출정 장정들을 기다린 고개(장기)
	능현(능고개)	백제 왕릉터 이름(공주)
	용못	백제시대 구두쇠 이야기(계룡)
	예울림 물레방아마을	봉현리
	노루목마을	내산1, 2리
	지게마을	선학리
	무르실 고추마을	대룡1리
	부엉산 다람이마을	상왕2통
	천탑마을	부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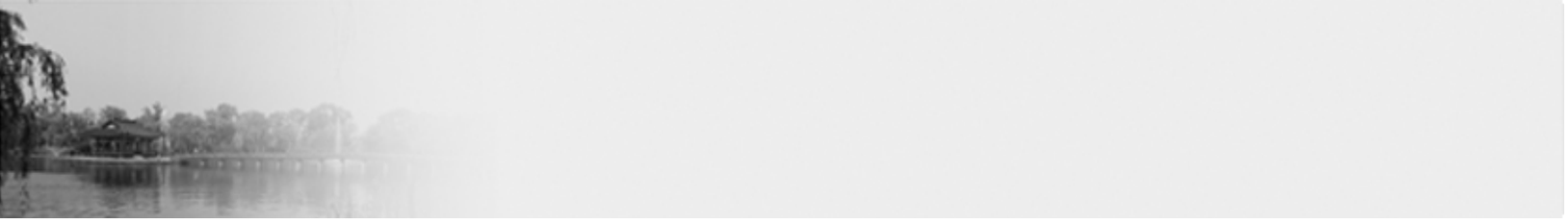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2) 논산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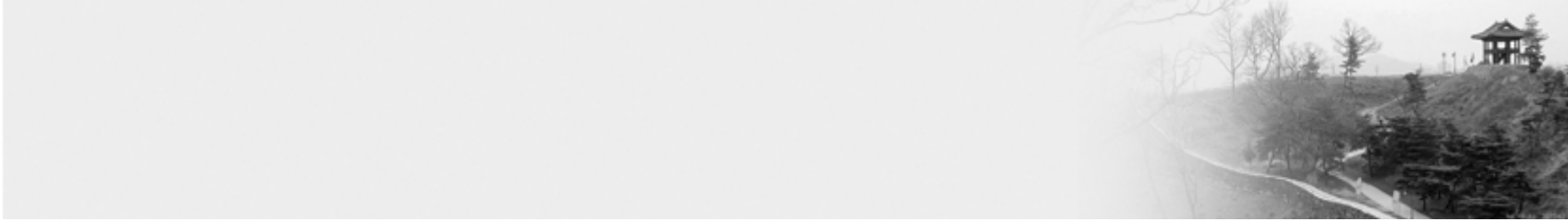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구분		주소
문화재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논산 명재 고택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
	논산 관촉사 석등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성주도씨 종중문서	논산시 연산면 관동길 66-21
	남양전씨 종중문서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563번길 71
	연산 화악리의 오계	논산시 연산면 화악2길 38-5
	논산 돈암서원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1-1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윤증 초상 일괄(尹拯 肖像 一括)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
	윤증가의 유품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614-11
	논산 쌍계사 대웅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3
	남양전씨 종중문서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563번길 71
	논산 노강서원 강당	논산시 광석면 오강길 56-5
	연산아문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로1528-7
	김장생문묘배향교지	논산시 연산면 고정길250
	충곡서원지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산13
	갈산리곰솔(쌍군송)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산26-22
	개태사지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29-1일원
	김장생선생묘소일원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산7-4일원
	논산표정리고분군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411-1
	논산 육곡리 고분군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산7-5
	노성향교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 길54
	성동 은행나무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353-3
	임이정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20-8
	팔괘정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86
	연산 천호리 비로자나불	논산시 연산면 천호 3길64
	김장생 문묘 배향 교지	논산시 연산면 고정길 250
	파평윤씨 종학당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39-6
	연산 백중놀이	논산시 연산면 연산4길 10-4
	황산성	논산시 연산면 관동리 산63번지
	계백장군 유적 전승지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산4번지 일원
	황화(봉화)산성	논산시 등화동 산2번지
	은진향교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427번길 14-1
	견훤왕릉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산18-3
	논산 신풍리 마애불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20-7



	논산 덕평리 석조여래입상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 129-44
	논산 탑정리 석탑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64-4
	이삼장군 유물	논산시 상월면 주곡길45
	익성군 신도비 및 무석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산 93-
	은진 관촉리 비로자나석불	논산시 관촉로 31번길 18-1
	고정리 양천 허씨 정려	논산시 연산면 고정1길 32
	용서.봉계.성재공 문집판각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66
	윤황선생 고택	논산시 노성면 장마루로 716번길 132
	논산 상도리 마애불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산63
	논산 충헌사	논산시 상월면 주곡1길 16
	논산 원목다리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193-2
	강경 미내다리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541
	논산 신풍리 마애불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20-7
	김계휘 신도비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산13-1
	영사암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18
	돈암서원 유경사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개태사 철확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614-11
	이삼장군 고택	논산시 상월면 주곡길45
	노성 궐리사	논산시 노성면 교촌길35
	연산향교	논산시 연산면 관동1길88-12
	강경 미내다리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541
	관촉사 배례석	논산시 관촉로 1번길25
	무안박씨요여	논산시 상월면 학당리368
	김만증 초상	논산시 연산5길 28-45
주요관광지	탑정호	논산시관촉로1번길254
	대둔산	논산시벌곡면수락계곡길산14-1
	계백장군유적지	논산시부적면신풍길산14
산	계룡산	논산 상월면 상도리
	대둔산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박물관/전시관	백제군사박물관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체험관광자원	KT&G상상마당 논산	논산시 상월면 한천길15-20
	명재고택	논산시노성면노성산성길50
	토감	논산시노성면노티리205-1
	지장정사	논산시노성면화곡리44-7
	양지서당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구 457-3
체험마을	도정 체험마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딸기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덕곡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오골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삼태미	논산시 노성면 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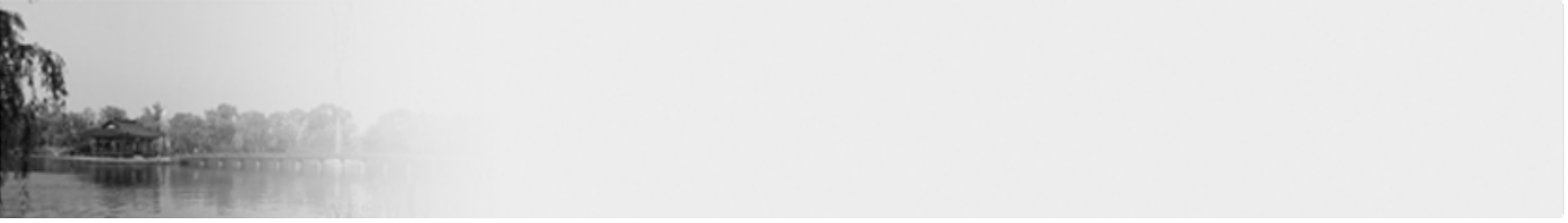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평매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덕바위	논산시 연산면 덕암1
	포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시골애	논산시 광석면 율리
	사월1리	논산시 광석면 사월1
	황산벌참살이마을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산채마을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만목리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오산리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율리지구	논산시 광석면 율리
스토리 자원	등화산성	불빛이 밝혀진 등화산성(논산 등화리0
	황산성	계백장군가 향교골 성(연산)
	개태사	개태사의 연기설활(연산)
	궁골	의자왕이 궁궐을 지었던 궁골(성동)
	마구평	말 아홉마리가 나타난 마구평(부적)
	한삼천	백제의 한이 서린 황산벌과 한삼천(벌곡)]
	제전리	부인처면 제전리(부적)
	왕전리	임금이 토지로 보상
	우기리	임금터 우기리(채운)
	닭다리들	견훤에 대한 전설(연무)
	황산성	일명 천호산(연산)
	황화산	황화대(은진)
	마낭바위	백제장수 충절
	도적굴	백제 용사들의 의지가 담겨진 도적굴(성동)
	수쾡이 굴	숙향이 굴이야기(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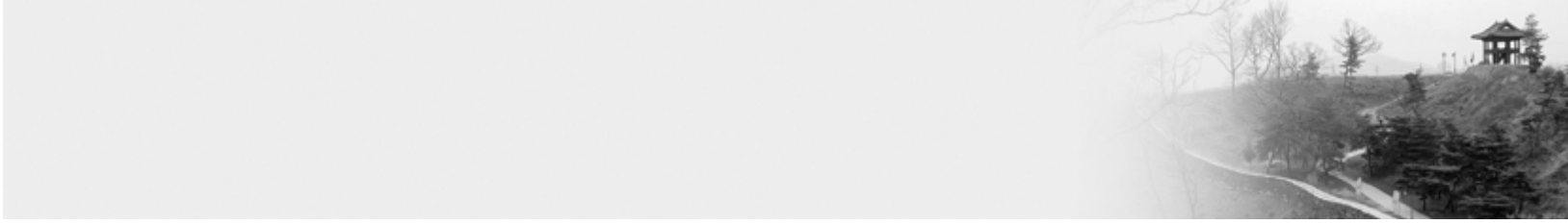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3) 부여군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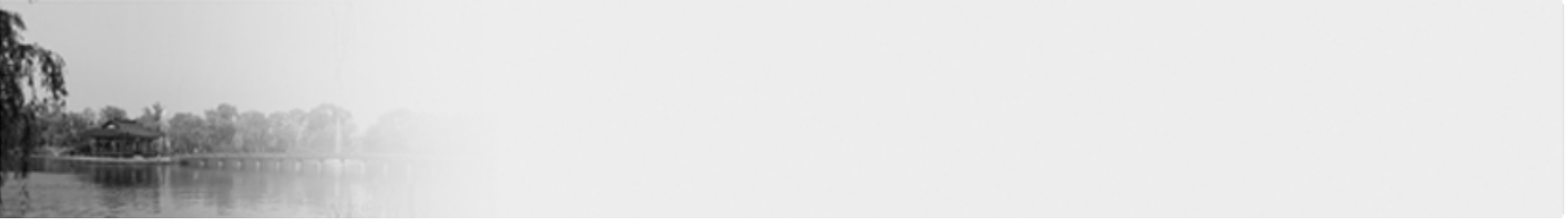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구분		주소
문화재	부여정림사지5층석탑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당유인원기공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보광사 대보광선사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부여정림사지석불좌상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부여장하리3층석탑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부여석조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무량사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오덕사괘불탱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체제공영정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김시습영정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성흥산성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부소산성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부여능산리고분군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부여청마산성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부여군수리사지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부여나성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부여청산성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부여석성산성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부여쌍북리요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궁남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증산성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부여정림사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부여 정암리와요지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부여능안골고분군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부여화지산일원유적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부여왕흥사지	부여군 규암면 신리
	부여관북리백제유적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부여능산리사지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부여금강사지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홍산현관아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부여민칠식가옥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부여정계채가옥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부여 구드래일원	부여군 부여읍
	부여반교마을 옛 담장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부여 신동엽 가옥터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구홍산저포조합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부여 내산면의 은행나무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부여세탑리5층석탑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현내리부도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금성산석불좌상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부여석목리석조비로자나불좌상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무량사김시습부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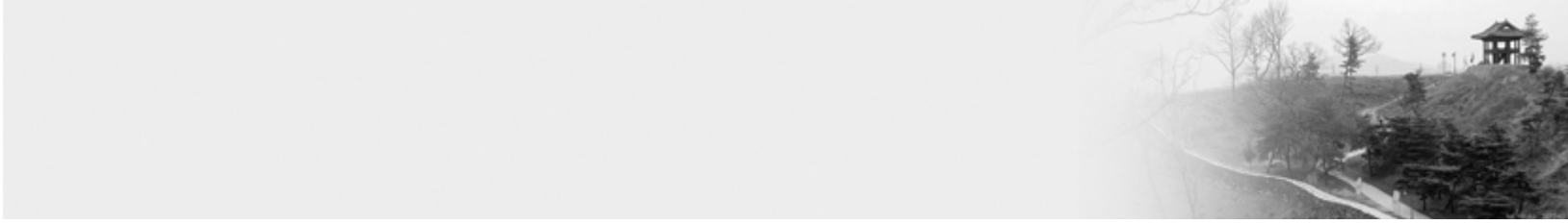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부여 홍양리5층석탑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의열사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부산각서석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무량사당간지주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부여동헌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홍산객사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석성동헌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흥학당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홍산상천리마애불입상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
	홍산동헌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부여김동효영정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홍산형방청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정언묵영정 및 화깁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홍산만덕교비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창열사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전득우묘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호암사지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임강사지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부여산직리지석묘	부여군 초촌면 산직리
	부여 쌍북리북요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부여 태양리 백제석실고분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용정리사지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천정대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동남리사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동남리전천왕사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중정리건물지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부여용정리소룡골건물지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부여지선리고분군	부여군 외산면 지선리
	부여구아리백제유적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부여보광사지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부여향교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석성향교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임천향교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홍산향교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부여금사리성당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은산당산성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수신리반송	부여군 외산면 수신리
	부여 부소산성 서복사지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이정우가옥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금암리오층석탑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화성리오층석탑	부여군 외산면 화성리
	대조사석탑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퇴수서원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동곡서원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청일사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고란사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사자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수북정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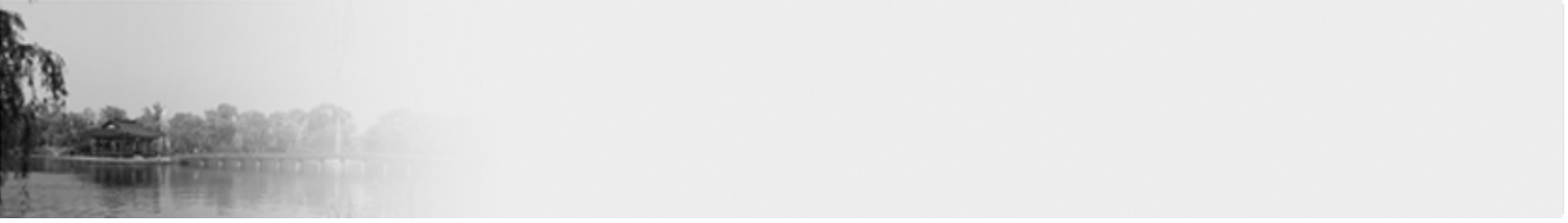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영일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칠산서원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팔각정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동남리석탑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박물관석탑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박물관석조여래입상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창강서원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백화정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군창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낙화암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황일호의 묘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김거익의 묘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의열사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삼충사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도강영당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선조대왕태실비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가교비	부여군 옥산면 상기리
	조신의 묘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유경종묘내유물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동사리석탑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부여동매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덕림병사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민입암집판각	부여군 규암면 모리
	홍산태봉산성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부여저동리쌀바위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무량사구지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부여 용당리 우물	부여군 구룡면 용당리
	유태사지묘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오덕사 어필각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조왕사석탑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도천사사적비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독락정지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영모당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신정리함양박씨제실	부여군 부여읍 신정리
	은산금공리산신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팔충사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충화지석리지석묘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도천사지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박경후 영정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나복리 고인돌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귀덕리고인돌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
	오량리고인돌	부여군 양화면 오량리
	석성리고인돌군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태양리고인돌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송암리호암고인돌군	부여군 남면 송암리
	내곡리고인돌	부여군 남면 내곡리
	북고리 고인돌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안서리고인돌	부여군 옥산면 안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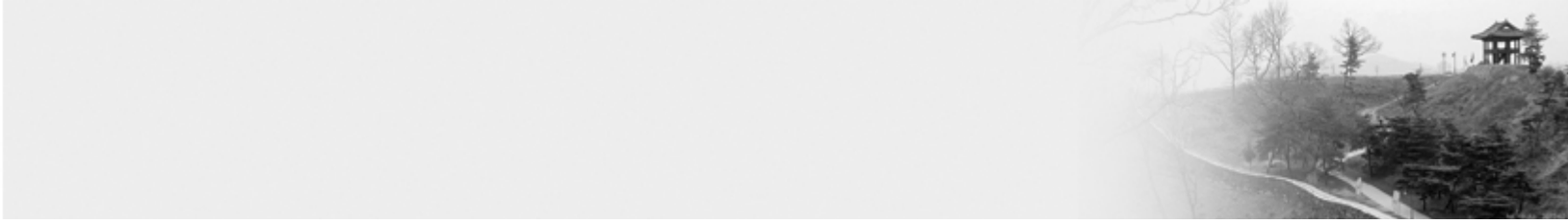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함양리고인돌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현미리고인돌	부여군 충화면 현미리
	왕의영당	부여군 양화면 초왕리
	천진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간곡서원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이상진묘, 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정흥인묘역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정득열묘, 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홍윤성묘, 비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내산 윤집묘 및 신도비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
	황일호신도비 및 황진효자각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가탑리사지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만덕교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영천군파 세장지석물일괄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
	김문기영정	부여군 임천면 탑산리
	장벌리탑제및동화제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김시생유품 및 천하도 · 조선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도아곡서원 흥학당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월함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부산서원 고문서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장하리 사지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무량사 영산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의혜공주 태실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석성 정각사부도군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세도 가회리 장군제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부여기세철제불망비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충화학음정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
	부여모선재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유찬근가옥	부여군 규암면 신리
	홍산객사 은행나무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홍산향교 은행나무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규암부풍사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내산 궁검대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임천 성흥산성 느티나무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임천관아터 소나무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남면 마정리우물	부여군 남면 마정리
	부여 관음사지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부여 밤골사지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세도삼의정터 및 제방림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임천가림수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동래정씨정언욱가고문서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이민철묘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가증리 김광악정려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염창리류승춘부부정려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정암리 청도김씨정려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장산리 임채원정려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주요관광지	만수산자연휴양림	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구드래국민관광지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서동요테마파크	부여군 충화면 가화라
박물관/전시관	인삼박물관	부여군 규암면 내리
	식물박물관 백제원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정림사지박물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백제역사문화관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국립부여박물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김영학조각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백제금동대향로 조형물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백제오천결사대 충혼탑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체험관광자원	부여곤충나라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66-5번지
	시우리마을	부여군 남면 내곡리 174-4번지
	송죽녹색농촌체험마을	장암면 원문1리 311-2
	팜스테이마을	부여읍 정동2리 1027-1
	녹색농촌체험마을	부여읍 정동2리 1027-1
	알밤줍기 체험행사	외산면 화성리 573번지 달하산농장
	농촌전통테마마을	초촌면 신암리 친환경마을 일원
	농장체험 및 수영	남면 금천리 210번지
체험마을	백제인동	은산면 거전리
	부여기와	부여읍 정동 2
	송죽	장암면 원문리
	신암친환경마을	초촌면 신암리
	홍연마을	옥산면 홍연리
	삼산리	외산면 삼산리
	거전리	은산면 거전리
	각대리	은산면 각대리
문화체험	백제요	부여군 부여읍 가증리
	선도예	내산면 묘원리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옥산면 홍연리
스토리자원	군창지와 반월성	부소산성 백제시대 군창지
	성흥산성	우렁봉과 우두산성(임천)
	송우산성	백장장군이야기(임천)
	발다리	족교리(양화)
	문동교	소정방과 금송아지 이야기(임천)
	하마비	문둥다리전설(세도)
	조석다리	백제시대 효자이야기(남면)
	유금필	사당의 구가와 가림성, 유장군 목상(임천)
	영일루	영일루의 용을 바라보던 영일루(부여)
	해태	해타의 신력(장암)
	석련지와 백제탑	
	대조사 미륵	임천 성흥산
	왕흥사	규암
	대조사 창건 연기설화	대조사의 유래(임천)
	고란사	고란초, 고란사 효종(부여읍)
	조왕사와 범황사	백제시대 절터(부여읍, 충화면)
	팔충면	백제 여덟충신 출생지(임천)
	반조원	소정방이 황제의 명령을 전한 곳(세도)
	장군동	군장동 전설, 장군동 당나라군 은둔지(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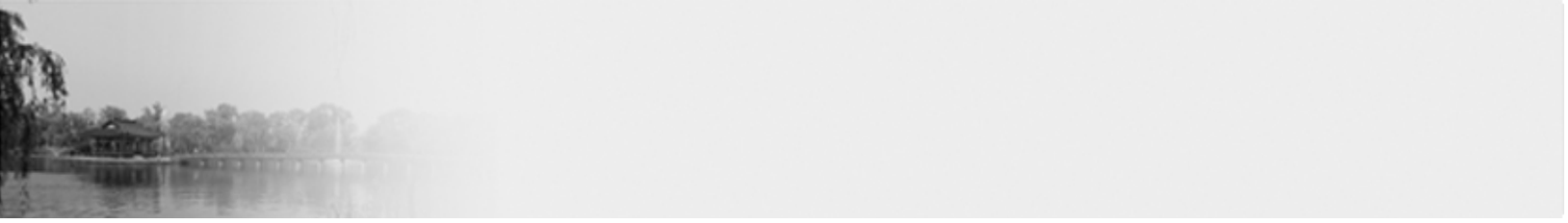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사근다리	삭은 다리 이야기
	구두레	백제는 크다, 크다의 뜻(부여읍)
	천당리 인근의 지명유래	계백장군 출생지 추정
	황새말	백제시대 황새마을 이야기(내산)
	연화리	연화지의 두 도령(초촌)
	무성산	성이 없는 산(임천)
	꽃쟁쥐	꽃쟁이집 이야기
	만가대와 진일포이야기	
	파진산	파진산 지명전설(노적봉 전설), 파진산 유래(석성)
	망심산	백제출신 귀양지(구룡)
	부산	더 내려온산, 부산의 유래(규암)
	유왕산	유왕산에 얽힌 이야기(양화)
	사당산	사당산 이야기(양화)
	마가산	마가산 선녀(옥산)
	옥녀산	백제시대 임금 사냥터(장암0
	시루봉	백제시대 신하들 좌객 산(장암)
	백마강	소정방 백마와 용의 전설(부여)
	대왕포	백제 무왕 연회장소(부여)
	진일포	진일포 전설(규암)
	고성진	사자하(부여)
	조룡대	백마강 조룡대 전설, 조룡대-구린내 동네, 조룡대의 유래(부여)
	자온대	자온대와 이무기(규암)
	천정대	홍암사 정사암, 하늘에서 정사를 정해준 천정대, 백제왕이 피신했던 곳으로 대신들의 천의를 받아 정사한 곳, 비밀정치 밀담장, 기상을 관측하던 곳(규암)
	희녀대	백제 의자왕 연회궁(석성)
	치마대	백제왕 치마대 전설(장암)
	쌀바위	미암사(내산)
	엿바위	자온대 바위
	남매바위	성재산의 남매바위(규암)
	만광지	맹괭이방죽, 소정방과 맹갱이(부여읍)
	궁남지	궁남지의 유래(부여읍)
	원숭이 못	원숭이 못 전설(초촌)
	유왕산 놀이	유왕산과 그 인근의 지명 유래(양화)
	별신제	은산 별신당(은산)
	혈순당 당제	혈순당의 벽화(부여읍)
	유태사 성황제	태성산의 성황제(유금필), 장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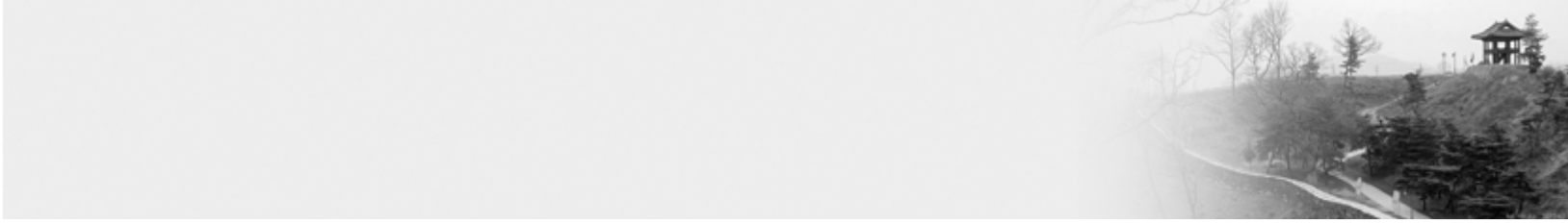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4) 서천군 자원

구분		주소
문화재	서천성북리오층석탑	비인면성북리18
	건지산성	한산면지현리산3
	이상재선생 생가지	한산면종지리263회4필
	이색선생묘일원	기산면 영모리 산1-1
	서천남산성	서천읍 남산리 산 22-1외 4필
	서천장암진성	장항읍 장암리 산1-1외 20필
	비인향교	비인면성내리169
	서천향교	서천면군사리315
	한산향교	한산면지현리389
	마량리동백나무숲	서면마량리산14
	이색신도비	기산면영모리18
	수암리3층석탑	문산면수암리26
	봉남리3층석탑	마서면봉남리58
	지석리3층석탑	종천면지석리26
	서천읍성	서천읍군사리823
	한산읍성	한산면지현리10
	율리사	비인면율리193
	봉서사	한산면 호암리 195
	서천건지산성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서천봉선리유적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외
	서천신송리곰솔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가정목은선생문집판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312
	서천 이하복 가옥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
	지현리3층석탑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주요관광지	마량리동백나무숲과해돋이	서천군 서면 마량리
	금강하구둑철새도래지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신성리갈대밭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춘장대해수욕장	서천군 서면 도둔리 400
	희리산자연휴양림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산35-1
	장항송림산림욕장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서천특화시장	서천군 서천읍 6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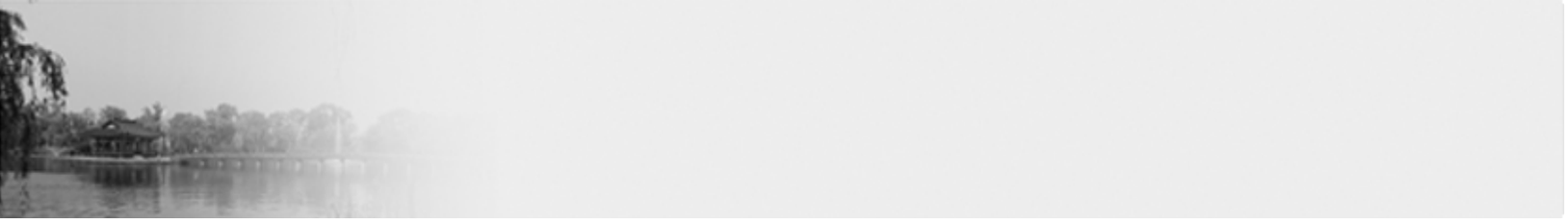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산	천방산풍광	서천군 문산면 신농리
박물관/전시관	금강하구둑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한산모시관	서천군한산면지현리60-1
	조류생태전시관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
	서천천해양박물관	서천군 서면 마량리
체험관광자원	행복체험	비인면 남당리
	들꽃동산	시초면 선암2
	이색체험마을	기산면 화산리
	달고개 모시마을	화양면 월산리
	황새마을	마서면 계동리
	월하성	서월호
	계동지구	마서면 계동리
	동백꽃마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이색체험마을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행복마을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달고개모시마을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 175-2번지
	들꽃동산마을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115
	월하성갯벌체험마을	서천군 서면 월호리
	송석갯벌체험마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선도리갯벌체험마을	서천군비인면선도리
	심동마을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봉선수변마을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스토리자원	천방사	천방산의 설림사, 천방사와 소정방(문산)
	천방산	소정방이 제사를 지낸 천방산, 설림산(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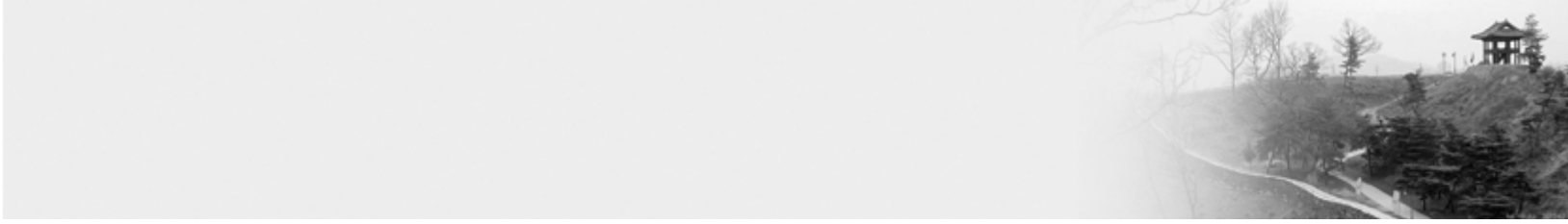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5) 청양군 자원

구분		주소
문화재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	청양군 대치면
	장곡사 미륵불괘불탱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산 15-37
	채제공선생영정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146
	청양서정리구층석탑	청양군 정산면서정리16-2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청양군대치면장곡리15장곡사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청양군대치면장곡리15장곡사
	청양 장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	청양군대치면장곡리15장곡사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청양군 남양면 온암리 산50-1
	청양장곡사 금동여래좌상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29장곡사
	전 박신용 장군 의대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청양화정사 목조보살좌상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262-4
	청양화정사 범종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262-4
	장곡사 설선당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15
	도림사지 삼층석탑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산8-1
	정산남천리석탑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10탑골
	청양영모재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73-1
	우산성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4-2외 7필
	청양도림사지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667외 3필지
	정산향교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16-2
	청양향교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16-2
	청양 임동일 가옥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222
	청양 임석주가옥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323
	청양임찬주가옥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 322
	청양윤남석가옥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86-1
	청양평택임씨 재실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299
	계봉사 오층석탑	청양군 목면 본의리 610-8
	청양삼층석탑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산4-2
	정혜사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486
	모덕사	청양군 목면 송암리 171-1
	유의각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629-1
	표절사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365
	두릉산성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방기옥 가옥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150
	두률성	청양군장평면적곡리산8-1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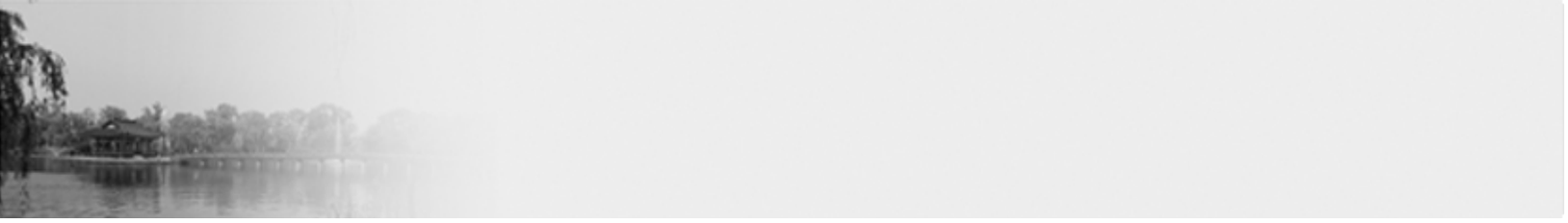


	민종식고택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148
	두촌사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311
	청양향교 공자상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34-1
	정혜사 중암목불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4 86
	금정우물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주요관광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산73
	칠갑산천문대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526-3
	천장호출렁다리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칠갑산장승공원	청양군 화양면 월산리
	까치네유원지	청양군 마서면 계동리
	고운식물원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389-2
산	칠갑산	청양군 대치면
박물관/전시관	-	-
체험마을	은골구기자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장곡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칠갑산산꽃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꽃 뫼	청양군 장평면 화산2
	용꿈꾸는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까치내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금바위	청양군 화성면 현암리
	용천방한	청양군 비봉면 용천,
	고인돌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사자산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바둑골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가파마을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오룡리	청양군 대치면 오룡리
	도림리	청양군 장평면 도림리
	장곡리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백곡리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스토리자원	왕진나루	왕이 다녀간 나루(청양군 청남면 왕진리_
	금정우물	왕이 마신 우물(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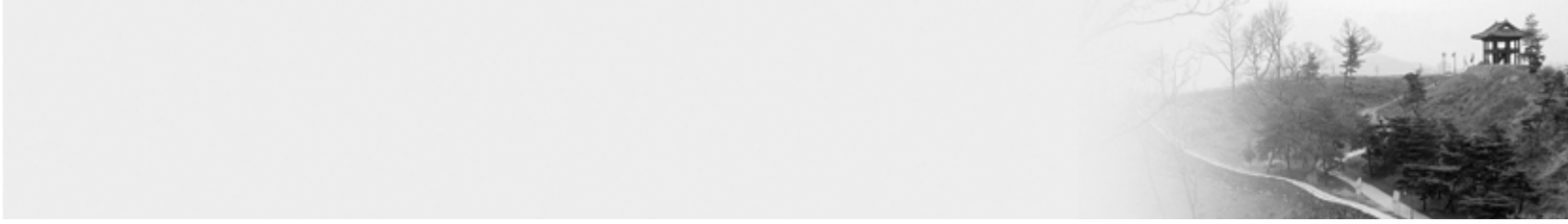
6) 세종시 자원

구분		주소
문화재	연기 연화사 칠존불비상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화사길 28-1
	연기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화사길 28-1
	봉산동 향나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황룡사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황우재길 22-17
	금이성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산86, 전의면 양곡리 산52
	운주산성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청송리, 전의면 동교리, 신정리
	연화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화사길 28-1
	학림사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룡로 353
	관음암(관음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공단2길 51-1
	청안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가느실길 128-23
	신광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토골고개길 24
	비암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
주요관광지	고복저수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용암리
	감성리백로서식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감성리 산 14
	뒤웅박고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배일길 90-43
	연기대첩비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용암리
	베어트리파크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신송로 217
	금강자연휴양림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산21-1
산	오봉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박물관/전시관	향토사료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양대길 34-4
	교과서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 25-1
	충남산림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체험마을	나리마을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청라1길 6-6
	청솔마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배일길 124
	소정면고등리삼기효소 녹색농촌체험마을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매실로 309
	전통테마마을금사가마골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금사길 12



7) 익산시 자원

구분		주소
문화재	미륵사지석탑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익산 왕궁리오층석탑내 발견유물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익산왕궁리오층석탑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익산연동리석조여래좌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미륵사지 당간지주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연안이씨종중문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숭림사 보광전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익산쌍릉	익산시 석왕동 산55
	익산토성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50-3
	익산미륵사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화산천주교회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58
	입점리고분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
	익산제석사지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왕궁리유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80-1
	천호동굴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이리농악	익산시 모현동2가
	이리향제줄풍류	익산시 신동 806-1
	태봉사 삼존석불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청동은입인동문향로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
	망모당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익산향교대성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여산동헌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함벽정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소세양신도비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남궁찬묘석상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혜봉원목조석가여래삼존상	익산시 모현동 1가
	심곡사칠층석탑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176
	이병기선생생가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낭산산성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산48
	백제토기도요지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92-2
	삼세오충열사	익산시 용안면 중신리
	금마도토성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웅포리고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천호산성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
	사자사지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율촌리고분군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성당면의 은행나무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321
	여산숲정이순교성지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김안균가옥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모현동부도	익산시 모현동
	여산향교대성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함열향교대성전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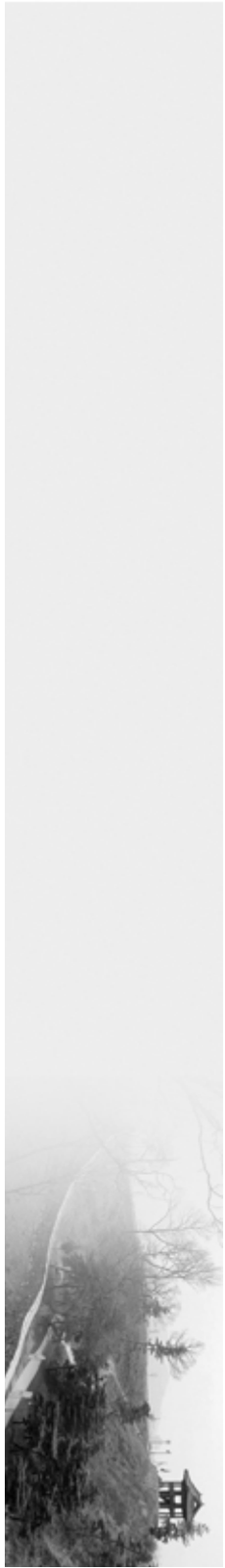
	용안향교대성전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심곡사대웅전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176
	남원사미륵전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문수사대웅전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조해영가옥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유계신도비 및 남원윤씨 절행정판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미륵사지등 하대석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소자파묘비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심곡사 목조삼존불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176
	어래산성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두동교회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523
주요관광지	금마저수지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배산체육공원	익산시 모현동2가 186
	서동공원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33
	웅포곰개나루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8-2
	웅포대교	익산시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중앙체육공원	익산시 어양동 52
산	함라산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웅포면 웅포리
박물관/전시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
	보석박물관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75-1
	솜리문화에술회관	익산시 마동 58
	왕궁리유적전시관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562
	원광대학교박물관	익산시 신용동 344-2
	원불교역사박물관	익산시 신용동 344-2
	익산문화원	익산시 어양동 산 94
	입점리고분전시관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 174-1
	주얼팰리스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44-5
	화석전시관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75-1
	교도소세트장	익산시 성당면
체험마을	두동편백마을	성당면 두동리 382-5
	두여정보화 마을	여산면 두여리 562-4
	미륵산자연학교	삼기면 연동리 204
	성당포구마을	성당면 성당리 425
	어량정보화마을	망성면 어량리 1442-
	장원목장	웅포면 대붕암리 3-8
	팔봉도자기마을	금마면 기양리 125-10
	함라초당	함라면 신목리 1139-10
스토리자원	기준성	익산미륵산꼭대기
	미륵사	꿈에 얽힌 미륵사 창건이야기(왕궁)
	왕궁탑	후백제와 왕궁탑 창건이야기(익산)
	미륵탑	미륵탑 창건에 얽힌 사연(익산)
	금마산	견훤의 말
	오금산	서동이 마를 캐던 산
	마룡지	서동왕 어머니가 축실(익산)

3. 루트별 역사문화자원

1) 1루트 역사 · 문화자원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공주시	무령왕릉	고마나루	국립공주박물관	곰나루관광지	연미산	장익는 마을	공주 수원사 미륵선화 전설
	공산성		충남역사박물관		정지산	약나무 마을	부처당이
	황새바위순교지		지당자연사박물관			대학리 뗏목마을	대통사
	효자향덕비		파충류곤충체험관				마명암
	우금티		임립미술관				남매탑
	연평부원군 신도비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효가리
	숭선군묘						당골
	영규대사묘						팥죽고개
	충헌공윤전사우						옥녀봉
	화산영당						구리내
							웅천
							장군바위
							병풍바위
							엄대암
							고마니 고개
							능현(능고개)
							용못
부여군	천정대	구드래나루	국립부여박물관	구드래관광지	부소산	성흥산산림욕장	군창지와 반월성
	청산성	갓개포구	사물놀이한울림교육원	서동공원	유왕산	송죽녹색농촌 체험마을	성흥산성
	왕흥사지			서동요테마파크	대흥산	규암문화마을	송우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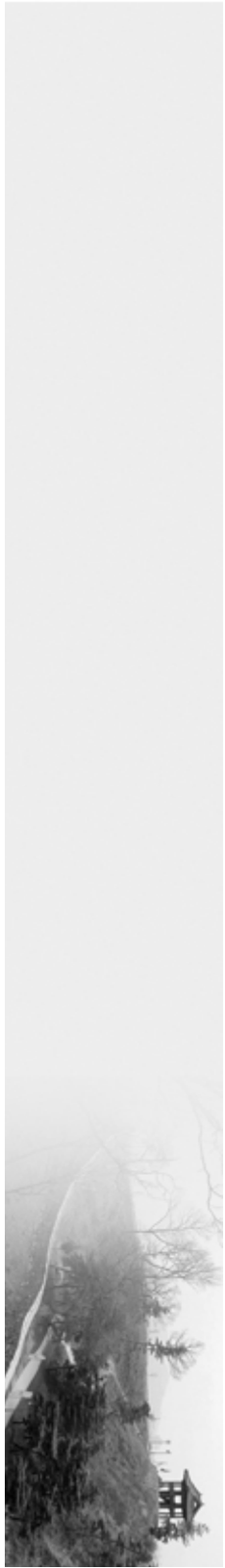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부산(대재각)			백제문화단지	성흥산	부여기와마을	발다리
	정림사지						문동교
	백제왕릉원						하마비
	청마산성						조석다리
	궁남지						유금필
	오천결사대충혼탑						영일루
	부여나성						해태
	금강사지						석련지와 백제탑
	임강사지						대조사 미륵
	석성산성						왕흥사
	현내리부도						대조사 창건 연기설화
	석성향교						고란사
	석성동헌						조왕사와 범황사
	정암리와요지						팔충면
	장하리3층석탑						반조원
	증산성						장군동
	성흥산성						사근다리
	대조사						구두레
	동곡서원						천당리 인근의 지명유래
	귀덕리고인돌						황새말
	임천향교						연화리
	팔충사						무성산
	지석리지석묘						꽃쟁쥐
	보광사지						만가대와 진일포이야기
	오덕사						파진산
	선조대왕실비						망심산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오량리고인돌						부산
	홍산객사						유왕산
	홍산현관아						사당산
	홍양리 5층석탑						마가산
							옥녀산
							시루봉
							백마강
							대왕포
							진일포
							고성진
							조룡대
							자온대
							천정대
							희녀대
							치마대
							쌀바위
							엿바위
							남매바위
							만광지
							궁남지
							원숭이 못
							유왕산 놀이
							별신제
							혈순당 당제
							유태사 성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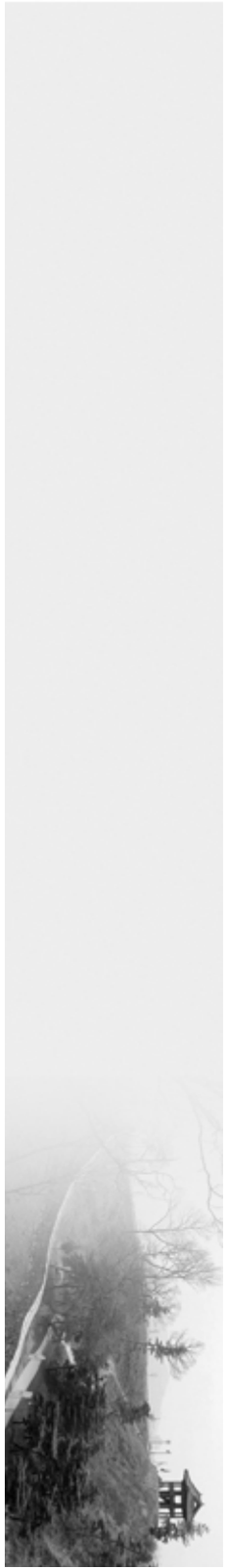
2) 2루트 역사 · 문화자원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부여군	천정대	구드래나루	국립부여박물관	구드래관광지	부소산	성흥산산림욕장	군창지와 반월성
	청산성	갓개포구	사물놀이한울림교육원	서동공원	유왕산	송죽녹색농촌 체험마을	성흥산성
	왕흥사지			서동요테마파크	대흥산	규암문화마을	송우산성
	부산(대재각)			백제문화단지	성흥산	부여기와마을	발다리
	정림사지						문동교
	백제왕릉원						하마비
	청마산성						조석다리
	궁남지						유금필
	오천결사대충혼탑						영일루
	부여나성						해태
	금강사지						석련지와 백제탑
	임강사지						대조사 미륵
	석성산성						왕흥사
	현내리부도						대조사 창건 연기설화
	석성향교						고란사
	석성동헌						조왕사와 범황사
	정암리와요지						팔충면
	장하리3층석탑						반조원
	증산성						장군동
	성흥산성						사근다리
	대조사						구두레
	동곡서원						천당리 인근의 지명유래
	귀덕리고인돌						황새말
	임천향교						연화리
	팔충사						무성산
	지석리지석묘						꽃쟁쥐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보광사지						만가대와 진일포이야기
	오덕사						파진산
	선조대왕실비						망심산
	오량리고인돌						부산
	홍산객사						유왕산
	홍산현관아						사당산
	홍양리 5층석탑						마가산
							옥녀산
							시루봉
							백마강
							대왕포
							진일포
							고성진
							조룡대
							자온대
							천정대
							희녀대
							치마대
							쌀바위
							엿바위
							남매바위
							만광지
							궁남지
							원숭이 못
							유왕산 놀이
							별신제
							혈순당 당제
							유태사 성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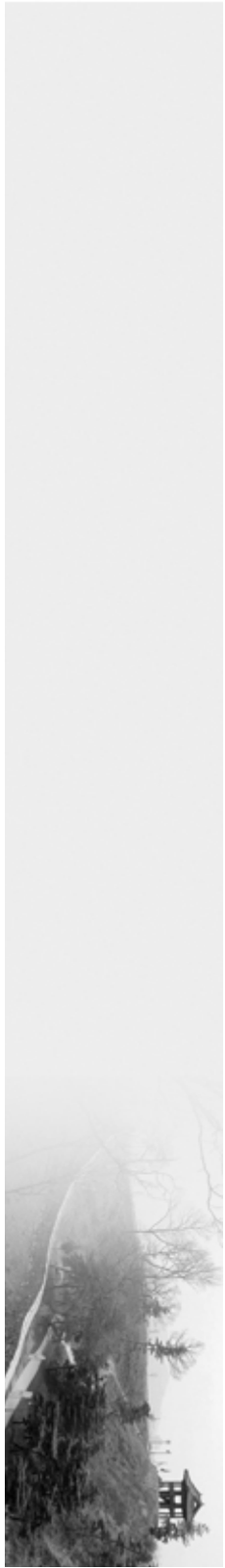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서천군	봉선리유적		한산모시전시관	신성리갈대밭	천방산	달고개모시마을	천방사
	수암리3층석탑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화양습지생태공원	희리산	봉선수변마을	천방산
	지석리3층석탑			금강하구둑 관광지		동백꽃마을	
	서천읍성			김인전공원			
	남산성			장항송림산림욕장			
	이하복가옥			국립희리산해송 자연휴양림			
	장암진성						
	월남이상재선생 생가						
	문헌서원						
	봉서사						
	건지산성						
	한산읍성						



3) 3루트 역사 · 문화자원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서천군	봉선리유적		한산모시전시관	신성리갈대밭	천방산	달고개모시마을	천방사
	수암리3층석탑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화양습지생태공원	희리산	봉선수변마을	천방산
	지석리3층석탑			금강하구둑 관광지		동백꽃마을	
	서천읍성			김인전공원			
	남산성			장항송림산림욕장			
	이하복가옥			국립희리산해송 자연휴양림			
	장암진성						
	월남이상재선생 생가						
	문헌서원						
	봉서사						
	건지산성						
	한산읍성						
익산시	신작리곰솔	성당포구	입점리고분전시관	서동공원	함라산	두여정보화마을	기준성
	나바위성지	웅포곰개나루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왕궁테마보석 관광지	미륵산	성당포구마을	미륵사
	숭림사		왕궁리유적전시관	웅포관광지		붕새언덕마을	왕궁탑
	입점리고분			교도소세트장		미륵산자연학교	미륵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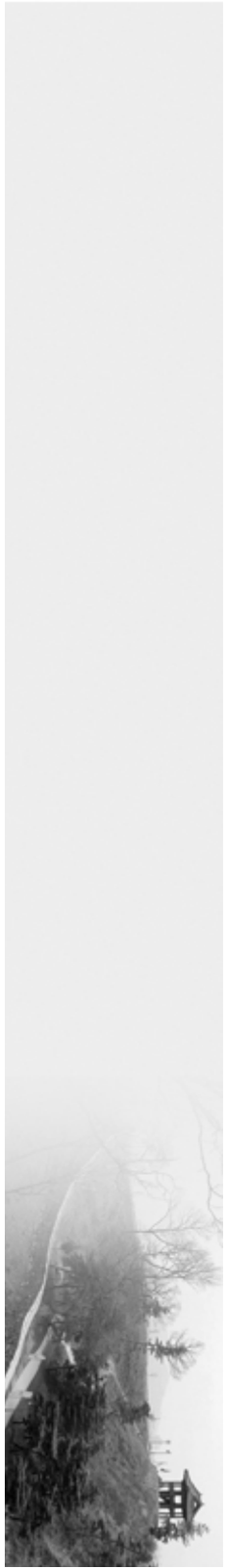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함라한옥마을					풀잎향기체험장	금마산
	조해영가옥						오금산
	김안균가옥						마룡지
	율촌리고분군						
	석불좌상						
	미륵산성						
	심곡사						
	이병기선생생가						
	미륵사지						
	무왕릉(쌍릉)						
	익산토성						
	고도리석불입상						
	왕궁리유적						
	서동생가터						



4) 4루트 역사 · 문화자원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익산시	신작리곰솔	성당포구	입점리고분전시관	서동공원	함라산	두여정보화마을	기준성
	나바위성지	웅포곰개나루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왕궁테마보석관광지	미륵산	성당포구마을	미륵사
	숭림사		왕궁리유적전시관	웅포관광지		붕새언덕마을	왕궁탑
	입점리고분			교도소세트장		미륵산자연학교	미륵탑
	함라한옥마을					풀잎향기체험장	금마산
	조해영가옥						오금산
	김안균가옥						마룡지
	율촌리고분군						
	석불좌상						
	미륵산성						
	심곡사						
	이병기선생생가						
	미륵사지						
	무왕릉(쌍릉)						
	익산토성						
	고도리석불입상						
	왕궁리유적						
	서동생가터						
논산시	백일헌영당		백제군사박물관	탑정호수변생태공원	노성산	지장정사(템플스테이)	등화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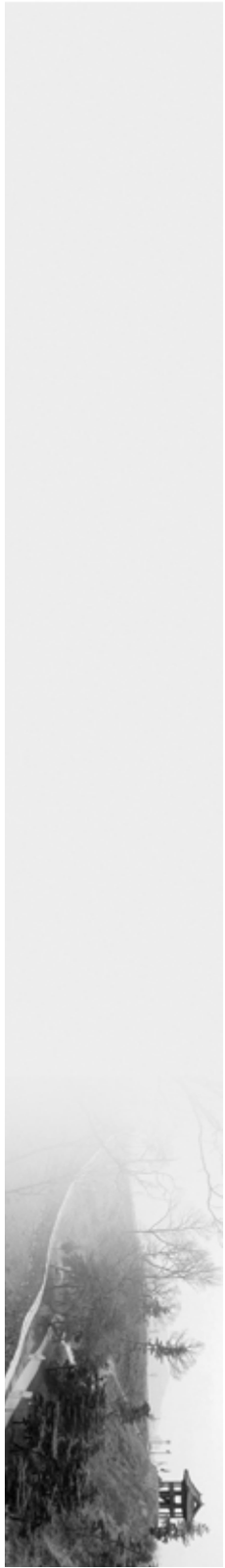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노성산성				향적산	자연미술학교 토감	황산성
	노성향교				옥녀봉	KT&G 상상마당	개태사
	명재고택						궁골
	파평윤씨재실						마구평
	이삼장군고택						한삼천
	임수택가옥						제전리
	황산성						왕전리
	개태사						우기리
	표정리고분군						닭다리들
	돈암서원						황산성
	외성산성						황화산
	황령산성						마낭바위
	충곡서원						도적굴
	계백장군묘역						수쾡이 굴
	관촉사						
	관촉동비로자나석불						
	덕평리석조여래입상						
	탑정리석탑						
	휴정서원						
	김장생묘소						
	산직리산성						
	모촌리산성						
	효암서원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조정서원						
	은진향교						
	행림서원						
	육곡리고분군						
	견훤왕릉						
	덕유정	강경포구					
	죽림서원						
	강경침례교회						
	북옥감리교회						

5) 5루트 역사 · 문화자원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논산시	백일헌영당	강경포구	백제군사박물관	탑정호수변생태공원	노성산	지장정사(템플스테이)	등화산성
	노성산성				향적산	자연미술학교 토감	황산성
	노성향교				옥녀봉	KT&G 상상마당	개태사
	명재고택						궁골
	파평윤씨재실						마구평
	이삼장군고택						한삼천
	임수택가옥						제전리
	황산성						왕전리
	개태사						우기리
	표정리고분군						닭다리들
	돈암서원						황산성
	외성산성						황화산
	황령산성						마낭바위
	충곡서원						도적굴
	계백장군묘역						수쾡이 굴
	관촉사						
	관촉동비로자나석불						
	덕평리석조여래입상						
	탑정리석탑						
	휴정서원						
	김장생묘소						
	산직리산성						
	모촌리산성						
	효암서원						
	조정서원						



구분	유적지	나루	박물관	관광지	산	체험마을	전설
	은진향교						
	행림서원						
	육곡리고분군						
	견훤왕릉						
	덕유정						
	죽림서원						
	강경침례교회						
	북옥감리교회						
공주시	무령왕릉	고마나루	국립공주박물관	곰나루관광지	연미산	장익는 마을	공주 수원사 미륵선화 전설
	공산성		충남역사박물관		정지산	약나무 마을	부처당이
	황새바위순교지		지당자연사박물관			대학리 뗏목마을	대통사
	효자향덕비		파충류곤충체험관				마명암
	우금티		임립미술관				남매탑
	연평부원군 신도비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효가리
	숭선군묘						당골
	영규대사묘						팥죽고개
	충헌공윤전사우						옥녀봉
	화산영당						구리내
							웅천
							장군바위
							병풍바위
							엄대암
							고마니 고개
							능현(능고개)
							용못
	서동생가터						

참여연구진 및 연구자문

■ 연구기관	충남발전연구원	
■ 연구책임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 구 원	권 영 현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경 태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임 형 빈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상 준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권 미 정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김 호 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 비상임연구위원	서 정 석	공주대학교 교수
	이 도 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자문위원	강 종 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김 은 영	비틀맵 대표
	나 태 주	공주문화원 원장
	박 근 수	배재대학교 교수

백제 옛길 조성 연구

□ 인쇄 · 발행 : 2012년 9월
□ 발 행 처 : 충 청 남 도
□ 연 구 기 관 :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 인 쇄 처 : 필성인쇄사

• 본 보고서의 판권소유는 충청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가 불가능함